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동상분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1. 4. 14 (목), 14:00~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최승희(위원장), 강관식, 김리나, 김영식,
미산스님, 박은순, 송일기, 신승운, 이영훈,
정우택, 최응천(이상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8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	공개
2	이순신 관련 고문서	공개
3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	공개
4	입학도설	공개
5	동인시화	공개
6	대승기신론소	공개
7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	공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공개
1	보물 제1006호 ‘이종주 고신왕지 및 이임 무과홍패’의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공개
【검토사항】 11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공개
2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공개
3	김해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	공개
4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 권제17	공개
5	신간소문입식운기론오	공개
6	효경	공개
7	시전대문	공개
8	증주당현절구삼체시법 권1	공개
9	삼강행실효자도	공개
10	동국이상국전집 권14-17	공개
11	도은선생시문집 권3-5	공개
【보고사항】 4건		
1	종묘 신림·주림 및 보장·책장 보수 계획 보고	공개
2	종묘 배향공신당 위패(독) 보수 및 시호 수정	공개
3	조선왕실 어보 보물 지정 계획 보고	공개
4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지정 수량 검토 보고	공개

【심의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1-02-001

1.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梁山 通度寺 靈山殿 壁畵)

가. 심의사항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0년도에 진행된 사찰건축물벽화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56점의 문화재 중 52점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조사(2010.8.25.~26.)를 실시한 결과 보물지정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사안임.
-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는 현지조사자 3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1차 회의('11.02.10.)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02.25~03.2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남유형문화재 제203호(1982.08.02. 지정)
- 명 칭 :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梁山 通度寺 靈山殿 壁畵)
- 소유자 : 통도사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 수 량 : 일괄(52점, 영산전 내벽화)
- 규 격 : 목록 참조
- 재 질 : 토벽채색
- 제작연대 : 1714년~1716년경(18세기 초)

○ 지정대상 벽화 목록

번호	벽화명칭	크기(cm)	연 대	위 치
1	見寶塔品圖	400×230	18세기 초	내부 서측면 벽
2	脇侍聽衆圖	157×162	18세기 초	
3	脇侍聽衆圖	158.5×162	18세기 초	
4	雲龍圖	96×202	18세기 초	내부 동측면 벽
5	佛救釋種圖	56.5×51	18세기 초	
6	證明說呪圖	59×49.5	18세기 초	
7	闍崛山法華妙典圖	160×141	18세기 초	
8	妙悟法華圖	160×147	18세기 초	내부 남측면 내목도리 윗벽
9	楞伽說經圖	41×48	18세기 초	
10	目連救母圖	41.5×53.7	18세기 초	내부 남측면 내목도리 윗벽
11	度除糞人圖	42×54	18세기 초	
12	施衣得記圖	44×45.5	18세기 초	
13	囑兒飯佛圖	44×52.3	18세기 초	
14	勸親請佛圖	42.3×58	18세기 초	
15	夫人滿願圖	42.5×58.3	18세기 초	
16	醜女改容圖	42.5×50	18세기 초	
17	玉耶受訓圖	43.5×45.5	18세기 초	
18	佛化醜兒圖	43×55	18세기 초	
19	施食得記圖	44×57	18세기 초	
20	老人出家圖	44×55	18세기 초	

번호	벽화명칭	크기(cm)	연 대	위 치
21	萬里日迴圖	59×76	18세기 초	내부 남측면 포벽
22	豎石點頭圖	60×76	18세기 초	
23	罷道爲僧圖	59.5×76	18세기 초	
24	玄奘取經圖	56×78	18세기 초	
25	南派慧能圖	58.5×78	18세기 초	
26	國淸三聖圖	60.5×83	18세기 초	
27	達磨渡江圖	60×80	18세기 초	
28	惠恭處誦圖	59×84	18세기 초	
29	麴多籌筭圖	60×79	18세기 초	
30	蜜多持幡圖	59×77.5	18세기 초	
31	馬鳴辭屈圖	59×76.5	18세기 초	
32	龍樹造論圖	58×75	18세기 초	
33	祀天遇佛圖	59.8×55.5	18세기 초	내부 서측면 벽
34	白狗吠佛圖	60.5×45	18세기 초	
35	佛化無惱圖	43.5×95	18세기 초	내부 북측면 내목도리 윗벽
36	梵天勸請圖	43×92	18세기 초	
37	天人獻草圖	43.5×72	18세기 초	
38	度跋陀女圖	43×76	18세기 초	
39	漁人求道圖	42.5×96.2	18세기 초	
40	度富樓那圖	41.5×81.5	18세기 초	내부 북측면 내목도리 윗벽
41	請佛住世圖	44×73.5	18세기 초	
42	般若眞空圖	43.5×94	18세기 초	
43	圓覺三觀圖	41.5×88.5	18세기 초	
44	僧璨求法圖	57×113	18세기 초	내부 북측면 포벽
45	淸溪成地圖	58.5×115	18세기 초	
46	通慧神異圖	58×116	18세기 초	
47	勸脩淨業圖	57×120	18세기 초	
48	遠禮文殊圖	57×123	18세기 초	
49	虎溪三笑圖	58×123	18세기 초	
50	文帝問法圖	57×110	18세기 초	
51	文帝論法圖	60×113.5	18세기 초	
52	法冲化糧圖	58×112	18세기 초	

라. 내용 및 특징

1) 자료 : 현판기문

《靈山殿天王門兩重創兼丹雘記文》

愚聞以有限麼才紀無限大事弱轅載重短絙汲深矣虛成之乎不慧不能也但叙其事之功業以成後人之觀感也粵以康熙癸巳仲春一星之火二殿之化千年寶刹一朝荒廢搖松之石頭爲之不點執塵之趨者爲之不進天下之人聞皆起歎地中之鬼見悉懷慘幸而所賴山中有大禪師曰清印正眼朗日致源此四大士禪源之模範教海之智揖各具正眼而傳祖印各出舌相而指歸途見此殘破各起慈□收圭撮於四隣擲風沐雨求檀越於八表手胼足胝由是甲午成造請僦材於蓬萊乙未丹雘邀壤聖於湖南懿乎儼若化城燦然壺裏復有善權多出奇計良匠之所求善繪之所須施無不爲安其危可其苦役四體爲奴虜發誠心爲成功者其惟別座大源歟偉矣哉如上諸德之爲人也昔在靈山同種善根久修淨業而後五五百歲共生于南閻浮提更奉佛後之遺骨重修梵宇之傾覆發願而來者也吾將短文欲讚諸德之巨功如蚊虻之鼓太虛又爲取傍觀者一笑矣故但記功成之終始開土之勞苦而已 夫時康熙五十五年丙申仲秋既望灑鑑門人驚巖沙門義玄謹識」

大施主秩

供養大施主尹召吏兩主	布大施主通政爾眞	大施主李必健
供養大施主嘉善林笠敏	布大施主通政以□	大施主崔士命
供養大施主通政 信鑑	布大施主時澗比丘	大施主金大元
大施主嘉善 金演發	大施主通政釋眞	大施主守謙比丘
大施主通政 白斗哲	大施主嘉善金俊發	大施主宣鑑灵駕
大施主朴戒元 靈 駕	大施主 辛宥宗	大施主偉明比丘
大施主鄭世桓 兩 主	大施主通政應敏	大施主金就信
大施主通政崔湜 兩主	大施主憫德汗兩主	大施主金時迪

大施主通政金必俊兩主	大施主嘉善印鑑	施主金守雄
大施主嘉善守賢 比丘	大施主李春鶴兩主	施主嘉善權秋好
引勸兼施主通政朗聰比丘	施主通政道俊靈駕	引勸兼施主朴進文
施主裴俊逸 兩主	施主李天植 兩主	施主崔卜男兩
施主嘉善性林 比丘	施主李深根 靈駕	施主韓英必兩
施主金 ^白 者未	施主通政宋世讚	施主嘉善金致鳴
└─┘		
妙印比丘	施主釋信比丘	安金叱塊
金正哲	徐召吏	崔聖祐
施主嘉善朴愛福兩主	朴時恒靈駕	宋世林
宣轉官李時東	李敏海	李云根
會明比丘	嘉善守演比丘	黃彩守
金泰甲	韓士昌	林榮健
嘉善大夫明學比丘	林榮訖	尹禮山
朴汝文	權萬玉	金世必
金昌律 鄭莫男	朴弘建	朴毛老金
丁厚康	鄭氏戒玉	金康祥
善解比丘	靈悟比丘	朴汝白
施主嘉善大夫道聰比丘	李萬貴	金汝澄
施主嘉善大夫金白立	金彥白	金戒好
施主嘉善大夫趙日生	崔進泰	金尙元
施主嘉善大夫印暉	朴氏蘭介靈駕	金後種
洪順迪	李時弼	朴俊成
智圓比丘	黃聖彩	玉軒
施主通政大夫熙俊	通政元信	就白
施主通政大夫元琦	崔奉男	金召吏
施主通政大夫道學	劉厚德	李萬建
施主通政大夫世冀	嘉善宋戒命	通政大夫金自命
通政大夫性聰	鄭時雄	邊榮昌
施主嘉善大夫釋仁	引勸姜遇昌	通政大夫哲明
施主鄭世興	李振杞	朴世泰
施主通政大夫剋靈	張命華	金氏連榮
施主金氏召吏	宋正林	妙澄比丘
施主通政大夫道澄	通政大夫道機	道淨比丘

裴氏召吏	金之一	李今樺
崔正華	金召吏	黃世澄
朴世興	吳生員	金一健
一悟比丘	李士龍	性海比丘
施主通政大夫信雲	鄭就亮	建學比丘
施主通政大夫斗嚴	處信	禹泰奉
施主通政大夫普坦	通政大夫大敏	禹世斗 ¹⁾
施主文鑑	金召吏	義閑比丘
施主嘉善大夫信清	惠清比丘	爾文比丘
施主通政大夫大安	普律比丘	尊學比丘
施主嘉善大夫桂悅	密元比丘	金周鎰
大施主通政大夫桂敏	林寶源	
山中碩德	大木秩	畫員秩
大德懶英	都大木兼施主祖軒	都畫員聰眼
大德清信	天王門片手道侃	天王門畫員桂聰
大德澗草	英惠	熙順
大德義玄	李居士	明悅
大德敏悟	周草	應寬
大德正眼	祖嚴	寂淨
大德朗日	爾軒	天悟
大德致源	隆欽	順學
大德圓解	存建	彩白
持殿大宗師普允	元湜	最熏
本寺秩	申鑑	寂照
前僧統嘉善印鑑	靈山殿前面片手智聰	敏悅
創役時僧統智暹	智淳	頓覺
終役時僧統嘉守賢	智淡	德聰
僧統會明	偉清	智淳
前執綱通政道俊	金片手	仰土李鶴
時和尚 普哲	海坦	瓦匠清允
時首僧彩悅	思悅	緣化秩
時書記建海	靈山殿後面片手萬雄	上供養主偉聰
典座月照	廣海	雪林

1) 世斗 : 原文은 斗世인데 「下」 「上」 방서로 수정.

直舍	國信	草演
三寶	李片手	孟欽
助緣秩	淸建	允明
宗師卓靈	道鑑	卓明
宗師景日	天惠	乾租智海
道閑	內片將俊明	來往建聰
桂淸	建行	負木朴仁建
惠贊	建哲	金起敏
樞眼	日悟	冶匠金士立
證珪	外片將大隱	
最熏	普明	
畫席化主思屹	萬世	
居士心日	學宗	
各房元頭老長菜物助人秩	副化主秩	
思鑑	戒淸	
普律	雪心	
普湜	密聰	
一閑	祐律	
呂熙	居士廣□	
惠淸	居士大敬	
朗湜		
大化主秩	前書記明草寫	
宗師淸印	別座大源	
大化主正眼		
大化主朗日		
大化主致源		
都監役前和尚宗淑		

영산전과 천왕문을 중창하고 겸하여 단청을 한 기문

듣건데 有限한 재주로 無限한 大事를 기록하는 것은 약한 끝채로 무거운 짐을 싣는 것이고, 짧은 두레박으로 깊은 우물을 뜨려는 것이니, 헛되이 이루어지겠는가? 지혜롭지 못해 유능하지도 않으므로 다만 그 일의 功業을 서술해서 후세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하려 한다.

지난날 강희 癸巳年 仲春에 一星의 불이 두 전각을 불태워 천년 보찰이 하루아침에 황폐해졌는데 흔들리는 나무의 石頭도 점검하지 않고 흩날리는 먼지도 나아가지 않았으니 천하의 사람들이 듣고서 모두 탄식을 일으키고 땅속의 귀신들도 보고서 모두 참혹하게 여겼다.

다행히 의탁하고 있는 산중에 대선사가 있어 이를 하기를 “칭인, 정안, 낭일, 칭원이니 이 네 대사는 선원의 모범이고 가르침의 기준이며 각자 正眼을 갖추었다”라고 하고 조인을 전하니 각각 의견을 내어 돌아갈 길을 지시했고, 이 폐허를 보고서 각자 자비심을 일으켜 사방의 이웃에게서 규찰을 거두었으며, 바람을 맞고 비에 젖으면서도 팔방에서 檀越을 구했는데, 손과 발에는 굳은살이 박혔다.

이로부터 갑오년(1714)의 成造²⁾에는 금강산에서 목직한 재목을 청했고, 을미년(1715)의 단청에는 호남에서 안료를 구했으니, 아름답구나! 의젓하기가 성곽을 쌓은 것 같아 안팎이 찬란하다. 또 좋은 방법과 뛰어난 계획이 많이 나와 장인들이 구하는 것과 단청수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위험을 편안하게 여기고 고통을 감수하며 四體를 노비나 포로처럼 부리고 성심을 내어 공을 이룬 사람은 오직 별좌 大源일 것이다.

위대하구나. 옛날 제덕들의 사람됨이여. 지난날 靈山에 있을 때 同種의 선근들이 오랫동안 정업을 닦았고, 이후 2,500년이 지나 함께 남염부제에 나서 다시 부처가 남긴 유골을 봉안하고 기울어 엎어진 범우를 중수했으니 발원하여 이르게 된 것이다.

내가 짧은 문장을 가지고 제덕들의 큰 공을 기리고자 한다면 마치 모기가 허공을 울리는 것과 같을 것이고 또 그 곁에서 보는 사람들의 한바탕 웃음거리가 될 것이므로 다만 功業이 이루어진 처음과 끝을 기록하여 대사들의 노고를 밝히고자 할 뿐이다.

강희 55 병신년(1716) 中秋 16일 호감문인 취암사문 의현이 삼가 기록하다.

2) 조사내용

영산전 벽화는 벽체와 포벽은 물론 내목도리 윗벽과 대량·창방 등 내·외부 전체에 고루 그려져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조선후기 사찰벽화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외벽에는 총 17점의 벽화가 남아있으나 현재 훼손이 심한 편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부는 총 52면의 벽면에 벽화가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벽에 묘사된 『묘법연화경』 「견보탑품」의 내용은 3면으로 분할되어 있으나 하나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므로 한 장면으로 볼 경우 총 50장면의 벽

2) 上樑神을 말함.

화가 도상화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묘법연화경』 「견보탑품」의 내용과 불상 뒷벽의 상단에 그려진 운룡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48면에 그려진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내용을 표현한 벽화들이다. 이들 내부 벽화들은 『영산전천왕문양중창검단확기문』의 현판을 토대로 살펴보면, 1715년에 聰眼 외 14명의 화사들이 그린 것으로 보인다. 1792년에 영산전의 단청을 중수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내부 벽화들에서는 개채나 보수 흔적을 살필 수 없고, 훼손 시 떨어져 나온 벽화 층을 살펴봐도 동일한 1개의 안료층을 보이기 때문에 1714년부터 1716년까지 3년간 새로 영산전 건물을 중창할 당시에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총 48면으로 이루어진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이다. 이들 48점은 내부 운룡도를 제외한 동벽과 남·북 벽의 포벽 및 내목도리 윗벽, 견보탑품도와 脇侍聽衆圖 2점을 제외한 서벽의 일부에 묘사되었다. 동벽의 경우 불상과 후불도, 운룡도가 있는 중심벽면을 제외한 좌우 4면의 공간에 묘사되었다. 남벽과 북벽의 경우에는 포벽의 수에 따라 만들어진 포벽의 상·하단에 그려져 있는데 남벽에는 상 12점, 하 12점, 북벽에는 상 9점, 하 9점으로 남·북 벽면 모두 총 42점의 벽화가 있다. 서벽에는 『묘법연화경』 「견보탑품」의 내용이 담긴 중심벽면과 권속들을 그린 좌우 하단의 벽면을 제외한 상단의 장방형 벽면 2면에 『석씨원류응화사적』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주제별로는 내목도리 윗벽의 대부분이 『석씨원류응화사적』의 1·2권에 나오는 석가모니의 행적들이 그려졌으며, 동·서측의 하단면을 제외한 남·북측의 하단에는 3권에 나오는 고승들의 사적들을 묘사하였다.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의 대부분은 선운사판·불암사판 목판화와 매우 흡사하여 판화의 그림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단의 경우는 포벽의 형태가 방형이 아니라는 제약 때문에 판화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축약해서 표현한 것이 특징이며, 내용의 제목을 써놓은 방제가 없다면 그 항목을 파악하기 어려운 벽화들도 있다. 1648년에 간행된 선운사판은 上圖下文의 형태이므로 판화가 가로로 구성되어 있으나 1673년 불암사판은 右圖左文의 형식이므로 판화가 종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산전 상단의 벽화들은 대부분 가로 폭이 넓은 직사각형의 화면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화면형태는 선운사판 판화와 그 구성에서 조금 더 유사함을 보여준다.

견보탑품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통도사정보박물관과 일본 간고지(元興寺) 문화재연구소, 대만 통하이대학(東海大學)의 공동연구와 더불어 보존처리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도 견보탑품도 좌우의 협시청중도 2점이 보존처리 되었다. 그러나 이 3점을 제외한 49점의 벽화는 현재 벽체가 균열되었거나 탈락 된 것이 많

아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통도사 영산전 벽화는 벽체와 포벽, 대량, 창방, 내목도리 상부벽 등에 『법화경』 「견보탑품」에 의거한 <多寶塔圖>를 비롯하여, 『釋氏源流應化事蹟』 관련 <祀天遇佛圖>, <白狗吠佛圖>, <佛救釋種圖證明說呪圖> 등 48점을 포함하여 모두 52점의 다양한 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벽화는 특이하게 동쪽에 자리 잡은 수미단과 正對面하게 서쪽 벽에 중심 主題라고 할 수 있는 <다보탑도>를 배치하는 등 매우 유기적이고 계획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색과, 형상은 조화를 이루어 비교적 안정된 느낌이며, 부분적으로 보채 등 후대의 가필 흔적이 보인다.

통도사 영산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건물로, 현재 하로전 구역에서 중심이 되는 전각이다. 이 건물과 벽화는, 1792년의 「靈山殿重修施主記」와 「靈山殿重修兼丹牘記」를 근거로 하여, 畫師 指演과 彦一에 의해 중수와 단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근래 발견된 1716년 「靈山殿天王門兩重創兼丹牘記文」에 의하면 1713년 화재로 영산전과 천왕문이 소실되어, 1714년에 任間 淸印, 松谷 正眼 등이 중창하고, 都畫員 聰眼의 주관으로 1715년에 단청을 하였고, 1716년 모든 중창불사를 완료하였다고 한다.

통도사 영산전 내부 벽화는 총 52 점에 이르는 다양한 도상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영산전 벽화의 주 주제인 <다보탑도>와 『석씨원류응화사적』 변상도는 국내 유일의 벽화로 그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중요한 불교 문화재이다. 또한 이 벽화는 「靈山殿天王門兩重創兼丹牘記文」의 출현으로 인하여 제작 상한 연대를 1715년까지 올려 볼 수 있어 조선시대 벽화는 물론 불화 전반의 양식 편년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벽화는 부석사 조사당 벽화(국보46호), 무위사 극락전 벽화(보물 1314, 1315호), 봉정사 영산회상벽화(보물1614호) 정도이다. 이 벽화들의 제작시기는 고려 말과 조선 전기에 해당하여 불교회화사적 가치가 지정 문화재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부석사와 봉정사 벽화는 비록 손상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무위사 벽화는 건물과 별도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불교 벽화의 희소성 때문이다. 사찰 벽화는 戰禍와 내구성이 약한 목조 건물의 취약성 때문에 18세기 이전의 사례가 아주 귀하며 특히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통도사 영산전 벽화는 국내 유일의 <다보

답도>,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변상도 등으로 구성된 점, 당대의 화풍을 잘 전해 줄 뿐만 아니라 원형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매우 중요한 불교 문화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영산전 벽화는 일괄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외벽의 벽화는 후대에 개채 등으로 변형되었고, 훼손도 심하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지정 가치 있음)

통도사 영산전은 내, 외벽에 『법화경』 견보탑품 변상도와 『석씨원류응화사적』 그림, 기타 장식화 등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는 전각으로, 조선 후기 사찰 불전벽화의 정엄과 다양성을 보여준다. 다른 전각과 달리 동벽에 불상과 영산회상도를 봉안하고 남벽에는 팔상도, 서벽에는 『법화경』 견보탑품 변상도를 3면에 걸쳐 배치하고 나머지 동서남북 벽에는 내목도리와 포벽 등에 『석가여래응화사적』을 도해한 벽화를 배치하여, 전각 전체가 아름다운 벽화로 가득 장엄되었다. 윗벽에 그려진 『석가여래응화사적』 벽화는 석가모니불이 신이를 보여 중생을 제도하거나 자식, 며느리의 도리를 일깨우는 교화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신심을 갖고 불교에 귀의하거나 보시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제들로 불교를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포벽의 승려들과 관련된 벽화들도 석가모니불이 설법한 내용이 후대에 어떻게 수호, 전파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각 내부를 화려하게 장엄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인물들은 가는 철선묘로 윤곽선을 그리고 적색과 녹색을 기본으로 하면서 밝은 황색, 분홍색, 검은색, 옥색, 백색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특히 산수묘사에 있어서는 능숙한 필치로 수목 산수를 묘사하였다. 이 벽화들은 그동안 1792년에 持演 등이 영산전을 중수하면서 그린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근래 발견된 <靈山殿天王門兩重創兼丹牘記文>(1716)에 의해 볼 때, 1714년에 영산전을 중건하고 1715년 단청을 할 때 함께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중건불사의 도화원은 聰眼, 천왕문 화원은 桂聰·熙順·明悅·應寬·寂淨·天悟·順學·彩白·最熏·寂照·敏悅·頓覺·德聰·智順 등인데, 여기서 계층 이하는 천왕문 화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같은 해에 영산전과 천왕문을 함께 중건하고 단청한 것으로 볼 때 영산전 단청 역시 이들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중 총안에 대해서는 활동시기와 내용 등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明悅은 1729년 경남 산청 울곡사괘불도와 1734년 경남 진주 청곡사 석가모니후불도를 중수하였으며, 天悟는 1718년 수화승으로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삼신불회도와 삼장보살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통도사 영산전 벽화는 우리나라 사찰벽화로서는 유일한 『법화경』 견보탑품 벽화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팔상도의 도상에 기본이 된 『석가여래응화사적』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불교회화사상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또 근래 발견된 <靈山殿天王門兩重創兼丹牘記文>에 의해 1714년에 영산전이 중창되고 1715년 단청불사 때 함께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조성연대가 정확히 밝혀졌다는 점에서도 다른 사찰벽화의 편년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외벽의 벽화는 훼손이 심하고 필선이나 채색 등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내부 벽화보다는 늦은 시기인 1792년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후 보존처리를 거쳐 보다 정확한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지정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통도사 영산전 건물 내부의 벽화는 총 52 점에 이르는 풍부한 내용의 벽화가 장엄된 것이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서벽의 『법화경』 「견보탑품」 벽화이다. 세면으로 분할된 벽체에 하나의 내용을 한 장면으로 표현하여 관자의 시선을 압도한다. 또한 영산전 내벽화 중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석씨원류응화사적』을 도해한 벽화들이다. 주로 동벽과, 남·북벽의 포벽, 내목도리 윗벽, 서벽 일부에 묘사되었는데, 사방의 벽체에 총 48점의 벽화로 장엄되어 있다.

시기적으로는 내부 서벽에 도해된 <견보탑품도>의 경우 「영산전천왕문양중창검단확기」의 내용에 의거하여 1715년의 제작설이 제기되었고,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불전 벽화 및 외부 벽화는 1792년의 「영산전중수검단확기」와 「영산전중수시주기」의 기록 및 벽화의 표현기법 등을 토대로 1792년 화사 指演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화경의 <견보탑품>을 표현한 벽화이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벽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와 함께 석존과 관련된 풍부한 내용과 세밀한 인물표현 등에서 화사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 주는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벽화 내용 또한 수작으로 꼽히며 불교회화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적 가치로서 평가된다.

이에 영산전 내벽의 <견보탑품> 벽화를 비롯한 내부의 불전 벽화를 일괄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단, 외벽은 현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박락이 매우 심하여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함)

○ (지정 가치 있음)

통도사 영산전 벽화는 벽체와 포벽, 내목도리 윗벽과 대량, 창방 등 내·외부 전체에 고루 그려져 있다. 현재 확인되는 벽화 중 외벽에 그려진 벽화는 17점이고 나머지는 72점이 내벽에 그려진 것이다. 내벽의 벽화로 보고된 것들 중 대량이나

중도리 등 건축부재에 그려진 것들은 단청의 별화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지정 검토 대상 벽화는 52점에 해당한다.

외벽에 그려진 벽화 17점 중 일부 몇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기간 외기에 노출된 탓으로 색이 희미하게 바래졌고, 벽체의 박락도 심하여 도상이나 양식과악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지정가치를 논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

내벽에 그려진 벽화는 채색이나 필선 등 모든 면에서 그려질 당시의 원형을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벽체의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도해된 도상의 내용도 국내에서 보기 드문 예여서 중요하다. 즉, 내벽에 그려진 주제는 <법화경 견보탑품> 벽화와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의 경우 화면의 모서리에 그 장면과 관련된 화제가 적혀 있어 벽화의 도상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선 <법화경 견보탑품>벽화는 석가여래가 영취산에서 설법할 때 다보여래의 탑이 땅에서 솟아나 설법을 찬탄하니 그 탑안으로 석가여래가 들어가 다보여래와 같이 앉았다는 『묘법연화경』 제11품 「견보탑품」의 내용을 장엄하게 묘사한 국내 유일의 <견보탑품>벽화이다. 특히 세밀한 인물표현, 유려한 필선, 안정된 구도, 부드럽고 장엄한 색조 등에서도 뛰어난 화격을 보여준다.

<석씨원류응화사적벽화>는 영산전 내부 동서남북의 상벽과 포벽에 그려졌다. 상벽의 직사각형 화면에 그려진 25장면의 벽화는 모두 석가모니불과 관련된 것들이고, 이에 대응되게 그려진 하단의凸자형 포벽에 그려진 벽화는 주로 고승들의 행적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수직적인 배치는 붓다와 제자간의 위계를 고려한 계급적 배치로 여겨진다. 필선, 인물의 묘사, 채색 등 화풍에서 <견보탑품도>와 동일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통도사 영산전 내벽에 그려진 <법화경 견보탑품>벽화는 국내유일의 견보탑품 벽화라는데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 역시 조선 후기 팔상도에 포함된 <석씨원류응화사적> 목판의 설화내용 보다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팔상도>의 부족한 도해 내용을 보완해 주고 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화면마다 화제를 남기고 있어 벽화의 도상 이해 제고에 자료적 가치를 더 해준다.

영산전 벽화는 화풍에서도 밝고 부드러운 중간 색조를 사용한 점이나 단아하고 세밀한 인물묘사, 끊김 없이 처리한 유려한 필선, 안정된 구도 등에서 17세기 초반의 불화들과 비교된다. 또한 영산전 내부벽화는 1716년에 쓰여진 「靈山殿天王門兩重創兼丹牖記文」이나 여타 중창관련 자료들을 통해서도, 1713년 화재로 영산전이 소실된 이후 1714년부터 1716년에 걸쳐 이루어진 일련의 중창불사 과정에서 이 벽화도 그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벽화는 분명한 소의경전과 예술적 작품성, 종교적 감수성, 시대성 등을 두루 갖춘 18세기 초 벽화의 기준자료이자 이 시기 벽화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다. 내부벽화 52점(보존상태가 불량한 외벽 17점은 제외)은 영산전과 별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2. 이순신 관련 고문서(李舜臣 關聯 古文書)

가. 심의사항

“이순신 관련 고문서”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9년 현충사에 기탁된 “이순신 관련 고문서”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조사(2011.01.20.)를 실시한 결과 보물지정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사안임.
- “이순신 관련 고문서”는 현지조사자 3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1차 회의('11.02.10.)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02.25~03.2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이순신 관련 고문서(李舜臣 關聯 古文書)
- 소유자(관리자) : 최순선(이순신 종가)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사(위탁보관)
- 수 량 : 5종 13점(교서 2, 유서 3, 유지 1, 교지 6, 별급문기 1)
- 제작연대 : 1576~1643년(선조 9~인조 21)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위의 古文書의 종류를 구별하면, 敎書 2건, 諭書 3건, 敎旨 6건, 有旨 1건, 別給文記 1건 등이다. 敎旨에는 武科紅牌, 妻 方氏의 告身(外命婦爵)敎旨, 贈職敎旨, 賜牌敎旨, 贈諡敎旨 등이 있다. 李舜臣의 告身敎旨가 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

뒤에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李舜臣 관련 古文書 13건은 모두 일괄해서 寶物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물 제 1564호 李舜臣 宣武功臣教書에 가지번호를 주면 무난할 것 같다. 명칭은 ‘李舜臣 宣武功臣教書 및 關聯 古文書’로 하면 될 것이다. 가지번호는 위에 정리한 순서대로 주면 무난할 것이다.

○ (지정 가치 있음)

이순신 관련 고문서 13점은 이순신 종가 家傳文書로서 충무공 이순신의 활동 시기, 혹은 순절 직후의 이순신과 직접 관련된 문서이다. 역사적인 인물 이순신의 傳記와 임진왜란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보물 제 1564호 이순신 선무공신교서(2008. 6월 지정)의 지정번호에 명칭은 이순신 선무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로 하여 일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위의 내용과 특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충무공 종손가에서 보존되어 왔던 유물들은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이순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조사보고서 전문

□

李舜臣의 ‘亂中日記’와 壬辰狀草는 國寶 제 76호로 지정되었고, 李舜臣 宣武功臣教書는 寶物 제 1564호로 지정되었으나, 李舜臣에 관한 古文書を 찾아보기 어려워 매우 아쉬워했는데, 이번에 李舜臣 관련 古文書가 들어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古文書들을 古文書 종류별로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李舜臣등 宣諭犒賞教書(1596, 선조 29)

慶尙道閑山島 兼 三道統制使全羅左道水軍節度使 李舜臣 이하 諸陣에 宣諭하고 犒賞하는 教書이다.

2) 李舜臣 使命訓諭教書(1597, 선조 30)

忠淸全羅慶尙等 三道水軍統制使 李舜臣에게 그 使命을 훌륭히 수행할 것을 訓諭하는 教書이다.

3) 李舜臣 諭書(1591, 선조 24)

全羅左道水軍節度使 李舜臣에게 密符 第 29符를 내리는 諭書이다. 4) 李舜臣 諭書(1592, 선조 25)

全羅左道水軍節度使 兼 忠淸全羅慶尙等 三道水軍統制使 李舜臣에게 密符 第 7符를 내리는 諭書이다.

5) 李舜臣 諭書(1594, 선조 27)

三道水軍統制使行全羅左道水軍節度使 李舜臣에게 密符 第 10符를 내리는 諭書이다.

6) 李舜臣 武科紅牌(1576, 선조 9)

保人李舜臣이 武科丙科第四人으로 及第한 紅牌이다.

7) 李舜臣妻 方氏 告身教旨(1591, 선조 24)

李舜臣의 妻 方氏에게 ‘淑夫人’을 내리는 教旨. 당시 李舜臣이 折衝將軍全羅右道水軍節度使였으므로 經國大典에 의하여 夫君의 職을 따라 ‘淑夫人’을 내린 것이다

8) 李舜臣妻 方氏 告身教旨(1603, 선조 36)

李舜臣의 妻 方氏에게 ‘貞敬夫人’을 내리는 教旨이다. 李舜臣은 이 때에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行正憲大夫全羅右道水軍節度使兼三道水軍統制使로 追贈되었으므로 經國大典에 의하여 夫君의 職을 따라 ‘貞敬夫人’을 내린 것이다.

9) 李舜臣 贈職教旨(1604, 선조 37)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に 贈職되었던 李舜臣을 다시 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德豐府院君에 贈職하는 教旨이다.

10) 李舜臣 賜牌教旨(1605, 선조 38)

宣武一等功臣인 德豐府院君 李舜臣에게 官奴婢(奴1, 婢7)를 賞으로 내리는 賜牌教旨이다.

11) 李舜臣 贈諡教旨(1643, 인조 21)

李舜臣에게 ‘忠武公’이란 諡號를 내리는 教旨이다.

12) 李舜臣 有旨(1595, 선조 28)

당시 부족한 軍糧을 보충하기 위하여 屯田開墾 등의 방안을 지시하는 내용의 有旨이다. 有旨로서는 보기 드문 장문으로(45×338cm) 앞부분 일부가 훼손되었을 뿐 양호한 상태이다.

13) 李舜臣 別給文記(1588, 선조 21)

1576년(선조 9)에 武科에 及第한 3子 李舜臣에게 土地와 奴婢를 別給하였는데, 1584년(선조 17)에 화재로 집안의 文記가 모두 燒燼되었으므로, 이때(1588)에 다시 別給文記를 작성해준 것이다. 다른 別給文記와 구별되는 것은 1子, 2子, 4子에게

別給했던 내용도 附記한 사실이다. 財主는 어머니 卞氏이고 證人은 두 孫子와 4子 禹이고, 筆執은 孫子 菱이다.

위의 古文書의 종류를 구별하면, 敎書 2건, 諭書 3건, 敎旨 6건, 有旨 1건, 別給 文記 1건 등이다. 敎旨에는 武科紅牌, 妻 方氏의 告身(外命婦爵)敎旨, 贈職敎旨, 賜 牌敎旨, 贈諡敎旨 등이 있다. 李舜臣의 告身敎旨가 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 뒤에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李舜臣 관련 古文書 13건은 모두 일괄해서 寶物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물 제 1564호 李舜臣 宣武功臣敎書에 가지번호를 주면 무난할 것 같다. 명칭은 '李舜臣 宣武功臣敎書 및 關聯 古文書'로 하면 될 것이다. 가지번호는 위에 정리한 순서대로 주면 무난할 것이다.

□

이순신 종가에 전해지는 고문서와 전적 중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국보 76호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와 보물 1563호 이순신 선무공신교서 는 현충사 관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간 이순신 종가의 종부가 소장 관리하고 있던 나머지는 2009년 일반동산문화재 실태조사에서 고문서 126점, 전적 122점, 민속유물 6건 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지정대상으로 조사한 문서는 종가 소장과 현충사 유물관에 전시되었던 이순신의 1576년 武科紅牌를 비롯하여 忠武公 諡號敎旨, 교서, 유서, 유지, 별급문기 등 13점이다.

이 자료들은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훼손되어 있고 일부 부분적으로 특정부분에 집중적으로 파손되어 있어서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 중에 있다.

이순신(1545~1598)은 조선의 名將으로 자는 汝諧, 본관은 德水, 1579년(선조 12) 무과에 급제, 그 뒤 鉢浦水軍萬戶, 乾原堡權管, 訓練院參軍, 司僕寺主簿, 造山堡萬戶, 선전관, 정읍현감을 거쳐 1591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승진, 左水營에 부임하여 군비 확충에 전력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玉浦, 泗川, 唐浦, 唐項浦 등지에서 왜적을 격파하고, 7월 한산도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어 안골포, 부산과 웅천, 남해안 일대의 적군을 완전히 소탕하고 三道水軍統制使가 되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명량해전에서 대전과를 올리고 이듬해 露梁海戰에서 적탄을 맞고 전사하였다. 충무의 忠烈祠, 順天의 忠愍祠, 아산의 顯忠祠 등에 祭享, 시호는 忠武이다. 1604년(선조 37) 宣武功臣 1등에 녹훈되었고 시호는 忠武이다.

<이순신 관련 고문서 목록>

순번	명 칭	수량	연 대	비 고
1	敎書	2	선조 29년(1596) 선조 30년(1597)	1596년 犒賞敎書와 1597년 훈유교서.
2	諭書	3	선조 24년(1591) 선조 27년(1594) 선조 30년(1597)	1591년, 1594년, 1597년에 각각 이순신에게 密符를 내리는 諭書.
3	有旨	1	선조 28년(1595)	승정원 동부승지 鄭某를 통하여 屯田開墾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유지
4	敎旨	6	선조 9년(1576) 선조 24년(1591) 선조 36년(1603) 선조 37년(1604) 선조 38년(1605) 인조 21년(1643)	1576년 이순신 무과 흥패, 이순신 처 방씨의숙부인(1591)과 정경부인(1603)의 告身교지. 1604년 이순신 사후에 내려진 증직(선무공신 좌의정)교지와 1605년 이순신에게 상훈으로 노비를 하사하는 賜牌敎旨. 1643년 충무공 증시교지임.
5	別給文記	1	선조 21년(1588)	충무공이 무과에 급제(1576년)하였을 때 부인 방씨가 별급해 준 본 문서가 1584년에화재로 없어지자 이를 전후하여 충무공 형제에게 별급한 내용도 함께 기록한 별급문서로 1588년 새로 작성한 것임.
	계	13점		

1. 李舜臣등 犒賞敎書

- 수 량 : 1매
- 규 격 : 82.0×219.0cm
- 재 질 : 楮紙
- 형 식 : 낱장
- 발급연대 : 조선 선조 29년(1596)
- 印 記 : 「施命之寶」 7個

敎慶尙道閑山島兼三道統制使全羅左道水軍節度使李舜臣以下諸陣宣諭犒賞書
王若曰..... 萬曆二十四年九月十五日

이 문서는 조선 선조 29년(1596) 9월 15일에 선조가 慶尙道閑山島 兼 三道統制使全羅左道水軍節度使 李舜臣 이하 諸陣에 宣諭하고 잔치를 베풀어 노 고를 위로하는 犒賞敎書이다.

2. 李舜臣 訓諭敎書

- 수 량 : 1매
- 규 격 : 89.0×199.5cm
- 재 질 : 楮紙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조선 선조 30년(1597)
- 印 記 : 「施命之寶」 9個

敎忠淸全羅慶尙等三道水軍統制使李舜臣書

王若曰..... 萬曆二十五年七月二十三日

이 문서는 조선 선조 30년(1597)7월 23일에 李舜臣을 忠淸全羅慶尙等 三道水軍統制使에 임명하고 任務를 훌륭히 수행할 것을 訓諭하는 敎書이다.

앞부분이 결락되고 충해로 중간에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본문이 결락되었다.

3. 李舜臣 諭書(1591년)

- 수 량 : 1매
- 규 격 : 72.3×154cm
- 재 질 : 楮紙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조선 선조 24년(1591)
- 印 記 : 「諭書之寶」 3個

諭全羅左道水軍節度使 李舜臣

爾受委一方 體任非輕....故賜押第二十九符 爾其受之故諭

萬曆十九年二月十五日

이 문서는 조선 선조 24년(1591) 2월 15일에 全羅左道水軍節度使 李舜臣에게 密符 第29符를 내리는 諭書이다.

4. 李舜臣 諭書(1594년)

- 수 량 : 1매
- 규 격 : 50×114.1cm

- 재 질 : 楮紙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조선 선조 27년(1594)
- 印 記 : 「諭書之寶」 3個

諭三道水軍統制使行全羅左道水軍節度使李舜臣書
 卿受委一方 體任非輕....故賜押第十符 爾其受之故諭
 萬曆二十二年七月十四日

이 문서는 조선 선조 27년(1594) 7월 14일에 三道水軍統制使行全羅左道水軍節度使 李舜臣에게 密符 第10符를 내리는 諭書이다.

5. 李舜臣 諭書(1597년)

- 수 량 : 1매
- 규 격 : 48.8×110.8cm
- 재 질 : 楮紙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조선 선조 30년(1597)
- 印 記 : 「諭書之寶」 5個

諭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忠清全羅慶尙等三道水軍統制使 李舜臣
 卿受委一方 體任非輕....故賜押第七符 爾其受之故諭
 萬曆二十五年七月二十三日

이 문서는 조선 선조 30년(1597) 7월 23일에 李舜臣을 全羅左道水軍節度使 兼 忠清全羅慶尙等 三道水軍統制使로 임명하고 密符 第7符를 내리는 諭書이다.

6. 李舜臣 有旨

- 수 량 : 1매
- 규 격 : 45×338cm
- 재 질 : 楮紙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조선 선조 28년(1595)
- 印 記 : 「承政院印」 9개

同副承旨鄭(手決)

萬曆二十三年正月二十一日

이 문서는 조선 선조 28년(1595) 정월 21일에 승정원 同副承旨 鄭某을 통하여 이순신에게 내린 有旨로서 한산도 수군진의 군량 확보와 백성의 구휼에 필요한 屯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둔전개발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대책과 방법까지 제시되어 있어 당시 전황과 수군 실상 및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7. 李舜臣 武科紅牌

- 수 량 : 1매
- 규 격 : 84.9×73.2cm
- 재 질 : 楮紙
- 형 식 : 낱장
- 발급연대 : 조선 선조 9년(1576)
- 印 記 : 「科擧之寶」

教旨/保人李舜臣 武科丙科第四人及第出身者

萬曆四年 三月日

이 문서는 조선 선조 9년(1576) 3월에 保人李舜臣이 武科 丙科 第四人으로 及第한 紅牌이다.

8. 李舜臣妻 方氏 告身教旨(1591년)

- 수 량 : 1매
- 규 격 : 50.0×79.0cm
- 재 질 : 楮紙
- 형 식 : 낱장
- 발급연대 : 조선 선조 24년(1591)
- 印 記 : 「施命之寶」

教旨/方氏爲淑夫人者

萬曆十九年十一月二十六日

折衝將軍全羅左道水軍節/度使李舜臣妻依大典從夫職

이 문서는 조선 선조 24년(1591) 11월 26일에 李舜臣의 妻 方氏에게 淑夫人을 내리는 教旨이다. 이 때에 李舜臣은 折衝將軍全羅右道水軍節度使였으므로 經國大典에 의하여 夫君의 職에 따른 것이다.

9. 李舜臣妻 方氏 告身教旨(1603년)

- 수 량 : 1매
- 규 격 : 69.0×67.0cm
- 재 질 : 楮紙
- 형 식 : 낱장
- 발급연대 : 조선 선조36년(1603)
- 印 記 : 「施命之寶」

教旨/方氏爲貞敬夫人者

萬曆三十一年三月二十八日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行正憲大夫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三道水軍統/制使李舜臣妻依大典從夫職

이 문서는 조선 선조36년(1603) 3월 28일에 李舜臣의 妻 方氏에게 貞敬夫人을 내리는 教旨이다. 이 때에 李舜臣은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行正憲大夫全羅右道水軍節度使兼三道水軍統制使로 追贈되었으므로 經國大典에 의하여 夫君의 職에 따른 것이다.

10. 李舜臣 贈職教旨

- 수 량 : 1매
- 규 격 : 94.0×66.0cm
- 재 질 : 楮紙
- 형 식 : 낱장
- 발급연대 : 조선 선조 37년(1604)
- 印 記 : 「施命之寶」

教旨/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李舜臣贈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德豐府院君者

萬曆三十二年七月十二日

이 문서는 조선 선조 37년(1604)에 7월 12일에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經筵事に 贈職되었던 李舜臣을 다시 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德豐府院君에 贈職하는 教旨이다.

11. 李舜臣 賜牌教旨

- 수 량 : 1매
- 규 격 : 91.5×84.0cm
- 재 질 : 楮紙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조선 선조 38년(1605)
- 印 記 : 「施命之寶」 3個

教旨/卒德豊府院君李舜臣有宣武/一等功臣將扶安官婢愛生高山官/奴忠男高山官婢彈非溫陽官婢日/香稷山官婢秋陽天安官婢春花珍/山官婢得春恩津官婢今花等特賜/賞可傳永世者

萬曆三十三年正月初八日

이 문서는 德豊府院君 李舜臣 사후에 宣武一等功臣으로 봉해져 조선 선조 38년(1605) 1월 8일에 扶安官婢 愛生, 高山官奴 忠男, 高山官婢 彈非 溫陽官婢 日香, 稷山官婢 秋陽, 天安官婢 春花, 珍山官婢 得春, 恩津官婢 今花 등의 官奴婢가운데 奴1口, 婢 7口를 내리는 賜牌教旨이다.

12. 李舜臣 贈諡教旨

- 수 량 : 1매
- 규 격 : 105.3×73.0cm
- 재 질 : 楮紙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조선 인조 21년(1643)
- 印 記 : 「施命之寶」

教旨/贈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德豊府院君李/舜臣贈諡忠武公者

癸未(1643)三月二十八日

이 문서는 조선 인조 21년(1643)3월 28일에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 德豊府院君 李舜臣에게 忠武公이란 諡號를 내리는 教旨이다.

13. 李舜臣 別給文記

- 수 량 : 1매
- 규 격 : 38.7×25.7cm
- 재 질 : 楮紙
- 형 식 : 날장

○ 발급연대 : 조선 선조 21년(1588)

이 문서는 조선 선조 9년(1576)에 이순신의 어머니 초계 卞氏가 武科에 급제한 3子 李舜臣에게 토지와 노비를 別給하였는데, 선조 17년(1584)에 집안의 文記가 화재로 없어지자 선조 21년(1588)에 새로 작성 해준 別급문기이다. 다른 別급문기와 다르게 첫머리 시작은 ‘萬曆十六年 戊子三月十二日三子舜臣亦中別給’이라 쓰고 이순신에게 別급하는 내용을 앞에 쓰고 1子 義臣, 2子 堯臣, 4子 禹臣에게 別給했던 내용을 차례로 附記한 특이한 형태의 자료이다.

財主인 어머니 卞氏의 인장과 證人은 두 孫子 蓄와 奉 그리고 4子 禹臣이고, 筆執은 孫子 薙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순신 관련 고문서 13점은 이순신 종가 家傳文書로서 충무공 이순신의 활동시기, 혹은 순절 직후의 이순신과 직접 관련된 문서이다. 역사적인 인물 이순신의 傳記와 임진왜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보물 제1564호 이순신 선무공신교서(2008. 6월 지정)의 지정번호에 명칭은 이순신 선무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로 하여 일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 현 상 : 문화재 지정을 이전에 한 것은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를 하여 상태가 좋았으나 최근에 문화재 지정을 의뢰한 유물들은 현충사에 전시되어 있던 것들로 보존처리가 시급하였다.

○ 내용 및 특징 :

1. 李舜臣 宣諭犒賞教書 (1596, 선조29)

1596년 9월 15일에 선조가 이순신 이하 제진(諸陣)에 내린 선유호상교서이다. 선조가 이 날 병조좌랑 최동립(崔東立)을 특별히 파견하여 그간에 이룬 전공을 높이 치하하고 호궤(犒饋)를 지시하며 내린 교서이다. 당시 이순신의 관직은 경상도 한산도 겸 삼도통제사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였다. 그러나 『선조실록』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는 매우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2. 李舜臣 使命訓諭教書 (1597, 선조 30)

선조가 1597년 7월 23일에 이순신에게 내린 교서로 기왕에는 ‘起復授職教旨’ 또는 ‘起復授三軍統制使教書’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백의종군하다가 모친상을 당하여 상중에 있던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하면서 내

린 교서로 삼도수군통제사로서 휘하의 군사를 잘 지휘하고 규율을 엄히 하도록 당부하는 내용이다.

3. 李舜臣 諭書 (1591, 선조 24)

선조가 1591년 2월 15일에 이순신을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임명하면서 내려준 유서이다. 發兵, 應機, 安民, 制敵 등은 예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독단으로 처치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밀부를 동봉하는 지시가 아니면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때 유서와 함께 지급한 밀부는 제29부였다.

4. 李舜臣 諭書 (1594, 선조 27)

국왕이 1594년 7월 14일에 이순신을 三道水軍統制使 行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임명하면서 내린 유서이다. 이때 지급한 밀부는 제10부였다.

5. 李舜臣 諭書 (1597, 선조 30)

국왕이 1597년 7월 23일에 이순신을 全羅左道水軍節度使 兼忠淸全羅慶尙等三道水軍統制使로 임명하면서 내린 유서이다. 이때 密符도 함께 내려주었는데 그 밀부는 제 7符였다.

6. 李舜臣 有旨 (1595, 선조 28)

선조가 1595년 정월 21일에 同副承旨 鄭某를 통하여 이순신에게 내린 유지로 기왕에는 ‘屯田檢飭諭旨’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선조는 이 유지를 통하여 수군의 군량 조달과 관련하여 상세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유성룡이 올린 ‘措置防守事宜啓’ 중의 일부이다. 임진왜란 시기에 수군이 군량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7. 李舜臣 武科紅牌 (1576, 선조 9)

이순신이 1576년 3월에 武科 丙科에 제4인으로 급제하여 받은 합격증으로 문무과 합격증서를 홍패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순신 무과홍패’라고 명명하였다. 이순신이 합격 당시 그의 직역을 ‘보인(保人)’이라고 밝혔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평민이라는 뜻은 아니었다.

8. 李舜臣妻 方氏 告身教旨 (1591, 선조 24)

이순신이 折衝將軍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임명되자 그의 妻 方氏도 남편의 직위에 따라서 淑夫人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교지는 바로 그 때 받은 것이다. 발급 시기는

1591년 11월 26일이다.

9. 李舜臣妻 方氏 告身教旨 (1603, 선조 36)

1603년에 국왕은 이순신을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兼領經筵事 行正憲大夫全羅左道水軍節度使 兼三道水軍統制使로 임명하였는데 이때 이순신의 처 방씨를 남편의 직위에 따라 貞敬夫人으로 올려주었다. 이 교지는 그때 받은 것이다.

10. 李舜臣 贈職教旨 (1604, 선조 37)

선조가 1604년 7월 12일에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兼領經筵事이던 이순신에게 다시 効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 兼領經筵事 德豐府院君이라는 증직을 더해주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11. 李舜臣 사패 教旨 (1605, 선조 38)

1605년 정월 9일에 국왕은 이미 작고한 이순신에게 全羅道 扶安, 高山, 忠淸道 溫陽, 稷山, 天安, 珍山, 恩津 등지에 있던 관노비 8명을 특별히 지급하면서 발급한 사패교지이다.

12. 李舜臣 증시 教旨 (1643, 인조 21)

1643년 3월 28일에 이순신에게 忠武公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교지의 발급 일자를 밝힐 때에는 중국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여기에서는 간지를 사용한 점이 특이하다. 임진왜란 이후 공신에게 내린 교지에는 중국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지를 밝히는 경우가 많았다.

13. 李舜臣 별급문기 (1588, 선조 21)

1588년 3월 12일에 이순신의 모 변씨가 이순신에게 작성해 준 별급문기이다. 이순신이 1576년에 무과에 급제하자 부친이 이를 기뻐하면서 영광, 나주 등지의 노비와 은전에 있는 가사와 전답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1584년 3월 10일에 대풍이 불고 집에 불이 나서 부친이 작성해 준 별급문기가 타버렸다. 그래서 모친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다시 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때 이순신의 다른 형제들에게 지급했던 재산의 내용도 아울러서 기록해주었다. 따라서 이 문기는 비록 별급문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순신 가문의 모든 분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위의 내용과 특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충무공 종손가에서 보존되어 왔던 유물

들은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이순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문헌자료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난중일기』

『서애집』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3.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 (春秋經左氏傳句解 卷六十~七十)

가. 심의사항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3.1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06.23.)를 실시한 결과 보물지정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사안임.
-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은 현지조사자 3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1차 회의('11.02.10.)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02.25~03.2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남유형문화재 제393호(2003.09.18. 지정)
- 명 칭 :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春秋經左氏傳句解 卷六十~七十)
- 소유자 : 김찬호(대성암 주지)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 65
- 수 량 : 11권 1책(권60~70)
- 규 격 : 27.3×15.8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板本)
- 형 식 : 선장(線裝)
- 제작연대 : 1431년(세종 13)

- 현 상 : 左右雙邊, 半郭 17.5×12.5cm, 有界, 半葉 14行 25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 版心題 ‘左’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춘추경좌씨전구해((春秋經左氏傳句解))』는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간행되면서 널리 읽혀진 책이나 알려진 범위에서는 완질이 없다. 검토 대상본이 비록 11권 1책의 영본이기는 하나 간행배경을 전하는 발문과 간행기록이 남아있어서 세종대의 서적출판을 비롯한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보물 1208호에 비하여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에서 특히 서지학적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책을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춘추경좌씨전구해는 권60~70에 해당하는 1책으로 영본이기는 하지만 세종 처음 간된 초간본으로 특히 권말에는 이 책의 간행을 주도한 당시의 淸道郡守 朱邵의 발문에서 간행동기 및 간기, 간행에 참여한 명단이 열기되어 있어 도서출판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대성암 소장본은 완질이 아니라 맨마지막 책만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으나 다행히 발문과 간기가 있어 조선전기 세종조의 출판문화와 성리학의 확산을 위한 지방관의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아울러 1994년에 보물 제1208호로 지정된 <春秋經左氏傳句解>와 동일본일 뿐 아니라 보물 제1208호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던 자료이다. 즉, 보물 제1208호로 지정된 <춘추경좌씨전구해>의 간행연도가 宣光 6(1374)년으로 되어 있어 대성암 소장본이 알려지기 전까지 고려본으로 인지되어 왔는데, 대성암 소장본이 알려짐으로 인해 보물 제1208호의 간행연도가 宣光 6(고려 우왕 즉위년, 1374)년이 아니라 宣德 6(세종 13, 1431)년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대성암 소장 <춘추경좌씨전구해>는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

첫 장에 일부 훼손 부분이 있고 표지는 개장되었으나, 대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특히 기 지정문화재인 보물 1208호가 간행기록 부분을 어느 시기에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서인 데 비하여 검토 대상본은 해당 부분이 매우 선명하다. 책의 본체는 전체적으로 배접되어 있다.

본 검토대상 문화재의 서지사항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卷首題：春秋經左氏傳句解

11卷 1冊 (卷60~卷70, 零本)

木板本, 線裝(5針),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7.2 × 12.2cm, 14行 25字, 有界 中黑口, 上下下向黑魚尾; 27.4 × 16cm

版心題：左

跋：惟我東方 …知郡事 朱邵 敬跋

刊記：宣德六年(世宗13年, 1431) 十一月日 清道 開板

○ 내용 및 특징

이 『춘추경좌씨전구해(春秋經左氏傳句解)』는 송(宋) 나라 임요수(林堯叟)가 두예(杜預:228~284)의 『춘추좌씨경전집해(春左氏經傳集解)』의 난해한 부분마다 초학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직접 구두(句讀)를 떼고, 성명이나 지리 등이 중복되면서 다르게 표현된 부분에 ‘모인(某人)’ 또는 ‘모지(某地)’로 직주(直注)를 다는 방법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서명에 ‘구두직해(句讀直解)’를 붙였는데, 이를 다시 줄여서 구해(句解)라고 한 것이다. 임요수의 이러한 직해식(直解式) 주석은 난해하다는 평을 듣던 두예의 집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통속화한 것으로, 송원(宋元)대는 물론 원명(元明) 대에도 널리 유행하였는데, 조선 초에 이 책이 수입되면서 태종대에는 재미자로 간행되었고, 이어 세종대와 단종대에도 수차에 걸쳐 번각 등의 방식으로 간행되었다.

검토 대상 본은 조선 세종 13년(1431)에 경상도관찰출척사(慶尙道觀察黜陟使) 조치(曹致)와 도사(都事) 안질(安質)의 주선으로 청도지군사(淸道知郡事) 주소(朱邵)의 책임하에 청도(淸道)에서 출간(出刊)한 책으로, 그중 전존한 11권 1책의 영

본이다.

이 책은 세종 13년(1431) 8월에 판각을 시작하여 3개월 후인 동년 11월에 완료한 것임이 권말에 수록된 발문과 간행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일의 주선자들은 물론 판각을 담당한 각수와 교정자 및 교감자 까지 상세히 알 수 있어 조선전기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참고로 옮겨 둔다.(본문중의 / 표는 개항(改行)의 위치를 밝힌 것이고, 띄어쓰기 표시는 필자의 해독에 따라 표시한 것이다.)

□ 跋文 □

惟我東方 / 文教大行 經史悉備 獨左氏傳 未見刊行 治春 / 秋者 無以爲按 歲辛亥 監司曹相致 都事安 / 君質 旁求善本 得參議朴公憤家藏 囑予董/事 自仲秋至仲冬而 告成 吁曹相之贊 / 文教 開承學 豈不偉歟 知郡事 朱邵 敬跋 / 宣德六年十一月日 清道開板

□ 刊行記錄 □

都觀察黜陟使 資憲大夫 中軍都摠制府摠制曹致
都事彰信校尉中軍司直安質
知郡事奉職兼勸農兵馬團鍊判官朱邵
監校 從仕郎清道儒學教導金樂山
校正 成均館生員高云識
都色 戶長金結
色 記官金自謹
刻手 禪師洪照 惠甫 海心 至修 宋月
性珠 信寶 武先 實敬 繼祖 僧洪惠
學生李友柏 金連 <記官金逵贊>等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춘추경좌씨전구해((春秋經左氏傳句解))』는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간행되면서 널리 읽혀진 책이나 알려진 범위에서는 완질이 없다. 검토 대상본이 비록 11권 1책의 영본이기는 하나 간행배경을 전하는 발문과 간행기록이 남아있어서 세종대의 서적출판을 비롯한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보물 1208호에 비하여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에서 특히 서지학적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책을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 발 문 : 惟我東方 文教大行 經史悉備 獨左氏傳 未見刊行 治春秋者 無以爲按 歲辛亥 監司曹相致 都事安君質 旁求善本 得參議朴公 賁家藏 囑予董事 自仲秋之仲冬而告成 吁曹相之贊文教開承學 豈不偉歟 知郡事 朱邵敬跋

○ 간 기 : 宣德六年(1431) 十一月日 淸道開板
都觀察黜陟使 資憲大夫中軍都摠制府摠制曹致
都事彰信校尉中軍司直 安質
知郡事 奉直郎兼勸農兵馬團練判官 朱邵
監校 從仕郎 淸道儒學教導 金樂山
校正 成均生員 高云識
都色 戶長 金結
色記官 金自謹
刻手禪師洪照·惠寶·海心·志修·宋月·性珠·信贊·戒先·寶敬·繼祖
僧洪惠, 學生 李友柏·金連, 記官 全遂贊 等

○ 내용 및 특징

『춘추경좌씨전구해』 孔子의 『春秋』를 周의 左丘明이 해석한 傳에 晋나라 杜預가 句節을 나누어 註解를 붙인 것이다. 특히 『左氏傳』은 역사적 사실의 해명에 바탕하여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春秋』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기본 해설서로서 널리 애독되었다.

이 『춘추경좌씨전구해』는 조선 세종 13년(1431) 11월에 淸道知郡事 朱邵가 주관하여 淸道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권70 말에 朱邵의 발문에 의하면 “우리 동방이 文教가 크게 행해져서 經書·史書가 다 갖추어졌으나 좌씨전 만은 간행되지 못하여 춘추를 공부하는 사람이 상고할 길이 없었다. 신해년(1431)에 都觀察黜陟使 曹致와 都事 安質이 善本을 두루 구하다가 參議 朴賁의 집에서 찾아내어 나에게 그 일을 부탁하였는데 그해 仲秋에서 시작하여 仲冬에 이르러 完成하였다”는 간행동기가 밝혀져 있다. 발문 뒤에 ‘宣德六年(1431) 十一月日淸道開板’이란 간기와 刊行諸員에 관명, 성명이 기록되어 있고 교정·도색·색기관·각수 등의 이름도 수록되어 있어 이 책의 간행연도 및 간행 참여자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판본은 권1~70으로 편집된 전질 중 零本 권60~70에 해당하는 1책이며, 내용은 昭公 30년에서 哀公 27년까지의 기사이다. 보존 상태도 양호하며 판각도 정

교하다. 이와 동일본이 보물 제1208호(가천박물관 소장)로 지정되어 있다.

○ 문화재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춘추경좌씨전구해는 권60~70에 해당하는 1책으로 영본이기는 하지만 세종 처음 간된 초간본으로 특히 권말에는 이 책의 간행을 주도한 당시의 淸道郡守 朱邵의 발문에서 간행동기 및 간기, 간행에 참여한 명단이 열기되어 있어 도서출판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내용 및 특징

宋代의 林堯叟가 지은 《春秋左氏傳》에 대한 解說書로서 《春秋》全文에서 解釋에 주의해야할 음에 대해서 半切로 註釋을 하고, 《春秋》에 나오는 여러 記事의 始末에 대해 풀이하고, 《左氏傳》의 句讀를 떼고 그 구절에 바로 註釋을 단 것이다.

간행경위는 이 책의 간행을 주도한 당시의 淸道郡守 朱邵의 발문에 그 간략한 경위가 기록되어 전한다. 발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동방에 문명의 가르침이 크게 행해져서 경전과 역사서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유독 左氏傳만은 간행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춘추를 공부하는 사람이 살펴볼 것이 없다. 신해년(1431년)에 監司 曹致와 都事 安質이 善本을 두루 구하다가 參議 朴賁의 집에 소장된 것에서 찾아내었다.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겼다. 8월부터 11월까지 일을 진행하여 완성하였다. 아! 曹 相國의 문교를 도움과 학문을 열어 이어받게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 知郡事 朱邵가 삼가 발문을 쓰다.

이 발문을 통해 대성암 소장본은 선본을 구해 그 책을 복각(覆刻)한 것으로, 성리학의 확산을 위해 지방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 아래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초기인 세종조의 출판 문화뿐 아니라 성리학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지방관의 노력을 살필 수 있다.

상세 목록은 다음과 같다.

春秋經左氏傳句解 / 林堯叟(宋) 音註

淸道 : 宣德6(세종13, 1431)년

11卷 1冊 (卷60~卷70, 零本)

木板本, 線裝(5침),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7.2 × 12.2cm, 有界, 14行 25字, 註雙行, 中黑口, 上下下向黑魚尾; 27.4 × 16cm

版心題 : 左

跋 : 惟我東方 …知郡事朱邵敬跋

刊記 : 宣德六年(세종13, 1431)十一月日淸道開板

재질 : 저지

상태 : 첫장 훼손 배접, 표지 개장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대성암 소장본은 완질이 아니라 맨마지막 책만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으나 다행히 발문과 간기가 있어 조선전기 세종조의 출판문화와 성리학의 확산을 위한 지방관의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아울러 1994년에 보물 제1208호로 지정된 <春秋經左氏傳句解>와 동일본일 뿐 아니라 보물 제1208호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던 자료이다. 즉, 보물 제1208호로 지정된 <춘추경좌씨전구해>의 간행연도가 宣光 6(1374)년으로 되어 있어 대성암 소장본이 알려지기 전까지 고려본으로 인지되어 왔는데, 대성암 소장본이 알려짐으로 인해 보물 제1208호의 간행연도가 宣光 6(고려 우왕 즉위년, 1374)년이 아니라 宣德 6(세종 13, 1431)년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대성암 소장 <춘추경좌씨전구해>는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4. 입학도설(入學圖說)

가. 심의사항

“입학도설”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입학도설”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3.1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06.23.)를 실시한 결과 보물지정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사안임.
- “입학도설”은 현지조사자 3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위원회 2011년도 제1차 회의('11.02.10.)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02.25~03.2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남유형문화재 제394호(2003.09.18. 지정)
- 명 칭 : 입학도설(入學圖說)
- 소유자 : 김찬호(대성암 주지)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 65
- 수 량 : 1책
- 규 격 : 26.5×18.2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板本)
- 형 식 : 선장(線裝)
- 제작연대 : 1425년(세종 7)
- 현 상 : 四周雙邊, 半郭 21×14.8cm, 有界, 半葉 13行 24字, 注雙行, 上下下向黑魚尾.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입학도설(入學圖說)』은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초간본은 도설 중 일부만 수록한데 비하여 중간본은 세종조에 전,후집을 합간한 완성본 형태의 간본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성암본은 보물 1136호에 누락된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각수와 판각용 고본의 필서자, 교감자 등 까지도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인정된다.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入學圖說』은 은 권근(1352~1409)이 고려 공양왕 2년(1390) 유배지인 益山에서 초학자를 위하여 지은 성리학 입문서이다. 본문이 前後集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집은 권근이 손수 교정하여 일찍이 진주에서 1397년에 간행된 적이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 되어 판목이 剝缺됨으로써 권근 몰후에 발견된 후집과 함께 권근의 아들 代言 권蹈가 경상도 經歷 朴融에게 부탁하여 1425년에 진주에서 간행하였다. 권말의 발문은 간행 경위와 참여자를 알 수 있어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기정된 보물 제1136호보다 상태가 좋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되어야한다.

○ (지정 가치 있음)

대성암 소장 《입학도설》은 보물 제1136호(소재 : 한국학중앙연구원)와 동일본이지만 대성암 소장 《입학도설》이 판각상태가 선명하고 먹색이 진한 것 한 것으로 보아 판각하고 난 후 오래되지 않아 인출한 초쇄본으로 파악되는 반면에, 보물 제1136호는 나무결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후쇄본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또 대성암 소장 《입학도설》은 보물 제1136호에는 없는, 입학도설의 간행을 후원하고 참여한 인물의 명단 1장이 더 붙어 있다. 따라서 대성암 소장 《입학도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1136호보다 학술적으로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성암 소장 《입학도설》은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각 페이지의 하단의 모서리에 부분적으로 보수된 곳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기 지정문화재인 보물 1136호와 비교할 때 판각상태와 먹색 등의 면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본 검토 문화재의 서지사항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四周雙邊, 半郭: 21 × 14.8cm, 有界, 13行 24字, 白口, 上下下向黑魚尾; 26.5 × 18.3cm.

標題 : 陽村先生入學圖說

序 : 洪武庚午...是歲良月 永嘉後學 權近(1352~1409)謹題

刊記 : 洪熙乙巳(世宗7, 1425)秋晉州牧繡梓

卷末 : 掛扞過揲之法

洪武戊寅(太祖7, 1398)夏五既望 三峰道人 鄭道傳(1342~1398) 識

跋 : 右入學圖說前後集...洪熙乙巳(世宗7,1425)秋七月 門人...密山 卞季良(1369~1430) 敬跋

○ 내용 및 특징

『입학도설(入學圖說)』은 양촌(陽村) 권근(權近 : 1352~1409)이 익산(益山)에서 귀양살이 하던 시절인 1390년에 유학의 경전인 사서오경(四書五經)과 태극도설(太極圖說) 등에서 주요 개념어를 뽑아 도(圖)와 설(說)로 풀이한 성리학의 입문서이다.

초간본은 편찬이 끝난 7년 뒤인 1397년(태조7)에 저자의 서문을 붙여 진주(晉州)에서 도호부사 김이음(金爾音)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내용은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 등 21편에 대한 도설(圖說)과 대학(大學)의 입전(立傳)과 중용(中庸)의 분절(分節)에 대한 2편의 변의(辨議), 논어와 맹자의 요지를 적은 어맹대지(語孟大旨) 1편, 도합 26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양촌이 서거한 후 아들 권도(權蹈)가 초간본에 수록되지 않은 원고를 발견하여 1425년에 박용(朴融)에게 부탁하여 감사 하연(河演) 등의 협조를 받고, 목사 이수(李穗)와 판관 반무량(潘茂良)의 감독하에 진주에서 간행하였다. 양촌의 문인 변계량(卞季良 : 1369~1430)이 발문을 쓰고, 저본은 정척(鄭陟)이 필서하고, 정사겸(鄭

思謙)이 교정을 담당하였다. 이 간표본에는 초간본에 수록된 26편 외에 십이월괘지도(十二月卦之圖) 등 14도(圖)에 대한 도설과 점치는 방법을 쓴 괘륙과설지법(掛扐過揲之法)이 추가되었다.

이 책의 권말에는 간행경위를 담은 변계량의 발문과 간행 참여자를 상세히 수록한 간행기록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기 지정본에는 누락된 간행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 책의 간행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참고로 옮겨 둔다.(본문중의 / 표는 개항(改行)의 위치를 밝힌 것이고, 띄어쓰기 표시는 필자의 해독에 따라 표시한 것이다.)

□ 跋文 □

右入學圖說前後集 /陽村先生之所著也 其前集 曾經/先生手校 而刊之晉陽 顧其歲久而字/已剝矣 後集則/先生既歿 而其本始出 字又多缺 惜哉 /先生之子代言蹈 囑慶尙道朴經歷融/刊行 其監司李公叔畝 及今監司河公/演 皆致力焉 俾前奉常主簿鄭陟書/之 復鋟梓于晉陽 牧使李公穗/判官潘茂良監督 功訖 代言携以示予/蘄識其/後 予嘗謂/天生陽村於吾東方 學者之大幸也/予之學於/先生甚久 固知是圖之切於後學也 深/矣 敢不欣然書諸卷末也耶/洪熙乙巳(1425.世宗 7)秋七月 壬申 門人 正憲大夫/藝文館大提學 集賢殿大提學 知經筵/同知春秋館事 兼成均大司成 密山 卞季良 敬跋

□ 刊行記錄 □

判官承訓郎兼勸農兵馬團練判官 潘<茂良>
牧使通政大夫兼勸農兵馬團練使李穗
都觀察黜陟士嘉善大夫中軍都摠制府同知摠制河演
經歷朝奉大夫試軍器副正南智
書字 前宣教郎奉常主簿兼承文院博士鄭陟
監校 學生鄭思謙
別色 前副戶長姜仁
刻手 磴雲 惠明 李洪 金順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입학도설(入學圖說)』은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초간본은 도설 중 일부만 수록한데 비하여 중간본은 세종조에 전,후집을 합간한 완성본 형태의 간본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성암본은 보물 1136호에 누락된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각수와 판각용 고본의 필서자, 교감자 등 까지도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인정된다.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실록소재 반사기록>

世宗 30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11月 2日(丁酉)

○慶尙道監司河演進《入學圖說》、《易》、《詩》、《春秋》、《中庸》、《大學》、《論語》、《孝行錄》、篆書《千字文》、大字《千字文》, 分賜于成均、校書館、四部學堂。

□

○ 간 기 : 洪熙乙巳(1425)秋晉州牧繡梓

○ 서 문 : 洪武庚午(1390)秋謫在金馬郡有一二初學輩來/讀庸學二書者語之諄夏尙不能通曉乃本/周子之圖參章句之說作圖以示又取先賢/格言以釋其意學者因有所問又隨而答之/仍記其問答之言以附其後名之曰入學圖/說旁取他經凡可作圖者皆圖之往往各附/臆見之說欲就正於先生長者鄉無先進身/拘籍姑待後日而已觀者幸恕其妄而教/之是所望也是歲良月初吉永嘉後學權近(1352~1409)謹題

○ 발 문 : 洪武戊寅(1398)夏五既望三峰道人鄭道傳識

右入學圖說前後集/陽村先生之所著也其前集曾經/先生手校而刊之晉陽顧其歲久而字/已剝矣後集則/先生既歿而其本始出字又多缺惜哉/先生之子代言蹈囑慶尙道朴經歷融/刊行其監司李公叔畝及今監司河公/演皆爲致力焉俾前奉常注簿鄭陟書/之夏鋟梓于晉陽牧使李公穗判官潘/茂良監督功訖代言携以示予蘄識其/後予嘗謂/天生陽村於吾東方學者之大幸也予之學於/先生甚久固知足圖之切於後學也深/矣敢不欣然書諸卷末也耶/洪熙乙巳(1425)秋七月壬申門人正憲大夫藝文館大提學集賢殿大提學知經筵/同知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密山卞季良(1369~1430)敬跋

經歷朝奉大夫試軍器副正 南智/都觀察黜陟士嘉善大夫中軍都制府同知摠制 河演/晉州牧使 通政大夫勸農兵馬團練使李穗/晉州判官承訓郎勸農兵馬團練判官潘茂良/書字前宣教郎奉賞注簿兼承文院博士 鄭陟/監校 學生 鄭思謙/別色 前副戶長姜仁/刻手 磴雲/惠明/李洪/金順

○ 내용 및 특징

『入學圖說』은 陽村 權近이 金馬郡(익산)에서 귀양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인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초학자에게 성리학의 기초지식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圖解방식으로 엮은 성리학 입문서이다. 기본체제는 周敦頤의 『太極圖說』을 바탕으로 하고 朱熹의 『中庸章句』를 참고하여 圖說을 만들고 그외에 선현들의 설을 취해서 해설을 첨가하는 방식이다. 그 중 전집은 권근의 수교를 거쳐 태조 6년(1397) 진양도호부사 金爾音(?~1409)에 의해 晉陽에서 간행된 바 있다. 「天人心性合一之圖」에서 「無逸之圖」까지 25종의 도설을 수록하고 권근의 自序와 진양도호부사 金爾音(?~1409)의 跋이 있다. 그 전집에 후집을 합친 합간본은 권근이 몰한 뒤 그의 아들 權蹈가 경상도 감영의 경력 박용에게 간행을 위촉한 것인데 당시의 전후감사인 이숙무와 하연의 협력을 얻어 봉상시의 주부 정척(1390~1475)에게 판서본을 쓰게 하여 진양에서 목사 이혜와 판관 반무양의 감독아래 세종 7년(1425)에 그 간역을 마쳤다. 이 전후집에는 초간본에 「十二月掛圖」에서 「公族及太宗之圖」까지 14종의 도설을 후집에 추가하였고, 「掛扞過揲之法」이 부록되어 있다.

이 책의 권말에는 권근의 門人인 卞季良의 跋(1425) 간행 참여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동일본 보물 제1136호 (한국학중앙연구원)보다 인쇄 상태가 깨끗하다.

○ 문화재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入學圖說』은 權近(1352~1409)이 고려 공양왕 2년(1390) 유배지인 益山에서 초학자를 위하여 지은 성리학 입문서이다. 본문이 前後集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집은 권근이 손수 교정하여 일찍이 진주에서 1397년에 간행된 적이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 되어 판목이 剝缺됨으로써 권근 몰후에 발견된 후집과 함께 권근의 아들 代言 權蹈가 경상도 經歷 朴融에게 부탁하여 1425년에 진주에서 간행하였다. 권말의 발문은 간행 경위와 참여자를 알 수 있어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지정된 보물 제1136호보다 상태가 좋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되어야 한다.

□

○ 현 상 : 상태 양호, 본문 아래 모서리 부분 보수

○ 내용 및 특징

《입학도설》은 성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기본적인 원리를 도식화하여 설명한 책이다. 서문에 의하면, 權近(1352~1409)이 1390년(高麗 恭讓王 2)에 유배되어 金馬郡에 있을 때 아이들이 와서 대학과 중용을 읽는데, 뜻을

잘 깨치지 못하므로 중국 송나라 周敦頤의 《太極圖說》을 본따고 朱熹의 章句를 참작하여 그림을 그린 후 先賢의 격언을 취하여 도식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 밖에도 저자 자신과 찾아오는 학자들과의 문답을 부기하고 여러 경전에서 도시할 만한 것을 뽑아 그림을 그려 저자의 의견을 붙였다.

경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하고 주요 내용을 병기하는 《입학도설》의 저술 방식은 퇴계 이황의 《성합십도》의 제작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변계량의 발문에 의하면, 전집은 일찍이 권근이 손수 교정하여 진주에서 간행하였다. 세월이 오래되어 판목의 글자가 마모되었다. 후집은 선생 사후에 발견되었는데, 권근의 아들 권도가 경상도 경력 박용에게 간행을 부탁하였다. 감사 이숙묘와 하연이 힘을 다했다. 정척에게 글자를 쓰게 하여 진양에서 판각하였다. 목사 이온과 판관 반무량이 감독하였다.

《입학도설》의 상세 목록은 다음과 같다.

入學圖說 / 權近(1352~1409) 著

晉州 : 洪熙乙巳(세종7, 1425)년

2卷 1冊

木板本, 線裝(5침),

四周雙邊, 半郭: 21 × 14.8cm, 有界, 13行 24字, 白口, 上下下向黑魚尾; 26.5 × 18.3cm

삽도 : 天人心性合一之圖 외

標題 : 陽村先生入學圖說

序 : 洪武庚午(고려 공양왕2, 1390)...是歲良月永嘉後學權近(1352~1409)謹題

刊記 : 洪熙乙巳(세종7, 1425)秋晉州牧繡梓

卷末 : 掛扨過揲(?)之法

道傳一日...洪武戊寅(太祖7, 1398)夏五既望三峰道人鄭道傳(1342~1398)識

跋 : 右入學圖說前後集...洪熙乙巳(세종7, 1425)秋七月門人...密山卞季良(1369~1430)

敬跋

현상태 : 양호, 각 페이지 아래 모서리 부분 보수

특이점 : 보물 1136호(소재 : 한국학중앙연구원)보다 더 판각상태가 선명하고 먹색이 진함 .

○ 문화재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대성암 소장 《입학도설》은 보물 제1136호(소재 : 한국학중앙연구원)와 동일본이지마는 대성암 소장 《입학도설》이 판각상태가 선명하고 먹색이 진한 것으로 보아 판각하고 난 후 오래되지 않아 인출한 초쇄본으로 파악되는 반면에, 보물 제1136호는 나무결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후쇄본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또 대성암 소장 《입학도설》은 보물 제1136호에는 없는, 입학도설의 간행을 후원하고 참여한 인물의 명단 1장이 더 붙어 있다. 따라서 대성암 소장 《입학도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1136호보다 학술적으로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성암 소장 《입학도설》은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5. 동인시화(東人詩話)

가. 심의사항

“동인시화”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동인시화”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3.1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06.23.)를 실시한 결과 보물지정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사안임.
- “동인시화”는 현지조사자 3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위원회 2011년도 제1차 회의('11.02.10.)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02.25~03.2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남유형문화재 제397호(2003.09.18. 지정)
- 명 칭 : 동인시화(東人詩話)
- 소 유 자 : 김찬호(대성암 주지)
-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 65
- 수 량 : 2권1책(권 상·하)
- 규 격 : 31×21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板本)
- 형 식 : 선장(線裝)
- 제작연대 : 1477년(성종 8)
- 현 상 : 四周單邊, 半郭 23.5×16.7cm, 有界, 半葉 10行 17字, 上下內向黑魚尾.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책은 조선 초의 문학사 특히 비평사연구 연구, 그리고 출판사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이 책은 저자가 생전에 간행한 시화집으로 초간본인 동시에 완본(完本)이다. 초간본의 완본이 전래되는 것이 희소하다는 점에서 국가 문화재로 승격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東人詩話』는 서거정의 시화집으로 1477년 4월에 경상도 밀양에서 간행한 초간본이며, 상·하 2권 완본이다. 조선 초기 문단을 주도했던 서거정이 그의 생전에 간행한 시화집으로, 우리나라 한시 비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문헌이다. 또한 서·발문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간행경위를 알려주고 있어 서지적으로도 중요한 자료이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서거정의 개인저술인 《동인시화》는 신라 최치원 때부터 조선초기 서거정 당시에 이르기까지 약 육백여년 동안 한국인에 의해 회자된 시와 시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대부분 우리의 시와 시인을 주축으로 엮어졌다. 서거정이 우리의 시와 시인을 중심으로 시론과 비평을 전개하는 것을 볼 때 《동인시화》의 편찬은 우리의 시와 시인을 사랑하는 서거정의 주체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의 동문선 편찬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말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훈민정음이 탄생하였듯이, 우리 시와 시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인시화》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세종조 이후의 우리 문화와 우리 국민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일련의 저술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인시화》는 한국문학사, 한국한문학사, 한국비평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문헌으로서 초간본이 현존한다는 것은 감격적인 일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조사보고서 전문



○ 현 상

표지는 개장되었다. 부분적으로 오염된 부분이 있고, 모서리 일부에 수보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본 검토대상 문화재의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人詩話 / 徐居正 著

2卷 1冊(完, 上, 下)

木板本(後刷本), 線裝(5針),

四周單邊, 半郭: 23.5 × 16.7cm, 有界, 10行 17字,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31 × 21cm

序 : 1) 東人詩話序 : 是歲(1474) 秋八月 晉山姜希孟景醇序

2) 予嘗謂…成化紀元之十一年蒼龍乙未(1475, 成宗6)…金守溫(1410~1481) 文良 序

跋 : 1) 東人詩話後序 : 龍集丁酉(1477) 夏四月中澣 通訓大夫…崔淑精 國華 序

2) 書東人詩話後 : 時成化紀元之十三年(成宗8, 1477) 梁誠之 鈍夫 謹跋

○ 내용 및 특징

『동인시화(東人詩話)』는 권수에 강희맹(1474)과 김수온(1475년) 쓴 서문이 있고, 본문 상, 하권이 끝난 다음에 최숙정(1477년 4월)과 양성지(1477년 윤2월)의 발문을 실었다. 이 책은 1477년 4월에 밀양에서 간행한 초간본이다.

내용은 조선 초기 오랜 기간 대제학을 맡아 화국문장(華國文章)의 주역으로 나섰던 서거정의 시화집이므로, 신라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시인들의 시를 품평하고, 자신의 시론(詩論)을 기술한 것이다. 생전에 간행한 조선 전기 시화집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조선전기 문학사 및 비평사,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이 책은 조선 초의 문학사 특히 비평사연구 연구, 그리고 출판사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이 책은 저자가 생전에 간행한 시화집으로 초간본인 동시에 완본(完本)이다. 초간본의 완본이 전래되는 것이 희소하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 문헌자료

<文集所載 東人詩話 序跋文>

○ 金守溫(東人詩話序)

吾東方自殷太師歌麥秀以來。歷三國高麗氏。至于作者不啻數百家。其評品。觀破閑裨說話書。可知也。今達城徐先生。生於東國太平之年。家傳陽村詩禮之訓。獨步詩

坳。名動中原。乃於弘化之餘。手撰東人詩話二篇。其記聞之博。識見之高。有所謂在堂上而卞曲直。詩道之集大成者也。僕一日。與姜晉山。會先生于承文院。見所謂詩話者。二人圭復不已。相謂曰。斯文之寶。當與萬世共之。不可以祕藏於文房而已也。東人詩話序予嘗謂知詩之惡後。可以得詩之正。得詩之正。然後可與言詩之道。是故。博雅君子。不能無評品之權衡。雌黃之點化。四佳相公以詩學登壇。爲一代之所宗。間取古今詞人墨客之所述。有全篇之粹然者。有一字一句而警策者。與夫意雖正而辭或踳駁。言雖切而指或賤俚。其間相去不能以寸。而公則議論之精。細於毫釐。陞黜之威。嚴於袞鉞。且公之博聞。過人遠甚。不唯先賢本集。與夫傳記所載。而見聞所及。無問俚雅。隨卽舉筆。雜以閑言調笑之說。讀之愈多。愈覺其新而不知倦。比之於規規之掇拾腐紙。唇吻於糟粕而無所發明者。爲有間矣。於是。觀公之所貶駁。則必有以知詩道之不可如是。見公之所褒美。則必有以知詩道之決不可不如是。卽所謂不加繩墨而方圓正直者也。一日。造公門。公不之靳。出示予。予甚珍之。以謂雖古之詩林玉屑。亦無過之。而益知公文章之美。於是。戲之曰。予有一語。公能駁之如古人乎。公曰。何謂也。公鑿池種蓮。作堂其上。而名曰亭亭亭。若能對亭亭亭則已。若不能對。如速改之。公曰。亭名何與於詩。三百篇中。無三字詩。其可詩而又及亭名乎。予亦不能強公也。成化紀元之十一年蒼龍乙未暮下浣。乖崖老人。記序。(拭疣集卷之二 序)

○ 姜希孟(東人詩話序)

詩有六義。苟能緣文究義。庶得作者之意。詩奚埃於評。而評之不已。何歟。蓋詩不可舍評而祛疵。醫不可棄方而療疾。自雅亡而騷。騷而古風。古風而律。衆體繁興。而評者亦多。如總龜集。苕溪叢話。菊莊玉屑等編。議論精嚴。律格備具。實詩家之良方也。吾東方詩學大盛。作者往往自成一家。備全衆體。而評者絕無聞焉。及益齋先生櫟翁稗說。李大諫破閑集等編作。而東方詩家精粹。得有所考。厥後百餘年間。莫有繼之者。豈非詩學之一大慨也。成化甲午秋。吾同年達城徐侯剛中。袖所著東人詩話兩卷來示。徵余言爲序。且請增評話。景醇於詩學。杜撰也。野狐也。安敢有所論說。今觀是篇。上自新羅文昌。下逮本朝諸儒。俯仰數百載。搜剔靡遺。摘精會粹。參以論議。敷闡幽曠。如淬古劍。益增光彩。不徒取其文詞之美。隱然以維持世教爲本。吁盛矣。用心之勤也。竊嘗論之。大雅蒸民之詩曰。天生蒸民。有物有則。民之秉彝。好是懿德。孔子曰。爲此詩者。其知道乎。故有物必有則。民之秉彝也。故好是懿德。魯頌駉篇之辭曰。思無邪。思馬斯徂。子曰。詩三百。一言蔽之。曰思無邪。夫兩詩之旨。各有所在。而微吾夫子發揮之如此。則後世安知民彝物則之固有。而其秉執之常性。足以好此懿德也哉。又安知懲創感發。同歸無邪。而唯此一言。足以盡蓋三百篇之意歟。詩人所未能暢達。而夫子發之。此乃詩話之所以權輿也。剛中氏是編之作。上不乖夫子之意。下以倣諸家之範。能以己志。迎取作者之

意。有所發明。而不拂乎義理之源。精微之奧。然則其有補於詞學。豈淺淺哉。若夫評話。則今適南歸古鄉。幸而有得於鄉大夫文獻之間。當折簡飛報。鍼砭而增續之。可也。是歲秋八月上澣。序。(私淑齋集卷之八 序)

○ 崔淑精(東人詩話後序)

詩三百篇。古也。皆經聖人刪定。宜若無事於論議矣。而門弟子之賢如卜商者。從而序之。故能發明聖人之微旨。而詩道昌矣。後世之詩。衆體並興。其變無窮。既不見聖人之刪。又無賢者之序。無怪乎六義之不復也。所賴大雅君子。世不乏人。而始有詩評。如總龜叢話, 玉屑諸編是已。吾東方詩學。始於三國。盛於高麗。極於聖朝。其間斧藻裁品者。若鄭中丞嗣文, 李大諫眉叟, 金文正台鉉, 崔平章樹德, 李益齋仲思。皆有裒輯之勤。然不無疏略細瑣之病。吾恩門達城徐相國。嘗手採東人諸作。著詩話二篇。合諸家之精英。逐節雌黃。針砭膏肓。如麻姑爬癢。得 缺□□ 之味。而文簡旨遠。言暢意該。自有詩話以來。未有如此之精切者也。學者苟能因是而窮夫詩之精義。去其類而勉其粹。自可泝漢魏。追離騷直入風雅之闢域矣。雖然。論畫者。可以形似。而捧心者難言。聞絃者。可以數知。而至言者難說。詩之出於聲色意料之內者。可以形之於文字之間。傳之於言語之中。出於形色意料之表者。只可心會。不可言傳。徒知寄於文字者止是。而不求之文字之外而心會之。則非惟失詩之微旨。亦且失是編之意矣。此不可不知也。龍集丁酉夏四月中澣。通訓大夫行藝文館副應教, 知製教兼經筵侍講官, 春秋館編修官崔淑精國華。序(逍遙齋集卷之二 文□序)

□

- 서 문 : 成化 甲午(1474)秋八月上澣晉山 姜希孟(1424~1483)景醇序
龍集 乙未(1475)暮春下澣乖崖老人金守溫(1409~1481)文良序
- 발 문 : 龍集丁酉年(1477)夏 四月中澣通訓大夫行藝文館副應教知製教兼
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 崔淑精(1433~1480)國華序
成化紀元之十三年(1477)後二月初吉南原梁誠之(1415~1482)鈍夫
謹跋

○ 내용 및 특징

『東人詩話』는 徐居正이 편찬하여 간행한 시화집이며, 조선 세종 10년(1477)4월에 밀양에서 간행한 초간본이다.

徐居正(1420~1488)의 字는 剛中, 初字는 子元, 號는 四佳亭·亭亭亭, 本貫은 達城. 權近의 外孫이며, 文才가 뛰어나 성종조에 文衡을 지냈는데 특히 시에 뛰어나 당대 최고의 시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이 『東人詩話』는 우리나라 시인과 시를 대상으로 비평하고 있는데 상·하권으로

되어 있다. 권두에는 1474년에 姜希孟과 1475년에 金守濫이 쓴 서문이 있고 본문 卷上에는 宋太祖와 李太祖의 微時의 詩句를 들어 제왕의 문장을 말하고, 이어서 文昌侯 崔致遠, 文烈公 金富軾, 諫議 鄭知常 등의 詩話로부터 僧 幼庵, 動安居士 李承休, 益齋 李齊賢 등의 詩話에 唐宋代의 詩까지 곁들여 詩에 관한 逸話를 기록하였다. 卷下에는 高麗 光·顯宗 이후 四六文은 盛했으나 益齋, 稼亭, 牧隱, 圃隱 등에 이르러 性理學이 倡明되었다는 이야기로 始作되어 鄭司諫 李相國 등의 詩話, 朴贊成과 妓女와의 詩話 등 詩話 多數가 실려 있다. 하권이 끝난 뒤에 두 편의 발문이 있는데 1477년에 崔淑精과 梁誠之가 쓴 것이다. 서문과 발문이 2~3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1474년 무렵에 서문을 받았으나 그 때 바로 간행되지 못하고 좀더 교정과 열람을 거쳐서 1477년에 이르러 밀양부사 朴時衡의 주관으로 밀양부에서 간행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詩話를 모아 엮은 것으로 우리나라 野史를 살펴보는 데 좋은 참고가 되며 漢文學史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 문화재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東人詩話』는 서거정의 시화집으로 1477년 4월에 경상도 밀양에서 간행한 초간본이며, 상·하 2권 완본이다. 조선 초기 문단을 주도했던 서거정이 그의 생전에 간행한 시화집으로, 우리나라 한시 비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문헌이다. 또한 서·발문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간행경위를 알려주고 있어 서지적으로도 중요한 자료이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

○ 현 상 : 표지 개장, 본문아랫부분 보수, 오염, 얼룩

○ 내용 및 특징

《東人詩話》는 徐居正(1420~1488)이 신라 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의 詩話, 즉 시비평문을 모아놓은 시비평집으로 한국문학사와 한국시비평사, 한국한문학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은 1477년(成宗 8)에 간행된 초간본인데, 1636년(仁祖 14)에 初刊本이 兵火로 거의 없어져서 전래본이 드물다.

권두에 1474년에 晋山 姜希孟이 쓴 서문과 1477년에 崔淑精이 쓴 후서와 1475년에 쓴 金守濫의 서문이 있고 권상에는 宋太祖와 李太祖의 微時의 시구를 들어 제왕의 문장을 말하고, 이어서 文昌侯 崔致遠, 文烈公 金富軾, 諫議 鄭知常 등의 시화로부터 僧 幼庵, 動安居士 李承休, 益齋 李齊賢 등의 시화에 당송대의 시까지 곁들여 시에 관한 일화를 기록하였다. 권하에는 고려 光·현종 이후 四六文은 성했으나 益齋, 稼亭, 牧隱, 圃隱 등에 이르러 성리학이 倡明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

어 鄭司諫, 李相國 등의 시화, 朴贊成과 기녀와의 시화 등 시화 다수가 실려 있다. 끝에는 李必榮의 跋이 있다. 서거정의 풍부한 지식으로 우리나라의 시화를 모아 엮은 것으로 우리나라 야사를 살펴보는 데 좋은 참고가 되며, 한문학사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간행경위는 양성지의 발문에 나타나 있다.

1474년에 서거정이 자신이 지은 동인시화를 강희맹에게 보여 주며 서문을 부탁하였다. 그 뒤 1475년에 김수온이 서거정의 집을 방문했을 때 서거정이 이 책을 또 김수온에게 보여줌으로써 김수온의 서문도 받게 되었다. 1477년에 이르러 양성지가 승문원에서 서거정과 강희맹을 만난 자리에서 간행을 권고하여 밀양부사 박시형에 의해 간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東人詩話》의 상세목록은 다음과 같다.

東人詩話 / 徐居正 著

密陽：密陽府，成化13(성종8, 1477)년

2卷 1冊(完, 上, 下)

木板本(後刷本), 線裝(5침),

四周單邊, 半郭: 23.5 × 16.7cm, 有界, 10行 17字,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31 × 21cm

序：1) 東人詩話序：是歲秋八月晋山姜希孟(1424~1483)景醇序

2) 序嘗謂...成化紀元之十一年(1475)蒼龍乙未...金守溫(1410~1481)文良序

跋：1) 東人詩話後序：龍集丁酉(1477)夏四月中澣通訓大夫...崔淑精(1433~1480)國華序

2) 書東人詩話後：時成化紀元之十三年(성종8, 1477)梁誠之(1415~1482)鈍夫謹跋

재질：저지

현상태：표지 개장, 얼룩, 오염, 본문 아래 모서리 보수(일부).

소장시기：10여 년 전 구입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서거정의 개인저술인 《동인시화》는 신라 최치원 때부터 조선초기 서거정 당시에 이르기까지 약 육백여년 동안 한국인에 의해 회자된 시와 시인을 논의의 대상

으로 삼았으며, 대부분 우리의 시와 시인을 주축으로 엮어졌다. 서거정이 우리의 시와 시인을 중심으로 시론과 비평을 전개하는 것을 볼 때 《동인시화》의 편찬은 우리의 시와 시인을 사랑하는 서거정의 주체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의 동문선 편찬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말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훈민정음이 탄생하였듯이, 우리 시와 시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인시화》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세종조 이후의 우리 문화와 우리 국민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일련의 저술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인시화》는 한국문학사, 한국한문학사, 한국비평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문헌으로서 초간본이 현존한다는 것은 감격적인 일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 문헌자료

엄재선, 東人詩話研究,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대학원, 1992.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6.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가. 심의사항

“대승기신론소”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대승기신론소”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3.1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06.23.)를 실시한 결과 보물지정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사안임.
- “대승기신론소”는 현지조사자 3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위원회 2011년도 제1차 회의('11.02.10.)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02.25.~03.2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남유형문화재 제391호(2003.09.18. 지정)
- 명 칭 :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 소 유 자 : 김찬호(대성암 주지)
-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 65
- 수 량 : 3권1책
- 규 격 : 36×22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 형 식 : 선장(線裝)
- 제작연대 : 1457년(세조 3)
- 현 상 : 四周單邊, 半郭 24.8×17.4cm, 有界, 半葉 10行 17字, 注雙行, 上下內向黑魚尾. 版心題 ‘起信論’, 御製 발문 하단부 결손 및 8~10자 결락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책은 본래 원효의 주석서인 <起信論疏>에 영향을 받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법장의 소(疏)에 종필이 주해를 가한 주석서이다. 이 책은 조선 세종 연간에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교학 불서이다. 일본에서는 수차례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이 책이 유일한 원간본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약간의 상권의 일부가 결실되어 유감스러우나, 국내 유일의 원간본이라는 점에서 불교학 및 조선 초기 고찰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 이의 지정 심의를 상신하는 바이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大乘起信論疏』는 조선 세조 3년(1457)에 금속활자로 주조된 初鑄甲寅字 인출본으로, 권말에 있는 발문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간행연대와 유통사실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완질은 아니지만 국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유일본이며, 조선조에 들어서 3번째로 세종16년(1434)에 주조된 금속활자(초주갑인자)의 사용례를 알 수 있어 불교학 및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책은 4권 중에서 1권이 결락되어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조선 전기 초주갑인자로 찍은 종필의 『대승기신론소』 인본 중 공개된 것으로는 이 책이 유일하다. 또한 당시 국가주도로 간행한 금속활자본 불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중한 자료이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1. 내용 개요

중국 당나라 법장이 마명(馬鳴)이 지었다는 《대승기신론》에 대해 주석한 교장의 일종으로 조선시대 1457년에 금속활자(초주갑인자)로 간인한 불서 2권 1책이다. 본래 <대승기신론>은 마명의 저작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중국에서 찬술한 위경이란 주장도 있다. 이 <기신론>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종분(正宗分)은 그 아래에 인연분(因緣分), 입의분(立義分), 해석분(解釋分), 수행선심분(修行善心分),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신론>은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대승불교의 중심적인 사상을 요약한 것으로서 단편에 불과 하지만 불교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일찍이 법장의 <疏>와 원효(元曉)·혜원(慧遠)이 각각 소(疏)를 부친 것을 ‘기신론삼소(起信論三疏)’라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법장의 <소>는 원효의 주석서인 <기신론소>에 영향을 받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장의 <義記>와는 내용과 편장이 약간 다르다.

2. 자료의 검토

이 책은 대각국사 의천의 <교장총록>에 법장이 찬자로 되어 있는 것은 ‘疏 3卷’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사대상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권수제 다음 행에 ‘西大原寺沙門 法藏 述’이란 저자표시가 기입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주해자인 종밀(宗密)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이 책은 본래 상하 2권 1책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대상본은 상권의 1부분이 결분상태이어서 아쉽다. 표지는 불복장에서 발견된 이후 근래에 새로 개장되어 있으며, 전체 크기는 36.3×12.1cm이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판면에는 계선(界線)이 가늘게 보이며, 광곽의 크기는 세로 24.8×17.4cm이다. 인쇄면은 반엽을 기준으로 10행이며, 매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상하에 굵직한 흑어미가 보이고 있으며, 그 사이에 판심제 ‘起信論’과 권장차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어미의 모습은 조선 초기 세종연간에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활자본에 보이는 정형적인 판식과 유사하다. 이처럼 조사대상본은 조선 세조연간에 초주갑인자로 인출한 활자본이다. 권말에는 세조가 죽은 아들을 위해 1457년에 지은 어제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3. 조사자 의견

이 책은 본래 원효의 주석서인 <起信論疏>에 영향을 받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법장의 소(疏)에 종밀이 주해를 가한 주석서이다. 이 책은 조선 세종 연간에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교학 불서이다. 일본에서는 수차례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이 책이 유일한 원간본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약간의 상권의 일부가 결실되어 유감스러우나, 국내 유일의 원간본이라는 점에서 불교학 및 조선 초기 고찰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 이의 지정 심의를 상신하는 바이다.

□

○ 발 문 : 御製/予爲亡子既成諸經又...../起信論文義險奧幸...../添成廣布庶
 幾憑/漸漸成就妙德不墜予...../雖盡而心無盡唯願...../佛天哀攝受
 天順元年.....

○ 내용 및 특징

이 자료는 『大乘起信論』에 중국 당나라 法藏이 해석하고 이를 宗密이 註를 가한 주석서로서 조선 세종 16년(1434) 주조된 금석활자인 초주갑인자로 사용하여 세조 3년(1457)에 간행한 『大乘起信論疏』이다.

『大乘起信論』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인도의 馬鳴의 저술로 대승불교의 개요서로서 매우 치밀한 구성뿐만아니라 내용상으로 체계적인 불교교의를 표방한 것이다. 法藏은 전체 내용을 序分, 正宗分, 流通分의 세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宗體를 밝히는 부분에서는 논이 지어진 경위를 설명하고 주제를 제시하면서 제목을 해석하고 있는 서분에 이어서 본문에 대한 구절을 구체적으로 풀이하는 立義分과 解釋分 그리고 이어지는 修行信心分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배양하고 수행할 것인가를 말하는 부분의 正宗分으로 본론을 형성한다. 그리고 勸修利益分은 수행을 권하여 그 이익을 말하는 부분으로 流通分 즉 결론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起信論』에 관한 대표적인 주석서로서는 법장의 「疏」, 원효와 隋의 慧遠이 주석한 「疏」 등을 ‘三疏’로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의 불교권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저술로 알려지고 있다.

이 『大乘起信論疏』는 卷上之二와 卷下之一 및 卷下之二 등 3권 1책으로 되어 있다. 卷上之一 부분은 逸失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는 口訣이 있고 頭註가 목서로 되어 있다. 卷下之二말에는 御製 발문이 있는데, 판독 가능한 부분에 ‘天順元年’이란 기록으로 보아 1457년에 世祖가 직접 발문을 쓴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발문은 아니지만 유통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표지는 개장되어 표제는 없고, 卷下之二말 하단부에 2행3자가 결락되었으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 문화재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大乘起信論疏』는 조선 세조 3년(1457)에 금속활자로 주조된 初鑄甲寅字 인출본으로, 권말에 있는 발문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간행연대와 유통사실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완질은 아니지만 국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유일본이며, 조선조에 들어서 3번째로 세종16년(1434)에 주조된 금속활자(초주갑인자)의 사용례를 알 수 있어 불교학 및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

○ 현 상 :

4권 중 첫째 권(卷上之一)이 결락되었음. 그 외의 본문은 거의 온전하나 세조의 어제발문이 있는 마지막 장은 하단이 찢겨져 나갔으며, 장책은 근래에 다시 하였음.

○ 내용 및 특징

『대승기신론』이란 대승불교의 경전이다. 2세기경 인도의 마명(馬鳴)이 지었다고 하나 이설이 있다. 여래장(如來藏)의 입장에서 중관(中觀)과 유식을 포용한 내용이다. 신라 원효(617~686)의 『대승기신론소』 2권과 당나라 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 3권 및 수나라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 523~592)의 『대승기신론의소』 2권을 기신론삼대소(三大疏), 곧 3대 주석서로 일컫는다. 이 외에도 종밀(宗密, 780~841)의 『대승기신론소』와 『석마하연론』 등도 있다.

대성암 소장본의 이 책은 종밀의 『대승기신론소』이다. 당나라의 법장(643~712)이 해석한 것인데 종밀이 주석을 더한 것이다. 곧 종밀은 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를 따라 『대승기신론』의 본문에 과문(科文)과 주석을 덧붙여 이 『대승기신론소』를 저술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권수제 다음 행에 “西太原寺沙門法藏述 草堂沙門宗密錄之 隨科注於論文之下”와 같이 표기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종밀의 『대승기신론소』는 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를 벗어나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 권제 3 『대승기신론』에도 “疏四卷 或三卷或二卷宗密將藏疏注於論文之下”와 같이 수록되어 있다.

권상의 1,2와 권하의 1,2 등 모두 4권이 완본(完本)이다. 소장본은 권상지이(卷上之二), 권하지일(卷下之一), 권하지이(卷下之二) 등 3권1책이다. 결락된 권상지일(卷上之一)의 분량으로 보아 원래 4권1책으로 장책되어 있었을 것이다. 두주(頭註)가 필사되어 있는 면이 많이 보인다.

이 책의 권미에는 천순 원년(세조3,1457) 11월 20일에 지은 세조의 어제발문이

있다. 발문에서 세조는 이 책을 간행한 직접적인 동기가 이해 9월 2일 20살의 나이로 죽은 의경세자(1438~1457)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곧 “죽은 아들을 위하여 이미 여러 경전을 완성하였다. 또 『기신론』은 글의 뜻이 심오한데 다행히 규봉(종필)의 주해서를 얻게 되자 인국(印局)에 명령하여 널리 배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아들이 진리를 깨달아 묘덕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책을 간행하였던 것이다. 당시 인국에서는 세종 16(1434)년에 주성한 초주갑인자로 이 책을 찍어내었다. 이후 중종 23(1528)년에는 금산(金山)의 신음산(身陰山) 신안사(身安寺)에서 이 갑인자본을 번각하여 간행하였고, 광해군 8(1616)년에도 황해도 송화(松禾)의 수증사(脩甞寺)에서 독자적인 판하본을 만들어 동일한 내용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책은 4권 중에서 1권이 결락되어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조선 전기 초주갑인자로 찍은 종필의 『대승기신론소』 인본 중 공개된 것으로는 이 책이 유일하다. 또한 당시 국가주도로 간행한 금속활자본 불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중한 자료이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조명제, “栢庵性聰의 佛典 편찬과 사상적 경향”,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제68집 2008.9.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7.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

가. 심의사항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01.23.)를 실시한 결과 보물지정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사안임.
- 본 사안은 2005년도 본 위원회 6차 회의(‘05.12.29.)에서 소장경위에 대한 자료누락으로 보류되었으며, 2006년도 본 위원회 1차 회의(‘06.02.09)에서 제출된 소장경위서 보완이 필요하여 재보류되었던 사안으로 충청북도지사가 본 문화재의 기증서를 첨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다시 신청(2008.05.07)한 사안임.
-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은 현지조사 3인이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0년도 제2차 회의(‘10.4.8)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예고(‘10.4.26~5.25)하였고, 소장경위에 대한 자료가 제출(2010.10.11.)되어 2010년도 제5차 회의(‘10.10.14.) 심의 사안으로 부의하였으나 소장경위를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결됨
- 이에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 소장 경위 관련 증빙 자료 요청(‘10.10.29.)을 하였고, 자료가 제출(‘10.11.17.)되었지만 증빙 자료로서의 확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증빙자료 재요청(‘10.12.06)하였고, 자료가 제출(‘11.02.08)되어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됨에 30일간 지정 예고(‘11.02.25~03.2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북유형문화재 제277호(2006.10.04. 지정)
- 명 칭 :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

- 소 유 자 : 구인사
-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 수 량 : 1권 1첩
- 규 격 : 19.3 × 68.3cm(16장 연결, 1장에 42行 17자씩 배열)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사경(寫經)
- 형 식 : 첩장(帖裝)
- 제작연대 : 1364년(고려 공민왕 13)
- 현 상 : 上下金泥單邊, 半匡: 18.9×13.3cm, 有界, 14行 24字, 版心題: 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있음)

지정 조사 대상본은 고려 공민왕 13년(1364)에 금니로 쓴 사경으로 권수의 변상도가 매우 훌륭하고 보존상태도 거의 완전하다. 또 寫成記 및 奉安記가 수록되어 있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조성하고, 이를 일본 사찰에 봉안한 것인지를 알 수도 있다. 특히 사성기를 통해 사경 조성에 書者 및 畫者로 참여한 인물이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 사경은 과거 일본으로 유출되었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온 귀환문화재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의미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가치 있음)

고려 恭愍王 13년(1364) 5월에 白紙에 金泥로 寫成된 이 『梵網經』은 권수에 정교한 變相圖가 있고 권말에는 寫成記를 갖추고 있어 불교사 및 사경불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다시 돌아온 반입문화재로서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지정가치 있음)

고려 공민왕 13년(1364)에 금니로 쓴 이 사경은 변상도가 정교한데다 보존상태도 거의 온전하다. 또 사성기가 있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완성한 것인지를 알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과거 일본으로 유출되었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온 귀환문화재라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 기타(소장 경위 등)

이 사경에 대한 조사는 이미 있었고, 이후 2006년 2월 9일에 개최된 동산문화재 분과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정가치는 있으나 유물구입 경위에 대한 명확한 자료 확보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된 일이 있다. 현재 구인사 측이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2001년 7월 20일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거주하는 임명석씨가 대한불교 천태종 구인사에 기증”하였다는 기증서가 있으므로 이제 재심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전체적으로 온전한 상태이나 약간의 蟲食 현상이 보이며, 전후 표지 부분은 근래 새로 수리된 상태이다. 표제(經名)는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감색의 표지와 본문은 온전하다. 권을 펼치면 변상도에 이어 梵網經菩薩戒序,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 受菩薩戒法并序, 受菩薩戒儀 등이 차례로 금니로 쓰여져 있다.

변상도를 제외한 본문은 15장이고, 제1장의 뒷면에는 글씨를 쓰지 않았다. 금니로 된 계선은 1면당 6행이다. 앞면 전체와 뒷면의 제3면까지는 상하쌍변이고, 뒷면의 나머지 면은 상하단변으로 차이가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책은 고려 공민왕 13년(1364)에 닥으로 만든 흰 종이에 계선을 긋고 그 사이에 금니로 쓴 사경이다. 하권의 내용은 10가지 무거운 죄와 48가지 가벼운 죄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모습은 화엄경과 통하므로 화엄의 마무리로 여긴다. 또 대승의 보살계이므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중시한 경전이다.

특히 권말의 寫成記에 따르면, 이 사경은 공민왕 13년(至正24, 1364) 5월에 芝岩이 글씨를 금니로 쓰고, 無外가 變相圖를 그린 것으로 밝히고 있어 사경 구성에 참여한 구체적 사실을 밝히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사경 구성에 참여한 화주는 戒元이고, 시주는 강양군부인 이씨였다. 그리고 군부인 이씨는 죽은 남편 李子猷와 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시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끝부분의 墨書를 통해, 이 사경은 일본의 文祿 4년(1595) 2월에 良以라는 사람이 일본의 어느 사찰에 기부하여 안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 보

아 이 사경은 임진왜란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약탈하여 일본의 사찰에 오랫동안 봉안되었다가, 근래에 다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에 보존되어 있는 사경에서는 볼 수 없는 충해 현상이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하겠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지정 조사 대상본은 고려 공민왕 13년(1364)에 금니로 쓴 사경으로 권수의 변상도가 매우 훌륭하고 보존상태도 거의 완전하다. 또 寫成記 및 奉安記가 수록되어 있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조성하고, 이를 일본 사찰에 봉안한 것인지를 알 수도 있다. 특히 사성기를 통해 사경 조성에 書者 및 畫者로 참여한 인물이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 사경은 과거 일본으로 유출되었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온 귀환문화재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의미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 현 상 : 上下金泥單邊, 半匡: 18.9×13.3cm, 有界, 14行 24字, 版心題: 法

○ 卷末寫成記 : 至正二十四年甲辰(1364)夏善月日

芝岩 敬書

無外 敬畫

化主 戒元

施主康陽郡夫人李氏 勝果

奉爲逝夫奉翊大夫李子猷靈

駕兼爲亡女息災之靈溥爲法界

一切衆生速脫苦輪莊嚴寶

覺自它均利買金倩手書成

菩薩戒經并問難儀文謹施

受持者耳

○ 卷末 墨書 : 梵網菩薩戒經 今余安置

奉寄進 此經

右志者二世悉地圓滿眞言得果

卽身成佛自他法界一切衆生 悉

有佛生善根佛果多也

時于文祿四年(1595)仲春廿一日良以 (手決)

○ 내용 및 특징

이 『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은 後秦의 鳩摩羅什이 漢譯한 『梵網經』을 저본으로 하여 고려 恭愍王 13년(1364) 5월에 백지에 금니로 필사한 사경이다.

『梵網經』은 僧肇가 쓴 梵網菩薩戒後序에 의하면 모두 번역하면 120권 61품이 된다. 장안 草堂寺에서 3千學士와 天竺國 法師 鳩摩羅什이 참여하여 한역하였는데 大小乘經 50餘部를 이루었다. 최후에 譯出한 『梵網經』중에 오로지 보살이 수행하는 경지를 밝힌 「菩薩心地品」第十만을 번역하였다. 이때에 道融·道影 등 3백여 명이 보살계를 받고 모두 각각 이 품을 외워 마음의 으뜸을 삼았으며 곧 스승과 제자가 뜻을 합하여 이 1품 81부를 써서 유통시켰다고 한다. 上下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下卷만 따로 뽑아 『菩薩戒本』으로 삼아 불교도의 신행 규범으로 삼고 있다.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 혹은 『梵網菩薩戒經』으로도 불리어 진다.

내용은 보살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무거운 계(十重大戒)와 48가지 가벼운 계(四十八輕戒) 등 보살이 지녀야 할 몸가짐과, 말씨와 마음자세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천덕목을 담고 있다. 大乘戒律로서 계를 받는데 재가자와 출가자의 구분이 없으며 자신의 불성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는 佛性戒이므로 한국불교 종단의 조직 및 유지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중요시한 경전이다.

이 사경은 卷首에 금니로 묘사된 變相圖에 이어 梵網經菩薩戒序, 後秦의 鳩摩羅什이 漢譯한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卷下』, 僧肇가 述한 梵網經菩薩戒後序, 그리고 이 경전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보살계도량이나 수계법회 등의 절차와 규범인 북송의 延壽가 集한 『受菩薩戒法』, 陳나라 惠思가 撰한 『受菩薩戒儀』 순으로 금니로 필사되어 있다. 권말에는 사성기가 있어 이 사경 제작시기와 참여자를 밝혀주고 있는데 고려 恭愍王 13년(至正 24, 1364) 5월에 芝岩이 필사하고 無外가 변상도를 그렸으며, 化主는 戒元이고 康陽君夫人 李氏가 남편 奉翊大夫 李子猷와 女息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시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말미에 있는 墨書識記에 의하면 이 사경은 일본의 文祿 4년(1595) 봄에 良以라는 사람에 의해 일본 사찰에 기부하였던 것인데 국내로 다시 돌아온 사경임을 알 수 있다.

表紙는 紺紙 바탕에 4개의 보상화문이 은니로 묘사되고 그 가운데 금니로 「梵網菩薩戒經」이 필사되어 있으나 거의 지워져 흔적만 남아 있다. 본문은 앞·뒤 면에 모두 금니로 필사되어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 현 상

표제(經名)는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검색의 표지와 본문은 온전하다. 권

을 펼치면 변상도에 이어 梵網經菩薩戒序,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 受菩薩戒法并序, 受菩薩戒儀 등이 금니로 쓰여져 있다.

변상도를 제외한 본문은 15장이고, 제1장의 뒷면에는 글씨를 쓰지 않았다. 금니로 된 계선은 1면당 6행이다. 앞면 전체와 뒷면의 제3면까지는 상하쌍변이고, (뒷면의) 나머지 면은 상하단변으로 차이가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책은 고려 공민왕 13년(1364)에 닥으로 만든 흰 종이에 금니로 쓴 사경이다. 하권의 내용은 10가지 무거운 죄와 48가지 가벼운 죄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모습은 화엄경과 통하므로 화엄의 마무리로 여긴다. 또 대승의 독자적인 계이므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중시한다.

권말의 寫成記에 따르면, 이 사경은 공민왕 13년(1364) 5월에 지암이 쓰고, 무외가 변상도를 그렸다고 한다. 당시 화주는 계원이고, 시주는 강양군부인 이씨였다. 부인 이씨는 죽은 남편 李子猷와 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시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끝부분의 墨書를 통해, 이 사경은 일본의 文祿 4년(1595) 2월에 良以라는 사람이 일본의 어느 사찰에 기부하여 안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어느 시기에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고려 공민왕 13년(1364)에 금니로 쓴 이 사경은 변상도가 정교한데다 보존상태도 거의 온전하다. 또 사성기가 있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완성한 것인지를 알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과거 일본으로 유출되었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온 귀환문화재라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 소장경위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천태종단이 소장하고 있는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은 간지에 기록(1595년도 일본 사찰에 기증되었다)된 내용으로 보아 임진왜란 기간에 일본으로 유출된 유물로 추정된다. 1996년 혹은 1997년 경에 우림화랑 임명석 관장이 일본의 고문화재 전문점인 이동(梨洞)에서 취득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소장하였다. 그 후, 천태종단 박물관의 원활한 개관 및 문화재를 공유하고자 당시 관문사 주지 변춘광 스님께 기증한 유물이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함.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1-02-008

1. 보물 제1006호 ‘이종주 고신왕지 및 이임 무과홍패’의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1006호 ‘이종주 고신왕지 및 이임 무과홍패’의 보존처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박물관장으로부터 ‘이종주 고신왕지 및 이임 무과홍패(보물 제1006호)’의 보존처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받고자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대상문화재 : 보물 제1006호 이종주 고신왕지 및 이임 무과홍패
- 신청인 : 울산박물관장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77번지
- 수량 : 2점
- 크기 : 왕지 세로 74.3cm, 가로 60.7cm / 홍패 세로 73.4cm, 가로 67.0cm
- 재질 : 저지(楮紙)
- 제작연대 : 조선시대

라. 보존상태

- 이종주 고신 왕지
 - 종이가 산화되고, 표면 보푸라기가 생긴 상태임.

- 종이 재질이 매우 약해져 해졌으며 구김이 매우 심함.
- 이입 무과홍패
 - 가장자리 및 모서리가 마모로 훼손되었으며, 구김이 매우 심함.
 - 종이 재질이 매우 약해져 해진 상태임.

마. 보존처리 계획

- 사전조사.
 - 수리 전 유물의 세부수치를 측정하고 결손 부분을 기록 작성.
 - 전체 전면, 후면 촬영을 비롯하여 각각의 면을 사진 촬영을 실시함.
 - 유물에 사용된 본지의 지질조사를 위해 현미경 확대 관찰 등의 비파괴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결손부 메움지를 제작함.
- 각종 재료 결정.
 - 모든 재료는 분석, 관찰 결과를 토대로 유물의 보존을 고려하여 결정함.
- 클리닝 및 박락막기.
 - 1차 클리닝 : 부드러운 양모 붓을 이용하여 표면의 먼지를 털어냄.
 - 2차 클리닝 및 박락 막기 : 묽은 아교물(1%이하 아교)로 클리닝 함.
-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 미리 제작된 결손부 메움지로 메움.
- 결손부 메움이 끝나면 전체를 가배접하여 건조관에서 충분히 건조시킴.
- 결손부 메움 부분을 자연스럽게 색 맞춤함.
- 마무리 : 중성매트 및 보관상자를 제작하여 보관함.
- 수리 과정별로 기록한 사진을 남기고 정리하여 보존처리 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함.



이임 무과 홍패(앞면)



이임 무과 홍패(뒷면)



이종주 고신왕지(앞면)



이종주 고신왕지(뒷면)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원안대로 현상변경 허가함.

【검토사항】

안건번호 동산 2011-02-009

1.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海南 瑞洞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가. 검토사항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4.1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08.19)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2011년 제1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발원문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류되었음.
- 본 위원회에 발원문을 현품으로 제출하며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남유형문화재 제227호(2000.12.13. 지정)
- 명 칭 :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海南 瑞洞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서동사
-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513
- 수 량 : 3구, 발원문 2점(조성발원문, 개금발원문)
- 규 격 : 석가여래좌상 높이 127.8cm 무릎 폭 84.3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14.5cm 무릎 폭 77.2cm
아마타여래좌상 높이 115cm 무릎 폭 82cm
- 재 질 : 목조

- 제작연대 : 조성 1650년(효종 1), 중수 1804년(순조 4)
- 제작자 : 운혜(雲惠), 운익(雲益), 보인(寶印), 학헌(學軒), 민준(敏俊), 의상(義尙), 의호(義浩), 정율(淨律), 묘현(妙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에 있는 서동사의 목조 석가여래삼불좌상은 크기가 본존불 120cm 약사불과 아미타불이 113cm의 비교적 큰 불상으로 불상이다. 불상 조성 발원문에 의하여 이 세 불상이 조선시대 효종 1년인 1650년 조각승 雲惠, 雲益, 寶印등이 참여하여 제작한 불상임을 알수 있다. 원래 발원문에는 順治 8년 庚寅 冬月로 쓰여 있어 1651년에 해당하나 그 해는 辛卯년이고 그 전 해가 庚寅년이므로 干支년을 따라서 1650년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1804년, 순조 4년(嘉慶 9년 甲子년)에 개금불사한 원문에도 상의 제작연대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세 불상의 제작연대가 1650년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세 불상의 얼굴 모습에서 동일한 조각풍을 볼 수 있는데 얼굴의 크기가 불신에 비해 비례적으로 약간 작은듯하고 꼭 다문 조그만 입술의 모습이 불상의 인상을 귀엽게 보이게 한다. 특히 두 귀는 크고 귀볼이 넓고 두꺼우며 콧등이 높고 코의 옆모습이 삼각형으로 솟은 점이 특징적이다.

불상들의 착의방식에서 본존 석가여래는 편단우견의 오른쪽 어깨를 덮은 옷주름이 겹쳐져서 옷의 부피감을 강조하고 가슴위의 균의 주름이나 두 다리 밑으로 부채살처럼 접혀져서 늘어진 주름들의 울동감이 크고 입체적이며 특히 무릎위에서 늘어진 둥근 주름에서 조형적인 생동감이 넘친다. 또한 팔뚝이나 무릎위에서 겹쳐진 주름 끝이 뾰족하게 솟아오른 점도 특이하다.

이 서동사의 세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들의 이름은 알려졌으나 師承관계는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守衍에서 靈哲로 이어지는 계보이며 그 이후로 연결되는 조각승들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개성 있는 조각승들의 작품인 점에는 틀림이 없다. 상들의 보존상태도 모두 양호하고 17세기 중엽의 삼불상제작의 중요한 예로 생각되어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상은 1650년에 운혜를 수화승으로 제작된 목조석가여래삼불상이다. 운혜는 17세기중엽 전라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이 확인되며 마곡사 주지로 부임하기도 하였다. 운혜가 만든 불상의 특징은 작은 얼굴에 입술의 양

끝을 강조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한 표정을 한 점 그리고 두터운 대의, 부드러운면서도 넓은 어깨와 무릎, 파도치듯 주름잡은 입체적인 옷주름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운혜의 불상은 얼굴이 커지고 다소 딱딱해지는 변화를 보이지만 운혜풍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얼굴표현을 보인다. 서동사 삼세불상은 그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초기적 경향을 알려 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즉 이 불상은 독특한 비례감과 얼굴 표정 등 운혜 만의 특징을 보이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서 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제작연대는 물론 개금불사 기록도 남아 있다. 따라서 17세기 조각승과 불상 양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높은 작품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석가·약사·아미타여래의 공간적 삼세불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삼불좌상은 1650년에 제작된 불상으로 17세기 전반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높은 무릎과 장식성이 강조된 주름 등에서 후반으로 이행되고 있는 양상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어 이 시기 조각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불상이다. 더불어 이 불상은 조선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인 대중적인 평담한 미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고, 상호나 신체의 표현 등에서 수조각승 雲惠의 특색 있는 조각적 경향도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현존하는 운혜의 작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는 점도 높이 평가된다.

이 삼세불상은 조성 발원문과 중수발원문을 통해 1650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연대와 조성주체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더불어 1804년(순조 4)의 개금 연대를 남기고 있어 17세기 불상조각 연구와 개금중수 과정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 석가여래삼불좌상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에 있는 서동사의 목조 석가여래삼불좌상은 크기가 본존불 120cm 약사불과 아미타불이 113cm의 비교적 큰 불상으로 불상이다.

불상 조성 발원문에 의하여 이 세 불상이 조선시대 효종 1년인 1650년 조각승 雲惠, 雲益, 寶印등이 참여하여 제작한 불상임을 알수 있다. 원래 발원문에는 順治 8년 庚寅 冬月로 쓰여 있어 1651년에 해당하나 그 해는 辛卯년이고 그 전 해가 庚寅년이므로 干支년을 따라서 1650년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1804년, 순조 4년(嘉慶 9년 甲子년)에 개금불사한 원문에도 상의 제작연대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세 불상의 제작연대가 1650년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세 불상의 얼굴 모습에서 동일한 조각풍을 볼 수 있는데 얼굴의 크기가 불신에 비해 비례적으로 약간 작은듯하고 꼭 다문 조그만 입술의 모습이 불상의 인상을 귀엽게 보이게 한다. 특히 두 귀는 크고 귀볼이 넓고 두꺼우며 콧등이 높고 코의 옆모습이 삼각형으로 솟은 점이 특징적이다.

불상들의 착의방식에서 본존 석가여래는 편단우견의 오른쪽 어깨를 덮은 옷주름이 겹쳐져서 옷의 부피감을 강조하고 가슴위의 균의 주름이나 두 다리 밑으로 부채살처럼 접혀져서 늘어진 주름들의 울동감이 크고 입체적이며 특히 무릎위에서 늘어진 둥근 주름에서 조형적인 생동감이 넘친다. 또한 팔뚝이나 무릎위에서 겹쳐진 주름 끝이 뾰족하게 솟아오른 점도 특이하다.

이 서동사의 세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들의 이름은 알려졌으나 師承관계는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守衍에서 靈哲로 이어지는 계보이며 그 이후로 연결되는 조각승들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개성 있는 조각승들의 작품인 점에는 틀림이 없다. 상들의 보존상태도 모두 양호하고 17세기 중엽의 삼불상 제작의 중요한 예로 생각되어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 현상 및 특징

서동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은 본존불인 석가를 중심으로 아미타와 약사여래상으로 이루어진 삼세불상이다. 이 불상은 석가불은 변형식 편단우견을, 아미타와 약사불은 안에 편삼을 입은 착의법으로 구별한 점, 낮은 육계에 마치 꽃잎처럼 주름잡은 승각기의 표현 등 조선후기 불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따르고 있다. 다만 완만한 어깨선과 두터운 대의, 무릎 밑으로 흘러 내린 옷자락을 여러 번 주름 잡아 과도치듯 울동적으로 표현한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넓은 어깨와 무릎에 비해 작고 동그란 얼굴, 입술의 양 끝을 들어가게 함으로서 드러나는 순진한 얼굴 표정과 대의자락이 신체와 분리되어 옆으로 벌어지면서 신체가 매우 큰 듯한 시각적 효과를 보이는 점과 더불어 이 불상만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불상에서는 내부에서 발원문과 개금발원문이 발견되었다. 조성당시의 발원문

에는 순치8년에 만들어졌고 畫員秩 雲惠, 雲益, 寶印, 學軒, 敏俊, 義尙, 義浩, 淨律, 妙玄이라 하여 불상을 만든 화원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에 따라 1650년에 운혜를 수화승으로 한 9명의 조각승에 의해 불상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운혜는 1665년 곡성 도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1680년에는 그 협시보살상인 관음과 대세지보살좌상을 그리고 조성연대를 알 수 없는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상 등을 제작한 17세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 중 한 명이다. 이 불상들은 1650년의 서동사 불상과는 다소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얼굴 표정은 매우 비슷해서 운혜만의 독특한 표현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改金願文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1804년(嘉慶9年)에 개금이 이루어졌으며 玩湖 尹祐스님이 都監임을 밝히고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이 불상은 1650년에 운혜를 수화승으로 제작된 목조석가여래삼불상이다. 운혜는 17세기중엽 전라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이 확인되며 마곡사 주지로 부임하기도 하였다. 운혜가 만든 불상의 특징은 작은 얼굴에 입술의 양 끝을 강조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한 표정을 한 점 그리고 두터운 대의, 부드러우면서도 넓은 어깨와 무릎, 파도치듯 주름잡은 입체적인 옷주름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운혜의 불상은 얼굴이 커지고 다소 딱딱해지는 변화를 보이지만 운혜풍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얼굴표현을 보인다. 서동사 삼세불상은 그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초기적 경향을 알려 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즉 이 불상은 독특한 비례감과 얼굴 표정 등 운혜만의 특징을 보이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서 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제작연대는 물론 개금불사 기록도 남아 있다. 따라서 17세기 조각승과 불상 양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높은 작품으로 판단된다.

○ 기타

造成發願文: 1650년(順治8년)

改金願文: 1804년(嘉慶9年)



○ 내용 및 특징

서동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의 말사로 운거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서동사의 자세한 연혁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80년대 초 현 대웅전의 지붕보수시 발견된 「서동사중수상량문」(1870)과 「서동사중수서」(1870)현판

기록을 통해 개략적인 연혁은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기록에 따르면, 서동사의 창건은 확신할 수 없으나 통일신라 진성여왕 때(887~896)때 孤雲 崔致遠선생이 창건하였고 하며, 이후 조선시대 임진(정유)왜란 때 兵禍로 모두 소실된 것을 1779년에 복구하였다가 다시 약 90년 후인 1780년 宜胤스님이 주축이 되어 正己, 賑一 등 3인의 스님이 발원하여 중수하였다고 한다.

불상과 관련된 기록은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 도난과정에서 華山스님에 의해 수습된 조성발원문과 중수발원문이 남아 있다. 이 발원문에 의하면, 석가여래삼불상은 스님과 평범한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玉寶스님의 證明 아래 雲惠를 비롯한 8명의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順治 8年 庚寅(1650, 효종 1) 겨울에 조성을 마쳤다고 한다. 불상의 중수는 이 보다 154년 뒤인 1804년(순조 4)에 이루어 졌고, 楓溪舜靜을 비롯한 19명이 승려화원들이 참여하여 개금하였다. 이 불상을 조각한 운혜는 17세기 전반기 중후한 맛의 선 굵은 조각을 구사했던 守衍의 조각 전통을 계승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고, 17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39년, 소재불명, 수화원), 황해 강서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일괄(1649년, 현 서울화계사, 보조화원), 제주 북제주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61년, 수화원), 곡성 도림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65년, 수화원),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일괄(1667년, 수화원) 등을 공동 제작하였다.

서동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은 중앙 娑婆世界の 教主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측에 東方 滿月世界 약사여래, 우측에 西方 極樂世界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공간적 삼세불 형식이다. 이러한 석가여래삼불형식은 비로자나삼불형식과 더불어 조선후기, 특히 17세기 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그 이유는 사상적인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임진왜란·정유재란·병자호란 등 일련의 국가적 전란을 겪으면서 소실된 여러 불전을 재건할 여력이 부족했던 당시로서는 한 전각 내에 다양한 사상과 신앙형태를 내포한 삼불을 모시는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존 모두 접목조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우선 본존 석가여래는 변형의 편단우건을 걸치고 팔각대좌 위에 다시 양련의 연화좌를 놓고 그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반구형의 머리는 따로 제작한 나발로 촘촘하게 부착하였고, 육계는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머리의 중앙과 정상에는 계주를 표현하였는데, 반달형태의 큼직한 중앙계주가 인상적이다. 얼굴은 뾰족하게 처리 턱, 코 뿌리에서 갑자기 솟은 돌출 코, 야무지게 앙다문 얇은 입술 등에서 개성적이면서 엄정한 인상을 준다. 역3자형의 귀는 다소 추상적이며, 상·하각의 골을 길게 파내어 특징적이다. 이러한 귀의 표현은 조각승 雲惠가 즐겨 사용했던 특징이기도 하다.

착의형식은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변형의 편단우건이며, 두터운 못 깃 주

름을 지나치게 치켜세워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신체와 동떨어져 별개의 옷을 걸친 듯 다소 부자연스럽고 움츠린 듯 보이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상체는 불필요한 주름들을 최대한 배제하여 단순화시킨 반면, 하체는 입체적이고 탄력적인 주름으로 울동감 넘치게 조각하여 의도적인 대조를 통한 시각적 장애를 감소시켜준다. 여기에 다시 군의의 끝단을 울동감 있는 꽃잎 모양으로 멋을 내어 상체의 단조로움을 보완하였다. 특히 왼쪽 무릎 부근에 형성된 이중의 큼직한 주머니 모양의 주름과 왼쪽 측면의 폭 좁은 요형태로 마무리 한 주름이 특색이 있다. 수인은 항마촉지인을 결하였고, 손바닥에는 井자 형태의 손금을 나타내었다. 무릎의 부메랑같이 표현된 주름을 중심으로 물결치듯 입체적으로 표현한 주름과 井자형 손금은 대부분의 운혜조각에서 나타나고 있어 하나의 표식처럼 되고 있다.

좌협시 약사불상과 우협시 아미타불상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좌우대칭으로 표현하였고, 착의는 두 장의 대의를 걸친 이중착의법으로 표현하여 본존불과의 차이를 두었다. 아미타불상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댄 하품중생인을, 약사불상은 아미타불상과 좌우 손의 위치만 달리하여 왼손바닥 위에 약사불의 상징인 조그마한 약호를 올려 藥器印을 취하였다. 두 불상의 손가락은 본존불상에 비해 길고 섬려하며, 손바닥에는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井자형태의 손금을 나타내었다. 佛衣는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못 깃을 지나치게 두텁게 표현하여 다소 어색한 맛이 있으나 전반적인 존상의 품격을 저해하거나 관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이곳 삼불형식에서 본존 편단우견, 좌우협시 이중착의로 차별을 둔 것은 17세기 삼불형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방식이다.

이 삼세불상에서 보이는 엄숙하면서도 강인한 남성적인 인상, 지나치게 두텁게 치켜세운 못 깃 주름, 의도적인 강한 대비를 통해 변화를 시도한 주름 표현과 왼쪽 무릎에 표현된 복주머니형태의 큼직한 주름, 그리고 좁은 대롱 모양으로 간결하게 내린 주름의 끝을 요형태로 마무리한 왼쪽 측면 주름, 井자형의 손금 등은 이 시기 다른 조각들과 비교해 볼 때 조각승 운혜의 독특한 조각적 특징으로 보인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석가 · 약사 · 아미타여래의 공간적 삼세불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삼불좌상은 1650년에 제작된 불상으로 17세기 전반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높은 무릎과 장식성이 강조된 주름 등에서 후반으로 이행되고 있는 양상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어 이 시기 조각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불상이다. 더불어 이 불상은 조선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인 대중적인 평담한 미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고, 상호나 신체의 표현 등에서 수조각승 雲惠의 특색 있는 조각적 경향도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현존하는 운혜의 작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는 점도 높이 평가된다.

이 삼세불상은 조성 발원문과 중수발원문을 통해 1650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연대와 조성주체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더불어 1804년(순조 4)의 개금 연대를 남기고 있어 17세기 불상조각 연구와 개금중수 과정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 석가여래삼불좌상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조성발원문(1650년, 48.5×124.5cm)

發願文」

願某甲世〃生〃在〃處〃相好端嚴梵行清白常說正法具四無碍梵音清雅令」
人樂聞傳佛心燈如迦葉流通教海如阿難神通如淨名大智如文殊大行如普賢大」
慈如彌勒大悲如觀音大願如地藏大果如舍那 永不退轉歸命禮三寶」

1.

大施主秩」

妙尙比丘」金太生兩主」姜秋男兩主」張汝信兩主」李生兩主」性熙比丘」白億男兩主」處玲比丘」德文比丘」金龍近兩主」從生兩主」贊修比丘」景欣比丘」仇仲立兩主」丁君伊兩主」希代兩主」義罔比丘」處鑑比丘」法俊比丘」天談比丘」金體健兩主」金加(+ㄱ)春保体」

2.

金男兩主」丹玉兩主」李春金兩主」禮香保体」贊默比丘」朱彦立兩主」朴南補兩主」李補兩主」圓覺比丘」金每邑同兩主」信旭比丘」義罔比丘」金界難」白尙吉兩主」尹加(+ㄱ)伊」朱順伊」

3.

韓碩賴兩主」金碩補兩主」加(+ㄱ)春兩主」金應目兩主」金男兩主」信賴比丘」金祿生兩主」金應連兩主」法俊比丘」金仁弘兩主」李千兩主」金德補」李丑伊」尹弘信」金戒丸」孫夢井」金命生」宝全」自應」朴僅得」金光金」尹信遠」李士立」安心伊」鄭奉」李補守」李海宗」明祐比丘」
證明 玉寶」持殿 義浩」畫員秩」雲惠」雲益」宝印」學軒」敏俊」義尙」義浩」淨律」妙玄」

4.

緣化秩」

供養 守堅」敬森」智衍」戒悟」太堅」德天」別坐 印監」化士 自日」

5.

雲車本寺秩」

智超比丘」宗密比丘」義仁比丘」義明比丘」清遠比丘」戒明比丘」雪玲 道禪比丘」
清遠 双惠比丘」仇談比丘」釋林比丘」信全比丘」惠悟比丘」信還比丘」勝寶比丘」
贊默比丘」義問比丘」信旭比丘」玄俊比丘」信頓比丘」妙遠比丘」幸珠比丘」文玉
比丘」弘俊比丘」坦默比丘」先學比丘」楚豈比丘」首僧 性默比丘」三剛 玄祐比
丘」修僅比丘」處玉比丘」普徹比丘」處鑑比丘」天湛比丘」双玉比丘」處玲比丘」
普海比丘」普文比丘」法宗比丘」德浩比丘」德洽比丘」德安比丘」晶豈比丘」黃修
比丘」□□比丘」德玲比丘」義安比丘」靈習比丘」晶學」寶淨」性信」德訓比丘」
敬幸比丘」性能比丘」性熙比丘」德尙比丘」性心比丘」□□比丘」性修比丘」性覺
比丘」性悅比丘」性卞比丘」性澄比丘」 이어서 상단 普倫」晶麟」靈坦」晶心」性
根」晶諫」晶莊」晶端」晶敏」性暉」

6.

順治八年庚寅冬月日造畢」

○개금발원문(1804, 56.5×115.7cm)

嘉慶九年甲子五月初八日改金願文」

證師 靈月誠身」

誦呪 念海」性熙」智演」

化主 海城 永信」碩岑」

別座 演平」

都監 玩湖尹祐」

持殿 侃玄」

金魚片手 楓溪舜靜」煥峯景旻」朋察」支性」玉玳」性隱」幸元」性熏」俊一」就
活」處明」妙洪」最閒」勝一」覺玄」謹軒」曦和」勝允」贊旻」

하단

魚山曠允 孟寬」最隱」

六所供養主 善戒」定贊」道活」侃訓」孟寬」哲允」愼定」愼澄」

書記 守岑」世暄」孟和」

少者 興發」萬福」

居士 寶旭」

大施主 馬川里居」金慶煥兩主」宋順昌兩主」公須村 白禧甲兩主」牧場下里 李順祐
兩主」中里 崔啓行兩主」寺洞 朴三仁兩主」

願以此功德生亨壽福」

死歸蓮那世 〃生〃常」

逢佛法轉業淨土廣」

濟羣品之大願」

順治八年庚寅冬月日造成 今嘉慶九年甲子日改金」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 함.

2.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群山 東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가. 검토사항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8.12.1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2.25.)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북유형문화재 제213호(2008.01.04. 지정)
- 명 칭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群山 東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 : 대한불교 조계종 동국사
- 소재지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
- 수 량 : 3구, 발원문 3점, 복장유물 일괄(목록참조)
- 규 격 : 석가여래좌상 높이 147cm, 무릎폭 107.5cm
가섭존자입상 높이 159.5cm
아난존자입상 높이 160cm
- 재 질 : 흙, 나무
- 제작연대 : 1650년(효종 1)
- 제작자 : 응매(應梅), 관해(寬海), 천명(天明), 성율(性律), 노원(魯元), 사준(思俊), 뇌인(雷忍) 등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세 상에서 나온 전적물이나 복장물의 기록에서 이 상이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 하였던 이름이 알려진 조각승에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불상양식이 형식적으로 흐르기 전단계의 소조불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세 상에서 나온 복장물은 후령통의 제작기법, 내용물, 재질 등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석가여래삼존상은 물론 복장물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동국사는 군산에 있는 일본식 사찰로 근대문화재로 지정 되었을 뿐 아니라 사찰에서 유물관리에도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지정 가치 있음)

동국사 석가여래삼존상은 석가여래와 2대제자인 가섭과 아난존자로 구성된 삼존상으로서 원래는 금산사 대장전에 있었던 불상임이 발원문과 사진으로 확인 된다. 150cm가 넘는 대형상으로는 유일한 아난과 가섭을 협시로 한 석가여래삼존이며, 1650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와 기록에만 남아 있는 응매의 유일한 작품인 점 그리고 나한상의 자연스러운 자세와 표정이 돋보이는 중요한 작품이다. 더불어 발원문에 기재된 불상과 복장물 등 각종 물목에 시주한 명단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된 점과 1000명이 넘는 시주자 이름이 기재된 점에서 이 불상 제작에 든 불사의 구성과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도 높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단 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석가여래삼존상에서 발견된 施主秩과 發願文을 통해 정확한 1650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 그리고 분명한 조성주체, 불상 조성에 소요된 시주물목과 수많은 시주자 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복장의식 및 사원경제사, 그리고 조선 후기 불상연구에 기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불상은 17세기 조선후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浩然太湖와 碧巖覺性이 증명법사로 참여하여 불사를 이끌었고, 이에 화답하듯 천 여 명이 넘는 僧俗의 시주자들이 기쁘게 동참하여 造成役事를 마친 17세기 중엽 경의 대표적인 불상이다. 또한 이 불상은 조각승 應梅의 현존하는 유일의 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이 무렵 활발히 활약하며 일파를 이루었던 道雨, 熙莊 등의 조각승

들이 시주자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를 끈다.

석가여래삼존상은 양식적으로 안정감 있는 장중한 신체, 조용하면서 중후한 상호의 표현, 입체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선묘 등에서 높은 종교적·조각적 완성도를 읽을 수 있고, 이 시기 불상의 특징인 평담한 대중적인 미의식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장중하면서 선 굵고 중후한 맛의 양식적 특징은 17세기 전·중엽 경에 활발히 활동했던 응원·인균과의 조각과 양식적으로 상통하는 것이어서 유과 간의 상호교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곧 석가여래삼존상과 복장유물 일괄은 당시의 시대적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과 자료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전라북도 군산시 동국사에 있는 소조 석가여래상과 가섭과 아난존자를 협시로 하는 삼존불이다. 조사보고에 의하면 상들의 제작에는 나무로 형틀을 만들고 그 위에 점토를 붙인 것으로 일반적인 소조 불상의 제작기법을 따르고 있다.

삼존상중에 석가여래상에는 발원문은 없으나 가섭과 아난 협시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원래 이 세 상이 順治 7년 1650년(효종 1) 6월에 같이 제작되어 9월 2일에 완성 전라북도 금산사에 안치하였다고 한다. 각 존상에서 나온 경전에 찍힌 인장모양이 같고, 발원문에 석가, 가섭, 아난, 시주자 명단이 보이므로 조성 시기는 삼존불상 모두 같다고 본다. 그리고 당시에 불사에 큰 영향을 주었던 벽봉당 覺性이 증명법사로 기록되었다. 1950년대 후반 당시 김제 금산사 대장전에 모셔진 삼존불을 동국사 주지였던 김남곡스님(1913-1983)이 전북 종무원장으로 계실때 동국사 대웅전에 이운 봉안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확실한 기록도 있다.

발원문에 기록된 제작 조각승에는 應梅, 寬海, 性律, 魯元, 思俊, 雪忍등이 언급되었는데 응매는 수화승 覺敏과 함께 1614년에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현재 소실)을 제작하였고 관해는 1633년 김제 귀신사 영산전 목조불좌상과 십육나한을 제작하였으며 성률은 1633년 고창 선운사 대웅전 목조 삼불상을 수화승 무염스님과 같이 조성한 것으로 보아 이 동국사상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들은 이미 17세기 전반

부터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들이 모여서 제작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석가본존불좌상의 크기는 150 cm이고 양쪽의 가섭과 아난존자는 입상으로 160cm에 달하는 비교적 큰 상이다. 본존 불상의 조각표현에서는 얼굴이 네모나고 이목구비가 크며 옷주름 표현도 굵고 자연스럽고 생동감이 넘친다. 두 손의 표현 역시 입체감이 있고 자연스럽다. 두 협시상은 모두 합장을 한 자세이나 왼쪽 가섭존자상은 두 손을 왼쪽으로 높이 들어서 역시 생동감이 가득하다. 채색이 좀 지나치게 밝은 감은 있으나 상들의 표현은 옛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

세 상에서 나온 전적물이나 복장물의 기록에서 이 상이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하였던 이름이 알려진 조각승에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불상양식이 형식적으로 흐르기 전단계의 소조불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세 상에서 나온 복장물은 후령통의 제작기법, 내용물, 재질 등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석가여래삼존상은 물론 복장물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동국사는 군산에 있는 일본식 사찰로 근대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사찰에서 유물관리에도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 현상 및 특징

동국사 불상은 본존인 석가여래좌상과 두 협시인 아난과 가섭의 입상으로 구성된 석가여래삼존상이다. 석가여래좌상은 전형적인 조선후기 여래상의 모습이며, 아난과 가섭은 150cm가 넘는 입상으로 자연스러운 자세와 표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먼저 석가여래좌상은 약간 네모진 얼굴에 무표정한 얼굴 모습으로 각이 진 넓은 어깨와 더불어 다부진 인상을 준다. 어깨를 덮은 편단우견의 대의를 입었으며 굵고 넓은 옷주름과 왼쪽 무릎에는 소매자락이 발을 덮은 모습이다. 아난과 가섭상은 자세나 얼굴 표정, 옷을 입은 모습 등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합장한 아난상과 달리 가섭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채 두 손을 약간 위로 들어 잡은 모습이며 얼굴 표정 역시 엄숙한 아난과 달리 가섭상은 활짝 웃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불상의 내부에서는 발원문을 비롯한 다양한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발원문에는 금산사 대장전에 봉안되었던 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1910년의 사진으로도 확인된다. 상을 만든 화원은 應梅, 寬海, 性律, 魯元, 思俊, 雷忍이며 그 옆으로 불상과 복장물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자세하게 명시하였으며 천명이 넘는 시주자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응매는 1614년 覺敏과 함께 순천 송광사 대웅전의 삼존불상을 제작하였음이 <<조계계산 송광사사고>>에 언급되었으나 작품은 전쟁중 소실되었다. 따라서 동국사 불상은 현존하는 응매의 유일한 불상이 된다. 함께 조각한 관해는 1633년 김제 귀신사 영산전 목조석가여래좌상과 16나한상을 인균과 함께 조각하였으며, 1643년 진주 성전암 목조불상을 제작한 승려이며 성률은 무염과 함께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의 목조불상을 조성하였다. 이 가운데 관해가 인균과 함께 불상 조성에 참여한 점이 주목된다. 왜냐 하면 군산 동국사 석가여래상의 무릎 밑으로 흘러 내린 물결모양의 주름이라든지 오른쪽 발을 감싼 소매자락의 표현 등은 인균이 참여한 김제 귀신사 영산전 불상이나 순천 송광사 광원암 아미타불좌상과도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동국사 석가여래삼존상은 석가여래와 2대제자인 가섭과 아난존자로 구성된 삼존상으로서 원래는 금산사 대장전에 있었던 불상임이 발원문과 사진으로 확인된다. 150cm가 넘는 대형상으로는 유일한 아난과 가섭을 협시로 한 석가여래삼존이며, 1650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와 기록에만 남아 있는 응매의 유일한 작품인 점 그리고 나한상의 자연스러운 자세와 표정이 돋보이는 중요한 작품이다. 더불어 발원문에 기재된 불상과 복장물 등 각종 물목에 시주한 명단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된 점과 1000명이 넘는 시주자 이름이 기재된 점에서 이 불상 제작에 든 불사의 구성과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도 높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 석가여래삼존상

군산 동국사는 1909년 일본인 조동종 승려 錦江禪師 개창한 사찰로, 1956년 6월 12일 불교전북교당에서 인수하여 동국사로 개명하고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동국사 경내에는 일본식 대웅전이 등록문화재 제64호 등록되어 있다.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석가여래삼존상은 원래 금산사 대장전에 모셔져 있던 것인데, 동국사 주지였던 김남곡스님(1913~1983)이 전북종무원장으로 재직 하던 1950년대 후반 이곳으로 이안하였다고 한다.

가섭과 아난존자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삼존상은 順治 7년(孝宗 1, 1650) 6월에 조성불사를 시작하여 9월 2일에 공사를 마쳐 금산사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불상 조성에는 碧巖覺性(1575~1660)³⁾과 浩然太浩(1564~

1652)⁴⁾등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양대 문파의 최고승이 참여하여 증명하였고, 彫刻은 應梅를 비롯한 寬海, 天明, 性律, 魯元, 思俊, 雷忍 등 6명의 조각승들이 함께 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석가여래상에서 발견된 施主秩에 따르면, 불상조성에 참여한 僧俗이 무려 1,050여 명에 이르는데, 이것만으로도 당시 불사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불상을 조성한 수조각승 應梅는 1614년 수화원 覺敏을 모시고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을 제작하였고, 次畫員 寬海는 1633년 印均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김제 귀신사 영산전 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상 조성에 참여하였다. 또 性律은 1633년 수화승 無染과 함께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을 조성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시주자 중 信罔⁵⁾, 道雨⁶⁾, 雙照⁷⁾, 熙莊⁸⁾ 등은 17세기 중엽 경 활발히 활동했던 조각승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다른 유파의 조각승이 주도한 불사에 시주자로 참여한 것이어서 흥미롭다.

삼존의 구성은 항마촉지인을 결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上首弟子인 가섭과 아난존자를 좌우에 배치한 석가여래삼존형식이다. 통상적으로 볼 수 있듯 가섭은 늙은 비구형으로, 아난은 젊은 비구형으로 표현하였다. 제작기법은 나무로 전체적인 윤곽을 잡은 다음 흙으로 완성한 목심 소조불상이다.

우선 석가여래상의 머리는 육계와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고 가는 나발로 촘촘하게 부착하였다. 머리의 중앙과 정상에는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반구형의 정상계주를 갖추었다. 신체에 비해 다소 크게 표현한 얼굴은 양 볼과 턱 선을 두툼하고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코는 높고 큼직하며, 콧방울을 크고 두툼하게 처리하여 중후하면서도 개성적이다. 적당히 부풀린 눈두덩 사이로 사바세계의 중생을 굽어 살피듯 시선을 깊이 있게 처리하여 온화하고 자비롭다. 얼굴에서 풍기는 중후함은 1633년에 조성된 김제 귀신사 영산전 소조석가여래좌상이나 익산 심곡사 아미타

3) 벽암 각성은 芙蓉靈觀(1485~1571) - 浮休善修(1543~1614)의 법맥을 이었다.

4) 浩然 太浩는 芙蓉靈觀(1485~1571) - 淸虛休靜(1520~1604) - 靜觀一禪(1533~1608)의 법맥을 이었다.

5) 信罔은 1650년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수화원 회장), 1652년 전북 완주 정수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수화원 무염), 1657년 경북 칠곡 송림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수화원 도우), 1664년 전남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원 도우) 등을 제작하였다.

6) 道雨(또는 道祐)는 1633년 전북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수화원 무염), 1635년 전남 영광 불갑사 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원 무염), 1651년 강원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지장보살삼존상(수화원 무염), 1655년 경북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수화원), 1657년 칠곡 송림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좌상(수화원), 1664년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원) 등을 제작하였다.

7) 雙照는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조각승으로 추정된다. 그는 1633년 전북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수화원 無染), 1635년 전남 영광 불갑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원 無染), 1657년 경북 칠곡 송림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수화승 道雨) 등을 제작하였다.

8) 熙莊은 1639년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원 청헌), 1646년 전남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화원), 1650년 전북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화원), 1654년 경북 청도 대운암 목조보살좌상(수화원), 1661년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을 제작하였다.

여래좌상 등과 유사하다.

착의형식은 조선후기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장의 대의로 걸쳐 입되,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변형의 편단우견 착의법이다. 대의는 두텁게 처리하여 신체의 굴곡은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 자락은 한번 가량 날렵하게 반전시켰다. 대의에 표현된 주름은 선의 강약 변화가 거의 일정한 직·곡선을 사용하였으나 흙으로 빚은 탓인지 부드러우면서 골이 깊어 탄력적이고 입체적이다. 가슴 아래로는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 단순화 시킨 군의가 표현되었고, 그 아래로 불룩 나온 복부의 곡선이 간취된다. 특히 양쪽 어깨에 표현된 골 깊은 입체적인 Y자형 주름과 역Y자형 주름이 대칭적으로 표현하였다.

항마촉지인을 결한 수인은 손가락 마다 미묘한 변화를 주어 잔잔한 운율이 느껴진다.

좌법은 길상좌로 왼쪽 넓적다리에 올린 오른발은 노출하였고 대의자락에 덮인 왼발은 윤곽만을 표현하였는데, 조선후기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방식이다. 무릎에 표현된 주름은 오른쪽 발목을 크게 반전하며 내려온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의 주름이 파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고, 오른쪽 발가락 위로 드리워진 소맷자락은 잎 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무릎 앞쪽으로 중앙의 넓은八字형의 띠 주름을 중심으로 파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펼쳐진 부채꼴 주름은 17세기 전·중엽경에 활동한 印均派 작품과 유사하다.

가섭과 아난은 최근의 개칠로 인해 세월이 주는 고고한 맛은 없다. 가섭은 가사장삼을 편단우견으로 걸치고 석가모니불의 오른쪽에 시립하고 있으며, 이(齒)를 드러내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자비로운 모습이다. 그는 頭陀第一의 수행자답게 수행 이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얼굴의 주름, 노비구의 노쇠한 骨筋까지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수인은 주먹 쥔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 쥔 다음 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 검지 첫마디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 비로자나불의 지권인처럼 지은 이러한 수인은 가섭존자의 수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잘생긴 청년 비구형의 아난은 두터운 가사장삼을 걸치고 석가모니불의 오른쪽에 시립하였다. 두 손은 모아 합장하였다. 두 상의 주름은 석가불상과 마찬가지로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고 입체적이다.

이 석가여래삼존상은 양식 상 양감이 풍부한 중후한 상호, 무게감이 느껴지는 장중한 신체비례와 양감, 부드럽고 입체적인 선묘, 그리고 옷 주름 표현 등에서 17세기 전중반의 대표적인 조각승 응원·인균과 내지 무염과 불상조각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불상 조성에 참여한 畫員 가운데 1633년 김제 귀신사 영산전 불상 조성에 印均과 함께 작업을 했던 관해와 같은 해 고창 선운사 대웅전 비로자나삼불조성에 무염과 함께 작업 했던 性律이 보조화원으로 참여하고 있

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복장유물 (목록참조)

동국사 석가여래삼존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후령통과 후령통의 내부에 납입된 오보병 유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유물은 1650년 조성 당시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① 석가여래좌상 후령통

석가모니불상에서는 喉蓋 소실된 원통형의 은제후령통 1점이 발견되었다. 후령통의 몸통 네 곳에는 梵字朱書로 四方呪를 적었으며 남면에만 南이라고 朱書하여 정면임을 표시하였다. 오보병 등 후령통 내 납입유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크기는 높이 9.76cm, 지름 4.2cm, 두께 0.07cm이다.

② 가섭존자입상 후령통

후령통은 발견 당시의 모습대로 해포하지 않은 상태이다. 아난존자의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후령통은 황초폭자에 쌓인 채 謹封帶紙로 마감되어 있다. 황초폭자의 정면에만 ‘南’이라고 朱書하였다.

현재 크기는 높이 14.8cm, 폭 4.2cm이다.

③ 아난존자입상 후령통

아난존자상에서 발견된 후령통은 喉蓋와 喉身을 모두 갖추고 있다. 喉蓋의 아랫면은 괘엽으로 처리하고, 윗면은 긴 후혈을 갖추고 있다. 喉身の 네 면에는 梵字朱書로 四方呪 “阿·摩·羅·訶”를 썼으며, 다시 특별히 “南”이라 朱書하여 정면임을 표시하였다. 오보병은 해체된 상태로 보관 중인데, 오방색의 보자기에 오보, 오약, 오곡, 오향 등 각종 상징물들을 납입하였다. 납입 물목은 자연 상태에서 많이 부식되고 산실된 상태이다. 이외 후령통 내부에 납입했던 八葉蓋 형태의 양면원경과 외부에 각 방위별로 오색사로 安立했던 五方鏡(東方鏡, 南三角鏡, 西圓鏡, 北半月鏡, 中圓鏡) 등이 발견되었다.

후령통 관련 유물 이외 백지 79장(80×51.5cm)이 발견되었다.

후령통 크기는 높이 12.0cm, 폭 4.24cm, 두께 4.24cm이며, 재질은 銀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석가여래삼존상에서 발견된 施主秩과 發願文을 통해 정확한 1650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 그리고 분명한 조성주체, 불상 조성에 소요된 시주물목과 수많은

시주자 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복장의식 및 사원경제사, 그리고 조선후기 불상연구에 기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불상은 17세기 조선후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浩然太湖와 碧巖覺性이 증명법사로 참여하여 불사를 이끌었고, 이에 화답하듯 천 여 명이 넘는 僧俗의 시주자들이 기쁘게 동참하여 造成役事를 마친 17세기 중엽 경의 대표적인 불상이다. 또한 이 불상은 조각승 應梅의 현존하는 유일의 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이 무렵 활발히 활약하며 일파를 이루었던 道雨, 熙莊 등의 조각승들이 시주자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를 끈다.

석가여래삼존상은 양식적으로 안정감 있는 장중한 신체, 조용하면서 중후한 상호의 표현, 입체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선묘 등에서 높은 종교적·조각적 완성도를 읽을 수 있고, 이 시기 불상의 특징인 평담한 대중적인 미의식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장중하면서 선 굵고 중후한 맛의 양식적 특징은 17세기 전·중엽 경에 활발히 활동했던 응원·인균파의 조각과 양식적으로 상통하는 것이어서 유파 간의 상호교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곧 석가여래삼존상과 복장유물 일괄은 당시의 시대적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과 자료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복장유물 가운데 복장전적은 妙法蓮華經과 禪門拈頌集 등 2종 50책이다. 법화경은 萬曆十四年(1586) 丙戌全羅道金堤郡僧伽山興福寺開板, 萬曆三十七年(1609) 己酉全羅道歸信寺開板의 간기가 있는 판본이며 각 권이 2~3부 혹은 5~6부(권1과 권5)로 가철 및 낱장 형태로 되어 있어 석가삼존불복장시에 인출되어 납입된 복장용으로 보인다. 그밖에 겉표지가 없는 妙法蓮華經과 禪門拈頌集 판본들도 후쇄본에 속하므로 복장전적에 대한 별도 지정 가치는 없으므로 복장유물 일괄로 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복장유물 목록

① 석가여래상(본존)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 (cm)	비고
1	施主秩	종이	1점	1650년경	32.8×290.0	
2	喉玲筒	은	1점	1650년	높이 9.7 폭 4.2 두께 0.076	*喉蓋는 없음.
3	妙法蓮華經 권1~7	楮紙	16책 (권2·3·4·6·7:同書2部, 권5:同書5部)	1586년 (조선 선조 19)각,[후쇄]	30~38× 19~28cm	木版本, 四周單邊, 無界, 10行20字. 판심제:法 권3말:萬曆十四年(1586)丙戌全羅道金堤郡僧伽山興福寺開板, 가철 및 날장 형태
4	妙法蓮華經 권1	楮紙	6책 (同書6部)	1609년 (광해군 원년)각,[후쇄]	30×38cm	목판본, 사주단변, 8행13자. 흑구,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萬曆三十七年(1609)己酉全羅道歸信寺開板, 가철
5	妙法蓮華經 권1~3	楮紙	1책	17세기	16×25cm	목판본, 10행20자, 선장. 판심제:法. 본문에 구결 있음. 겉표지 없음.
6	妙法蓮華經 권4~5	楮紙	1책	17세기	16×27cm	목판본, 사주단변, 10행20자. 상하내향흑어미. 선장. 권5는 8장임. 겉표지 없음.
계	6권 26점					

② 가섭존자상(좌협시)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 (cm)	비고
1	發願文	종이	1점	1650년	35×113.5	
2	發願文帶	종이	1점	1650년	35.5×4.8	*發願文帶에는 목서로 “此二軛左右補」處尊一「安」”이라고 쓰여 있다.
3	喉玲筒	은	1점(일괄)	1650년	높이 약14.8 폭 약 4.2	*발견 당시 모습대로 해포하지 않음.
4	妙法蓮華經 권1~7	楮紙	12책(권3·6:同書3部,	1586년 (조선 선조	30× 19~28cm	木版本, 四周單邊, 無界, 10行20字. 판심제:法

			권4:同書2 部)	19)각,[후쇄]		권3말:萬曆十四年(1586)丙戌 全羅道金堤郡僧伽山興福寺 開板, 가철 및 날장 형태
5	妙法蓮華經 권1~3	楮紙	3권1책	17세기	28×17cm	목판본, 사주단변, 10행20자. 선장. 판심제:法. 겉표지 없 음.
6	禪門拈頌集 권16~18	楮紙	3권1책	17세기	25×17cm	목판본, 좌우쌍변, 무계, 12 행21자. 상하향후어미. 선장. 겉표지 없음.
7	陀羅尼	종이	163장	조선 시대	28×51	
계	7건 180점					

② 아난존자상(우협시)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 (cm)	비고
1	發願文	종이	1점	1650년	29.8×126	
2	喉玲筒	은	1점(일괄)	1650년경	높이 120 폭 4.24 두께 0.06	*오방경 : 방경1점, 삼각경1 점, 반월경1점, 원경2점. *양면원경 :가장자리를 엮으 로 접은 형태 1점. *오보병 : 오방색의 보자기 에 방위에 따른 각종 상 징물을 납입하였음. *황초폭자 1점 *각종 식물잔편 등
3	妙法蓮華經 권1~7	楮紙	12책(권1:同 書3部, 권 2·4·6:同書2 部)	1586년 (조선 선조 19)각,[후쇄]	권1·2·3·4·6:3 0× 20cm 권5·7:30× 28cm	木版本, 四周單邊, 無界, 10 行20字. 판심제:法 권3말: 萬曆十四年(1586)丙 戌全羅道金堤郡僧伽山興福 寺開板, 가철 및 날장 형태
4	陀羅尼	종이	75장	조선 시대	28×51	
5	白紙	종이	79장	조선 시대	80×51.5	
계	5건 167점					

□ 석가여래좌상 시주질

施主秩

I.

性閑 比丘」裕戒 比丘」道蹟 比丘」元覺 比丘」一云 比丘」攢靈 比丘」印玉 比丘」海敬 比丘」印玉 比丘」海敬 比丘」鄭厚男 兩」李善男 兩」尹玉男 兩」李斐臥是 兩」金丕金 兩」鄭景方 兩」金一立 兩」金丕文 兩」合眞 兩」

李德景 兩」文希水 兩」文山水 兩」任生己 兩」朱珠巨伊 兩」張秋日 兩」金貴卜 兩」金守男 兩」朴景水 兩」李韶之 兩」申春日 兩」李得立 兩」敬淳 比丘」一淳 比丘」張京立 兩」張彥香 兩」趙廷建 兩」李氏 兩」金召史 兩」愛春 兩」鄭德 兩」禮眞 兩」貴仁介 兩」韶之介 兩」奉承 兩」申生 兩」禮伊 兩」黃一億 兩」者斤禮 兩」古邑前 兩」梁一介 兩」四順 兩」姜僅 兩」內+ㄱ河 兩」禮終 兩」可玉伊 兩」韶德 兩」李韶金 兩」白三漢泉兩」柳戒男 兩」白成龍 兩」方彥春 兩」金介伊屎 兩」崔毛里金 兩」夢室 兩」戒香 兩」徐應先 兩」吳永立 兩」李卜立 兩」李京石 兩」任京生 兩」林生 兩」金天江 兩」羅成男 兩」鄭乙承 兩」俞京立 兩」金信白 兩」俞卜 兩」業成 兩」朴天泉 兩」同介 兩」發(?)蘭 兩」金無只 兩」尹玉水 兩」吳氏 兩」金戒卜 兩」彥介 兩」余得男 兩」雲霞 比丘」天海 比丘」玉岑 比丘」信應 比丘」日玉 比丘」敬淳 比丘」天心 比丘」印云 比丘」胡彥 比丘」一學 比丘」尙海 比丘」性堅 比丘」克哲 兩」僅敏 兩」應浩 兩」幸云 兩」應眞 比丘」幸敏 比丘」竺閏 比丘」宝淨 比丘」彥祥 比丘」一玄 比丘」浩敬 比丘」僅輝 比丘」性圭 比丘」戒和 比丘」勝玉 比丘」信元 比丘」裕洽 比丘」應元 比丘」僧連 比丘」德衍 比丘」三男 單身」希善 兩」一生 單身」克淳 比丘」一輝 比丘」戒淨 比丘」一秀 比丘」僅濟 比丘」性云 比丘」性寬 比丘」淨還 比丘」淨禪 比丘」宝衍 比丘」僅寬 比丘」僅尙 比丘」色明 比丘」應和 比丘」敬淳 比丘」尙玄 比丘」靈玉 比丘」惠安 比丘」先贊 比丘」戒淳 比丘」

勝元 比丘」淨祐 比丘」戒信 比丘」雪敏 比丘」信玉 比丘」靑全 比丘」善印 比丘」坦雄 比丘」六軒 比丘」智熙 比丘」學宗 比丘」玉玄 比丘」古塔 比丘」海天 比丘」元俊 比丘」信默 比丘」明學 比丘」印元 比丘」太敏 比丘」

懶玉 比丘」宝軒 比丘」雪豈 比丘」僅英 比丘」僅侃 比丘」善旭 比丘」一岑 比丘」僅明 比丘」勝海 比丘」濟益 比丘」尙宗 比丘」太尙 比丘」惠能 比丘」三印 比丘」僅安 比丘」元應 比丘」戒還 比丘」勝允 比丘」太俊 比丘」應眞 比丘」明性 比丘」六惠 比丘」印行 比丘」玄戒 比丘」雪和 比丘」靈俊 自熙 比丘」

II.

法奇 比丘」哲熙 比丘」忠彥 比丘」恩允 比丘」信雄 比丘」應玄 比丘」惠熙 比丘」德明 比丘」僅能 比丘」學敏 比丘」崔生吉 兩」朴彥男 兩」金丁立 兩」金元立 兩」僅介 兩」金貴希 兩」朴仁生 兩」柳僅江 兩」柳承立 兩」柳好生 兩」柳淡伊 兩」柳末男 兩」柳破回 兩」柳龍伊 兩」鄭四仁 單身」李恁龍 兩」高建立 兩」得生 兩」金海卜 兩」難生 兩」艮郎德 兩」金允孫 兩」栗介 兩」金尙吉 兩」金己云 兩」金彥進 兩」金彥立 兩」金山卜 兩」李孫 兩」金元老 兩」張道生 兩」鄭罷金 兩」姜卜生 兩」金懿尙 兩」朴芑破只 兩」李加應伊金 兩」柳彥龍 兩」李千兩」朴南 兩」李風己 兩」李一孫 兩」咸生 兩」李莫世 兩」李莫室 兩」先芑生 兩」文彥金 兩」金凌生 兩」金莫金 兩」林芑?卜 兩」周滄金 兩」咸尙卜 兩」早+ㄣ介 兩」李愛山 兩」尙禮 兩」全芑金 兩」罷之介 兩」忘德只 兩」咸金卜 兩」高人沙里 兩」內+ㄣ代 兩」初生 兩」金南世 兩」欣介 兩」閑卒卜 兩」先平生 兩」盧得龍 兩」金山孫 兩」金生 兩」金戒生 兩」金欣周 兩」金得男 兩」崔立 兩」金萬卜 兩」洪破回 兩」銀玉只 兩」金大生 兩」姜莫室(?) 兩」姜可屎 兩」春月 兩」朴得男 兩」河戒龍 兩」秋立 兩」朴山伊 兩」處玉 比丘」法雲 比丘」信忍 比丘」戒弘 比丘」尙敏 比丘」海日 比丘」智性 比丘」戒摠 比丘」尙元 比丘」尹宝老音金 兩」金仇? 兩」茂德 兩」李各同 兩」鄭一金 兩」玄金 兩」性明 比丘」僅行 比丘」海信 比丘」弘海 比丘」僅淳 比丘」靈俊 比丘」德元 比丘」天學 比丘」學玄 比丘」法浩 比丘」海和 比丘」妙雄 比丘」省斤 比丘」惠日 比丘」敬莊 比丘」印行 比丘」方會 比丘」守天 比丘」弘玉 比丘」道軒 比丘」元覺 比丘」智堅 比丘」忠印 比丘」學連 比丘」彩玉 比丘」智雄 比丘」玄雨 比丘」三玄 比丘」普禪 比丘」四拈 比丘」玉青 比丘」一淳 比丘」善宝 比丘」印玄 比丘」淨水 比丘」六和 比丘」熙彥 比丘」丹忝 比丘」性豈 比丘」印行 比丘」幸云 比丘」處岑 比丘」海敬 比丘」宋同金 兩」姜德吉 兩」宋永伊 兩」吳五龍 兩」金恁金 兩」金芑同 兩」宋失同 兩」金金 兩」金卜 兩」朴金伊同 兩」崔四卜 兩」黃內+ㄣ同 兩」大祐 比丘」戒安 比丘」善悟」元忝」太和」性尊灵駕」僅均」忝玄」雪玄 比丘」尙雲」雲海」尙安比丘」靈暉比丘」戒和比丘」信訓」自忍比丘」性照」淨安比丘」禪澤」敬仁比丘」弘敏」大立」元熙比丘」敬軒」雷忍」忝尙比丘」智堅」元澤」祖祐比丘」僅文」智珠比丘」寬運」祖明」妙雲」祖還」忝浩」學訓」內+ㄣ代 兩」太全 比丘」敬雪 比丘」青印」双會」敬豈」草奇」懶罔」守閑」敬哲」學行」雪澄」敬宝」忝見」敬仁」

III.

趙命上 兩主」幸玄 比丘」勝哲比丘」神蹟」元信」勝益」信寬」祖承」敬軒」德和」印英」信罔」道祐」雙照」熙莊」性敏」處淳」道天」天雲」智輝」双日」六虛」坦識」僅悅」双敏」立文」敏玄」道全」雪旭」德允」日雄」戒訓」天罔」思

印」灵日」印堅」道安」思允」宗密」學敬」海敬」玄海」太元」道彦」性梅」懶軒」善海」灵哲」太云」戒和」性浩」敬能」戒明」敬特」太罔」六敏」崔二龍 兩」僅尙」玉淳」玄覺」雪心」太英」太能」道印」信還」溫應云」金莫難」廬山卜」吳早ㄱ金」李石只」尙金」李天」魯內+ㄱ失」朴大+ㄱ金」金加外」金萬山」粉伊」仇時男」金應龍」趙千介」金玉立」張應吉」趙白只」朴貴日」朴仇今(?)伊」鄭德生」金河男」李豆仁」金三男」金石松」金業山」金五男」崔承男」李恣卜」林貴主」李順鶴」崔和生」金命金」李一云」崔山伊」者斤德」金命貴」道欽」智慈」玄甘」幸俊」覺日」敏應」雲門」覺元」戒學」德暉」興善」敬林」雪雄」尙均」幸淨」雪宗」鄭一男」朴失生」崔此芑屎」金愁(?)里金」金末男」金唵金」金者斤金」張連卜」金卜男」金卜只」鄭永男」鄭太山」李雪男」朴每伊」張軍先」申男」朴末乙金」五月」德只」徐忠臣」朴尙金」金男金」柳白世」崔愛水」朴去男」戊辰」李成卜」張奉伊」允伊力」白底ㄱ金」李恣龍」李恣卜」白巨元」李於里金」李恣卜」趙永世」礼信」哭海」李夢龍」金永立」金銀金」李芑卜」朴甘金」申金山」梁?得」梁氏」梁氏」朴得眞」引勸 朴恣金」柳德金」彦代」終德法」內ㄱ金」莫卜」終介」難弘」金一男」太林」世和」於今里」崔仁万」重礼」金水」朴者斤金」金見」全尙伊」金命金」金命吉」梁同己」申山水」梁和奉」張吉男」礼生」金三正」李希卜」鄭愛命」金永弘」魯尙男」朴士仁」金礼男」朴水日」林夢仁」申天老」朴成立」許京伊」朴成立」姜春卜」姜訥罔」趙承吉」朴有青」金龍」金海行」咸日」金玉水」金士云」朴得立」順伊」黃右只」柳蠟金」朴奉世」金應明」金雪伊」金豆致」金介佚伊」全愛男」李韶金」俞?終」曹二龍」李今」金生男」金岩回」金於伊孫」金太訓」奉春」張德吉」朴惟宗」金男龍」唵德」金業伊」金善卜」崔愛龍」宋愛先」金愛承」順小陽」姜愛男」今生」趙愛正」緣香」李夢男」金芑生」鄭聖卜」金完老」裴應身」鄭順生」梁大斤」朴所乙卜」金完卜」金者斤卜」金云」金士男」金僅生」金末連」金每宝」李先立」朴己卜」早ㄱ介」尹男」白元鶴」金訥+叱實」欣春」仁德只」金明身」

IV.

李生伊」金得龍」金僅日」張好敏」朴唵男」鄭大浩」金得命」趙波同」梁万立」金內+ㄱ金」 閑同伊」閑者斤山」金守歇」尹先立」徐裴金」崔沙千」曹承文」戒春伊」崔延白」朴氏」梁得立」裴山金」李卜男」閑流日」朴閑世」朴戒一」李順一」李生」文?伊男」朴貴金」金礼尙」金戒吉」閑挨卜」朴守男」金命金」崔敬立」白山元」白山命」莫介」李屎同」金戒承」李春男」金業伊」張卜只」李成吉」李者斤里」莫介」李吉生」李海龍」德只」哭卜龍」哭永先」愛春」張業同」朴凌生」金恣男」申順男」金龍」李彦男」柳連伊」業男」世和」卍興永」金能守」金太永」朱春生」李希卜」李京泉」李孝宗」金斤卜」吳承伊」金於屯」金難生」吳惡金」二月」

忞春」徐春」德承伊」金彥希」朴仁卜」金卜龍」札香」金者斤」金山伊」朴屯伊」朴克成」李太卜」五月」終得」金芑海」鄭月老」金貴承」姜貴延」鄭月老」金貴承」姜貴延」申戒卜」金國生」小陽」金難生」金伊」李承男」李生吉」金京男」金白見」金所卜」愛?」內+ㄣ香」於用(?)介」方貴金」金春玉」守歇」洪今金」沈金山」朴德立」申業伊」盧貴德」安德龍」許龍」朴承必」崔戊先」春伊」鄭滄同」張孔敏」朴龍生」安時?」李一夢」金善立」李一男」宋夢山」四札」林竺生」金崧生」金氏」金一生」金金伊」梁難金」林得生」回龍」信世」太山」金仁孫」春月」鄭順吉」紅連鶴」天介」崔內+ㄣ億」蔡占伊」林哲伊」實德」金日生」金小難」朴惟生」朴邁金」李戒生」仁香」文春立」金生一」李仇?金」金加音未」金德立」內+ㄣ生」內+ㄣ春」金奉伊」梁戒敏」鄭正立」朴戒日」朴日玉」宋有哲」李愛金」黃忞男」天吉」李永」李其牛金」札鶴」春伊」任生己」金終生」李男水」吳山眞」崔承仁」朴百連」忘終」朴愛香」金海生」金戊生」文浩學」凌陽」芑應伊」朴得男」金豆應失」金忞山」崔哲岩」裴巨所是」朴順同」仁山」崔善奉」白春山」朴風年」徐鶴立」黃順吉」金僅龍」蘇卒」李龍立」林一行」全大海」兪卜介」李戒浩」李成男」李二男」林尙」內+ㄣ春」林卜只」洪貴男」金生立」崔貴男」忞介」朴失伊」林得希」南旺只」申大連」徐得承」尹滄孫」朴道擇」朴成立」金太生」金尙玄」林申生」守代」安善伊」春每」三還」愛還」朴男」奉今」無上介」於里」銀玉」權先」朴者斤山」池永卜」銀河」鄭信良」李挨失」李二男」朴永立」李僅之」奉德只」閑夢吉」林春吉」洪落天」思郎介」李德立」鄭宝雪」朴豆伊間」奉介」芑以介」得介」奉春」

1.

鄭云卜」金德吉」愛堂」玉丹」甲辰」崔戒仁」三忍」敏安」玉罔」德灵」双哲」湛珠」信覺」天眼」戒彥」日雄」勝哲」玉林」釋堅」性洽」淨學」明侃」淨悟」元俊」性均」信贊」懷(?)敬」柳丁卜」金命卜」李弘竹」李銀鶴」閑順立」鄭水男」金莫身」朴難卜」金夢水」崔孔伊」忞德只」金男」

2.

金難生」朴山卜」性照」性海」琢瓊」懷俊」勝惠」惠悟」文益」法尙」頓應」思眼」戒雄」思遠」僅浩」天信」戒豈」海安」雪淳」能贊」法輪」尙能」尙連」靈日」性堅」信悟」天日」僅閑」法閑」慈悟」禪稔」戒安」姜成龍」朴彥方」朴早+ㄣ金」信惠」年水」大僅」守仁」

3.

學澄」草彥」玉林」惠英」印性」一均」海英」海信」惠淨」信洽」信堅」信省」玉玄」元益」鳳七百」李貴仁」四害」金奉山」朴莫金」李絜卜」介伊」馬莫卜」朴生

伊」春伊」崔忠立」崔大+ㄱ阿只」崔興泉」金虎邑同」老松伊」凌業」?堂金」奉希」孫丕万」姜丕孫」

4.

金永男」禮今」朴命信」李承還」種+叱伊同」王小元」守男」李氏」文氏」

□ 아난존자상 발원문

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順治七年佛像成造始役於六月訖功於」九月初二日金山寺安于敬像」

大德 品月」浩然堂大師 太浩」碧峯堂大師 覺性」證明大德 太浩」持殿 天明」**畫員 應梅**」**畫員 寬海**」**畫員 性律**」**畫員 魯元**」**畫員 思俊**」**畫員 雷忍**
緣化秩

敬正」別座 戒日」德允」尙琳」克廉」敬禪」士龍」松竹」大鳳」朴貴男 保体」

施主秩

I.

釋迦大施主 安命浩 於市介 兩主」迦葉大施主 金忞南 兩」阿難大施主 戒應比丘」他方佛大施主 裴壽命 兩」他方佛施主 金武生 兩」他方佛施主 金大卜 兩」面金大施主 崔述男 兩」体金大施主 金貴山 兩」泥金大施主 宣戒宗 兩」
金施主 李 氏 單身」烏金大施主 德允比丘」烏金大施主 雪僅比丘」体木大施主 金任生 兩」朱紅大施主 尹忞男 兩」荷葉大施主 是德 兩」圍團施主 宋 生 兩」水塗黃大施主 李太極 兩」眞粉大施主 全日+ㄱ金 兩」黃丹大施主 崔丕男 兩」瑠璃大施主 蘭花 兩」腹莊大施主 海淪 兩」內+ㄱ春 單身」腹莊大施主 僅彥 兩」末醬大施主 金貴坦 兩」食塩大施主 朴永乞 兩」鐵物大施主 崔道生 兩」候靈通施主 金氏粉 兩」引灯大施主 趙應男 兩」魚膠施主 羅高公 兩」三象施主 金莫難 兩」生金施主 孫漢金 兩」金貴密 兩」果衣布大施主 宝訓比丘」學元比丘」青木香施主 吳礼男 兩」生銀施主 朴終水 兩」五宝施主 鄭金 兩」附子施主 白丕世 兩」金施主 姜 文 兩」雄黃施主 內+ㄱ害 兩」乳香施主 秋僖金」阿梨施主 李滄同 兩」長衫施主 金千水 兩」金於里同 兩」金施主 林彦春 兩」奉春 兩」今伊 兩」終介 兩」金施主 徐万生 兩」矩淨比丘」文意比丘」三杉施主 朴金 兩」崔良旺 兩」供養施主 勝雲比丘」供養施主 鄭順鶴 兩」姜京泉 兩」金忞卜 兩」大功德主 懷鑑」大化士 天蹟」

II.

佛奠施主 億代單身」碍德 兩」仁介 兩」屎+叱應介 兩」水永代 兩」朴德世 兩」徐

春鶴 兩」金氏秋圮 兩」宝還 兩」施主 李論 兩」朴只 灵駕」何興順 兩」耑介
兩」水永介 兩」韶德只 兩」李韶金 兩」徐秋男 兩」崔大仁 兩」今春 兩」林哲生
兩」崔德仁 兩」井任男 兩」鄭生男 兩」烝德只 兩」林愛日 兩」李生 兩」姜思郎
金 兩」金仁龍 兩」朴彥男 兩」金白連 兩」金生 兩」朴京永 兩」莫德只 兩」金應
明 兩」朴順同 兩」腹莊施主 僅彥比丘」智冠比丘」應還比丘」鄭金 兩」灯燭施主
林斤金 兩」李春卜 兩」性元比丘」金發忠兩」朴林 兩」愛日 兩」崔山伊 兩」張春
卜 兩」井日男 兩」金士立 兩」林尙 兩」洪貴男 兩」林卜 兩」内+ㄱ春 兩」朴杖
扶 單身」崔貴南 單身」礼介 兩」安明哲 兩」李希天 單身」黃益水 單身」朱一男
兩」靈雨 比丘」戒元比丘」淡海比丘」去秀伊 兩」春伊 兩」李生 兩」金命金 兩」
良郎金 兩」

III.

佛奠施主 金金韶應伊 兩」金有信 兩」内+ㄱ今 兩」金日+ㄱ同 兩」金弁金 兩」金
氏戒和 兩」金奉春 兩」朴氏今伊 兩」金青卜 兩」丁承立 兩」劉承男 兩」金一龍
兩」姜思郎金 兩」趙氏單身」京玉 兩」任命難 兩」洪得男 兩」 信浩比丘」印云
比丘」崔京比丘」淨安比丘」李生 兩」

□ 가섭존자발원문

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我等与衆生 皆共成佛道」順治七年佛像成造始役於六月日
訖功於」九月初二日金山寺安于敬像」

大尊師 品月」浩然堂大師 太浩」碧峯堂大禪師 覺性」證師大德 太浩」 天祥」**畫員
應梅」畫員 寬海」持展 天明」畫員 性律」畫員 魯元」畫員 思俊」畫員 雷忍」**

緣化秩」

敬正比丘」別座 戒日比丘」德允比丘」尙琳比丘」克廉比丘」敬禪比丘」士龍單身」
松竹單身」大鳳單身」朴貴男保体」

施主秩」

I.

釋迦大施主 安命胡 於?介 兩主」迦葉大施主 金忞男兩主」阿難大施主 戒應比丘」
他方佛大施主 裴守命兩主」佛像大施主 金武生 兩」佛像大施主 金大卜 兩」面金大
施主 崔述男 兩」体金大施主 金貴山 兩」泥金大施主 宣戒宗 兩」
金施主 李氏 單身」烏金施主 德允比丘」烏金施主 雪僅比丘」体木大施主 金任生
兩」荷葉大施主 氏德 兩」圃團大施主 宋生 兩」水塗黃大施主 李太極 兩」眞粉大
施主 金日+ㄱ金 兩」黃丹大施主 崔芴男 兩」瑠璃大施主 蘭花伊 兩」腹莊大施主

內+ㄱ春 單身」腹莊施主 僅彥比丘」末醬施主 金貴坦 兩」食塩施主 朴永乞 兩」鐵物施主 崔道生 兩」候靈通大施主 金氏粉伊 兩」候靈通大施主 荷京男 兩」引灯施主 趙應男 兩」魚膠施主 羅高公 兩」三綠施主 金忘難 兩」生金施主 孫漢金 兩」金牙金 兩」金氏戒和 兩」金氏奉春 兩」朴氏今伊 兩」金青卜 兩」清風道人大功德主 懷鑑」清寒幹善道士 天曠」

II.

茶礼施主 金貴密 兩」果衣布大施主 宝訓比丘」學元比丘」青木香施主 吳礼男 兩」生銀施主 朴終水 兩」俯子施主 白芻世 兩」金施主 姜文伊 兩」雄黃施主 論害伊 兩」乳香施主 秋岱金 兩」阿利施主 李住問 兩」長衫施主 金天水 兩」施主 戒香單身」金於里同 兩」奉春 兩」今伊 兩」終德 兩」徐万生 兩」矩淨比丘」文意淨 兩」朴金 兩」崔良旺 兩」

供養施主 勝云比丘」鄭順鶴 兩」姜敬泉 兩」金忞卜 兩」碍德只 兩」

佛奠施主 億伐 單身」仁介 兩」水永代 兩」同介 兩」朴德世 兩」徐春鶴 兩」金氏秩圯 兩」朴伊」河興順 兩」菴介 兩」水永介」韶德 兩」李韶金 兩」徐秋男 兩」崔大仁 兩」今春 兩」林哲生 兩」崔德仁 兩」井任男 兩」丁生男 兩」所乙德只 兩」

佛奠施主 金金問伊」丁承立 兩」劉承男」金日龍 兩」

III.

林愛日 兩」李生 兩」姜思郎金 兩」金仁龍 兩」朴彥男 兩」金白連 兩」金生伊」朴京水 兩」莫德只 兩」金應命 兩」朴順因 兩」僅彥 比丘」智寬 比丘」鄭金 兩」應還 比丘」灯燭施主 林斤金 兩」李春卜 兩」性元比丘」金忠發 兩」朴琳 兩」愛日 兩」崔山伊 兩」張春卜 兩」丁日男 兩」金四立 兩」林尙伊 兩」洪貴男 兩」林卜只 兩」內+ㄱ春 兩」崔貴男 兩」朴長扶 兩」安哲命兩」礼介 兩」李希天 兩」黃益守 單身」朱一男 兩」元海 比丘」靈雨 比丘」戒元 比丘」淡海 比丘」巨禿伊 兩」春伊 兩」李生 兩」金命金 兩」艮郎金 兩」金有信 兩」內+ㄱ今 兩」礼介 兩」金目+ㄱ同 兩」姜恩郎金 兩」趙氏 單身」敬玉 兩」任命難 兩」洪得男 兩」

IV.

信浩比丘」李生伊 兩」

마. 의결사항

○ 원안 보류 - 보완조사 후 위원회에서 광배, 복장유물 재검토

3. 김해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 (金海 圓明寺 乾漆地藏菩薩坐像)

가. 검토사항

“김해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김해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9.0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2.17.)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金海 圓明寺 乾漆地藏菩薩坐像)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원명사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208
- 수 량 : 1구
- 규 격 : 상 높이 75.5, 어깨 폭 34.3, 무릎 폭 56.0cm
- 재 질 : 건칠
- 제작연대 : 미상
- 제작자 :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부족함)

이 지장보살상은 크기 75.5cm의 건칠상으로 확인되었다. 이 상의 복장물에서

나온 상의 개금 중수기 地藏菩薩金相記에는 붉은 글씨로 건륭 2년, 1737년 5월에 이 상이 청화산 백련사에서 중수되었으나 원래는 元至元 2년, 1336년에 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원명사의 창건주인 장 보살이 1923년 경북의 한 절에서 이 상을 모셔 왔다고 한다.

상을 보면 우선 가사의 착의법에서 가슴에 가로질러 돌르는 내의가 생략되어 있고 대신 허리 밑으로 살이 찢 뱃살이 보이는 점은 이색적이다. 동그란 귀걸이나 왼손에 든 등근 보주도 일반적인 도상적의 규범과는 다르다. 특히 손가락에 보이는 손금의 표시도 어색하다. 상의 뒷면에 대각선으로 둘러진 가사의 표현이나 주름 형식도 전형적이 표현은 아니다. 상 전체가 여러번 개금을 했는지 신체 부분의 표현이 두꺼운 느낌을 준다.

상의 얼굴 표현에서는 어느 시대라고 알려주는 양식적 특징이 안 보인다. 이 상에 대한 1760년의 개금 기록에 언급된 14세기의 제작을 뒷받침 할 만한 도상이나 양식적 특징도 보이지 않고 또한 상과 관련된 사찰의 기록에 보이는 영험스러운 이야기도 후대에 만들어진 내용으로 생각된다. 건칠불상은 원래 고려말 조선초에 유행한 제작기법으로 원래에 있었던 상을 여러번 보수하거나 개금하여 변형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이 상의 복장물에서 발견된 1477년 간행의 묘법연화경은 어느정도 원래상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후대에 넣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지장보살상은 국가문화재로 추천하기에는 상의 원래의 제작을 뒷받침할 기록이나 양식적 특징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건칠지장보살상은 1336년에 제작되었다는 불상원문과 경전 등이 함께 발견된 작품이다. 그러나 그 사례가 매우 드문 민머리형식에 승기지를 입지 않은 착의 형식,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는 얼굴 모습 등에서 <<금상기>>에 쓰여진 14세기 고려후기의 작품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복장물 역시 여러 시기에 넣어져 지장보살상과 금상기, 경전을 포함한 복장물의 관계를 규명하기도 아직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이 보살상은 발원문에 등장하는 지원 2년 무렵의 불상들과 형식과 양식을 비교해 볼 때, 이 시기 불상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승각기의 금구장식이라든지 왼쪽 팔뚝 부근에 형성된 요형 주름 등은 표현되지 않았다. 또 오른쪽 목깃에서 반전하며 드러난 옷자락이나 오른쪽 어깨를 걸치지 않은 편단우

견의 착의형식, 그리고 가슴에 승각기의 표현이 없는 점, 무릎 앞쪽과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펼쳐진 옷자락이 표현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후기(13~14세기) 불상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

상호의 표현에서도 대체로 고려나 조선시대의 불상들은 분명한 눈썹에서 콧날로 이어지는 선이 뚜렷하고, 행인형의 두툼한 눈두덩, 선정에 잠긴 긴 눈매 등이 목구비의 표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보살상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미약하다. 더불어 이 보살상에서는 13세기 경의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중국 宋風의 이국적인 면모도, 14세기 경 고려식으로 변모된 단아한 면모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발원문에 기록된 至元 2年, 곧 13·14세기 무렵에 조성된 불상들과 비교했을 때 시대성이 보이지 않아 1737년 중수 시 대대적으로 보수된 것인지 현재로선 단언하기 어렵다.

비록 이 보살상이 국내에서 사례가 많지 않은 건칠기법으로 제작되었다고는 하나, 발원문에 등장하는 제작연대의 시대성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양식의 불상이 좀 더 확인되고 연구된 뒤 국가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조사보고서 전문



이 지장보살상은 크기 75.5cm의 건칠상으로 확인되었다. 이 상의 복장물에서 나온 상의 개금 중수기 地藏菩薩金相記에는 붉은 글씨로 건륭 2년, 1737년 5월에 이 상이 청화산 백련사에서 중수되었으나 원래는 元 至元 2년, 1336년에 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원명사의 창건주인 장 보살이 1923년 경북의 한 절에서 이 상을 모셔 왔다고 한다.

상을 보면 우선 가사의 착의법에서 가슴에 가로질러 돌르는 내의가 생략되어 있고 대신 허리 밑으로 살이 찢 났살이 보이는 점은 이색적이다. 동그란 귀걸이나 왼손에 든 둥근 보주도 일반적인 도상적의 규범과는 다르다. 특히 손가락에 보이는 손금의 표시도 어색하다. 상의 뒷면에 대각선으로 둘러진 가사의 표현이나 주름 형식도 전형적이 표현은 아니다. 상 전체가 여러번 개금을 했는지 신체 부분의 표현이 두꺼운 느낌을 준다.

상의 얼굴 표현에서는 어느 시대라고 알려주는 양식적 특징이 안 보인다. 이

상에 대한 1760년의 개금 기록에 언급된 14세기의 제작을 뒷받침 할 만한 도상이나 양식적 특징도 보이지 않고 또한 상과 관련된 사찰의 기록에 보이는 영험스러운 이야기도 후대에 만들어진 내용으로 생각된다. 건칠불상은 원래 고려말 조선초에 유행한 제작기법으로 원래에 있었던 상을 여러번 보수하거나 개금하여 변형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이 상의 복장물에서 발견된 1477년 간행의 묘법연화경은 어느정도 원래상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후대에 넣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지장보살상은 국가문화재로 추천하기에는 상의 원래의 제작을 뒷받침할 기록이나 양식적 특징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 현상 및 특징

이 건칠보살상은 민머리를 한 지장보살로서 편삼을 입고 그 위에 편단우건의 대의를 입었는데 옷자락의 끝이 왼쪽 손목을 거쳐 흘러 내린 형식이다. 가슴은 편편한 편이며 그 안에 엄액의를 입지 않아 볼록하게 배를 드러내면서 배 밑까지 깊게 파인 대의가 특징이다. 오른손은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으며 왼손은 무릎에서 손바닥을 위로 들어 보주를 들고 있다.

이 보살상은 얼굴은 다소 큰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비례와 특징을 보이는데 길죽한 얼굴에 뚜렷한 콧날과 도톰한 입술 등은 매우 생소하게 느껴진다.

보살상에서는 복장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복장물은 <<地藏菩薩金相記>>와 1477년의 <妙法蓮華經>, 1835년의 <忌日錄> 그리고 1992년의 <<개금중수기>> 등이다. <<금상기>>는 건륭2년(1737)에 쓴 것으로 그 말미에 지원2년(1336)에 불상이 제작된 것이라고 쓰여 있다.

현재 지장보살상은 매우 두껍게 개금된 상태이며 1992년 불상 중수시에 바닥의 판재 등부분적인 보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건칠지장보살상은 1336년에 제작되었다는 불상원문과 경전 등이 함께 발견된 작품이다. 그러나 그 사례가 매우 드문 민머리형식에 승기지를 입지 않은 착의 형식,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는 얼굴 모습 등에서 <<금상기>>에 쓰여진 14세기 고려후기의 작품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복장물 역시 여러 시기에 넣어져 지장보살상과 금상기, 경전을 포함한 복장물의 관계를 규명하기도 아직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보살상의 腹藏에서 발견된 圓明 終範 스님이 지은 <지장보살상개금기>에 따르면, 이 보살상은 1920년대 경북 백련사에 거주하던 張道庵스님이 조카인 張보수행 보살에게 백련사 복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맡겨둔 불상인데, 남편이 일본으로 가게 되자 장보수행 보살도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불상의 현몽으로 떠나지 못하고 金海에 金佛庵을 세우고 이 보살상을 모셨다고 한다. 이후 1950년대 원명스님이 절을 회사 받아 자신의 법명을 따 “圓明寺”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보살상의 복장에서는 불상 조성과 관련된 「地藏菩薩金相記」과 「忌日錄(1836년)」, 『妙法蓮華經』 권4~7(1책), 그리고 원명선사가 사용했던 염주 2벌, 오보병, 불상개금중수기(1992년) 등이 발견되었다. 「地藏菩薩金相記」는 1737년(건륭2년, 영조13)에 靑華山人 戒裕文俊이 지은 것인데, 이에 따르면 이 불상은 至元2년에 처음 만들어져 1737년에 한차례 重修改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불상의 초창시기인 至元이란 연호는 중국 元나라의 연호인데, 원나라 世宗(至元 : 1264~1284)과 順帝(至元1 : 1335~1340) 때 두 차례 사용되었다. 干支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때의 至元 2년인지 알 수 없어 보살상의 양식으로 시대를 가늠할 수밖에 없다.

포와 칠을 반복해 제작한 乾漆像으로 내부는 삼베위에 검은 옷칠이 되어 있고 근래에 보강한 목심도 남아 있다. 보살상의 상체는 길고 어깨는 왜소한 편이나, 적당한 너비와 높이의 무릎으로 인하여 안정감 있는 구도를 보여준다. 타원형의 얼굴은 살이 적당히 올라 있고 얼굴의 윤곽과 이목구비는 부드럽고 고요한 편이다. 머리는 민머리로 검은 색으로 칠하였다. 넓은 이마의 중앙에는 둥근 백호를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눈썹 선과 눈두덩은 얇고 콧등은 낮고 콧날도 부드럽게 처리하였으나, 아래 입술을 뒤집듯 표현하여 약간 沈潛해 보인다. 이룬의 윤곽은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가늘게 늘어진 귓불에는 둥근 귀걸이를 부착하였다. 착의형식은 上衣 위에 다시 大衣를 편단우견으로 걸친 이중착의법으로, 보기 드물게 大衣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걸치지 않았다. 大衣의 끝단도 왼쪽어깨 뒤로 넘겨 마감하지 않고 왼쪽 팔뚝으로 넘겼다. 한편 이 시기 불상에서 흔히 보이는 승각기는 표현되지 않았다. 복부 이하는 주름은 입체적이고 긴장감 넘치지만, 어깨나 상체의 주름은 뭉그러진 듯 꼴이 깊지 않고 불분명하다.

이 불상은 넓게 노출시킨 가슴에는 다소 과장된 가슴 근육과 복근이 표현되었다. 수인은 왼손은 어깨 바깥쪽으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 앞으로 내밀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손바닥 위에 보주를 올려놓았다. 노출

된 손목에는 구슬이 달려 있는 팔찌를 착용하였다.

吉祥坐로 앉은 무릎 아래로는 S자형의 간결한 주름이 드리워져 있고, 무릎 좌우로 탄력 넘치는 2가닥의 주름이 끊어짐 없이 허벅지 위까지 잡혀있다. 무릎 앞쪽과 좌우측 면으로는 자연스럽게 펼쳐진 옷자락이 드리워지지 않았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보살상은 발원문에 등장하는 지원 2년 무렵의 불상들과 형식과 양식을 비교해 볼 때, 이 시기 불상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승각기의 금구장식이라든지 왼쪽 팔뚝 부근에 형성된 옴형 주름 등은 표현되지 않았다. 또 오른쪽 목깃에서 반전하며 드러난 옷자락이나 오른쪽 어깨를 걸치지 않은 편단우견의 착의형식, 그리고 가슴에 승각기의 표현이 없는 점, 무릎 앞쪽과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펼쳐진 옷자락이 표현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후기(13~14세기) 불상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

상호의 표현에서도 대체로 고려나 조선시대의 불상들은 분명한 눈썹에서 콧날로 이어지는 선이 뚜렷하고, 행인형의 두툼한 눈두덩, 선정에 잠긴 긴 눈매 등이 목구비의 표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보살상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미약하다. 더불어 이 보살상에서는 13세기 경의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중국 宋風의 이국적인 면모도, 14세기 경 고려식으로 변모된 단아한 면모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발원문에 기록된 至元 2年, 곧 13·14세기 무렵에 조성된 불상들과 비교했을 때 시대성이 보이지 않아 1737년 중수 시 대대적으로 보수된 것인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비록 이 보살상이 국내에서 사례가 많지 않은 건칠기법으로 제작되었다고는 하나, 발원문에 등장하는 제작연대의 시대성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양식의 불상이 좀 더 확인되고 연구된 뒤 국가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地藏菩薩金相記

1741년, 41.7×67.4, 白紙朱書

地藏菩薩金相記

法界如故秘深邃欲奉金相而依歸相色脫金顏一尊」
之攢眉多年今者化主應相比丘家道戶設挾卷子而勸」
之西乞東談遇善人而施矣爲金相地藏傍畫八金剛四」
菩薩帝釋天龍幘擁護法界是乃地藏之爲靈伏願金色」

之後佛日重光能開八萬中香起烟便遍三千之界」

乾隆二年歲在丁巳五月日青華山人戒裕文俊識」
蓋菩薩初搨在於至元二年始以金相今於乾隆二年亦」
爲金相」

青華山白蓮寺老德兼化主思軒堂大禪師」

應相化主道明比丘 願堂大施主朴相祖兩主」

願堂大施主具致善兩主 金相大施主梁武成兩主」

金相大施主林鳳明兩主 漆大施主李萬重兩主」

供養施主學談比丘 供養施主智明比丘」

供養施主知軒比丘 供養施主香尙比丘」

供養施主尙淳比丘 供養施主敏識比丘」

其時本寺秩」

宝月 慧淨 浮雲 法日 香空 宗敏 玉門」

其餘施主及本寺僧等繁細記」

마. 의결사항

- 원안부결 - 보물로 지정가치 부족함.

4.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 권제17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卷第十七)

가. 검토사항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 권제17”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8년도에 진행된 경기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문화재 중 선정이 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11.1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 권제17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卷第十七)
- 소유자 : 이길녀 (가천박물관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7-22 가천박물관
- 수 량 : 1권 1책(全30권, 목록1권)
- 규 격 : 세로 36.0 × 가로 22.3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고향자본(乙亥字)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16세기
- 현 상 : 四周單邊, 半郭 25.4×17.2cm. 有界, 半葉 10行16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版心題; 本草.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는 송대에 이룩한 본초학의 권위서로서 중국간본을 수입하여 16세기 후반에 을해자로 인출한 책이다. 비록 1권 1책(권17)에 지나지 않는 잔본이기는 하지만 표지를 개장한 이외에는 낙장이 없이 완전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조선전기 한의학과 본초학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과 국내에는 유일한 책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전체가 30권 25책 가운데 권17의 1권1책零本이며, 금속활자(乙亥字)를 사용한 1577(선조 10)년 印本이다. 수록된 내용은 獸部中品이다.

이 책은 朝鮮時代 初期에 本草學의 기본으로 중시되었던 관계로 韓國의 醫藥史研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文獻이다. 이와 동일본이 國立中央圖書館에 3권 1책(권24~26)이 소장되어 있고, 일본에는 존경각에 30권 21책, 내각문고에 30권 25책이 있다. 현재 國內에 있는 現存本들은 卷次가 각각 다른 唯一本이다. 韓醫學史 研究와 書誌學研究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본도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보존·관리 되어야 한다.

○ (지정 가치 있음)

調査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는 中國 宋朝의 名醫였던 唐愼微가 證類·編纂한 「經史證類備急本草」를 艾晟(宋) 등이 重修하고 曹孝忠(宋)이 校勘한 것을 南宋(金)의 張存惠가 寇宗奭의 「本草衍義」를 散入·增訂하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로 改題한 本草學의 大著를 우리나라에서 世祖年間(1455~1468)에 活字(乙亥字)로 刊行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調査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은 원래의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30卷本 중 卷17의 1卷 1冊만 殘存하는 零本으로, 수록된 내용은 <獸部中品>이다. 朝鮮時代 初期의 本草學의 기본으로 중시되었던 관계로 韓國의 醫藥研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本草學文獻이다. 國立中央圖書館에 권24~26의 3권 1책이 소장되어 있으나, 卷次가 다른 권17의 1권 1책의 調査本이 새로 발견되어 현재 國內에서는 단 2책만 所藏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全體 30권 25책의 完帙本 중에서 現存本들의 卷次가 각각 다르므로 사실상 唯一本으로 간주

되며, 아직 完帙本이 발견되지 않은 아쉬움이 없지 않다.

調査本은 韓醫學과 本草學의 研究에는 물론 書誌學의 研究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인 만큼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 서지사항

조사대상본인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卷17 / 唐愼微(宋, 1056-?) 證類 ; 艾晟(宋) 等重修 ; 曹孝忠(宋) 校勘 ; 張存惠(南宋·金) 增訂. - 活字本(乙亥字).

1권1책(45장)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5.4×17.2cm, 有界, 10行19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6.0×22.3cm. 楮紙. 線裝(五針眼訂).

표제(墨書):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권수제: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권말제: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판심제: 本草

표지: 개장

서명저자사항: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己酉(1249)新增衍義)/ 成都唐(愼微)續證類/ 中衛大夫康州防禦使句當龍德宮總轄修建明堂所醫藥提舉入內醫官編類聖濟經提舉大醫學(臣曹孝忠)奉/ 勅校勘

삽도: 鹿茸, 郢州鹿, 殺羊角, 羚羊角, 犀角, 虎骨, 兔, 狸骨, 郢州驢骨, 郢州豹肉

□ 현상

표지의 장정은 五針眼訂의 선장(線裝)으로 개장되어 있다. 조사대상본의 보존상태는 표지가 개장된 점 이외에 본문은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은 『증류비용본초(證類備用本草)』, 『정화본초(政和本草)』 등으로 약칭하기도하며 전 30권이다. 당신미(唐愼微)의 『경사증류비급본초(經史證類備急本草)』와 구종석(寇宗奭)의 『본초연의(本草衍義)』를 합편한 형태로 편찬된 것으로 본초학의 명저로 불린다.

성도(成都) 화양(華陽) 출신의 당신미(唐愼微)는 유명한 의사로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값을 받지 않는 대신에 본인이 아는 명방(名方)과 비약(秘藥)을 알려달라고 하여 받은 약명과 약방을 수집하여 원풍(元豐) 5-6년(1082-1083)에 이 책의 초고를 작성하고 원부(元符) 1년(1098)에 정고(定稿)하여 본초학(本草學)의 대작으로 평가받는 『경사증류비급본초(經史證類備急本草)』(약칭 證類本草) 31권을 저술하였다.

그 후 대관(大觀) 2년(1108)에 경의관(經醫官) 애성(艾晟) 등이 당신미의 『경사증류비급본초』를 중정(重正)하여 『대관경사증류비급본초(大觀經史證類備急本草)』(약칭 大觀本草)라 개제하였고, 그 뒤에 정화(政和) 6년(1116)에 칙명으로 경의관 조효충(曹孝忠)이 다시 이를 교감하여 『정화신수증류비용본초(政和新修證類備用本草)』(약칭 「政和本草」)라 개제하였다. 소흥(紹興) 29년(1159)에 다시 교정하여 『소흥교정경사증류비급본초(紹興校定經史證類備急本草)』라 개제하였다.

그후 남송 순우(淳祐) 9년(1249)에 평양(平陽)의 장존혜(張存惠)가 구종석이 472종의 본초를 정리하여 편찬한 『본초연의(本草衍義)』를 이 책에 합하여 31권본을 30권본으로 편찬하고 서명을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로 개제하여 회덕헌(晦德軒)에서 간행하였다.

□ 특징과 간행시기

조사대상본인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은 총30卷 가운데 1卷(권17) 1冊(45張)이 잔존하는 영본으로 활자(乙亥字)로 인행한 판본이다. 같은 판본으로 현존하는 완본으로 일본의 내각문고(子43-8)에 25책(內醫院印 날인), 동양문고에 25책, 궁내청서릉부(558-13)에 23책, 존경각에 21책, 岩瀨文庫에 30권 25책의 완질본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록되어 외에 대만고궁박물관에 12책이 소장되어 있다. 그 중에서 고궁박물관본과 岩瀨文庫장본에는 다음과 같이 내사기가 기록되어있다.

萬曆五年二月日/ 內賜內醫院參奉鄭士忠政和本草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張(臺灣 古宮博物院藏)

萬曆五年二月日/ 內賜司諫院大司諫崔 顯政和本草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張(日本 岩瀨文庫藏)

위에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책을 같은 때에 반사한 것이 2건이나 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책들의 인출시기는 萬曆 5년 즉 선조 10년(1577) 2월 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반사시기가 반드시 출판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벼슬을 하는 2인이 당시에 인출하지 않은 서적을 동시에 반사 받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정해보면, 이 시기가 인출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이들 전존본을 대교 검토한 논문(藤本幸夫,1994)에 의하면 이들은 같은 을해자본으로 밝히고 있다. 이외에 국내에도 고려대 만송문고에 8책(목록,권1-8, 권13-14,권20-26),국립중앙도서관에 1책(군25-26),간송문고 1책(권1),연세대 1책(권15-16)이 알려져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는 송대에 이룩한 본초학의 권위서로서 중국간본을 수입하여 16세기 후반에 을해자로 인출한 책이다. 비록 1권 1책(권17)에 지나지 않는 잔본이기는 하지만 표지를 개장한 이외에는 낙장이 없이 완전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조선전기 한의학과 본초학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과 국내에는 유일한 책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고려대,연세대,만송문고 등의 소장본을 합하면 거의 1질이 된다. 나머지 책도 조사,지정할 필요가 있다.

○ 문헌자료

唐愼微 證類, 艾晟 等重修, 曹孝忠 校勘, 張存惠 增訂,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乙亥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祖年間(1455-1468) 推定]. 加泉博物館 所藏本.

朴文烈·徐炳沛·宋日基 編, 「2008年度 京畿道 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 調査」 <指定對象 動産文化財 精密調査 報告書>. 서울 : 中央大學校産學協力團, 2008.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千惠鳳 著, 「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1997.

藤本幸夫 朝鮮本の訂正に就いて－『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を中心として
－ 朝鮮文化研究 1, 東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1994.

□

○ 현 상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5.4×17.2cm. 有界, 半葉 10行16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판심제; 本草.

○ 내용 및 특징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는 중국 송나라 唐愼微가 經史諸書에서 나오는 약명과 약방을 수집해서 편찬한 책이다. 『經史證類備用本草』, 『證類備用本草』, 『政和本草』 등으로 약칭되기도 한다. 唐愼微는 元豐 5~6년(1082~1083)에 걸쳐 이 책을 편집하여 원본은 22권으로 편찬되었으나 그 후 大觀 2년(1108)의 수정본인 『大觀經史證類備急本草』 31권이 편찬되고, 政和 6년(1116)에는 칙명에 의해 교정과 윤색을 거치면서 『政和本草』가 편찬되었다. 이어서 大定 9년(1169)에는 張存惠가 寇宗奭의 本草衍義를 본서와 합해서 편집하여 晦德軒에서 간행하였다. 권수제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아래에 ‘己酉新增衍義’라는 기록이 첨가되어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명이 되었다. 이 때 31권을 30권에 합하여 1권을 만들어서 중수정화본에서부터 30권이 되었다.

이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은 원래 30卷 중 卷17의 1卷 1冊(45張)만이 있는 零本으로 판심에 흑구와 상하내향3엽화문어미가 있는 금속활자본(乙亥字)이다. 현재 이와 동일본이 國立中央圖書館에 3권 1책(권24~26)이 소장되어 있고, 간송문고 1권1책(권7), 일본에는 존경각에 30권 21책, 내각문고에 30권 25책이 있다. 日本의 岩瀬文庫에 30卷 25冊의 完帙이 所藏되어 있다. 제1책의 표제 裏面に “萬曆五(1577, 선조10)年二月日 內賜司諫院大司諫崔顥政和本草一件 命除謝恩 …”이라는 內賜記가 기록되어 있어서,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일본의 존경각, 내각문고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1577(선조 10)년 印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卷頭에는 1행에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라는 卷頭書名 아래에 ‘己酉(1249)新增衍義’이 기록되어 있고 2행에 ‘成都唐愼微續證類’라는 唐愼微가 證類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3~4행에는 ‘中衛大夫康州防禦使句當龍德宮總轄修建明堂所醫藥提舉入內醫官編類聖濟經提舉大醫學臣曹孝忠奉勅校勘’이라는 校勘者인 曹孝忠의 職銜과 姓名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5~10행의 目錄事項에는 ‘獸部中品總一十七種, 七種神農本經(白字), 五種名醫別錄(墨字), 一種唐本先附(注云唐附), 四種陳藏器餘, 凡墨蓋子已下並唐愼微續證類’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神農本經은 白字로, 「名醫別錄」은 墨字로, 「唐本先附」는 注云唐附로 나타내

며 墨蓋子 아래에는 撰者인 唐愼微가 續證類한 내용을 병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本文에는 藥材로 쓰이는 동물의 뿔이나 뼈 등의 藥材名과 그에 대한 상세한 插圖가 있는데, 삽도 아래에는 병명, 성능, 형태, 소생지, 채취기, 효용등과 문헌을 수록하였고 插圖는 鹿茸·郢州鹿·羖羊角·羚羊·犀角·虎骨·兔·狸骨·郢州鼈骨·郢州豹肉 등의 10매이다. 白文의 墨蓋子와 動物插畫는 木版에 새기고 本文은 乙亥字를 사용하였다.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판본 상태 및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 문헌자료

신승운,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 V』, 국립중앙도서관, 2003.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전체가 30권 25책 가운데 권17의 1권1책零本이며, 금속활자(乙亥字)를 사용한 1577(선조 10)년 印本이다. 수록된 내용은 獸部中品이다.

이 책은 朝鮮時代 初期에 本草學의 기본으로 중시되었던 관계로 韓國의 醫藥史研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文獻이다. 이와 동일본이 國立中央圖書館에 3권 1책(권24~26)이 소장되어 있고, 일본에는 존경각에 30권 21책, 내각문고에 30권 25책이 있다. 현재 國內에 있는 現存本들은 卷次가 각각 다른 唯一本이다. 韓醫學史研究와 書誌學研究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본도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보존·관리 되어야 한다.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卷17 / 唐愼微(宋, 1056~?) 證類 ; 艾晟(宋) 等重修 ; 曹孝忠(宋) 校勘 ; 張存惠(南宋·金) 增訂. -- 活字本(乙亥字).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祖年間(1455~1468) 推定].

1卷1冊(45張)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5.4×17.2cm, 有界, 10行19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6.0×22.3cm.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題: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卷首題: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卷末題: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版心題: 本草

表紙: 改裝

書名著者事項: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己酉(1249)新增衍義)/ 成都唐(愼微)續證類/ 中衛大夫康州防禦使句當龍德宮總轄修建明堂所醫藥提舉入內醫官編類聖濟經提舉大醫學(臣曹孝忠)奉/ 勅校勘

目錄事項: 獸部中品總一十七種/ 七種神農本草經(白字)/ 五種名醫別錄(墨字)/ 一種唐本先附(注云唐附)/ 四種陳藏器餘/ 凡墨蓋子已下並唐愼微續證類

插圖: 鹿茸, 郢州鹿, 羴羊角, 羚羊角, 犀角, 虎骨, 兔, 狸骨, 郢州鼈骨, 郢州狗肉

印文: '□□□印'

□ 現狀

調査本「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는 中國 宋朝의 名醫였던 唐愼微가 證類·編纂한 「經史證類備急本草」를 艾晟(宋) 등이 重修하고 曹孝忠(宋)이 校勘한 것을 南宋(金)의 張存惠가 寇宗奭의 「本草衍義」를 散入·增訂하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로 改題한 中國 本草學의 大著를 우리나라에서 世祖年間(1455~1468)에 活字(乙亥字)로 刊行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調査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는 仁川廣域市 延壽區 玉蓮洞 567-22번지의 加泉博物館(李吉女)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원래의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30卷本 중 卷17의 1卷 1冊만 殘存하는 零本으로, 수록된 내용은 <獸部中品>이다. 卷頭に 插圖가 있고 邊欄은 四周單邊이다. 半郭의 크기는 세로 25.4cm 가로 17.2cm 內外이며 冊의 크기는 세로 36.0cm 가로 22.3cm 內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調査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保存狀態는 매우 良好한 편이며, 전문적인 施設을 갖춘 加泉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원래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는 唐愼微의 「經史證類備急本草」(약칭 證類本草)와 寇宗奭의 「本草衍義」를 合編한 형태로 編纂된 것이다.

중국 宋朝 成都 華陽 출신의 名醫였던 唐愼微는 「嘉祐本草」와 「本草圖經」 등을 기초로 하여 民間의 經驗方, 各家의 醫藥名著, 經史의 傳記, 佛書와 道藏 중 本草學과 관련된 記錄 등을 蒐集·整理하고 證類하여 元豐 5~6(1082~1083)년에 草稿

를 작성하고 元符 원(1098)년에 定稿하여 北宋 以前の 本草學의 大著作으로 평가 받는 「經史證類備急本草」(약칭 證類本草) 31권을 著述한 바 있었다.

그 후 宋朝 大觀 2(1108)년에 經醫官 艾晟 등이 唐愼微의 「經史證類備急本草」를 重正하여 「大觀經史證類備急本草」(약칭 「大觀本草」)라 改題하였고, 그 뒤에 宋朝 政和 6(1116)년에 勅命으로 經醫官 曹孝忠이 다시 「大觀經史證類備急本草」를 校勘하여 「政和新修證類備用本草」(약칭 「政和本草」)라 改題하였으며, 紹興 29(1159)년에 다시금 이를 校定하여 「紹興校定經史證類備急本草」라 改題하였다.

이어서 南宋 淳祐 9(己酉, 1249)년에 平陽의 張存惠가 寇宗奭이 472종의 本草를 정리하여 編纂한 「本草衍義」를 여기에 散入·增訂하여 31卷本을 30卷本으로 編纂하고 書名을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로 改題하여 晦德縣에서 刊行한 바 있었다.

□ 特徵

調査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은 원래 30卷 중 卷17의 1卷 1冊(45張)이 殘存하는 零本으로 活字(乙亥字)로 印行한 版本이다. 현재 동일한 版本으로는 國立中央圖書館에 卷24~26가 所藏되어 있으며, 日本의 岩瀨文庫에 30卷 25冊의 完帙이 所藏되어 있다. 특히 일본 岩瀨文庫 所藏本の 제1책의 扉面에 “萬曆五(1577, 선조10)年二月日 內賜司諫院大司諫崔翁政和本草一件 命除謝恩 …”이라는 內賜記가 기록되어 있어,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은 이를 근거로 한 듯 1577(선조10)년에 印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調査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권 17은 印出狀態에서 活字에 補鑄字가 사용되지 않은 점이라든가 紙質과 版式 등으로 볼 때 世祖年間(1455~1468)에 乙亥字로 印行한 版本이 아닌가 한다.

調査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表題와 卷首題 및 卷末題는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版心題는 ‘本草’로 기록되어 있다. 卷頭의 書名과 著者에 관련된 사항에는 제1행에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라는 卷頭書名 아래에 ‘己酉(1249)新增衍義’이 기록되어 있고 제2행에 ‘成都唐愼微續證類’라는 唐愼微가 證類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제3~4행에는 ‘中衛大夫康州防禦使句當龍德宮總轄修建明堂所醫藥提舉入內醫官編類聖濟經提舉大醫學臣曹孝忠奉勅校勘’이라는 校勘者인 曹孝忠의 職銜과 姓名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제5~10행의 目錄事項에는 ‘獸部中品總一十七種 / 七種神農本經(白字) / 五種名醫別錄(墨字) / 一種唐本先附(注云唐附) / 四種陳藏器餘 / 凡墨蓋子已下並唐愼微續證類’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조사본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권17에 수록된 <獸部中品> 17種의 내용이 「神農本經」에서 7종, 「名醫別錄」에서 5종, 「唐本先附」에서 1종, 「陳藏器餘」에서 4종 등 도합 17종이 수록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또한 「神農本經」은 白字로, 「名醫別錄」은 墨字로, 「唐本先附」는 注云唐附로 나타내며 墨蓋子 아래에는 撰

者인 唐愼微가 續證類한 내용을 병기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本文에는 먼저 藥材로 쓰이는 동물의 뿔이나 뼈 등의 藥材名과 그에 대한 상세한 插圖가 있는데, 插圖는 <鹿茸>·<郢州鹿>·<羖羊角>·<羚羊角>·<犀角>·<虎骨>·<兔>·<狸骨>·<郢州麋骨>·<郢州豹肉> 등의 10매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墨蓋子에는 藥材의 맛과 성분 등을 기록하고 그 아래에는 說明文을 乙亥字로 排字하여 印行하였다. 따라서 調査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印行에는 白文의 墨蓋子와 動物插畫는 木版에 새기고 本文의 內容은 活字(乙亥字)를 사용하여 이들을 함께 組版하여 印行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調査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에는 <鹿茸>·<郢州鹿>·<羖羊角>·<羚羊角>·<犀角>·<虎骨>·<兔>·<狸骨>·<郢州麋骨>·<郢州豹肉> 등 10매의 插圖가 수록되어 있고 邊欄은 四周單邊이다. 半郭의 크기는 세로 25.4cm 가로 17.2cm 內外이며, 界線이 있고 行字數는 10行 19字이며 註는 雙行이다. 版口는 上下大黑口이고 魚尾는 上下內向3葉花紋魚尾이다. 冊의 크기는 세로 36.0cm 가로 22.3cm 內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調査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은 朝鮮時代 初期에 本草學의 기본으로 중시되었던 관계로 韓國의 醫藥研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本草學文獻이다. 國立中央圖書館에 권24~26의 3권 1책이 소장되어 있으나, 卷次가 다른 권17의 1권 1책의 調査本이 새로 발견되어 현재 國內에서는 단 2책만 所藏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全體 30권 25책의 完帙本 중에서 現存本들의 卷次가 각각 다르므로 사실상 唯一本으로 간주되며, 아직 完帙本이 발견되지 않은 아쉬움이 없지 않다. 調査本은 韓醫學과 本草學의 研究에는 물론 書誌學의 研究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인 만큼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調査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는 中國 宋朝의 名醫였던 唐愼微가 證類·編纂한 「經史證類備急本草」를 艾晟(宋) 등이 重修하고 曹孝忠(宋)이 校勘한 것을 南宋(金)의 張存惠가 寇宗奭의 「本草衍義」를 散入·增訂하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로 改題한 本草學의 大著를 우리나라에서 世祖年間(1455~1468)에 活字(乙亥字)로 刊行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調査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은 원래의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30卷本 중 卷17의 1卷 1冊만 殘存하는 零本으로, 수록된 내용은 <獸部中品>이다. 朝鮮時代 初期의 本草學의 기본으로 중시되었던 관계로 韓國의 醫藥研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本草學文獻이다. 國立中央圖書館에 권24~26의 3권 1책이 소장

되어 있으나, 卷次가 다른 권17의 1권 1책의 調査本이 새로 발견되어 현재 國內에서는 단 2책만 所藏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全體 30권 25책의 完帙本 중에서 現存本들의 卷次가 각각 다르므로 사실상 唯一本으로 간주되며, 아직 完帙本이 발견되지 않은 아쉬움이 없지 않다.

調査本은 韓醫學과 本草學의 研究에는 물론 書誌學의 研究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인 만큼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 문헌자료

唐愼微 證類, 艾晟 等重修, 曹孝忠 校勘, 張存惠 增訂,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乙亥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祖年間(1455~1468) 推定]. 加泉博物館 所藏本.

朴文烈·徐炳沛·宋日基 編, 「2008年度 京畿道 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 調査」 <指定對象 動産文化財 精密調査 報告書>. 서울 : 中央大學校産學協力團, 2008.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千惠鳳 著, 「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1997.

○ 기 타

調査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은 仁川廣域市 延壽區 玉蓮洞 567-22번지 (박물관길 52)의 加泉博物館(李吉女)의 所有이며, 일찍이 購入을 통하여 收藏·管理해 오고 있다고 한다. 調査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保存狀態는 매우 良好한 편이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 함.

5. 신간소문입식운기론오(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

가. 검토사항

“신간소문입식운기론오”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8년도에 진행된 경기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문화재 중 선정이 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11.1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신간소문입식운기론오(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
- 소유자 : 이길녀(가천박물관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7-22 가천박물관
- 수 량 : 1권 1책
- 규 격 : 세로 32.2 × 가로 20.3 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조선전기(임진왜란 이전)
- 현 상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2.5×15.1cm. 有界, 半葉 12行21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부족함)

조사대상본인 『신간소문입식운기론오(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정각한 목판본으로, 16세기 후반 경에 한국에서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본이 수종에 불과할 뿐아니라 조선전기 한의학 연구와 서지학연구의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다만 같은 책의 을해자 인본이 소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을해자본이 발견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방 유형문화재지정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은 劉溫舒가 元符 2(1099)년에 저술한 運氣學에 관한 醫學專門書로 권상·중·하의 3권1책으로 구성되었다. 권말에 刊記가 없어 정확한 刊行年代는 알 수 없으나 版式과 紙質 등의 특징으로 보아 대체로 壬亂 이전에 板刻되어 刊行된 목판본으로 推定된다. 인출 상태 및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현재 국내 목록에도 나타나지 않는 희구본이나 乙亥字多混補字板本도 기록에 전하고, 간행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는 판본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중국 宋朝의 劉溫舒가 元符 2(1099)년에 저술한 運氣學에 관한 醫學 專門書를 우리나라에서 朝鮮前期(壬辰倭亂 以前)에 木版으로 刊行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전반적으로 壬辰倭亂 以前에 印行된 木版本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木版本임에도 불구하고 木活字本으로 오인할 정도로 精巧하게 板刻되어 있다. 字體의 특징으로 보아, 調査本の 底本이 혹은 甲辰字로 印行한 活字本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版本으로는 元朝에서 印行한 것과 明朝의 道軒 熊宗立(1409~1482)이 成化 10(1474)년에 印行한 版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은 明朝의 刊本을 底本으로 朝鮮時代 前期(壬辰倭亂 以前)에 板刻하여 印行한 板本으로 推定된다.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黃帝內經」의 <五運六氣論>에 근원하여 運氣가 疾病의 發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주목하여 정리한 醫學專門書이다. 中國의 元朝와 明朝에서 刊行된 사실이 있고 또한 日本에서도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8)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거나, 우리나라에서

印行된 木版本으로는 調査本이 국내 유일한 版本이 아닌가 한다. 版本의 諸般形式이 壬辰倭亂 以前の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은 韓醫學의 研究에는 물론 書誌學의 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참작하건대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은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 서지사항

조사대상본인 『신간소문입식운기론오(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 上·中·下 / 劉溫舒(宋) 撰. - 木版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朝鮮前期(壬辰倭亂以前) 推定].

3卷1冊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2.5×15.1cm, 有界, 12行21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2×20.3cm.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題: 素問

序題: 素問立式運氣論奧

卷首題: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

卷末題: 素問立式運氣論奧

版心題: 素問運氣

序: 素問立式運氣論奧序…朝散郎太醫學司業劉溫舒撰…元符己卯年(1099)歲丁丑月望日序

刊記: 書堂重刻

插圖:

□ 現狀

조사대상본 『신간소문입식운기론오(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 3권 1책의 보존상

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중국 송조의 유온서(劉溫舒)가 원부(元符) 2년(1099)에 저술한 운기학(運氣學)에 관한 의학 전문서를 우리나라에서 갑조선전기(임진왜란 이전)에 목판(갑진자 번각판)으로 刊行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신간소문입식운기론오(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중국 宋朝의 劉溫舒가 元符 2(1099)년에 저술한 운기학(運氣學)에 관한 의서로서, 오운육기(五運六氣)와 그의 의학상의 응용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곁들여 가며 전문적으로 다룬 책이다. 상중하 3권에 오운육기와 질병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권상에는 오운육기주요지도(五運六氣樞要之圖)·육십기운도(六十年紀運圖)·십간기운결(十干起運訣)·십이지사천결(十二支司天訣)·논오행생사순역(論五行生死順逆)·논십간(論十干)·논십이지(論十二支)등 14편이 수록되어 있고, 권중에는 논오천지기(論五天之氣)·논오음건운(論五音建運)·논월건(論月建)·논천지육기(論天地六氣)·논주기(論主氣)·논객기(論客氣) 등 10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하에는 논대논기운상임동화(論大少氣運相臨同化)·논기운(論紀運)·논세중오운(論歲中五運)·논수족경(論手足經)·논승복(論勝復) 등 11편이 수록 되어있다.

□ 特徵

조사대상본인 『신간소문입식운기론오』는 상중하 3권 1책의 목판본(갑진자번각)이다. 조사대상본 이외에 경주 옥산서원에 같은 판본이 2질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 을해본(10행18자본) 등이 알려져 있다. 조사대상본에는 ‘서당중각(書堂重刻)’이라는 간기(刊記)가 보이는데, 이는 원대에 의서 등 많은 서적을 간행한 ‘호씨고림서당(胡氏古林書堂)’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에는 많은 삽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육십년기운도(六十年紀運圖)·십간기운결(十干起運訣) 등 29도(圖)이다.

이 책의 판면을 보면 글자의 모습이 갑진자체의 형태를 띠는 정교한 목판본으로, 거의 활자본으로 착각할 정도의 정각본이라는 점에서, 저본이 갑진자로 찍은 활자본으로 생각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조사대상본인 『신간소문입식운기론오(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정각한 목판본으로, 16세기 후반 경에 한국에서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본이 수중에 불과할뿐 아니라 조선전기 한의학 연구와 서지학연구의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다만 같은 책의 을해자 인본이 소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을해자본이

발견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방 유형문화재지정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 문헌자료

三木榮, 朝鮮醫書志.



○ 현 상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2.5×15.1cm. 有界, 半葉 12行21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내용 및 특징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은 중국 宋나라의 劉溫舒가 元符 2(1099)년에 저술한 運氣學에 관한 醫學專門書로 권상·중·하의 3권1책으로 구성되었다.

卷頭에는 元符 己卯(1099)年 丁丑月 望日에 朝散郎太醫學司業 劉溫舒가 撰한 ‘素問立式運氣論奧序’가 있으며, 다음 행에 ‘書堂重刻’의 기록으로는 刊行處를 알 수가 없다. 序文에 이어서 上中下 3권의 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卷上은 五運六氣 樞要之圖, 六十年紀運圖, 十干起運訣, 十二支司天訣, 論五行生死順逆, 論十干, 論十二支, 論納音, 論六化, 論四時氣候, 論交六氣時口[日], 論日刻, 論六氣標本, 論五行生成數. 卷中은 論五天之氣, 論五音建運, 論月建, 論天地六氣, 論主氣, 論客氣, 論天符, 論歲會, 論同天符同歲會, 論南北政. 卷下은 論大少氣運相臨同化, 論紀運, 論歲中五運, 論手足經, 論勝復, 論九宮分野, 論六十年客氣, 論六[病], 論六脈, 論治法, 五行勝復論(附)에 이어 六十年紀運圖, 十干起運訣, 十二支司天訣, 五運六氣樞要之圖가 있고 本文에는 插圖가 먼저 제시되고 차례로 29도 插圖에 대한 상세한 解說이 설명되는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에 半葉은 12行이며 1행은 21字로 되어 있고, 판심에는 上下黑口에 上下內向黑魚尾이며, 판심제는 素問運氣이다. 권말에 刊記가 없어 정확한 刊行年代는 알 수 없으나 版式과 紙質 등의 특징으로 보아 대체로 壬亂 以前에 板刻되어 刊行된 목판본으로 推定된다. 인출 상태 및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일본 궁내청에는 乙亥字多混補字板本 [명종~선조]印本인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 권상·중·하 3권1책이 있다. 국내에는 乙亥字多混補字板과 이 목판본도 제목록에도 나타나지 있지 않은 희구본에 속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은 劉溫舒가 元符 2(1099)년에 저술한 運氣學에 관한

醫學專門書로 권상·중·하의 3권1책으로 구성되었다. 권말에 刊記가 없어 정확한 刊行年代는 알 수 없으나 版式과 紙質 등의 특징으로 보아 대체로 壬亂 以前에 板刻되어 刊行된 목판본으로 推定된다. 인출 상태 및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현재 국내 목록에도 나타나지 않는 희구본이나 乙亥字多混補字板本도 기록에 전하고, 간행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는 판본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 上·中·下 / 劉溫舒(宋) 撰. -- 木版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朝鮮前期(壬辰倭亂以前) 推定].

3卷1冊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2.5×15.1cm, 有界, 12行21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2×20.3cm.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題: 素問

序題: 素問立式運氣論奧

卷首題: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

卷末題: 素問立式運氣論奧

版心題: 素問運氣

序: 素問立式運氣論奧序…朝散郎太醫學司業劉溫舒撰…元符己卯年(1099)歲丁丑月望日序

刊記: 書堂重刻

插圖: 六十年紀運圖, 十干起運訣, 十二支司天訣, 五運六氣樞要之圖, 五行生死順逆之圖, 十干之圖, 十二支圖, 納音之圖, 六化之圖, 四時氣候之圖, 交六氣時日圖, 日刻之圖, 標本之圖, 生成數圖, 五天氣圖, 五音建運之圖, 月建圖, 主氣之圖, 客氣之圖, 天符之圖, 歲會之圖, 同天符同歲會之圖, 南北政圖, 大少氣運相臨之圖, 紀運之圖, 歲中五運, 手足經圖, 九宮分野所司之圖, 六十年客氣旁通圖

內容: -卷上; 五運六氣樞要之圖, 六十年紀運圖, 十干起運訣, 十二支司天訣, 論五行生死順逆, 論十干, 論十二支, 論納音, 論六化, 論四時氣候, 論交六氣時口[日], 論日刻, 論六氣標本, 論五行生成數. -卷中; 論五天之氣, 論五音建運, 論月建, 論天地六氣, 論主氣, 論客氣, 論天符, 論歲會, 論同天符同歲會, 論南北政. -卷下; 論大少氣運相臨同化, 論紀運, 論歲中五運, 論手足經, 論勝復, 論九

宮分野, 論六十年客氣, 論六□[病], 論六脈, 論治法, 五行勝復論(附).

□ 現狀

調査本「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중국 宋朝의 劉溫舒가 元符 2(1099)년에 저술한 運氣學에 관한 醫學 專門書를 우리나라에서 朝鮮前期(壬辰倭亂 以前)에 木版으로 刊行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調査本「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仁川廣域市 延壽區 玉蓮洞 567-22번지의 加泉博物館(李吉女)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調査本「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의 卷冊數는 上中下 3卷 1冊이며, 卷頭に 插圖가 있고 邊欄은 四周單邊이다. 半郭의 크기는 세로 22.5cm 가로 15.1cm 內外이며 冊의 크기는 세로 32.2cm 가로 20.3cm 內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이다.

調査本「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의 保存狀態는 매우 良好한 편이며, 전문적인 施設을 갖춘 加泉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중국 宋朝의 劉溫舒가 元符 2(1099)년에 저술한 運氣學에 관한 上中下 3권의 專門醫書로 五運六氣와 疾病의 關係에 대한 內容들이 수록되어 있다. 卷首의 目錄에 의하면 卷上에는 <五運六氣樞要之圖>·<六十年紀運圖>·<十干起運訣>·<十二支司天訣>·<論五行生死順逆>·<論十干>·<論十二支>·<論納音>·<論六化>·<論四時氣候>·<論交六氣時口[日]>·<論日刻>·<論六氣標本>·<論五行生成數>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中에는 <論五天之氣>·<論五音建運>·<論月建>·<論天地六氣>·<論主氣>·<論客氣>·<論天符>·<論歲會>·<論同天符同歲會>·<論南北政>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下에는 <論大少氣運相臨同化>·<論紀運>·<論歲中五運>·<論手足經>·<論勝復>·<論九宮分野>·<論六十年客氣>·<論六□[病]>·<論六脈>·<論治法>·<五行勝復論(附)> 등이 수록되어 있다.

□ 特徵

調査本「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上中下 3卷 1冊의 木版本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唯一本인 듯하다. 이와 동일한 書名으로 日本에서 간행된 版本도 있으나 調査本과는 사뭇 다른 版本이다.

調査本「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의 表題는 ‘素問’이고 序題는 ‘素問立式運氣論奧’이며, 卷首題는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이고 卷末題는 ‘素問立式運氣論奧’이다. 卷頭에는 元符 己卯(1099)年 丁丑月 望日에 朝散郎太醫學司業 劉溫舒가 撰한 <素問

立式運氣論奧序>가 수록되어 있으며, ‘書堂重刻’이라는 刊記도 수록되어 있다. 刊記의 ‘書堂重刻’으로는 刊行處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中國國家圖書館과 北京大學圖書館 등에 소장된 元朝 至元 5(1339)년 刊行의 版本에는 ‘胡氏吉林書堂刻’이라는 刊記가 있는 바, 調査本은 이를 底本으로 覆刻하면서 ‘胡氏吉林’과 ‘刻’을 삭제하고 ‘重刻’ 대신에 ‘重刻’으로 修正한 것이 아닌가 한다. 序文에 이어서 上中下 3권의 目錄이 수록되어 있으며, 本文에는 插圖가 먼저 제시되고 이어서 插圖에 대한 상세한 解說이 설명되는 형식으로 편찬되어 있다.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에 수록되어 있는 插圖는 <六十年紀運圖>·<十干起運訣>·<十二支司天訣>·<五運六氣樞要之圖>·<五行生死順逆之圖>·<十干之圖>·<十二支圖>·<納音之圖>·<六化之圖>·<四時氣候之圖>·<交六氣時日圖>·<日刻之圖>·<標本之圖>·<生成數圖>·<五天氣圖>·<五音建運之圖>·<月建圖>·<主氣之圖>·<客氣之圖>·<天符之圖>·<歲會之圖>·<同天符同歲會之圖>·<南北政圖>·<大少氣運相臨之圖>·<紀運之圖>·<歲中五運>·<手足經圖>·<九宮分野所司之圖>·<六十年客氣旁通圖> 등 29枚이다.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의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22.5cm 가로 15.1cm 內外이며, 界線이 있고 行字數는 10行 21字이며 註는 雙行이다. 版口는 上下大黑口이고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冊의 크기는 세로 32.2cm 가로 20.3cm 내외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는 原表紙인 듯하고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이다.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전반적으로 壬辰倭亂 以前에 印行된 木版本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木版本임에도 불구하고 木活字本으로 誤認할 정도로 精巧하게 板刻되어 있다. 字體의 특징으로 보아, 調査本의 底本이 혹은 甲辰字로 印行한 活字本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版本으로는 元朝에서 印行한 것과 明朝의 道軒 熊宗立(1409~1482)이 成化 10(1474)년에 印行한 版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은 明朝의 刊本을 底本으로 朝鮮時代 前期(壬辰倭亂 以前)에 板刻하여 印行한 板本으로 推定된다.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黃帝內經」의 <五運六氣論>에 근원하여 運氣가 疾病의 發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주목하여 정리한 醫學專門書이다. 中國의 元朝와 明朝에서 刊行된 사실이 있고 또한 日本에서도 에도시대(江戶時代, 1603~1868)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에서 印行된 木版本으로는 調査本이 국내 유일한 版本이 아닌가 한다. 版本의 諸般 形式이 壬辰倭亂 以前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은 韓醫學의 研究에는 물론 書誌學의 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참작하건대 調査本 「新刊素問

立式運氣論奧」은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중국 宋朝의 劉溫舒가 元符 2(1099)년에 저술한 運氣學에 관한 醫學 專門書를 우리나라에서 朝鮮前期(壬辰倭亂 以前)에 木版으로 刊行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전반적으로 壬辰倭亂 以前에 印行된 木版本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木版本임에도 불구하고 木活字本으로 오인할 정도로 精巧하게 板刻되어 있다. 字體의 특징으로 보아, 調査本の 底本이 혹은 甲辰字로 印行한 活字本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版本으로는 元朝에서 印行한 것과 明朝의 道軒 熊宗立(1409~1482)이 成化 10(1474)년에 印行한 版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은 明朝의 刊本을 底本으로 朝鮮時代 前期(壬辰倭亂 以前)에 板刻하여 印行한 板本으로 推定된다.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黃帝內經」의 <五運六氣論>에 근원하여 運氣가 疾病의 發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주목하여 정리한 醫學專門書이다. 中國의 元朝와 明朝에서 刊行된 사실이 있고 또한 日本에서도 에도시대(江戶時代, 1603~1868)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에서 印行된 木版本으로는 調査本이 국내 유일한 版本이 아닌가 한다. 版本의 諸般 形式이 壬辰倭亂 以前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은 韓醫學의 研究에는 물론 書誌學의 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참작하건대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은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문헌자료

劉溫舒 撰,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 木版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朝鮮前期(壬辰倭亂以前) 推定]. 加泉博物館 所藏本.

朴文烈·徐炳沛·宋日基 編, 「2008年度 京畿道 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 調査」 <指定對象 動産文化財 精密調査 報告書>. 서울 : 中央大學校産學協力團, 2008.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千惠鳳 著, 「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1997.

○ 기 타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는 仁川廣域市 延壽區 玉蓮洞 567-22번지(박물관길 52)의 加泉博物館(李吉女)의 所有이며, 일찍이 購入을 통하여 收藏·管理해 오고 있다고 한다. 調査本 「新刊素問立式運氣論奧」의 保存狀態는 매우 良好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부결 - 보물로 지정가치 부족함.

6. 효경(孝經)

가. 검토사항

“효경”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8년도에 진행된 경기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문화재 중 선정이 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11.1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효경(孝經)
- 소유자 : 이길녀(가천박물관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7-22 가천박물관
- 수 량 : 1권 1책
- 규 격 : 세로 31.3 × 가로 20.7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조선전기
- 현 상 : 四周單邊, 半郭 24.8×16.3cm. 有界, 半葉 4行8字, 上下黑口, 上下內向黑· 1葉花紋魚尾.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부족함)

조사대상본 『효경(孝經)』은 간행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년대는 알 수 없으나 임진란 이전의 지방 목판본으로 판본된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본이 많지 않고, 교육사 및 출판사연구의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을 검토해보는 것이 적의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大字本 『효경』은 註解文을 생략하고 經文만을 大字로 써서 쉽게 볼 수 있도록 經文 1장과 傳文 14장의 체계로 編次하여 간행한 木板本이다. 공자가 그의 제자 曾子와 문답한 것 중에서 효도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 판본은 판식으로 보아 有界에 半葉 4行8字이며, 上下黑口가 있고 上下內向黑·1葉花紋魚尾로 보아 1475년(성종 6)에 全州府에서 간행한 판본의 후쇄본으로 추정된다. 서·발문과 간기가 없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고 1장의 전면은 훼손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인쇄상태가 좋지 못하고 보존상태도 불량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은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調査本 「孝經」은 孔子와 그의 弟子 曾參(曾子)이 問答한 것 중에서 孝에 관한 내용을 1책으로 엮은 것을 朝鮮前期(壬辰倭亂 以前)에 全州府 등 地方官廳에서 木版으로 刊行한 것으로 推定되는 大字本の 版本이다. 「孝經」은 朝鮮時代 初期의 세종 5(1423)년에 庚子字로 印行되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보이고 있으나 現存本 中에는 庚子字系統의 版本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庚午字의 覆刻本 2종이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調査本 「孝經」은 民間에 널리 普及할 目的으로 註解文을 삭제하고 「孝經」의 經文만을 大字로 써서 쉽게 볼 수 있도록 編次하여 全州府 등 地方官廳에서 印行한 版本 中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형식의 版本도 그다지 전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매우 희귀한 상태이다. 調査本 「孝經」은 朝鮮時代に 統治思想의 根幹으로 삼아 民間의 兒童들로부터 君王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必讀書였다. 또한 傳統社會의 文化的·社會的 일체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價値의 德目이기도 하였다. 「孝經」은 朝鮮時代に 다양한 版本이 여러 차례에 걸쳐 印行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어, 孝思想을 연구하는데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書誌學研究에도 중요한 資料的 價値를 지니고 있다. 또한 朝鮮時代 初期에 趙孟頫體에 기초한 安平大君의 書風이 유행함에 따라 趙孟頫體를 연습하기

위한 法帖의 역할도 하였던 점에서 書藝研究에도 귀중한 資料的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참작하건대 調査本 「孝經」은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현 상

□ 서지사항 : 조사대상본 『효경(孝經)』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孝經 / 孔子·曾參 共著. - 木版本.

不分卷 1冊(28장) : 四周單邊, 半郭 24.8×16.3cm, 有界, 4行8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1葉花紋魚尾 混用 ; 31.3×20.7cm.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題: 孝經

卷首題: 孝經

卷末題: 孝經

版心題: 孝經

內容: 經1章, 傳 第1-14章

조선전기(壬辰倭亂 以前)에 全州府 등 地方官廳에서 木版으로 刊行한 것으로 推定되는 大字本の 版本이다.

調査本 「孝經」은 仁川廣域市 延壽區 玉蓮洞 567-22번지의 加泉博物館(李吉女)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調査本 「孝經」의 變란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24.8cm 가로 16.3cm 內外이며 冊의 크기는 세로 31.3cm 가로 20.7cm 內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이다.

調査本 「孝經」의 保存狀態는 後表紙의 일부와 제1장 左上段의 毀損을 제외하면 매우 良好한 편이며, 전문적인 施設을 갖춘 加泉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 내용

『효경(孝經)』은 공자와 그의 제자 증삼(曾子)이 효에 대하여 문답한 내용을 엮은 책으로, 유교의 13경 중의 하나이다. 조사대상본은 경(經) 1장과 전(傳) 14장으로 나누어 편집한 것으로 보아 주자의 학설에 따라 정리한 것임을 보여준다.

□ 특징

조사대상본 『효경(孝經)』은 불분권 1책 28장의 목판본으로, 경 1장과 전14장의 본문만을 뽑아 새긴 소위 대문(大文)이다. 반엽 4항에 8자씩 큰 글씨로 새긴 판본으로 독송과 글씨를 읽히는 습자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던 형식이다. 삼국시대에 전래된 이래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인재선발을 위한 과거시험의 과목에서 제외된 관계로 아동용 기초교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고사촬요(故事撮要)』의 책판목록에 의하면 조선전기(임란이전)에 대자본 효경을 개관한 곳으로는 곤양(昆陽)이 보이지만 이 책이 곤양판 효경인지는 알 수 없다. 임진란 이전에 효경을 간행한 지역은 전주,나주,금산,정읍,옥과,보성,경주,안동,선산,영덕,삼척,회양,수안,평양,회령,곤양 등 20여 처에 이른다. 지방 목판본이지만 임란이전본은 전래본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조사대상본 『효경(孝經)』은 간행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년대는 알 수 없으나 임진란 이전의 지방 목판본으로 판본된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본이 많지 않고, 교육사 및 출판사연구의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을 검토해보는 것이 적의할 것으로 사료된다.

○ 문헌자료

朴文烈·徐炳沛·宋日基 編, 「2008年度 京畿道 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 調査」 <指定對象 動産文化財 精密調査 報告書>. 서울 : 中央大學校産學協力團, 2008.

□

○ 현 상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4.8×16.3cm. 有界, 半葉 4行8字, 上下黑口, 上下內向黑·1葉花紋魚尾.

○ 내용 및 특징

『孝經』은 孔子와 그의 弟子 曾參(曾子)이 問答한 것 중에서 孝에 관한 내용으로 『孝經』의 註解文을 생략하고 經文만을 大字로 써서 쉽게 볼 수 있도록 經文 1장과 傳文 14장의 체계로 編次하여 1책으로 간행한 大字本이다.

『孝經』은 孝의 정신과 규범을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孝의 규범을 군주에 대한 충성으로 필요성을 충족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주희는 『孝經』이 갖고 있던 기존의 권위 및 孝治論을 부정하면서 이를 전면적으로 쇄신하여 『효경간오』 편찬하였다. 주희의 『효경간오』는 다시 『孝經大義』로 이어졌고 『효경대의』는 고려말 성리학파 함께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널리 읽혔던 『孝經』은 대부분 『효경대의』였다.

이 판본은 판식이 4行8字이며, 上下黑口가 있고 上下內向黑·1葉花紋魚尾로 보아 1475년(성종 6)에 全州府에서 간행한 판본의 후쇄본으로 16세기 경 간행본 추정된다. 서·발문과 간기가 없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고 1장의 전면은 훼손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인쇄상태가 좋지 못하고 보존상태도 불량하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大字本 『효경』은 註解文을 생략하고 經文만을 大字로 써서 쉽게 볼 수 있도록 經文 1장과 傳文 14장의 체계로 編次하여 간행한 木板本이다. 공자가 그의 제자 曾子와 문답한 것 중에서 孝도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 판본은 판식으로 보아 有界에 半葉 4行8字이며, 上下黑口가 있고 上下內向黑·1葉花紋魚尾로 보아 1475년(성종 6)에 全州府에서 간행한 판본의 후쇄본으로 추정된다. 서·발문과 간기가 없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고 1장의 전면은 훼손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인쇄상태가 좋지 못하고 보존상태도 불량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은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查本 「孝經」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孝經 / 孔子(魯, BC551~BC479)·曾參(魯, BC506~BC436) 共著. -- 木版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朝鮮前期(壬辰倭亂以前) 推定].

不分卷1冊(28張) : 四周單邊, 半郭 24.8×16.3cm, 有界, 4行8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1葉花紋魚尾 混用 ; 31.3×20.7cm.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題: 孝經

卷首題: 孝經

卷末題: 孝經

版心題: 孝經

內容: 經1章, 傳 第1-14章

□ 現狀

調査本「孝經」은 孔子와 그의 弟子 曾參(曾子)이 問答한 것 중에서 孝에 관한 내용을 1책으로 엮은 것을 朝鮮前期(壬辰倭亂 以前)에 全州府 등 地方官廳에서 木版으로 刊行한 것으로 推定되는 大字本の 版本이다.

調査本「孝經」은 仁川廣域市 延壽區 玉蓮洞 567-22번지의 加泉博物館(李吉女)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調査本「孝經」의 變란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24.8cm 가로 16.3cm 內外이며 冊의 크기는 세로 31.3cm 가로 20.7cm 內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이다.

調査本「孝經」의 保存狀態는 後表紙의 일부와 제1장 左上段의 毀損을 제외하면 매우 良好한 편이며, 전문적인 施設을 갖춘 加泉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孝經」은 古文과 今文의 2종류가 있다. 孔子의 舊宅에서 出現된 것을 「古文孝經」이라 하며, 秦始皇의 焚書(BC 213) 때에 顏芝가 保藏하여 傳한 것을 그의 아들 顏貞이 당시 통용되는 書體로 다시 쓴 것을 「今文孝經」이라 한다. 그 후 唐朝의 孔安國이 「古文孝經」을 解讀하고 註釋하였으며, 唐 玄宗朝에 「御注孝經」, 宋 眞宗朝에 「孝經正義」가 나왔다. 그 후 宋朝의 朱熹(1130~1200)는 「古文孝經」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를 새로 經文 1章과 傳文 14章의 새로운 體制로 編次하였는데, 이 體制의 版種이 널리 유통되었다. 朱熹가 바로잡은 編次에 의하면, 經의 1章은 金문의 <開宗明義章>에서, 傳의 首章은 金문의 <廣至德章>에서, 傳의 제2장은 金문의 <廣要道章>에서, 傳의 제3장은 金문의 <三才章>에서, 傳의 제4장은 金문의 <孝治章>에서, 傳의 제5장은 金문의 <聖治章> 上節에서, 傳의 제6장은 金문의 <聖治章> 下節에서, 傳의 제7장은 金문의 <紀孝行章>에서, 傳의 제8장은 金문의 <五刑章>에서, 傳의 제9장은 金문의 <事君章>에서, 傳의 제10장은 金문의 <感應章>에서, 傳의 제11장은 金문의 <廣揚名章>에서, 傳의 제12장은 金문의 <閨門章>에서, 傳의 제13장은 金문의 <諫爭章>에서, 傳의 제14장은 金문의 <喪親章>에서 옮겨와 編成하였다.

「孝經」의 經과 傳은 初學者를 위한 글이므로 文章이 明白하고 簡潔하다. 또한 「大學」이 學問의 根本을 밝힌 것이라면, 「孝經」은 行爲의 準則을 밝히고 있다. 朱熹에 의하여 編次된 「孝經」은 그 후 宋朝의 학자 董鼎이 朱熹가 저술한 「孝經刊誤」에 자세한 註釋을 붙여 理解를 도모하고 大義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朱熹에 의하여 새롭게 編次된 「孝經」은 宋朝의 董鼎이 註釋 및 編輯한 것에 元朝의 學者 熊禾(1247~1312)의 序文과 明朝의 學者 徐貫(1433~1502)의 跋文이 들어 있는 版本이 우리나라에 널리 流行하였다.

□ 特徵

調査本 「孝經」은 不分卷 1책 28張의 木版本이다.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三國時代 이래로 「孝經」이 보급되어 학습되었으나, 高麗時代까지의 刊行本 實物은 전래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朝鮮時代 前期에 널리 流布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朝鮮時代 初期의 세종 5(1423)년에 庚子字로 印行되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보이고 있으며⁹⁾¹⁰⁾¹¹⁾, 이를 覆刻한 木版本이 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現存本 중에는 庚子字系統의 版本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庚午字의 覆刻本 2종이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奎章閣 所藏本 중에 尹孝孫(1431~1503)이 編次한 것을 중종 25(1530)년에 南原府에서 重刊한 版本이 있는데, 이 版本에 성종 6(1475)년에 全州府에서 開版하였다는 舊刊記가 수록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壬辰倭亂 以前の 「孝經」의 版本은 全州府와 南原府에서 印行된 地方官版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선조 22(1589)년에 柳成龍(1542~1607)의 발문이 있는 大型木活字本과 그 覆刻本들이 널리 유포되고 있으며, 또한 壬辰倭亂 以後에도 고종 11(1874)년에 輔養廳에서 重刊한 倣乙亥字本 등이 傳來되고 있다.

調査本 「孝經」은 民間에 널리 普及할 目的으로 註解文을 삭제하고 「孝經」의 經文만을 大字로 써서 쉽게 볼 수 있도록 編次하여 全州府 등 地方官廳에서 印行한 版本을 底本으로 覆刻한 版本인 듯하다.

調査本 「孝經」의 表題와 卷首題·卷末題 및 版心題 등은 모두 ‘孝經’으로 기록되어 있다. 原文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仲尼閒居曾子侍坐/ 子曰參先王有至德/ 要道以順天下民用/ 和睦上下無怨女知/

9) 春秋館 篇, 「世宗實錄」 世宗 5(1423)年 6月 23(壬申)日條.

禮曹據司譯院牒呈啓 老乞大·朴通事·前後漢·直解·孝經等書 緣無板本 讀者傳寫誦習,請令鑄字所印出 從之.

10) 春秋館 篇, 「世宗實錄」 世宗 11(1429)年 3月 22(戊辰)日條.

判府事許稠啓 孝經·小學 皆初學所當先習之書也 而小學講於科舉之時 故儒者皆不得已而讀之 若孝經則世之初學 專不讀習 請出經筵句解孝經刊行 以教初學 上曰 然 命左代言許誠曰 可令鑄字所印出二百五十秩[帙]頒行 ….

11) 春秋館 篇, 「世宗實錄」 世宗 11(1429)年 5月 20(乙丑)日條.

頒賜孝經 于東班集賢殿應教以上西班牙僉摠制以上.

之乎曾子避席曰參/ 不敏何足以知之子/ 曰夫孝德之本教之/ 所由生復坐吾語女/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孝之始也/ 立身行道揚名於後/ 世以顯父母孝之終/ 也夫孝始於事親中/ 於事君終於立身愛/ 親者不敢惡於人敬/ 親者不敢慢於人愛/ 敬盡於事親而德教/ 加於百姓刑于四海/ 蓋天子之孝在上不/ 驕高而不危制節謹/ 度滿而不溢高而不/ 危所以長守貴滿而/ 不溢所以長守富富/ 貴不離其身然後能/ 保其社稷而和其民/ 人蓋諸侯之孝非先/ 王之法服不敢服非/ 先王之法言不敢言/ 非先王之德行不敢/ 行是故非法不言非/ 道不行口無擇言身/ 無擇行言滿天下無/ 口過行滿天下無怨/ 惡三者備矣然後能/ 守其宗廟蓋卿大夫/ 之孝也資於事父以/ 事母而愛同資於事/ 父以事君而敬同故/ 母取其愛而君取其/ 敬兼之者父也故以/ 孝事君則忠以敬事/ 長則順忠順不失以/ 事其上然後能保其/ 爵祿而守其祭祀蓋/ 士之孝也用天之道/ 因地之利謹身節用/ 以養父母此庶人之/ 孝也故自天子以下/ 至於庶人孝無終始/ 而患不及者未之有/ 也/ 右經一章

子曰君子之教以孝/ 也非家至而日見之/ 也教以孝所以敬天/ 下之爲人父者教以/ 悌所以敬天下之爲/ 人兄者教以臣所以/ 敬天下之爲人君者/ 詩云愷悌君子民之/ 父母非至德其孰能/ 順民如此其大者乎/ 右傳之首章

子曰教民親愛莫善/ 於孝教民禮順莫善/ 於悌移風易俗莫善/ 於樂安上治民莫善/ 於禮禮者敬而已矣/ 故敬其父則子悅敬/ 其兄則弟悅敬其君/ 則臣悅敬一人而千/ 萬人悅所敬者寡而/ 悅者衆此之謂要道/ 右傳之二章

曾子曰甚哉孝之大/ 也子曰夫孝天之經/ 地之義民之行天地/ 之經而民是則之則/ 天之明因地之義以/ 順天下是以其教不/ 肅而成其政不嚴而/ 治/ 右傳之三章

子曰昔者明王之以/ 孝治天下也不敢遺/ 小國之臣而況於公/ 侯伯子男乎故得萬/ 國之歡心以事其先/ 王治國者不敢侮於/ 鰥寡而況於士民乎/ 故得百姓之歡心以/ 事其先君治家者不/ 敢侮於臣妾而況於/ 妻子乎故得人之歡/ 心以事其親夫然故/ 生則親安之祭則鬼/ 享之是以天下和平/ 災害不生禍亂不作/ 故明王之以孝治天/ 下也如此詩云有覺/ 德行四國順之/ 右傳之四章

曾子曰敢問聖人之/ 德其無以加於孝乎/ 子曰天地之性人爲/ 貴人之行莫大於孝/ 孝莫大於嚴父嚴父/ 莫大於配天則周公/ 其人也昔者周公郊/ 祀后稷以配天宗祀/ 文王於明堂以配上/ 帝是以四海之內各/ 以其職來助祭夫聖/ 人之德又何以加於/ 孝乎故親生之膝下/ 以養父母日嚴聖人/ 因嚴以教敬因親以/ 教愛聖人之教不肅/ 而成其政不嚴而治/ 其所因者本也/ 右傳之五章

子曰父子之道天性/ 君臣之義父母生之/ 續莫大焉君親臨之/ 厚莫重焉故不愛其/ 親而愛他人者謂之/ 悖德不敬其親而敬/ 他人者謂之悖禮/ 右傳之六章

子曰孝子之事親居/ 則致其敬養則致其/ 樂病則致其憂喪則/ 致其哀祭則致其嚴/ 五者備矣然後能事/ 親事親者居上不驕/ 爲下不亂在醜不爭/ 居上而驕則亡爲下/ 而亂

則刑在醜而爭/ 則兵此三者不除雖/ 日用三牲之養猶爲/ 不孝也/ 右傳之七章

子曰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要/ 君者無上非聖人者/ 無法非孝者無親此/ 大亂之道也/ 右傳之八章

子曰君子之事上也/ 進思盡忠退思補過/ 將順其美匡救其惡/ 故上下能相親詩云/ 心乎愛矣遐不謂矣/ 中心藏之何日忘之/ 右傳之九章

子曰昔者明王事父/ 孝故事天明事母孝/ 故事地察長幼順故/ 上下治天地明察神/ 明彰矣故雖天子必/ 有尊也言有父也必/ 有先也言有兄也宗/ 廟致敬不忘親也脩/ 身謹行恐辱親也宗/ 廟致敬鬼神著矣孝/ 弟之至通於神明光/ 於四海無所不通詩/ 云自西自東自南自/ 北無思不服/ 右傳之十章

子曰君子之事親孝/ 故忠可移於君事兄/ 弟故順可移於長居/ 家理故治可移於官/ 是以行成於內而名/ 立於後世矣/ 右傳之十一章

子曰閨門之內具禮/ 已乎嚴父嚴兄妻子/ 臣妾猶百姓徒役也/ 右傳之十二章

曾子曰若夫慈愛恭/ 敬安親揚名則聞命/ 矣敢問從父之令可/ 謂孝乎子曰是何言/ 與是何言與言之不/ 通也昔者天子有爭/ 臣七人雖無道不失/ 其天下諸侯有爭臣/ 五人雖無道不失其/ 國大夫有爭臣三人/ 雖無道不失其家士/ 有爭友則身不離於/ 令名父有爭子則身/ 不陷於不義故當不/ 義則子不可以弗爭/ 於父臣不可以弗爭/ 於君故當不義則爭/ 之從父之令焉得爲/ 孝乎/ 右傳之十三章

子曰孝子之喪親也/ 哭不偯禮無容言不/ 文服美不安聞樂不/ 樂食旨不甘此哀戚/ 之情三日而食教民/ 無以死傷生毀不滅/ 性此聖人之政喪不/ 過三年示民有終爲/ 之棺槨衣衾而舉之/ 陳其簠簋而哀戚之/ 擗踊哭泣哀以送之/ 卜其宅兆而安措之/ 爲之宗廟以鬼享之/ 春秋祭祀以時思之/ 生事愛敬死事哀戚/ 生民之本盡矣死生/ 之義備矣孝子之/ 事/ 親終矣/ 右傳之十四章

調査本「孝經」의 변란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24.8cm 가로 16.3cm 內外이며, 界線이 있고 行字數는 4行 8字이다. 版口는 上下大黑口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와 上下內向3葉花紋魚尾가 혼용되어 있다. 冊의 크기는 세로 31.3cm 가로 20.7cm 내외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는 原表紙인 듯하고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이다. 字體는 朝鮮시대 前期에 유행한 趙孟頫(1254~1322)의 書體를 익힌 安平大君(1418~1453)의 書風을 彷彿하게 하는 端嚴한 楷書體이다.

調査本「孝經」은 民間에 널리 普及할 目的으로 註解文을 삭제하고 「孝經」의 經文만을 大字로 써서 쉽게 볼 수 있도록 編次하여 全州府 등 地方官廳에서 印行한 版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형식의 版本도 그다지 傳來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매우 희귀한 상태이다.

調査本「孝經」은 朝鮮時代에 統治思想의 根幹으로 삼아 民間의 兒童들로부터 君王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必讀書였다. 또한 傳統社會의 文化的·社會的 일체

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價値의 德目이기도 하였다. 「孝經」은 朝鮮時代に 다양한 版本이 여러 차례에 걸쳐 印行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어, 孝思想을 연구하는데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書誌學研究에도 중요한 資料的 價値를 지니고 있다. 또한 朝鮮時代 初期에 趙孟頫體에 기초한 安平大君의 書風이 유행함에 따라 趙孟頫體를 연습하기 위한 法帖의 역할도 하였던 점에서 書藝研究에도 귀중한 資料的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참작하건대 調査本 「孝經」은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調査本 「孝經」은 孔子와 그의 弟子 曾參(曾子)이 問答한 것 중에서 孝에 관한 내용을 1책으로 엮은 것을 朝鮮前期(壬辰倭亂 以前)에 全州府 등 地方官廳에서 木版으로 刊行한 것으로 推定되는 大字本의 版本이다. 「孝經」은 朝鮮時代 初期의 세종 5(1423)년에 庚子字로 印行되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보이고 있으나 現存本 중에는 庚子字系統의 版本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庚午字의 覆刻本 2종이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調査本 「孝經」은 民間에 널리 普及할 目的으로 註解文을 삭제하고 「孝經」의 經文만을 大字로 써서 쉽게 볼 수 있도록 編次하여 全州府 등 地方官廳에서 印行한 版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형식의 版本도 그다지 전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매우 희귀한 상태이다. 調査本 「孝經」은 朝鮮時代に 統治思想의 根幹으로 삼아 民間의 兒童들로부터 君王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必讀書였다. 또한 傳統社會의 文化的·社會的 일체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價値의 德目이기도 하였다. 「孝經」은 朝鮮時代に 다양한 版本이 여러 차례에 걸쳐 印行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어, 孝思想을 연구하는데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書誌學研究에도 중요한 資料的 價値를 지니고 있다. 또한 朝鮮時代 初期에 趙孟頫體에 기초한 安平大君의 書風이 유행함에 따라 趙孟頫體를 연습하기 위한 法帖의 역할도 하였던 점에서 書藝研究에도 귀중한 資料的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참작하건대 調査本 「孝經」은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문헌자료

孔子·曾子 共著, 「孝經」. 木版大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朝鮮前期(壬

辰倭亂 以前) 推定]. 加泉博物館 所藏本.

朴文烈·徐炳沛·宋日基 編, 「2008年度 京畿道 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 調査」 <指定對象 動産文化財 精密調査 報告書>. 서울 : 中央大學校産學協力團, 2008.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千惠鳳 著, 「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1997.

○ 기 타

調査本 「孝經」은 仁川廣域市 延壽區 玉蓮洞 567-22번지(박물관길 52)의 加泉博物館(李吉女)의 所有이며, 일찍이 購入을 통하여 收藏·管理해 오고 있다고 한다. 調査本 「孝經」의 保存狀態는 後表紙와 本文 第1張의 部分的 毀損을 제외하고는 比較的 良好하다. 그러나 裱貼匠을 통한 裱貼과 補修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부결 - 보물로 지정가치 부족함.

7. 시전대문(詩傳大文)

가. 검토사항

“시전대문”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8년도에 진행된 경기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문화재 중 선정이 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11.1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시전대문 (詩傳大文)
- 소유자 : 이길녀 (가천박물관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7-22 가천박물관
- 수 량 : 2권 1책
- 규 격 : 세로 22.5 × 가로 14.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조선전기
- 현 상 : 四周單邊, 半郭 19.0×12.0cm. 有界, 半葉 12行26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부족함)

조사대상본인 『시전대문(詩傳大文)』은 『시경(詩經)』의 본문만을 서사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조선전기(임진란 이전)의 판본으로 판단되는 소자본의 책이다. 소형의 송독용 도서로 후대에 편리를 도모한 것으로 보이며, 전본이 많지 않은 도서이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보존상태등 여러면에서 부족지만 서지학연구가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지방문화재 지정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詩傳大文』은 『詩傳』의 本文만을 小字의 2권 1책으로 版下本을 書寫하여 壬辰倭亂 以前에 木版으로 刊行한 것으로 推定되는 小字本이다.

서·발문과 간기가 없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고 1장의 전면은 補寫하였고 인쇄상태도 좋지 못하며, 보존상태가 전체적으로 불량하여 하단부는 훼손되어 일부 결손도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은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調査本 「詩傳大文」은 「詩傳」의 本文만을 小字의 2권 1책으로 版下本을 書寫하여 朝鮮時代 前期(壬辰倭亂 以前)에 木版으로 刊行한 것으로 推定되는 小字本の 版本이다.

우리나라에는 三國時代부터 「詩經」이 傳來·普及되었을 것이나, 현재 朝鮮時代 以前에 刊行된 實物은 남아있지 않다. 朝鮮時代 世宗朝에 宋朝 性理學者들의 學問的 業績이 반영된 版本을 明朝로부터 輸入한 「五經大全」이 우리나라에서 覆刻되어 널리 유통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明版의 覆刻本은 冊數와 分量이 많아 刊行과 普及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携帶하기도 곤란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註解部分을 생략하고 또한 小字로 작게 써서 1책으로 제작하는 방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調査本 「詩傳大文」은 바로 이러한 小字本에 해당되며, 壬辰倭亂 以前の 朝鮮時代 前期에 木版으로 印刷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調査本과 동일한 版本이 國內에는 國立中央圖書館에 1책이 所藏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실정이다.

調査本 「詩傳大文」은 漢文學의 研究와 書誌學의 研究에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資料이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참작하건대 調査本 「詩傳大文」은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 서지사항

조사대상본인 『시전대문(詩傳大文)』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詩傳大文 上·下 / 孔子(魯, BC551-BC479) 編 ; 朱熹(宋, 1130-1200) 註解. - 木版本. - [朝鮮前期(壬辰倭亂以前) 推定].

2卷1冊 : 四周單邊, 半郭 19.0×12.0cm, 有界, 12行26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2.5×14.0cm.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題: 詩傳大文

卷首題: 詩傳大文

卷末題: 詩傳大文

內容: -卷上; 周南一之一 - 正月十三章.

-卷下; 小旻什 - 長發七章.

『시전대문(詩傳大文)』은 2권 1책에 『시경(詩經)』의 본문만을 수록한 소자본(小字本) 책자로 조선전기에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책이다. 책의 보존상태는 그다지 불량한 상태이다. 권두 및 권말, 그리고 중간의 곳곳에 마멸과 오손(汚損)으로 판독이 곤란한 상태이다. 특히 제1장 전면(前面)은 보사(補寫)한 것이다.

○ 내용

『시경(詩經)』은 전래해오던 3천여 편의 시에서 공자가 300여 편을 산정(刪定)한 것이라 한다. 성정(性情)의 도야를 위해서는 누구나 배워야하는 과정이었고, 일상생활의 대화나 외국에 사신으로 나갔을 때는 전대(專對)에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교양이었다. 유가의 경전인 13경의 하나로 수천년 간에 걸쳐 매우 중시되었다.

조사대상본의 서명인 『시전대문(詩傳大文)』은 시경의 본문만을 모은 것이어서

시경대문 또는 시대문이라 칭여야 합당함에도 경에 대한 주석을 지칭하는 전(傳)자를 넣어 『시전대문(詩傳大文)』이라 한 것은 실제에 맞지 않는 칭호이다. 이점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雅言覺非 詩傳書傳條).

이 책은 시경 본문의 송독(誦讀)을 위하여 대문만을 모아 간행한 것으로 후대에 편리하게 하도록 만든 실용적 도서로 생각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조사대상본인 『시전대문(詩傳大文)』은 『시경(詩經)』의 본문만을 서사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조선전기(임진란 이전)의 판본으로 판단되는 소자본의 책이다. 소형의 송독용 도서로 후대에 편리를 도모한 것으로 보이며, 전본이 많지 않은 도서이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보존상태등 여러면에서 부족지만 서지학연구가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지방문화재 지정을 권고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第一集雜纂集第二十四卷○雅言覺非 卷二 詩傳，書傳：詩傳者。風雅頌之傳註也。毛氏傳朱子集傳。又各不同。書傳者。尚書之傳註也。孔氏傳蔡氏集傳。又各不同。今之蒙士。直指經文謂之詩傳書傳。甚則曰詩傳大文。書傳大文。亦誤矣。昔有人作俳語云詩書之稱詩傳書傳。猶水獺之稱水獺皮。用其皮。故全身冒其名。豺漆之稱五加皮。不名云五加。其言雖佻。可以砭俗。



○ 현 상：四周單邊，半郭 19.0×12.0cm. 有界，半葉 12行26字，註雙行，黑口，上下內向黑魚尾.

○ 내용 및 특징：

『詩傳大文』은 『詩經集傳』에서 주석을 생략하고 經文만을 小字로 새긴 상·하 2권 1책의 小字本이다. 권두제 ‘詩傳大文’에 이어 周南一之一 로 시작하고 있다 1장은 전면은 補寫하였다. 卷首題와 卷末題에 ‘大文’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大全’ 本文에 비해 간략히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말에 刊記가 없어 정확한 刊行年代를 推定하기 어려우나, 版式과 紙質 등의 특징으로 보아 대체로 壬亂 以前에 板刻되어 刊行된 것으로 推定된다.

이 책의 邊欄 上段의 天頭部分에는 어려운 글자에 대해 한글로 音訓이 표기되어 있고 본문에는 구결이 있고 本文은 小字로 板刻되고 印刷되어 있어 전체적으

로 매우 조밀한 느낌을 주고 있다. 版心題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版心部가 훼손되어 있어 알아볼 수 없으며, 보존상태도 전체적으로 불량하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詩傳大文』은 『詩傳』의 本文만을 小字의 2권 1책으로 版下本을 書寫하여 壬辰倭亂 以前에 木版으로 刊行한 것으로 推定되는 小字本이다.

서·발문과 간기가 없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고 1장의 전면은 補寫하였고 인쇄상태도 좋지 못하며, 보존상태가 전체적으로 불량하여 하단부는 훼손되어 일부 결손도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은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書傳大文」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詩傳大文 上·下 / 孔子(魯, BC551~BC479) 編 ; 朱熹(宋, 1130~1200) 註解.
-- 木版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朝鮮前期(壬辰倭亂以前) 推定].
2卷1冊 : 四周單邊, 半郭 19.0×12.0cm, 有界, 12行26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2.5×14.0cm.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題: 詩傳大文

卷首題: 詩傳大文

卷末題: 詩傳大文

版心題: 不明

磨滅: 前後表紙 및 卷頭·卷末 數張 卷1末 數張.

補寫: 第1張 前葉

內容: -卷上; 周南一之一 - 正月十三章. -卷下; 小旻什 - 長發七章.

□ 現狀

調査本 「詩傳大文」은 「詩傳」의 本文만을 小字의 2권 1책으로 版下本을 書寫하여 朝鮮時代 前期(壬辰倭亂 以前)에 木版으로 刊行한 것으로 推定되는 小字本の 版本이다.

調査本 「詩傳大文」은 仁川廣域市 延壽區 玉蓮洞 567-22번지의 加泉博物館(李吉女)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調査本 「詩傳大文」의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19.0cm 가로 12.0cm 內外이며 冊의 크기는 세로 22.5cm 가로 14.0

cm 内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이다.

調査本 「詩傳大文」의 保存狀態는 그다지 良好하지 못한 편이다. 前後表紙의 一部와 卷頭 및 卷末의 數張에 磨滅이 있으며, 특히 版心部分은 磨滅이 심하여 版心題를 읽을 수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裱貼匠을 통한 裱貼과 補修가 絶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전문적인 施設을 갖춘 加泉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詩經」은 중국 古代에 民間에 유포된 3천여 篇의 詩 가운데 孔子가 311篇을 選別하여 撰修한 것으로 儒學 「五經」 중의 하나이다. 「詩經」은 지금부터 약 3천년 내지 2500년 전에 편찬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詩歌集이다. 「詩經」에 수록된 305편의 詩는 실로 周代에 있어서 北方文學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中國文學의 源泉이다. 「詩經」은 그 당시 年老無子하고 의지할 곳 없는 男女 民間人들에게 采詩官이라는 직책을 주어 衣食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天下를 周遊하면서 각 地方의 民瘼를 蒐集하게 하여 採集된 一種의 詩集인데, 太師가 이를 天子에게 바치자 天子는 이를 통해서 각 地方의 風俗과 百姓들의 苦樂과 怨聲 등을 파악하는 政治的 參考資料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政治뿐만 아니라, 「詩經」의 내용에는 社會·經濟·外交·文化·軍事 등 多方面에 걸쳐 언급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하여 孔子는 「論語」에서 「詩經」의 300편의 詩에 대하여 한마디로 “생각함에 간사함이 없다(詩三百思無邪)”고 평하면서 “詩를 배우지 않은 사람과는 더불어 말하지 말라(不學詩 無以言)”고 경고하였을 정도로 詩學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고대의 詩는 秦始皇의 焚書를 거친 漢朝 文帝 이후로 三家의 詩로 分派되었다. 하나는 燕의 韓嬰이 傳한 「韓詩」이고 하나는 魯의 申培가 傳한 「魯詩」이며 나머지 하나는 齊의 轅固生이 전한 「齊詩」이다. 그 후 後漢朝에 들어 魯의 毛亨과 趙의 毛萇에 의하여 「毛詩」가 傳해졌는데 지금의 「詩經」은 이 「毛詩」를 말하는 것이다. 그 후 이것에 後漢朝 鄭玄(127~200)이 箋을 붙이고 唐朝 孔穎達(574~648)이 正義를 지었다. 宋朝에 이르러서는 「詩經」은 宋朝의 理學을 집대성한 朱熹(1130~1200)에 의하여 새롭게 주목을 받았고 이후 그의 註解本이 正文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現傳하는 「詩經」은 크게 <風>·<雅>·<頌>으로 편찬되어 있다. <風>은 주로 地方의 民瘼이고 <雅>는 宮廷의 雅樂이며, <頌>은 祭祠의 노래이다. 「詩經」에 수록된 編修는 원래 <風>에 ‘國風’ 160편, <雅>에 ‘小雅’ 80편과 ‘大雅’ 31편 그리고 <頌>에 40편으로 분류되어 도합 311편의 詩로 編成되었으나, 오늘날 6편은 失傳되고 305篇만 전래되고 있다.

<國風>은 中國의 주남(周南)·소남(召南)·패(邶)·용(鄘)·위(衛)·왕(王)·정(鄭)·제(齊)·위(魏)·당(唐)·진(秦)·진(陳)·회(檜)·조(曹)·빈(邠) 등 15개국으로부터 채집한 民間의 民窯라 「詩經」 305편 중 가장 生動的이고 素朴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男女間의 사랑을 묘사한 것을 위시하여 農村生活을 노래한 것, 戰爭과 戰時를 증오하고 저주한 것, 武를 숭상한 것, 불평을 토로한 것, 신세를 타령한 것, 理想世界를 연모한 것, 그리고 人生無常을 노래한 것 등 인간 삶 어느 분야도 취급되지 않은 것이 없다.

<雅>는 ‘大雅’와 ‘小雅’로 구분된다. <國風>은 閭巷風土와 男女間의 愛情을 그린 것이 많은데 비하여, <雅>는 公卿大夫들의 祭祠와 飲燕에 관한 詩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 <雅>는 허탈하여 眞率한 맛이 없어 <國風>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내용은 祭祠나 飲燕을 묘사하고 서술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의 傳記를 서술한 것, 爲政者를 풍자한 것, 母子나 男女의 愛情을 그린 것 등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史實을 서술한 것은 아주 次序가 정연하여 일반 史詩라는 평을 받고 있다.

<頌>은 ‘周頌’·‘商頌’·‘魯頌’으로 구분되어 있다. 頌은 頌讚의 뜻이며 宗廟之樂이라 하였다. 그래서 三頌의 내용은 모두가 舞歌나 樂器 혹은 祭歌들로 天地神明의 功德을 讚頌하는 것을 비롯하여 神에게 祝福을 비는 것, 祭時에의 情景를 묘사한 것, 祭物을 敍述한 것 등이 많고 그밖에도 農家生活을 묘사한 것, 史實을 기술한 것 등도 收錄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三國時代부터 「詩經」이 傳來·普及되었을 것이나, 현재 朝鮮時代以前에 刊行된 實物은 남아있지 않다. 朝鮮時代 世宗朝에 宋朝 性理學者들의 學問的 業績이 반영된 版本을 明朝로부터 輸入한 「五經大全」이 우리나라에서 覆刻되어 널리 流通되었던 현상을 보였을 뿐이다. 또한 明版의 覆刻本은 冊數와 分量이 많아 刊行과 普及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携帶하기도 곤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註解部分을 생략하고 또한 小字로 작게 써서 1책으로 제작하는 방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 特徵

調査本 「詩傳大文」은 上下 2卷 1冊의 木版本 完帙이나, 全體的으로 약간 毀損된 상태이다. 黃褐色 表紙에는 表題가 墨書되어 있으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退色되어 있다.

調査本 「詩傳大文」의 表題와 卷首題 및 卷末題는 ‘詩傳大文’이며, 版心題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版心部가 훼손되어 있어 不明하다. 卷首題와 卷末題에 ‘大文’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大全’本에 비해 간략히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調査本「詩傳大文」의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19.0cm 가로 12.0cm 内外이며, 界線이 있고 行字數는 12行 26字이다. 版口는 上下大黑口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冊의 크기는 세로 22.5cm 가로 14.0cm 内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는 原表紙인 듯하고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이다.

調査本「詩傳大文」에는 刊記가 없어 정확한 刊行年代를 推定하기 어려우나, 版式과 紙質 등의 특징으로 보아 대체로 壬辰倭亂 以前の 朝鮮時代 前期에 板刻되어 印行된 것으로 推定된다.

調査本「詩傳大文」의 邊欄 上段의 天頭部分에는 어려운 글자에 대해 한글로 音訓이 표기되어 있다. 本文은 小字로 板刻되고 印刷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매우 조밀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小字本의 특성상 分量이 많지 않아 携帶하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便利하게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調査本「詩傳大文」은 携帶하기 편한 小字本에 해당되며, 壬辰倭亂 以前の 朝鮮時代 前期에 木版으로 印刷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調査本과 동일한 版本이 國內에는 國立中央圖書館에 1책이 所藏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실정이다.

調査本「詩傳大文」은 漢文學의 研究와 書誌學의 研究에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資料이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참작하건대 調査本「詩傳大文」은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調査本「詩傳大文」은 「詩傳」의 本文만을 小字의 2권 1책으로 版下本을 書寫하여 朝鮮時代 前期(壬辰倭亂 以前)에 木版으로 刊行한 것으로 推定되는 小字本의 版本이다.

우리나라에는 三國時代부터 「詩經」이 傳來·普及되었을 것이나, 현재 朝鮮時代 以前에 刊行된 實物은 남아있지 않다. 朝鮮時代 世宗朝에 宋朝 性理學者들의 學問的 業績이 반영된 版本을 明朝로부터 輸入한 「五經大全」이 우리나라에서 覆刻되어 널리 유통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明版의 覆刻本은 冊數와 分量이 많아 刊行과 普及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携帶하기도 곤란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註解部分을 생략하고 또한 小字로 작게 써서 1책으로 제작하는 방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調査本「詩傳大文」은 바로 이러한 小字本에 해당되며, 壬辰倭亂 以前の 朝鮮時代 前期에 木版으로 印刷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調査本과 동일한 版本이 國內에는 國立中央圖書館에 1책이 所藏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실정이다.

調査本「詩傳大文」은 漢文學의 研究와 書誌學의 研究에 活用될 수 있을 귀중한 資料이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參작하건대 調査本「詩傳大文」은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문헌자료

孔子 編, 朱熹 註解, 「詩傳大文」. 木版小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朝鮮前期(壬辰倭亂以前) 推定]. 加泉博物館 所藏本.

朴文烈·徐炳沛·宋日基 編, 「2008年度 京畿道 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 調査」 <指定對象 動産文化財 精密調査 報告書>. 서울 : 中央大學校産學協力團, 2008.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千惠鳳 著, 「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1997.

○ 기 타

調査本「詩傳大文」은 仁川廣域市 延壽區 玉蓮洞 567-22번지(박물관길 52)의 加泉博物館(李吉女)의 所有이며, 일찍이 購入을 통하여 收藏·管理해 오고 있다고 한다. 調査本「詩傳大文」의 保存狀態는 그다지 양호지 못한 편이다. 前後表紙와 卷首·卷末의 數張 및 版心部에 毀損이 있으므로 裱貼匠을 통한 裱貼과 補修가 필요할 듯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부결 - 보물로 지정가치 부족함.

8. 증주당현절구삼체시법 권1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 卷一)

가. 검토사항

“증주당현절구삼체시법 권1”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8년도에 진행된 경기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문화재 중 선정이 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11.1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증주당현절구삼체시법 권1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 卷一)
- 소유자 : 이길녀 (가천박물관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7-22 가천박물관
- 수 량 : 1권 1책
- 규 격 : 세로 24.8 × 가로 17.5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조선전기
- 현 상 : 插圖, 上下單邊·左右雙邊, 半郭 18.8×15.2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1葉花紋混魚尾.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부족함)

조사대상본인 증주당현절구삼체시법(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은 조선 전기(임진왜란 이전)에 목판으로 간행한 당시(唐詩)의 선집(選集)이다. 전체 3권 중의 권1만 남은 잔본(殘本)이다. 표지와 권수 및 권말의 일부에 낙장이 있다. 중국 시문선집의 번각본이지만 전본이 극히 희소하여 고려대와 충남대에 일부가 전한다.

조사대상본은 보존 상태가 불량한 상태지만, 이 책의 학술적 가치와 함께 희귀한 전본이라는 점, 그리고 여말선초의 한문학의 연구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평가된다.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은 宋나라의 周弼이 七言絕句와 七言律詩 및 五言律詩 등의 三體詩만을 選集하여 釋圓至가 註를 달고 裴庾가 增註한 근체시 專門詩選集으로 朝鮮時代 漢詩를 學習하려는 사람들이 參考한 一種의 詩學教材이다. 朝鮮前期에 木版으로 간행한 후쇄본으로 推定되는 版本으로 전체 3권 중의 卷1만 남아있고 前後의 表紙와 卷末의 2장 정도가 缺落되고 磨滅이 있어 인쇄가 깨끗하지 못하고 앞·뒤부분이 훼손되어 保存狀態가 不良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調査本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은 宋朝의 周弼이 七言絕句와 七言律詩 및 五言律詩 등의 三體詩만을 選集하여 釋圓至가 註를 달고 裴庾가 增註한 근체시 專門詩選集을 우리나라에서 朝鮮前期(壬辰倭亂 以前)에 木版으로 간행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원래 전3권 중의 卷1만 殘存하는 것으로 表紙와 卷末의 2張 정도는 缺落되었다

調査本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은 朝鮮時代 漢詩를 學習하려는 사람들이 參考한 一種의 詩學教材이다. 朝鮮時代 初期에 元朝에서 輸入된 版本을 底本으로 覆刻한 版本으로 현재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과 忠南大學校 中央圖書館에만 所藏되고 있을 정도로 매우 稀貴한 상태이다. 또한 保存狀態가 不良하여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나 學術的 가치가 높고 刊行時期가 비교적 오래되고 또한 稀貴한 상태이다.

調査本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은 漢文學의 研究와 書誌學의 研究에 活用될

수 있을 귀중한 資料이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참작하건대 調査本 「增註唐賢 絕句三體詩法」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 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 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현 상

□ 서지사항

조사대상본 『증주당현절구삼체시법(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 卷1 / 周弼(宋, 1194-1257) 選 ; 釋圓至(元, (1256-1298)) 註 ; 裴庾(元) 增註. - 木版本. - [朝鮮前期(壬辰倭亂以前) 推定].

1卷1冊(65張) : 插圖, 上下單邊·左右雙邊, 半郭 18.8×15.2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上下內向1葉花紋混魚尾 混用 ; 24.8×17.5 cm. 楮紙. 線裝(五針眼訂).

序題: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

目錄題: 唐三體詩註綱目

卷首題: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

序: 大德九(1305)年乙巳九月初六日紫陽山虛叟方回序

唐三體詩註綱目

圖說: 唐分十道之圖·唐高祖開基圖·唐太宗混一圖·唐地理圖·唐藩鎮圖

求名公校正咨目… 至大二年九月日裴庾咨目

諸家集註唐詩三體家法諸例(10條)

唐世系紀年

三體集一百六十七人;

著者事項: 汶陽周弼伯弼選 / 高安釋圓至天隱註 / 東嘉裴庾季昌增註

內容:

- 卷1; 絶句體(實接·虛接·用事·前對·後對·拗體·側體).
- 卷2; 七言體(四實·四虛·前虛後實·前實後虛·結句·詠物).
- 卷3; 五言體(四實·四虛·前虛後實·前實後虛·一意·起句·結句·詠物)

□ 現狀

조사대상본인 『증주당현절구삼체시법(增註唐賢絶句三體詩法)』은 송(宋)의 주필(周弼)이 칠언절구와 칠언율시 및 오언율시 등의 삼체시(三體詩)만을 선집하고, 석(釋) 원지(圓至)가 주를 달고 배유(裴庾)가 증주(增註)한 근체시만을 대상으로 한 시선집이다. 한국에서 조선전기(임진왜란 이전)에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다.

보존상태는 매우 불량하다. 표지와 권말에 2장 정도의 낙장이 있다.

○ 내용

이 책은 당시(唐詩) 학습자를 위한 도서로 편찬된 책이다. 권수에는 원(元) 대 덕(大德) 9년(1305) 쓴 방회(方回)의 서문이 있고, 이어서 총목인 당삼체시주강목(唐三體詩註綱目)에 이어서 당시가 지어진 시기의 당나라의 지도와 이에 개한 해설인 당분10도지도(唐分十道之圖)·당고조개기도(唐高祖開基圖)·당태종혼일도(唐太宗混一圖)·당지리도(唐地理圖)·당번진도(唐藩鎮圖)의 5매의 지리도설(地理圖說)을 실었다. 이어서 배유(裴庾)가 쓴 구명공교정자목(求名公校正咨目)과 제가집주당시삼체가법제례(諸家集註唐詩三體家法諸例) 10조, 그리고 당세계기년(唐世系紀年)을 실었다.

이어서 삼체집(三體集) 167인이라는 제하에 본 선집에 수록된 당시(唐詩) 작가 167명에 대한 약전(略傳)을 실고, 이어서 3권으로 나누어 이들의 시를 수록하였다. 권수제에 이어 汶陽 周弼 伯弼 選 / 高安 釋圓至 天隱 註 / 東嘉 裴庾 季昌 增註의 著者事項을 3항에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조사대상본인 『증주당현절구삼체시법(增註唐賢絶句三體詩法)』은 조선 전기(임진왜란 이전)에 목판으로 간행한 당시(唐詩)의 선집(選集)이다. 전체 3권 중의 권1만 남은 잔본(殘本)이다. 표지와 권수 및 권말의 일부에 낙장이 있다. 중국 시문선집의 번각본이지만 전본이 극히 희소하여 고려대와 충남대에 일부가 전한다.

조사대상본은 보존 상태가 불량한 상태지만, 이 책의 학술적 가치와 함께 희귀한 전본이라는 점, 그리고 여말선초의 한문학의 연구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평가된다.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사료된다.



○ 현 상 : 插圖, 上下單邊·左右雙邊, 半郭 18.8×15.2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1葉花紋混魚尾.

○ 내용 및 특징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은 宋나라의 周弼(1194~1257)이 七言絕句와 七言律詩 및 五言律詩 등의 三體詩만을 選集하여 釋圓至(1256~1298)가 註를 달고 元나라 裴庾가 增註한 근체시 專門詩選集이며 3권으로 構成되었다. 수록된 내용은 卷1 絕句體(實接·虛接·用事·前對·後對·拗體·側體), 卷2 七言體(四實·四虛·前虛後實·前實後虛·結句·詠物), 卷3 五言體(四實·四虛·前虛後實·前實後虛·一意·起句·結句·詠物)이다.

이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은 朝鮮前期에 木版으로 간행한 후쇄본으로 推定되는 版本으로 전체 3권 중에 卷1만 남아있는 零本1책이다. 卷首에는 大德 9(1305)년 9월에 쓴 方回의 序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唐三體詩註綱目’의 목록과 唐分十道之圖·唐高祖開基圖·唐太宗混一圖·唐地理圖·唐藩鎮圖 등 5매의 插圖가 수록되어 있다. 插圖에 이어 至大 2(1309)년 9월에 裴庾가 쓴 ‘求名公校正咨目’과 ‘諸家集註唐詩三體家法諸例’ 10條가 수록되어 있고 ‘唐世系紀年’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三體集一百六十七人’이라 하여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에 수록된 167인의 詩人名單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卷頭書名에 이어서 ‘汶陽周弼伯弼選’ ‘高安釋圓至天隱註’ ‘東嘉裴庾季昌增註’의 著者事項이 기록되어 있으며, 卷頭書名の 上下에는 本書를 소장하였던 藏書印 3顆가 날인되어 있다.

表紙와 卷頭 그리고 卷末 2張정도가 缺落되었다. 本書는 版式의 特徵과 紙質의 狀態로 보아 朝鮮時代 初期(壬辰倭亂 以前)에 板刻한 木版의 後刷本으로 壬辰倭亂 以前에 印行된 것으로 推定된다. 마멸이 되어 인쇄상태가 깨끗하지 못하고 보존상태도 좋지 못하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은 宋나라의 周弼이 七言絕句와 七言律詩 및 五言律詩 등의 三體詩만을 選集하여 釋圓至가 註를 달고 裴庾가 增註한 근체시 專門詩選集으로 朝鮮時代 漢詩를 學習하려는 사람들이 參考한 一種의 詩學教材이다. 朝鮮前期에 木版으로 간행한 후쇄본으로 推定되는 版本으로 전체 3권 중의 卷1만 남아있고 前後의 表紙와 卷末의 2장 정도가 缺落되고 磨滅이 있어 인쇄가 깨끗하

지 못하고 앞·뒤부분이 훼손되어 保存狀態가 不良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增註唐賢絶句三體詩法」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增註唐賢絶句三體詩法 卷1 / 周弼(宋, 1194~1257) 選 ; 釋圓至(元, (1256~1298)) 註 ; 裴庾(元) 增註. -- 木版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朝鮮前期(壬辰倭亂以前) 推定].

1卷1冊(65張) : 插圖, 上下單邊·左右雙邊, 半郭 18.8×15.2cm, 有界, 10行22字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上下內向1葉花紋混魚尾 混用 ; 24.8×17.5cm.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題: 缺落

序題: [增註唐賢絶句三體詩法]

目錄題: 唐三體詩註綱目

卷首題: 增註唐賢絶句三體詩法

卷末題: 缺落

版心題: 不明

[序: 歲至大二(1309)年重陽日裴庾季昌序]

序: 大德九(1305)年乙巳九月初六日紫陽山虛叟方回序

目次: 唐三體詩註綱目

插圖: 唐分十道之圖·唐高祖開基圖·唐太宗混一圖·唐地理圖·唐藩鎮圖

卷頭: 求名公校正咨目… 至大二年九月日裴庾咨目

卷頭: 諸家集註唐詩三體家法諸例(10條)

卷頭: 唐世系紀年

卷頭: 三體集一百六十七人; 杜常, 王建, 薛能, 錢起, 張籍, 杜牧, 王昌齡, 王維, 張繼, 戴叔倫, 韓翃, 劉商, 李涉, 竇常, 徐凝, 雍陶, 許渾, 溫庭筠, 李群玉, 唐彥謙, 陸龜蒙, 吳融, 韓偓, 嚴維, 竇庠, 鮑溶, 鄭谷, 杜荀鶴, 劉長卿, 秦系, 李洞, 陳羽, 干鵠, 孟遲, 崔魯, 岑參, 司空曙, 張喬, 張挺, 僧法振, 顧況, 柳宗元, 李郢, 王駕, 張演, 司空圖, 皇甫冉, 劉禹錫, 盧仝, 元稹, 姚合, 趙嘏, 羅隱, 朱褒, 賈島, 方澤, 曹松, 僧靈徹, 雍裕之, 劉言史, 竇群, 劉得仁, 儲嗣宗, 熊孺登, 韋應物, 李益, 竇鞏, 李商隱, 竇牟, 張碣, 張祜, 盧綸, 高蟾, 李頎, 長孫佐輔, 高

駢, 殷堯藩, 劉滄, 張泌, 方干, 高適, 崔曙, 李遠, 來鵬, 李嘉祐, 李瀕, 皮日休, 崔顥, 耿滄, 李德裕, 李端, 白居易, 項斯, 羊士諤, 崔塗, 張南史, 李紳, 李山甫, 褚載, 韋莊, 王貞白, 羅鄴, 杜審言, 沈佺期, 皇甫曾, 王灣, 張均, 殷遙, 崔峒, 楊發, 李質, 張八元, 張又新, 鄭巢, 孫魴, 李咸用, 李中, 僧處默, 僧靈一, 李昌符, 僧貫休, 張謂, 張蠙, 許棠, 孟浩然, 郭良, 朱慶餘, 宋之問, 張鴻, 干武陵, 常建, 章孝標, 孫逖, 郎士元, 裴說, 黃滔, 周賀, 馬戴, 石召, 王勃, 包佶, 孟貫, 僧虛中, 儲光義, 綦毋潛, 韓愈, 徐夔, 鄭常, 喻梟, 任蕃, 景池, 姚揆, 劉方平, 王貞白, 于良史, 劉洵伯, 眉繇, 王周, 僧皎然, 暢當, 僧棲蟾, 李敬方, 孫欣, 張鼎, 戎昱, 姚倫, 溫憲

著者事項: 汶陽周弼伯弔選/ 高安釋圓至天隱註/ 東嘉裴庾季昌增註

內容: -卷1; 絕句體(實接·虛接·用事·前對·後對·拗體·側體). -卷2; 七言體(四實·四虛·前虛後實·前實後虛·結句·詠物). -卷3; 五言體(四實·四虛·前虛後實·前實後虛·一意·起句·結句·詠物)

印文: 3顆

缺落: 表紙, 卷頭 數張, 卷末 2張[(<山家(長孫佐輔)>·<夏晝偶作(柳宗元)>·<涉虛詞(高駢)>·<君山(高駢)>·<繡嶺宮(李洞)>部分]

磨滅: 版心部

□ 現狀 : 調査本「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은 宋朝의 周弼이 七言絶句와 七言律詩 및 五言律詩 등의 三體詩만을 選集하여 釋圓至가 註를 달고 裴庾가 增註한 근처시 專門詩選集을 우리나라에서 朝鮮前期(壬辰倭亂 以前)에 木版으로 간행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調査本「增註唐賢絶句三體詩法」은 仁川廣域市 延壽區 玉蓮洞 567-22번지의 加泉博物館(李吉女)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調査本「增註唐賢絶句三體詩法」은 전체 3권 중 卷1만 殘存하는 것으로 卷頭에는 插圖가 수록되어 있다. 邊欄은 上下 單邊과 左右雙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18.8cm 가로 15.2cm 内外이며 冊의 크기는 세로 24.8cm 가로 17.5cm 内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이다.

調査本「增註唐賢絶句三體詩法」의 保存狀態는 不良한 편이다. 表紙와 卷末의 2張 정도는 缺落되었다. 전문적인 施設을 갖춘 加泉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의 編者인 周弼은 南宋 後期 理宗朝의 詩人으로 어린시절부터 詩文에 대한 關心과 造詣가 깊었으며, 그러한 詩的 力量을 자신의 著書에 담아 宋朝 末期의 文人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作詩의 模範으로 여겨졌던 唐詩를 편리하게 鑑賞하고 漢詩의 表現技法과 形式美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本書를 편찬하였다. 또한 그가 속했던 江湖派 말기의 浮薄해진 氣風을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함도 本書編述의 동기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는 漢詩의 表現核心이라 할 수 있는 平仄·對仗·章法·句法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중 章法과 句法 등 詩의 構成法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다. 本書가 詩選集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전의 획일적인 編纂基準을 탈피하여 詩格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는 데에 있다. 또한 그 속의 作品은 初唐(618~712)이나 盛唐(713~778)의 것보다는 中唐(779~835) 이후 특히 晚唐(836~907)의 詩들을 중점적으로 수록한 나머지 李白(701~762)이나 杜甫(712~770)와 같은 著名詩人의 詩까지도 과감하게 제외시키고 있어, 明朝 李攀龍이 편찬한 「唐詩選」의 體制와 상반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周弼이 詩를 選別한 태도는 중국 「唐詩選集」에서 주목받지 못한 詩人을 다수 수용하는 한편, 身分이나 思想 등에 있어서는 거의 차별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어 選者로서의 觀點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淸人 葉德輝는 「郇園讀書志」에서 “대개 本書는 元·明 兩朝를 거치면서 三家村의 生徒들을 教授하던 課本으로 자못 風行하였다”고 하였으며, 「中國古籍善本書目」에도 著錄되어 있다. 지금까지 流傳하는 版本으로는 明朝 嘉靖年間の 吳春刻本, 明朝의 火錢刻本, 明朝의 經廣本, 明朝의 書坊本, 淸朝 康熙年間の 刻本 등이 있다. 元朝 刊本에는 卷頭に 裴庾의 序와 方回의 序 및 <綱目>·<唐十道圖>·<凡例>·<諸家世系紀年> 등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으며, 卷頭題는 ‘增注唐賢絕句三體詩法’이고 2行에는 ‘汶陽周弼伯弼選’, 3行에는 ‘高安釋圓至天隱注’, 4행에는 “東嘉裴庾季昌增注”라 기록되어 있다.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가 우리나라에 輸入된 時期는 여러 情狀들을 종합할 때, 世宗朝 이전의 朝鮮時代 初期 무렵이며, 그 印行은 처음 開版된 시점으로부터 朝鮮時代 中期 무렵까지 부단히 계속되었다. 또한 지역별로 볼 때 慶尙道·全羅道·忠淸道 등을 중심으로 널리 流通되었으며, 日本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輸入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서는 朝鮮時代 前期에 作詩法을 학습하는 教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듯하며, 安平大君의 주도하에 비슷한 종류의 詩文選集의 後續 刊行을 촉발시키기도 하였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또한 朝鮮時代 中期의 詩壇에 나타난 唐詩風의 대두에도 일조를 하였는데, 當時의 詩人들이 唐詩를 학습한 분위기 裏面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각종 詩選集에 대한 先行學習이 있었던 것이다. 「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는 이러한 唐詩 學習經驗의 求心點을 이룬 詩選集이라 할 수 있다.

□ 特徵

調査本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은 唐詩學習의 指南書 중의 하나로 전체 3권 중 권1의 1책만이 잔존하는 木版本이다. 비록 前後의 表紙와 卷末의 2장 정도가 缺落되고 版心部의 磨滅이 있기는 하나 현재 매우 稀貴한 상태이다.

調査本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의 表題와 卷末題는 缺落으로 불명하고 序題와 卷首題는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이며, 目錄題는 ‘唐三體詩註綱目’이고 版心題는 마멸로 불명하다.

調査本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의 卷頭에는 5매의 插圖가 수록되어 있으며 邊欄은 上下單邊과 左右雙邊이다. 半郭의 크기는 세로 18.8cm 가로 15.2cm 內外이며, 界線이 있고 行字數는 10行 22字이다. 版口는 上下大黑口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와 上下內向1葉花紋魚尾가 混用되어 있다. 冊의 크기는 세로 24.8cm 가로 17.5cm 내외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는 모두 결락되었고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裝訂하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調査本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의 卷首에는 원래 元朝 至大 2(1309)년에 裴庾가 쓴 序文이 있었을 것이나 缺落되었고 원조 大德 9(1305)년 9월에 쓴 方回의 序文은 수록되어 있다. 序文에 이어 ‘唐三體詩註綱目’의 목록과 <唐分十道之圖>·<唐高祖開基圖>·<唐太宗混一圖>·<唐地理圖>·<唐藩鎮圖> 등 5매의 插圖가 수록되어 있다. 插圖에 이어 至大 2(1309)년 9월에 裴庾가 쓴 <求名公校正咨目>과 <諸家集註唐詩三體家法諸例> 10條가 수록되어 있고 <唐世系紀年>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三體集一百六十七人>이라 하여 杜常, 王建, 薛能, 錢起, 張籍, 杜牧, 王昌齡, 王維, 張繼, 戴叔倫, 韓翃, 劉商, 李涉, 竇常, 徐凝, 雍陶, 許渾, 溫庭筠, 李群玉, 唐彥謙, 陸龜蒙, 吳融, 韓偓, 嚴維, 竇庠, 鮑溶, 鄭谷, 杜荀鶴, 劉長卿, 秦系, 李洞, 陳羽, 干鵠, 孟遲, 崔魯, 岑參, 司空曙, 張喬, 張挺, 僧法振, 顧況, 柳宗元, 李郢, 王駕, 張演, 司空圖, 皇甫冉, 劉禹錫, 盧仝, 元稹, 姚合, 趙嘏, 羅隱, 朱褒, 賈嶋, 方澤, 曹松, 僧靈徹, 雍裕之, 劉言史, 竇群, 劉得仁, 儲嗣宗, 熊孺登, 韋應物, 李益, 竇鞏, 李商隱, 竇牟, 張碣, 張祜, 盧綸, 高蟾, 李頎, 長孫佐輔, 高駢, 殷堯藩, 劉滄, 張泌, 方干, 高適, 崔曙, 李遠, 來鵬, 李嘉祐, 李瀕, 皮日休, 崔顥, 耿漳, 李德裕, 李端, 白居易, 項斯, 羊士諤, 崔塗, 張南史, 李紳, 李山甫, 褚載, 韋莊, 王貞白, 羅鄴, 杜審言, 沈佺期, 皇甫曾, 王灣, 張均, 殷遙, 崔峒, 楊發, 李質, 張八元, 張又新, 鄭巢, 孫魴, 李咸用, 李中, 僧處默, 僧靈一, 李昌符, 僧貫休, 張謂, 張蠙, 許棠, 孟浩然, 郭良, 朱慶餘, 宋之問, 張鴻, 干武陵, 常建, 章孝標, 孫逖, 郎士元, 裴說, 黃滔, 周賀, 馬戴,

石召, 王勃, 包佶, 孟貫, 僧虛中, 儲光義, 綦毋潛, 韓愈, 徐谿, 鄭常, 喻鳧, 任蕃, 景池, 姚揆, 劉方平, 王貞白, 于良史, 劉洵伯, 眉繇, 王周, 僧皎然, 暢當, 僧棲蟾, 李敬方, 孫欣, 張鼎, 戎昱, 姚倫, 溫憲 등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에 수록된 167인의 詩人名單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卷頭書名에 이어서 著者事項: ‘汶陽周弼伯弼選/高安釋圓至天隱註/東嘉裴庾季昌增註’의 著者事項이 기록되어 있으며, 卷頭書名の 上下에는 本書를 소장하였던 所藏者의 藏書印 3顆가 날인되어 있다.

卷末에는 長孫佐輔의 <山家>, 柳宗元의 <夏晝偶作>, 高駢의 <涉虛詞>·<君山>, 李洞의 <繡嶺宮>에 해당하는 作品들이 수록되었을 2장 정도가 缺落되었다. 本書는 版式의 特徵과 紙質의 狀態로 보아 朝鮮時代 初期(壬辰倭亂 以前)에 板刻한 木版의 後刷本으로 대체로 壬辰倭亂 以前에 印行된 것으로 推定된다. 이러한 特徵으로 보아 本書는 元朝에서 刊行되어 國內에 輸入된 版本을 底本으로 우리나라에서 朝鮮時代 初期에 覆刻한 版本으로 推定된다.

調査本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은 朝鮮時代 漢詩를 學習하려는 사람들이 參考한 一種의 詩學教材이다. 朝鮮時代 初期에 元朝에서 輸入된 版本을 底本으로 覆刻한 版本으로 현재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과 忠南大學校 中央圖書館에만 所藏되고 있을 정도로 매우 稀貴한 상태이다. 또한 保存狀態가 不良하여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나 學術的 가치가 높고 刊行時期가 비교적 오래되고 또한 稀貴한 상태이다.

調査本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은 漢文學의 研究와 書誌學의 研究에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資料이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참작하건대 調査本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調査本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은 宋朝의 周弼이 七言絕句와 七言律詩 및 五言律詩 등의 三體詩만을 選集하여 釋圓至가 註를 달고 裴庾가 增註한 근체시 專門詩選集을 우리나라에서 朝鮮前期(壬辰倭亂 以前)에 木版으로 간행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원래 전3권 중의 卷1만 殘存하는 것으로 表紙와 卷末의 2張 정도는 缺落되었다

調査本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은 朝鮮時代 漢詩를 學習하려는 사람들이 參考한 一種의 詩學教材이다. 朝鮮時代 初期에 元朝에서 輸入된 版本을 底本으로 覆刻한 版本으로 현재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과 忠南大學校 中央圖書館에만 所藏되고 있을 정도로 매우 稀貴한 상태이다. 또한 保存狀態가 不良하여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나 學術的 가치가 높고 刊行時期가 비교적 오래되고 또한 稀貴한 상태이다.

調査本 「增註唐賢絶句三體詩法」은 漢文學의 研究와 書誌學의 研究에 活用될 수 있을 귀중한 資料이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參작하건대 調査本 「增註唐賢絶句三體詩法」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문헌자료

周弼 選, 釋圓至 註, 裴庾 增註, 「增註唐賢絶句三體詩法」. 木版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朝鮮前期(壬辰倭亂以前) 推定]. 加泉博物館 所藏本.

朴文烈·徐炳沛·宋日基 編, 「2008年度 京畿道 一般動産文化財 多量 所藏處 實態 調査」 <指定對象 動産文化財 精密調査 報告書>. 서울 : 中央大學校産學協力團, 2008.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千惠鳳 著, 「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1997.

○ 기 타

調査本 「增註唐賢絶句三體詩法」은 仁川廣域市 延壽區 玉蓮洞 567-22번지(박물관길 52)의 加泉博物館(李吉女)의 所有이며, 일찍이 購入을 통하여 收藏·管理해 오고 있다고 한다. 調査本 「增註唐賢絶句三體詩法」의 保存狀態불량한 편이다. 前後의 表紙를 비롯하여 卷頭 數張, 卷末 2張이 缺落되었으며, 版心部는 마멸되어 있다. 따라서 裱貼匠을 통한 裱貼과 補修가 절실히 요구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부결 - 보물로 지정가치 부족함.

9. 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實孝子圖)

가. 검토사항

“삼강행실효자도”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0년도에 진행된 개인소장동산문화재 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문화재 중 선정이 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11.1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삼강행실효자도 (三綱行實孝子圖)
- 소유자 : 조창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 수 량 : 1권 1책
- 규 격 : 세로 32.4 × 가로 22.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1434년(세종 16)
- 현 상 : 四周雙邊, 半郭 23.4×16.7cm. 有界, 半葉 13行22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세종대왕의 지시에 편찬된 책으로,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실천을 중요한 윤리도덕으로 삼는 조선에서 국민윤리교과서적 성격을 갖는 교본인 동시에, 뒤이어 편찬 행실도류(行實圖類) 도서의 전범(典範)이 되는 책이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세종조에 편찬된 한문본과 이를 토대로 수록 인물을 3분의 1로 줄여 선정하고 상단에 언문(한글)을 수록한 산략(刪略) 언해본의 두 계통이 존재한다. 전자는 분량이 과다한 관계로 『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實孝子圖)』, 『삼강행실충신도(三綱行實忠臣圖)』 『삼강행실열녀도(三綱行實烈女圖)』로 필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인출한 관계로 3부 모두가 전래하는 완본은 알려진 것이 없고, 효자도, 충신도, 열녀도의 부분별 전본도 그 수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사대상본은 광곽(筐郭)의 변란(邊欄)이나 계선(界線) 및 자획(字劃), 화면(畫面)의 상태로 보아 1434년(세종16)에 판각된 판목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인출한 책으로 사료된다. 비록 4건의 탈락이 있기는 하나 전존본이 희귀하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갖는다. 특히 조선전기의 서지학 연구 및 한문표점의 연구, 회화사 연구의 귀중한 연구자료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三綱行實圖 孝子圖』는 集賢殿 副提學 俛循(?~1435) 등이 世宗의 命에 따라 우리나라와 中國의 人物 중에서 三綱의 模範이 될 만한 孝子 110인을 뽑아서 각 편 앞에 그림과 문장으로 編纂하여 1434(世宗 16)년에 刊行된 初刊本이다. 원래의 『三綱行實圖』 忠臣圖·孝子圖·烈女圖 중 孝子圖 1책만 전래되고 있으며, 또한 수록된 110인의 인물 중 許孜埋獸·孝新廬墓·恩時斷指·成茂求魚 등 4인은 缺落되어 있다. 그러나 權探의 序文이 있어 간행과정과 편찬시기를 알 수 있고 本文과 插圖는 版刻이 아주 정교하며 전체적인 인쇄 상태는 선명하다. 특히 판화는 조선시대 판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삼강, 이륜 계통의 판화들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아니라 그 시초라는 점에서 판화 研究에 귀중한 資料가 되므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 (지정 가치 있음)

調査本 「三綱行實圖 孝子圖」는 集賢殿 直提學 俛循(?~1435) 등이 世宗의 命

에 따라 우리나라와 中國의 人物 중에서 君爲臣綱·父爲子綱·夫爲婦綱 등 三綱의 模範이 될 만한 忠臣과 孝子 및 烈女 각각 110人을 選定하고 그림과 文章으로 編纂하여 1434(世宗 16)년에 木版으로 刊行된 初刊本 「三綱行實圖」 중의 <孝子圖> 1冊이다. 현재 世宗朝의 初刊本 계열의 「三綱行實圖」 版本은 <孝子圖> 3種, <忠臣圖> 1種, <烈女圖> 1種 등 도합 5種에 지나지 않으며, 그 가운데 高麗大學校 晚松文庫本(후쇄본 추정)과 故 柳鐸一(1934~?) 교수 所藏本의 <孝子圖>는 初刊本에 가까우나 그 외의 3種은 모두 重刊本으로 알려지고 있다.

調査本 「三綱行實圖 孝子圖」는 원래의 「三綱行實圖」 <忠臣圖>·<孝子圖>·<烈女圖> 중 <忠臣圖>와 <烈女圖>는 缺落된 채 <孝子圖> 1책만 전래되고 있으며, 또한 수록된 110인의 인물 중 <許孜埋獸>·<孝新廬墓>·<恩時斷指>·<成茂求魚> 등 4인은 缺落되어 있다. 그러나 調査本 「三綱行實圖 孝子圖」의 本文과 插圖는 版刻이 아주 정교하며 글씨 또한 淨書된 明朝體로 標點이 있다. 전체적인 印面으로 볼 때 版刻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印出된 것인 듯, 印面의 印出狀態가 鮮명한 편이다.

調査本 「三綱行實圖 孝子圖」는 收錄된 文章의 內容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思想史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며, 插圖面에 있어서는 版畫藝術의 研究에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版本의 形態的인 측면에서는 朝鮮時代 前期의 우리나라 印刷文化의 수준을 窺見할 수 있어 書誌學 및 版本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 書誌事項 : 조사본 三綱行實孝子圖의 書誌事項은 다음과 같다.

三綱行實圖 孝子圖 / 倂循(?-1435) 等 奉命撰. -- 木版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宗 16(1434) 頃].

1卷1冊(114張) : 插圖, 四周雙邊, 半郭 23.4×16.7cm, 有界, 13行22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4×22.0cm. 楮紙. 線裝(五針眼訂).

進箋題: 三綱行實圖

序題: 三綱行實圖

目錄題: 三綱行實孝子圖

卷首題: 三綱行實孝子圖

版心題: 孝子圖

進箋文: 進三綱行實圖箋…… 集賢殿領殿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經筵春秋館事兼判吏曹事世子傳臣孟思誠等…宣德七(1432)年六月日 集賢殿領殿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經筵春秋館事兼判吏曹事世子傳臣孟思誠等謹上箋

序: 三綱行實圖序……宣德七(1432)年六月日 奉列大夫集賢殿應教藝文應教知製教經筵檢討官臣權採奉教序

表紙: 改裝

缺落: 許孜埋獸·孝新廬墓·恩時斷指·成茂求魚(4題)

□ 現狀

조사대상본인 『삼강행실(三綱行實)』은 효자도, 충신도, 열녀도 중 효자도에 해당하며, 표지는 개장한 것이다.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부분적인 오손(汚損)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다만 권두의 일부와 판심의 전체적인 상태는 마손이 심한 편이다. 목록에 보이는 인물이 110건인데 비하여 106건만 남아있고 허자매수(許孜埋獸)·효신여묘(孝新廬墓)·은시단지(恩時斷指)·성무구어(成茂求魚) 4건은 결락된 상태이다.

○ 삼강행실 편간(編刊) 경과와 내용

□ 편간경과

▷ 1431년(세종13) 여름: 집현전부제학 설순에게 삼강행실의 편찬을 명함.(權採序文)

▷ 1432년(세종14) 6. 9: 집현전에서 삼강행실을 편찬을 마치고 전문(箋文)과 함께 진헌함.(孟思誠箋, 權採序). 효자, 충신, 열녀 각110명을 선정하고 사적(事蹟)을 수집하여 전(傳)을 쓰고, 행실을 찬양하는 시찬(詩讚)을 붙이고,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되 도(圖)를 앞에, 설(說)을 뒤에 실는 전도후설(前圖後說)의 형식을 취함.

▷ 1432년(세종14) 10.20: 권채에게 서문의 자구수정을 명함.

▷ 1433년(세종15) 2. 24 : 예문대제학 정초가 명에 따라 발문을 지어 올림.

▷ 1434년(세종16) 4. 27 : 삼강행실 인쇄 반포. 아이들과 부녀자들도 알 수 있도록 중앙은 한성부와 오부에서, 지방은 감사와 수령의 친속들이 지도하도록 하라는 교서를 내림.

□ 내용과 체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1434년(세종16)에 처음 편찬 간행할 때에 『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實孝子圖)』, 『삼강행실충신도(三綱行實忠臣圖)』 『삼강행실열녀도(三綱行實烈女圖)』의 3부로 구성하고, 중국가 한국의 역대 인물에서 선정된 효자, 충신, 열녀 각 110명씩 330명의 사적을 정리한 사적(事蹟)과 이를 찬양한 내용을 담은 시(詩)와 찬(讚)을 수록하였다. 『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實孝子圖)』의 경우는 『효순사실(孝順事實)』에 수록된 칠언절구(2수)를 옮겨 실었고, 찬은 『효행록(孝行錄)』에 실린 이제현(李齊賢)의 찬을 전재한 것이다. 이 두 책에 수록되지 않은 인물의 경우는 편찬에 참여한 집현전의 학사들이 나누어 지은 것이다. 조사 대상본의 목록에 수록된 110인은 중국의 인물이 89명이고, 한국의 경우는 신라 2명, 백제 2명, 고려 7명, 본국(조선) 11명으로 모두 22명이다. 중국의 인물은 한(漢)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당(唐)이 11명, 송(宋) 10명, 원(元) 10명 순이다. 책의 편집체제는 1명을 1판(장)에 배치하고, 접었을 때 앞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제와 함께 그림을 놓고, 뒷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전기와 시찬(詩讚)을 배치하였다. 시찬과 문장은 모두 읽기 쉽게 백권점(白圈點)으로 단구(斷句) 되어 있다. 그림과 단구의 표시는 이 책이 국민교화용으로 제작된 윤리독본이라는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효자도에 수록된 인물을 출신 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虞 : 舜帝大孝

周 : 文王問安·伯奇履霜

魯 : 曾參養志·閔損單衣·子路負米·樂正傷足·楊香搯虎·伯俞泣杖

楚 : 老萊班衣·皐魚道哭

漢 : 文帝嘗藥·緹縈贖父·陳氏養姑·葵順桑椹·劉平感盜·廉范負骨·江革巨孝·薛包酒掃·姜詩出鯉·孝娥抱屍·申屠哀感·

茅容設饌·黃香扇枕·丁蘭刻木·童永貸錢·古初伏棺·鮑山負筐·宗承生竹·陸績懷橘·郭巨埋子·元覺警父

蜀 : 杜孝寄魚·孟熙得金

魏 : 王裒廢詩

吳：孟宗泣行
 晉：王祥剖冰·盛彥泣螭·劉殷夢粟·<許孜埋獸>·王延躍魚·潘宗救父·法宗求骸·吳猛蚊噬
 宋：王彭泉湧·子平營葬
 齊：虛之感神·黔婁嘗糞·叔謙訪藥
 梁：吉玠代父·子輿退水·不害捧屍
 後魏：王崇止雹
 周：柳遐孝德
 隋：普林號犬·孝肅圖像·盧操順母
 唐：少玄漬骨·季詮隨溺·許坦擊獸·袁師狼馴·仁傑望雲·文貞穿墳·義婦割股·唐氏乳姑·劉政焚香·明達賣子
 宋：杜羔感親·文讓烏助·郭琮祈壽·壽昌尋母·徐積篤行·蘇頌救母·詹女給賊·趙婦鬻子·吳二免禍
 元：王閏抱父·王薦益壽·楊皞感天·黃贊夢父·紹祖衛父·湯霖哭冰·孫抑救親·吳祐奪刃·周樂同死
 國朝(明)：王興臥冰·甄氏心驚·劉氏孝姑
 新羅：知恩賣身·薛氏分鏡
 百濟：向德割髀·聖覺養母
 高麗：尉韶割股·徐稜得蛙·文忠定省·婁伯捕虎·希參捍母·辛氏抱賊·潘腆買父
 本國(朝鮮)：虫介斷指·石氏負姑·林氏救姑·<孝新廬墓>·自強伏塚·石珣斷指·貴珣斷指·朴善廬墓·<恩時斷指>·四月斷指· <成茂求魚> *<>로 표시된 4건은 목차에만 남아있고 조사본에는 결락.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세종대왕의 지시에 편찬된 책으로,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실천을 중요한 윤리도덕으로 삼는 조선에서 국민윤리교과서적 성격을 갖는 교본인 동시에, 뒤이어 편찬 행실도류(行實圖類) 도서의 전범(典範)이 되는 책이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세종조에 편찬된 한문본과 이를 토대로 수록 인물을 3분의 1로 줄여 선정하고 상단에 언문(한글)을 수록한 산략(刪略) 언해본의 두 계통이 존재한다. 전자는 분량이 과다한 관계로 『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實孝子圖)』, 『삼강행실충신도(三綱行實忠臣圖)』 『삼강행실열녀도(三綱行實烈女圖)』로 필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인출한 관계로 3부 모두가 전래하는 완본은 알려진 것이 없고, 효자도, 충신도, 열녀도의 부분별 전본도 그 수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사대상본은 광곽(筐郭)의 변란(邊欄)이나 계선(界線) 및 자획(字劃), 화면(畫面)의 상태로 보아 1434년(세종16)에 판각된 판목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인출한 책으로 사료된다. 비록 4건의 탈락이 있기는 하나 전존본이 희귀하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갖는다. 특히 조선전기의 서지학 연구 및 한문표점의 연구, 회화사연구의 귀중한 연구자료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기 타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충신도, 열녀도 및 효자도의 여타 판본도 조사하여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 현 상 : 四周雙邊, 半郭 23.4×16.7cm. 有界, 半葉 13行22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進箋文: …集賢殿領殿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經筵春秋館事兼判吏曹事世子傅臣孟思誠等…宣德七(1432)年六月日集賢殿領殿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經筵春秋館事兼判吏曹事世子傅臣孟思誠等謹上箋

序: …宣德七(1432)年六月日奉列大夫集賢殿應教藝文應教知製教經筵檢討官臣權採奉教序

○ 내용 및 특징

『三綱行實圖』의 편찬은 1428년(세종 10) 진주에 사는 金禾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綱常罪로 엄벌하자는 주장이 논의되었을 때 엄벌에 앞서 효행의 풍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서적을 刊布해서 일상 읽게 하여 教化 書籍으로 삼으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孝行錄』에 있는 24인에서 20인을 추가하여 증보하도록 명하였으나 전존본이 없으므로 1431년에 集賢殿副提學 倮循(?~1435) 등이 『孝順史實』과 『효행록』 등을 참고하여 1432년에 편찬이 완료됨에 세종은 ‘三綱行實圖’라 명명하고 孟思誠의 進箋文과 집현전응교 權採에게 명하여 序文을, 예문대제학 鄭招로 하여금 발문을 짓게 하고 1433년에는 주자소에서 판각을 완료하고 1434년에 반포하였다.

권채의 서문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고금의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참고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 속에서 孝子·忠臣·烈女로서 특출한 사

람 각 110명씩 뽑아 그림을 앞에 놓고 행적을 뒤에 적되 찬시를 한수씩 붙였다. 이 시는 효자의 경우 명나라 태종이 보내준 효순사실 중 이제현이 쓴 찬을 옮겨 실었으며, 거기에 없는 충신·열녀편의 찬시들은 모두 편찬관들이 나누어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1471년(성종 2) 6월에는 각도에서 重刊하였고, 1481년(성종 12) 무렵부터는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해본이 나왔고, 1490년(성종 21)에는 세종대의 초간본이 분량이 많아 보기 불편하므로 축소 개편하여 팔도에 배포하자는 경기감사 박승실의 의견에 따라 初刊의 孝子·忠臣·烈女 각 110인 가운데서 누구나 알기 쉽고 감동받을 만한 인물 孝子·忠臣·烈女 3편에 각각 35인을 선정하고 기사는 증감할 수가 없다하여 그대로 하여 1책으로 간행하였다. 그 후 언해가 첨부되어 조선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하였던 듯하다.

이 책은 1434년(세종 16)에 集賢殿副提學 偈循(?~1435) 등이 世宗의 命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의 典籍을 통하여 소위 삼강에 모범이 될 만한 孝子·忠臣·烈女 가운데 각 110인씩 뽑아 각 편 앞에 圖形을 싣고 뒤에 사실을 엮은 『三綱行實圖』 원간본 가운데 효자부분인 『三綱行實圖孝子圖』 1책이다. 卷頭에 孟思誠의 進箋文과 權採의 序文, 효자도 목록 110인이 있다. 본문은 인물별로 전면은 판화, 후면에는 그의 행적과 함께 시와 찬이 수록되어 있다. 목록에 기록된 110인 가운데 許孜埋獸·孝新廬墓·恩時斷指·成茂求魚 등 4인의 기록은 누락되어 106인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의 판화는 새김이 정교하며, 글씨 또한 정서된 명조체로 표점이 있으며 인출 상태도 판각이 또렷하고 선명하다. 表紙는 改裝하였고 保存狀態는 비교적 良好한 편이나 卷頭의 數張은 훼손되었다.

이 자료는 알기 쉽도록 매편마다 그림을 넣어 사실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여 교육을 위해 발간되었고 삼강이 조선시대의 사회전반에 기반으로 되어 있던 만큼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조선시대 판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삼강, 이런 계통의 판화들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아니라 그 시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인물화와 풍속화가 드문 조선전기의 상황으로 볼 때 자료적인 가치는 매우 높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三綱行實圖 孝子圖』는 集賢殿 副提學 偈循(?~1435) 등이 世宗의 命에 따라 우리나라와 中國의 人物 중에서 三綱의 模範이 될 만한 孝子 110인을 뽑아서 각 편 앞에 그림과 문장으로 編纂하여 1434(世宗 16)년에 刊行된 初刊本이다. 원래의 『三綱行實圖』 忠臣圖·孝子圖·烈女圖 중 孝子圖 1책만 전래되고 있으며, 또한 수록된 110인의 인물 중 許孜埋獸·孝新廬墓·恩時斷指·成茂求魚 등 4인은 缺落되어 있다. 그러나 權採의 序文이 있어 간행과정과 편찬시기를 알 수 있고 本文과 插圖

는 版刻이 아주 정교하며 전체적인 인쇄 상태는 선명하다. 특히 판화는 조선시대 판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삼강, 이륜 계통의 판화들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아니라 그 시초라는 점에서 판화 研究에 귀중한 資料가 되므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三綱行實圖 孝子圖」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三綱行實圖 孝子圖 / 俛循(?~1435) 等 奉命撰. -- 木版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宗 16(1434) 頃].

1卷1冊(114張) : 插圖, 四周雙邊, 半郭 23.4×16.7cm, 有界, 13行22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4×22.0cm. 楮紙. 線裝(五針眼訂).

表題: 缺落

進箋題: 三綱行實圖

序題: 三綱行實圖

目錄題: 三綱行實孝子圖

卷首題: 三綱行實孝子圖

版心題: 孝子圖

進箋文: 進三綱行實圖箋…集賢殿領殿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經筵春秋館事兼判吏曹事世子傳臣孟思誠等…宣德七(1432)年六月日集賢殿領殿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經筵春秋館事兼判吏曹事世子傳臣孟思誠等謹上箋

序: 三綱行實圖序…宣德七(1432)年六月日奉列大夫集賢殿應教藝文應教知製教經筵檢討官臣權採奉教序

表紙: 改裝

缺張: 表紙

插圖·內容: 舜帝大孝·文王問安·文帝嘗藥·伯奇履霜·曾參養志·閔損單衣·子路負米·樂正傷足·楊香搯虎·伯俞泣杖·老萊班衣·皐魚道哭·緹縈贖父·陳氏養姑·蔡順桑椹·劉平感盜·廉范負骨·江革巨孝·薛包酒掃·姜詩出鯉·孝娥抱屍·申屠哀感·茅容設饌·黃香扇枕·丁蘭刻木·童永貸錢·古初伏棺·鮑山負筐·宗承生竹·陸績懷橘·郭巨埋子·元覺警父·杜孝寄魚·孟熙得金·王哀廢詩·孟宗泣行·王祥剖冰·盛彥泣糟·劉殷夢粟·(許孜埋獸)·王延躍魚·潘宗教父·法宗求骸·吳猛蚊噬·王彭泉湧·子平營葬·虛之感神·黔婁嘗糞·叔謙訪藥·吉玃代父·子輿退水·不害捧屍·王崇止雹·柳遐孝德·普林

號犬·孝肅圖像·盧操順母·少玄漬骨·季詮隨溺·許坦擊獸·袁師狼馴·仁傑望雲·文貞穿墻·義婦割股·唐氏乳姑·劉政焚香·明達賣子·杜羔感親·文讓烏助·郭琮祈壽·壽昌尋母·徐積篤行·蘇頌救母·詹女給賊·趙婦鬻子·吳二免禍·王閏抱父·王薦益壽·楊皞感天·黃贊夢父·紹祖衛父·湯霖哭水·孫抑救親·吳祐奪刀·周樂同死·王興臥水·甄氏心驚·劉氏孝姑·知恩賣身·薛氏分鏡·向德割髀·聖覺養母·尉貂割股·徐稜得蛙·文忠定省·婁伯捕虎·希參捍母·辛氏抱賊·潘暎買父·垂介斷指·石氏負姑·林氏救姑·(孝新廬墓)·自強伏塚·石珣斷指·貴珣斷指·朴善廬墓·(恩時斷指)·四月斷指·(成茂求魚)(110題)

缺落: 許孜埋獸·孝新廬墓·恩時斷指·成茂求魚(4題)

□ 現狀

調査本「三綱行實圖 孝子圖」는 集賢殿 直提學 俛循(?~1435) 등이 世宗의 命에 따라 우리나라와 中國의 人物 중에서 君爲臣綱·父爲子綱·夫爲婦綱 등 三綱의 模範이 될 만한 忠臣과 孝子 및 烈女 각각 110人을 選定하고 그림과 文章으로 編纂하여 1434(世宗 16)년에 木版으로 刊行된 初刊本「三綱行實圖」중의 <孝子圖> 1冊이다.

調査本「三綱行實圖 孝子圖」는 慶北 榮州市 順興面 裵店里 한서통나무주택 307호의 曹昌鉉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원래의 「三綱行實圖」의 내용은 <忠臣圖>와 <孝子圖> 및 <烈女圖>로 구성되어 있으나, 調査本은 <忠臣圖>와 <烈女圖>는 缺落된 채 <孝子圖> 1책만 전래되고 있다. 수록된 인물마다 插圖가 있으며, 邊欄은 四周雙邊이다. 半郭의 크기는 세로 23.4cm 가로 16.7cm 內外이며 冊의 크기는 세로 32.4cm 가로 22.0cm 內外의 大型本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하였다.

調査本「三綱行實圖 孝子圖」의 保存狀態는 비교적 良好한 편이나 卷頭의 數張과 版心部分은 磨滅이 심하다. 또한 수록된 110인의 인물 중 <許孜埋獸>·<孝新廬墓>·<恩時斷指>·<成茂求魚> 등 4인은 缺落되어 있다. 따라서 楷貼匠을 통한 表紙의 補修와 缺落部分의 復元이 絶실히 요구되며 專門의인 管理도 필요할 듯하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원래 「三綱行實圖」의 編纂은 뜻하지 않은 事件에서 시작되었다. 1428(세종 10)년에 晉州에 살던 金禾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悖倫犯罪가 일어나자 孝悌를 돈독히 하고 풍속을 厚朴하게 할 수 있는 方策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기존의

「孝行錄」에 수록된 24人を 바탕으로 20人を 增補하여 「孝行錄」의 增補本을 編纂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 「孝行錄」의 增補本에 대한 編纂과 刊行事實 및 傳存本이 없자 1431(세종 13)년 여름에 世宗이 集賢殿 直提學으로 재직 중이던 俛循(?~1435) 등에게 「三綱行實(圖)」를 編纂하도록 下命하였던 듯하다.

이에 王命에 따라 俛循 등이 「孝順事實」과 「孝行錄」 등을 參考하여 1432(세종 14)년 6월에 集賢殿에서 「三綱行實(圖)」의 編纂을 완료함과 동시에 權採(1399~1438)의 序文과 孟思誠(1360~1438)의 箋文이 撰進되고¹²⁾ 1433(세종 15)년 2월에 藝文館 大提學 鄭招(?~1434)가 王命을 받들어 「三綱行實圖」의 跋尾를 撰進하자¹³⁾, 이에 1434(세종 16)년 4월에 鑄字所에 下送하여 板刻하고 印出하여 頒布하고 教育하도록 함과 동시에 尹淮(1380~1436)에게 그 敎書文을 撰進하도록 하였던 것이다.¹⁴⁾ 그 후 동(1434)년 11월에는 실제로 인출된 「三綱行實(圖)」을 宗親과 臣

12) 春秋館 編, 「世宗實錄」, 世宗 14(1432)年 6月 9(丙申)日條.

集賢殿新撰三綱行實以進 序曰 天下之達道五 而三綱居其首 實經綸之大法 而萬化之本源也 若稽諸古 帝舜慎徽五典 成湯肇修人紀 周家重民五教而賓興三物 帝王爲治之先務 可知也已 宣德辛亥夏 我主上殿下 命近臣若曰 三代之治 皆所以明人倫也 後世教化陵夷 百姓不親 君臣·父子·夫婦之大倫 率皆昧於所性 而常失於薄 間有卓行高節 不爲習俗所移 而聳人觀聽者亦多 予欲使取其特異者 作爲圖讚 頒諸中外 庶幾愚婦愚夫 皆得易以觀感而興起 則化民成俗之一道也 乃命集賢殿副提學臣俛循 掌編摩之事 於是自中國以至我東方 古今書傳所載 靡不蒐閱 得孝子忠臣烈女之卓然可述者 各百有十人 圖形於前 紀實於後 而并系以詩 孝子則謹錄太宗文皇帝所賜孝順事實之詩 兼取臣高祖臣溥所撰孝行錄中名儒李齊賢之贊 其餘則令輔臣分撰 忠臣烈女之詩 亦令文臣分製 編訖 賜名三綱行實圖 令鑄字所鑄梓永傳 爰命臣採序其卷端 臣採竊惟君親夫婦之倫·忠孝節義之道 是乃降衷秉彝 人人所同 窮天地之始而俱生 極天地之終而罔墜 不以堯·舜之仁而有餘 不以桀·紂之暴而不足 然先王之時 五典克從 民用和睦 而比屋可封 三代以後 治日常少 而亂賊之徒 接跡於世者 良由君上導養之如何耳 今主上殿下 以神聖之資 盡君師之道 功成治定 萬目畢張 而以扶植綱常·維持世道爲本 凡有關於名教者 無不講究商確 著爲彝典 所以化民於躬行心得之餘者 既極其至 猶慮興起之方有所未盡 乃爲此書 廣布民間 使無賢愚貴賤孩童婦女 皆有以樂觀而習聞 披玩其圖 以想形容 諷詠其詩 以體情性 莫不歎嘆慕 勸勉激勸 以感發其同然之善心 而盡其職分之當爲矣 蓋與帝王敦典敦敷教之義同一揆 而條理有加密焉 由是民風丕變 治道益隆 家盡孝順之子 國皆忠盡之臣 南陔·白華之什·漢廣·汝墳之詩 將繼作於委巷之間 王化之美 當無讓於二南 而王業之固 實永傳於萬世 後之君子 益體宸衷 服膺敬守於無窮 豈不踴歎 箋曰 人倫之道 固無出於三綱 天性之眞 實有同於萬世 宜集前人之行實 以爲今日之規模 竊觀作之君·作之父·作之夫則本乎天 爲之臣·爲之子·爲之妻則原於地 惟天經地義之定理 無古往今來之或殊 百世可知 仰宣尼之示訓 蒸民有則 思吉甫之作詩 孝爲百行之源 仁是五常之首 慈祥惻怛 根於秉彝之良能 愛敬順承 由乎至情之不已 豈惟在家而盡道 亦可許國而移忠 義莫大於事君 忠必期於委質 在平時而陳力就列 猶可行焉 居亂世而捨命持危 是難能也 歷觀古人之說 莫如王蠋之言 人無信則事無成 女必貞而行必篤 父母不能奪其志 昭然天日之照臨 刀鋸安敢摧其心 凜乎冰霜之皎潔 在丈夫而未易 爲列婦者頗多 乃何世道漸微 人心稍薄 綱常幾乎淪斃 習俗靡然崩頽 子或悖逆於家 臣或姦諛於國 罕見江·沱·汝·漢之美 或有桑·濮·鄭·衛之風 然而天理未有泯滅之時 人情豈無感悟之日 恭惟德敦仁厚 學就緝熙 燕翼貽謀 續丕基於列聖 勵精圖治 敷文教於四方 尙慮風俗之汚 喚起宸衷之斷 命臣循稽諸歷代 及乎本朝 上自帝王后妃 下至公卿民庶 屬三綱而可述 謹類聚而成編 令文士著贊詩 善摹寫其義烈 俾畫工成圖像 眞髣髴其形容 將欲頒於國都 而遂及於閭巷 凡諸寓目 孰不竦心 庶見感激而薰陶 終臻鼓舞而於變 揭民彝扶世教 幸親視於明時 遵王道致時雍 期可傳於永世.

13) 春秋館 編, 「世宗實錄」, 世宗 15(1433)年 2月 24(戊申)日條.

藝文大提學鄭招承命製進 三綱行實圖跋尾 其辭曰 右三綱行實圖所載忠臣·孝子·烈女 各一百十人 紀行圖形 仍贊以詩 刊板已竟 命臣跋尾 人竊惟今人與古人 時勢不相接 音貌不相知 何惡何愛於彼此哉 然而見貞諒高節之人 則忻慕致敬 舉手加額 願爲之執鞭焉 見苟賤汚穢之人 則唾罵不足 攘袂扼腕 至欲手刃其頭也 是則人心之同然 而天理之不泯也 何況親見形容 詠嘆其事乎 其感之也必深 其興之也必速矣 今我殿下既知其然 以之鼓舞振德之 凡爲今世之民者 孰不觀瞻而作乎 將見人知禮義之行 家有孝貞之俗矣 然而孝子生盡其孝 歿盡其誠 固是平常可行之事 至於婦人守貞 當在夫亡之後 忠臣盡節 方見夷亂之日 非遇變故 何由可知 是不然也 婦人動必由禮 輔其君子 恩其族屬 隆其家業 斯能貞矣 臣下憂國如家 盡節奉職 使君安富尊榮 澤及於民 斯能忠矣 捨此 必待變故 則是忠貞 非可常可久之道也 觀行實圖者 常明此意 則有以知所當爲也.

14) 春秋館 編, 「世宗實錄」, 世宗 16(1434)年 4月 27(甲戌)日條.

上曰 三綱 人道之大經 君臣父子夫婦之所當先知者也 肆予命儒臣編集古今 并付圖形 名曰三綱行實 俾鑄于梓 廣布中外 思欲擇其有學識者 常加訓導 誘掖獎勸 使愚夫愚婦皆有所知識 以盡其道 何如 都承旨安崇善啓曰 上教允當 於是 命中樞院

下들에게 頒賜하고 諸道에도 分賜하였으며¹⁵⁾, 1439(세종 21)년 3월에는 咸吉道觀察使의 건의에 따라 富居縣에까지 「三綱行實(圖)」을 下送하도록 하였다.¹⁶⁾ 또한 1443(세종 25)년에는 咸吉道の 慶源·慶興·會寧·穩城·鍾城·富居 등 각 고을에도 「三綱行實(圖)」을 下送하였다.¹⁷⁾ 또한 1444(세종 26)년 2월에 集賢殿 副提學 崔萬理(?~1445)와 鄭昌孫(1402~1487) 등이 한글(諺文)製作의 부당함을 아뢰자 世宗은 “내가 만일 한글(諺文)로 「三綱行實(圖)」을 翻譯하여 民間에 頒布하면 어리석은 男女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忠臣·孝子·烈女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고 하면서 「三綱行實(圖)」의 韓譯(諺解)事業을 암시하였으며¹⁸⁾, 동(1444)년 10월에는 議政府에서 高麗 이래의 烈女들에게 爵號를 追贈할 것을 建議하자 聽從하였다.¹⁹⁾ 이와 같이 세종은 널리 고급의 忠臣·孝子·烈女의 事蹟과 圖形紀傳을 모아 詩와 讚을 써서 「三綱行實(圖)」라 하여 안팎에 반포하여 궁벽한 시골의 兒童과 婦女들에 이르기까지 보고 살피지 않는 이가 없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후 成宗朝에 이르러 1471(성종 2)년 6월에 中外로 하여금 忠臣·烈婦·孝子·順孫을 찾아다니며 啓聞하여 旌別하게 하고 百姓들이 講習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諸道の 觀察使로 하여금 「小學」과 「三綱行實(圖)」 등을 널리 重刊하도록 하였으며²⁰⁾, 1481(성종 12)년 무렵부터는 百姓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韓譯(諺解)事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²¹⁾. 또한 1489(성종 20)년에는 侍講院輔德 許琛

使尹淮製教書 其辭曰 予惟降衷秉彝 生民之所同 厚倫成俗 有國之先務 世道既降 淳風不古 天經人紀 浸以失真 臣不能盡 臣道 子不能供子職 婦不能全婦德者 間或有之 良可嘆已 思昔聖帝明王 躬行身教 表倡導率 使比屋可封 顧予涼德 雖不能企其萬一 而竊有志焉 惟是敦典敷教之道 夙夜盡心 載念愚民憐於趨向 無所則效 爰命儒臣 編輯古今忠臣孝子烈女之卓然可法者 隨事記載 并著詩贊 尙慮愚夫愚婦未易通曉 付以圖形 名曰三綱行實 鈔梓廣布 庶幾街童巷婦 皆得易知 披閱諷誦之間 有所感發 則其於誘掖開導之方 不無小補 第以民庶不識文字 書雖頒降 人不訓示 則又安能知其義而興起乎 予觀周禮外史掌達書名于四方 使四方知書之文字 得能讀之 今可做[倣]此 令中外務盡誨諭之術 京中漢城府五部·外方監司守令 旁求有學識者 敦加獎勵 無貴無賤 常令訓習 至於婦女 亦令親屬諄諄教之 使曉然共知 口誦心惟 朝益暮進 莫不感發其天性之本然 爲人子者思盡其孝 爲人臣者思盡其忠 爲夫爲婦亦皆盡道 人知義方 振起自新之志 化行俗美 益臻至治之風 惟爾禮曹體予至懷 曉諭中外.

15) 春秋館 編, 「世宗實錄」, 世宗 16(1434)年 11月 24(戊戌)日條.

頒賜三綱行實于宗親及臣僚 又賜諸道.

16) 春秋館 編, 「世宗實錄」, 世宗 21(1439)年 3月 9(丁巳)日條.

禮曹據咸吉道觀察使關啓 請於富居縣送朝服及六典律文·農蠶書·三綱行實 從之

17) 春秋館 編, 「世宗實錄」, 世宗 25(1443)年 2月 15(辛丑)日條.

送三綱行實·戒酒書于咸吉道慶源·慶興·會寧·穩城·鍾城·富居.

18) 春秋館 編, 「世宗實錄」, 世宗 26(1444)年 2月 20(庚子)日條.

集賢殿副提學崔萬理等上疏曰 臣等伏觀諺文制作 至爲神妙 創物運智 復出千古 然以臣等區區管見 尙有可疑者 敢布危懇 謹疏于後 伏惟聖裁 … 又鄭昌孫曰 頒布三綱行實之後 未見有忠臣孝子烈女輩出 人之行不行 只在人之資質如何耳 何必以諺文譯之 而後人皆效之 此等之言 豈儒者識理之言乎 甚無用之俗儒也 前此 上教昌孫曰 予若以諺文譯三綱行實 頒諸民間 則愚夫愚婦 皆得易曉 忠臣孝子烈女 必輩出矣 昌孫乃以此啓達 故今有是教 …

19) 春秋館 編, 「世宗實錄」, 世宗 26(1444)年 10月 20(乙丑)日條.

議政府啓 高麗以來 列女雖已錄三綱行實 然褒賞之典 未盡舉行 請令吏曹竝追贈爵號 從之.

20) 春秋館 編, 「成宗實錄」, 成宗 2(1471)年7 6月 18(己未)日條.

傳旨禮曹曰 民風·士習 在上之人 崇獎而激勵之 其令中外 搜訪忠臣·烈婦·孝子·順孫 啓聞旌別 又令諸道觀察使 廣刊小學·三綱行實等書 令民講習.

(1444~1505)과 吏曹正郎 鄭錫堅(?~1500) 등이 世宗朝에 간행된 「三綱行實(圖)」의 初刊本이 分量이 많아 두루 보기 어려우므로 縮小·改編하여 八道에 配布하고자 건의하자 이에 忠臣·孝子·烈女 각 35人을 嚴選하여 1冊으로 刊行하도록 하였으며²²⁾, 1490(성종 21)년 4월에는 이를 京城의 五부와 八道の 郡縣에 頒賜하고 愚夫愚婦로 하여금 두루 알지 못함이 없도록 하였다.²³⁾ 成宗朝의 選定本 이후로는 朝鮮後期까지 대부분 韓譯(諺解)이 첨부된 상태로 刊行되어 流通된 까닭에 現傳하는 版本의 대부분은 選定本 이후의 版本들이며, 選定本 이전의 版本은 傳來가 드문 稀貴本들이다.

世宗朝에 編纂된 원래 「三綱行實圖」 <孝子圖>에는 <舜帝大孝>·<文王問安>·<文帝嘗藥>·<伯奇履霜>·<曾參養志>·<閔損單衣>·<子路負米>·<樂正傷足>·<楊香搯虎>·<伯俞泣杖>·<老萊班衣>·<皐魚道哭>·<緹縈贖父>·<陳氏養姑>·<葵順桑椹>·<劉平感盜>·<廉范負骨>·<江革巨孝>·<薛包酒掃>·<姜詩出鯉>·<孝娥抱屍>·<申屠哀感>·<茅容設饌>·<黃香扇枕>·<丁蘭刻木>·<童永貸錢>·<古初伏棺>·<鮑山負筐>·<宗承生竹>·<陸績懷橘>·<郭巨埋子>·<元覺警父>·<杜孝寄魚>·<孟熙得金>·<王哀廢詩>·<孟宗泣行>·<王祥剖冰>·<盛彥泣糟>·<劉殷夢粟>·<許孜埋獸>·<王延躍魚>·<潘宗救父>·<法宗求骸>·<吳猛蚊噬>·<王彭泉湧>·<子平營葬>·<虛之感神>·<黔婁嘗糞>·<叔謙訪藥>·<吉玠代父>·<子輿退水>·<不害捧屍>·<王崇止雹>·<柳遐孝德>·<普林號犬>·<孝肅圖像>·<盧操順母>·<少玄漬骨>·<季詮隨溺>·<許坦擊獸>·<袁師狼馴>·<仁傑望雲>·<文貞穿壙>·<義婦割股>·<唐氏乳姑>·<劉政焚香>·<明達賣子>·<杜羔感親>·<文讓烏助>·<郭琮祈壽>·<壽昌尋母>·<徐積篤行>·<蘇頌救母>·<詹女給賊>·<趙婦鬻子>·<吳二免禍>·<王閏抱父>·<王薦益壽>·<楊皞感天>·<黃贊夢父>·<紹祖衛父>·<湯霖哭冰>·<孫抑救親>·<吳祐奪刀>·<周樂同死>·<王興臥冰>·<甄氏心驚>·<劉氏孝姑>·<知恩賣身>·<薛氏分鏡>·<向德刲髀>·<聖覺養母>·<尉韶割股>·<徐稜得蛙>·<文忠定省>·<婁伯捕虎>·<希參捍母>·<辛氏抱賊>·<潘映買父>·<虫介斷指>·<石氏負姑>·<林氏救姑>·<孝新廬墓>·<自強伏塚>·<石玠斷

21) 春秋館 編, 「成宗實錄」, 成宗 12(1481)年 3月 24(戊戌)日條.

傳旨禮曹曰 國家興亡 由於風俗淳薄 而正風俗 必自正家始 古稱東方貞信不淫 近者士族婦女 或有失行者 予甚慮焉 其印諺文三綱行實烈女圖若干帙 頒賜京中五部及諸道 使村婦巷女 皆得講習 庶幾移風易俗.

22) 春秋館 編, 「成宗實錄」, 成宗 20(1489)年 6月 18(乙巳)日條.

命侍講院輔德許琛·吏曹正郎鄭錫堅刪定三綱行實 琛等啓曰 臣等於三綱行實內 擇人所易曉可以觀感者 各得三十五 摠一百五人 其所記事 實皆簡約 無可刪之辭 且祖宗已成之書 似不宜增損 校書館所藏三綱行實板本 以一人之事 各爲一張 今所抄一百五人 稟旨取捨 用舊本印出 粧爲一冊 廣布何如 傳曰 可.

23) 春秋館 編, 「成宗實錄」, 成宗 21(1490)年 4月 1(癸未)日條.

命頒賜三綱行實于京城五部及八道郡縣 令愚夫愚婦 無不周知.

指>·<貴珍斷指>·<朴善廬墓>·<恩時斷指>·<四月斷指>·<成茂求魚> 등 110인의 孝行事實이 前圖·後文의 形式으로 收錄되어 있다.

□ 特徵

調査本「三綱行實圖 孝子圖」는 원래「三綱行實圖」의 <忠臣圖>와 <孝子圖> 및 <烈女圖> 중 <忠臣圖>와 <烈女圖>는 缺落된 채 <孝子圖> 1冊만 殘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世宗朝의 初刊本 계열의「三綱行實圖」版本은 <孝子圖> 3種, <忠臣圖> 1種, <烈女圖> 1種 등 도합 5種에 지나지 않으며, 그 가운데 高麗大學校 晚松文庫本(후쇄본 추정)과 故 柳鐸一(1934~?) 교수 所藏本의 <孝子圖>는 初刊本에 가까우나 그 외의 3種은 모두 重刊本으로 알려지고 있다.

調査本「東國李相國集」의 進箋題와 序題는「三綱行實圖」이고 目錄題와 卷首題는「三綱行實孝子圖」이며 版心題는「孝子圖」이다. 收錄內容은 卷頭に 宣德 7(1432)년 6월에 孟思誠(1360~1438)이 쓴 進箋文 2장과 宣德 7(1432)년 6월에 權採(1399~1438)가 쓴 序文 3장 및 <孝子圖目錄> 3장이 수록되어 있으며, 本文은 目錄에 수록된 110인의 人物 중 <許孜埋獸>·<孝新廬墓>·<恩時斷指>·<成茂求魚>의 4人 4題가 結락된 106人の 人物이 수록되어 있다. 106인의 수록인물은 前面에는 插圖를 수록하고 後面에는 孝行의 行績과 함께 詩와 贊 등을 수록한 각 1張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調査本「三綱行實圖 孝子圖」는 表紙는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된 것인 듯하며, 本文의 상태는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調査本「三綱行實圖 孝子圖」에는 수록인물마다 1枚씩의 插圖가 수록되어 있으며, 邊欄은 四周雙邊이다. 半郭의 크기는 세로 23.4cm 가로 16.7cm 內外이고 界線이 있으며, 行字數는 13行 22字이고 註는 雙行이다. 版口는 上下大黑口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紙質은 世宗年間의 刊本에서 나타나는 얇은 楮紙이다.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된 것인 듯하며, 冊의 크기는 세로 32.4cm 가로 22.0cm 內外의 大型本이다.

調査本「三綱行實圖 孝子圖」의 本文과 插圖는 版刻이 아주 정교하며 글씨 또한 淨書된 明朝體로 標點이 있다. 전체적인 印面으로 볼 때 版刻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印出된 것인 듯, 印面의 印出狀態가 선명한 편이다.

調査本「三綱行實圖 孝子圖」는 收錄된 文章의 內容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思想史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며, 插圖面에 있어서는 版畫藝術의 研究에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版本의 形態的인 측면에서는 朝鮮時代 前期의 우리나라 印刷文化의 수준을 窺見할 수 있어 書誌學 및 版本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調査本「三綱行實圖 孝子圖」는 集賢殿 直提學 僣循(?~1435) 등이 世宗의 命에 따라 우리나라와 中國의 人物 중에서 君爲臣綱·父爲子綱·夫爲婦綱 등 三綱의 模範이 될 만한 忠臣과 孝子 및 烈女 각각 110人을 選定하고 그림과 文章으로 編纂하여 1434(世宗 16)년에 木版으로 刊行된 初刊本「三綱行實圖」중의 <孝子圖> 1冊이다. 현재 世宗朝의 初刊本 계열의 「三綱行實圖」版本은 <孝子圖> 3種, <忠臣圖> 1種, <烈女圖> 1種 등 도합 5種에 지나지 않으며, 그 가운데 高麗大學校 晚松文庫本(후쇄본 추정)과 故 柳鐸一(1934~?) 교수 所藏本의 <孝子圖>는 初刊本에 가까우나 그 외의 3種은 모두 重刊本으로 알려지고 있다.

調査本「三綱行實圖 孝子圖」는 원래의 「三綱行實圖」 <忠臣圖>·<孝子圖>·<烈女圖> 중 <忠臣圖>와 <烈女圖>는 缺落된 채 <孝子圖> 1책만 전래되고 있으며, 또한 수록된 110인의 인물 중 <許孜埋獸>·<孝新廬墓>·<恩時斷指>·<成茂求魚> 등 4인은 缺落되어 있다. 그러나 調査本「三綱行實圖 孝子圖」의 本文과 插圖는 版刻이 아주 정교하며 글씨 또한 淨書된 明朝體로 標點이 있다. 전체적인 印面으로 볼 때 版刻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印出된 것인 듯, 印面의 印出狀態가 鮮명한 편이다.

調査本「三綱行實圖 孝子圖」는 收錄된 文章의 內容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思想史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며, 插圖面에 있어서는 版畫藝術의 研究에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版本의 形態的인 측면에서는 朝鮮時代 前期의 우리나라 印刷文化의 수준을 窺見할 수 있어 書誌學 및 版本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 문헌자료

僣循 等 奉命撰, 「三綱行實圖 孝子圖」. 木版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世宗 16(1434) 頃]. 趙昌鉉 所藏本.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千惠鳳 著, 「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1997.

○ 기 타

調査本「三綱行實圖 孝子圖」는 慶北 榮州市 順興面 裴店里 한서통나무주택 307호의 曹昌鉉의 所有이며, 일찍이 購入을 통하여 收藏·管理해 오고 있다고 한다. 調査本「三綱行實圖 孝子圖」의 保存狀態는 비교적 良好한 편이나, 卷頭의 數張과

版心部分은 磨滅이 심하며 또한 수록된 110인의 인물 중 <許孜埋獸>·<孝新廬墓>·<恩時斷指>·<成茂求魚> 등 4인은 缺落되어 있다. 따라서 裱貼匠을 통한 表紙의 補修와 缺落部分의 復元이 絶실히 요구되며, 專門的인 管理도 필요할 듯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 함.

10. 동국이상국전집 권14~17
(東國李相國全集 卷十四~十七)

가. 검토사항

“동국이상국전집 권14~17”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0년도에 진행된 개인소장동산문화재 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문화재 중 선정이 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11.1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동국이상국전집 권14~17 (東國李相國全集 卷十四~十七)
- 소유자 : 조창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 수 량 : 4권1책(권14~17)
- 규 격 : 32.5×22.2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고려말기
- 현 상 : 四周單邊, 半郭 22.1×17.3cm, 無界, 10行18~20字, 註雙行.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부족함)

고려시대의 문집으로 오늘날 전존하는 숫자는 20여종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규모가 방대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자료적 가치가 큰 것을 들자면 東國李相國集이 단연 으뜸이다.

그러나 대상본은 53권중의 4권인 잔본이고 그나마도 전후에 낙장이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지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그간 알려진 판본만도 國立中央圖書館 16권 4책(卷18-22, 卷31-34, 卷35-37, 卷38-41), 誠庵古書博物館 12권3책(卷1-4, 卷26-29, 卷38-41),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4권1책(卷1-4)이 있고, 이외에도 연세대와 개인 장본들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내에 산존해있는 동종 판본을 종합적으로 일괄조사 평가한 후에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사대상본은 1차적으로 지방유형문화재 지정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정 가치 부족함)

『東國李相國全集』은 고려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였던 白雲居士 李奎報(1168~1241)의 文集으로 卷14~17의 4卷 1冊만이 있는 零本이다. 현재 國立中央圖書館(卷18~22, 卷31~34, 卷35~37, 卷38~41), 誠庵古書博物館(卷1~4, 卷26~29, 卷38~41), 高麗大學校圖書館(卷1~4), 故 柳鐸一 소장본 등이 傳存되고 있으므로 일괄 조사하여 지정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調査本 「東國李相國集」은 高麗中期의 學者이고 文臣이며 宰相이었던 白雲居士 李奎報(1168~1241)의 詩集으로 高麗末期에 木版으로 刊行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調査本 「東國李相國全集」은 원래의 「東國李相國全集」 전체 53권 14책 중 卷14~17의 4卷 1冊만 殘存하는 零本으로, 현재 國立中央圖書館(卷18~22, 卷31~34, 卷35~37, 卷38~41), 誠庵古書博物館(卷1~4, 卷26~29, 卷38~41),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卷1~4), 故 柳鐸一(1934~?) 교수 등에 의하여 傳存되고 있는 「東國李相國集」의 缺帙에도 빠져있는 殘本이다. 또한 印本の 印刷狀態로 볼 때 冊版의 強度가 약해 字劃이 떨어져 나간 곳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는 하나, 冊版의 磨耗度가 거의 보이지 않는 版刻의 상태로 보아 版刻된 直後에 印出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뿐만 아니라 글자의 排列이 고르지 않고 비스듬히 기

올어져 있는 등의 活字本의 특징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行여 活字本의 翻刻이 아닌가 한다.

調査本 「東國李相國集」은 收錄된 文章의 內容的 측면에서는 高麗時代 詩文學 및 漢文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며, 版本의 形態的인 측면에서는 麗末鮮初의 우리나라 木版印刷文化의 수준을 窺見할 수 있어 書誌學 및 版本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參照하건대 調査本 「東國李相國集」은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 서지사항

조사대상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東國李相國全集 卷第14-17 / 李奎報(1168-1241) 著 ; 李涵(高麗) 編 ; 木版本.

4卷1冊(78張) : 四周單邊, 半郭 22.1×17.3cm, 無界, 10行18-20字 註雙行, 白口, 無魚尾 ; 22.0×16.2cm. 楮紙. 線裝(五針眼訂).

卷首題: 東國李相國全集

卷末題: 東國李相國全集

版心題: 李相國集

표지: 改裝

刻手: 朴分(卷16第8,9張 版心下), 金下(卷17第3張 版心下)

落張: 卷第14 제1장앞면, 卷第17 第7장, 卷第17 第21장.

□ 상태

전체적으로 훼손과 마멸이 심하며, 표지는 개장한 것이다. 고려 말기에 목판으

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다. 전집(全集) 41권과 후집(後集) 12권 도합 53권 14책 가운데, 卷第14-17의 4권 1책이다. 그 내용은 4권 모두 고율시(古律詩)이다. 권제14의 제1장 앞면의 위치에 전집(全集) 권제 4의 후반부에 수록된 시 2수가 붙어 있어서 전래과정 중에 옮겨 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권제17의 第7張과 第21張이 낙장이다. 보존상태는 전체적으로 부량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은 고려시대의 대표적 문인이자 학자인 이규보(李奎報:1168-1241)의 시문집이다. 전집(全集) 41권, 후집(後集) 12권, 합계 53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집 41권은 1241(고종 28)년 8월에, 후집 12권은 동(1241)년 12월에 아들 이함(李涵)이 저자의 초고를 수집편차하여 목판본(53권 14책)으로 초간하였다. 그러나 초간본에 오류와 결락이 많아 1251(고종 38)년에 손자 이익배(李益培)가 교감을 거쳐 분사대장도감에서 다시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수(李需)의 서문과 이함이 정리한 년보가 있고 권1에 고부(古賦)·고율시(古律詩), 권2-18에 고율시, 권19에 상량문·구호(口號)·송찬명(頌讚銘), 권20에 운어(韻語)·어록(語錄)·전(傳), 권21에 설(說)·서(序), 권22 잡문(雜文), 권23-24에 기(記), 권25에 기(記)·방문(榜文)·잡저(雜著), 권26-27에 서(書), 권28에 서장(書狀)·표(表), 권29에 표권(表券), 권30에 표전장(表牋狀), 권31에 표(表), 권32에 장(狀), 권33에 교서(敎書)·비답·조서, 권34에 교서·응제(應製)·관고(官誥), 권35에 비명(碑銘)·묘지(墓誌), 권36에 묘지·뇌서(誄書), 권37에 애사(哀詞)·제문(祭文), 권38에 도량초소(道場醮疏)·제문(祭文), 권39에 불도소(佛道疏), 권40에는 석도소(釋道疏)·제축(祭祝), 권41에 석도소(釋道疏)가 수록되어 있다. 후집의 권1-10에는 고율시, 권11에는찬(贊)·서(序)·기(記)·잡의(雜議)·문답(問答), 권12에는 서(書)·표(表)·잡저(雜著)·묘지 등이 수록되어 있고 권말미에는 뇌서(誄書) 및 묘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의 시대가 국내에서는 최씨의 무신집권기이고, 국제적으로는 몽고의 침략을 받은 혼란한 시기였던 관계로 문집중에는 저자의 뛰어난 필치를 빌려 시와 산문으로 표현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다수를 점한다. 고려를 대표하는 문인이라는 점에서도 학술사적으로 또는 문학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자료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고려시대의 문집으로 오늘날 전존하는 숫자는 20여종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규모가 방대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자료적 가치가 큰 것을 들자면 東國李相國集이 단연 으뜸이다.

그러나 대상본은 53권중의 4권인 잔본이고 그나마도 전후에 낙장이 있는 책이라

는 점에서 지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그간 알려진 판본만도 國立中央圖書館 16권 4책(卷18-22, 卷31-34, 卷35-37, 卷38-41), 誠庵古書博物館 12권3책(卷1-4, 卷26-29, 卷38-41),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4권1책(卷1-4)이 있고, 이외에도 연세대와 개인 장본들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내에 산존해있는 동종 판본을 종합적으로 일괄조사 평가한 후에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사대상본은 1차적으로 지방유형문화재 지정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 타

권제14 제1장 전면 탈락부분(문집총간본 전재)

東國李相國全集卷第十四

古律詩

春日訪山寺

風和日暖鳥聲喧。垂柳陰中半掩門。滿地落花僧醉臥。山家猶帶太平痕。

寓古

省飲猶可期。忍言非不易。細思此浮生。倏若過隙駒。一朝暝雙目。祖送北邙趾。雖欲作狂態。白骨能復起。雖欲與人語。其奈幽明異。白楊風蕭蕭。三尺墳空峙。尺墳未可保。樵牧踏皆圯。鬻體

□

○ 현 상 : 四周單邊, 半郭 22.1×17.3cm, 無界, 10行18~20字, 註雙行.

권14의 1장 전면, 권17의 7장과 21장은 缺張되어 권14은 18장, 권15은 19장, 권16은 20장, 권17은 21장으로 전체 78장임.

○ 내용 및 특징

『東國李相國集』은 고려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였던 白雲居士 李奎報(1168~1241)의 詩文集이다. 全集 41卷, 後集 12卷, 모두 53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들 李涵이 1241(고종 28)년 8월에 전집 41권을 동년 12월에 후집 12권을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그 후 1251(고종 38)년에 칙명으로 손자 李益培가 교정, 증보하여 分司大藏都監에서 改刊하였다. 수록된 내용은 전집에는 詩·賦·傳을 비롯한 문학적인 글과 書·狀·表 등 몽고외침에 대항하고 있을 때 몽고원수와 재상에게 보내는 글과 임금의 敎書, 批答, 詔書 그리고 碑銘, 誄書, 哀詞, 祈雨文, 祭文, 佛道疏, 祭祝 등

장례나 제사, 불교행사에 관한 글이다. 後集에는 권1~10은 古律詩, 권11에는 贊·序·記·雜議·問答, 권12에는 書·表·雜著·墓誌 등이 수록되어 있고 末尾에는 鄭芝가 지은 이규보의 誄書 및 李需가 지은 墓誌銘에 이어 李益培의 발문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東明王篇」은 우리나라 장편의 민족서사시이며 역사, 문학, 민속학 등에 좋은 자료이다. 「白雲居士傳」은 이규보의 자전적 傳記이며, 「大藏經刻板祈告文」은 팔만대장경 관각의 연혁을 알 수 있으며, 「新印詳定禮文跋尾」은 금속활자의 사용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책은 『東國李相國全集』 41권 중 卷14~17에 해당하는 4卷 1冊의 零本이며, 내용은 古律詩만 수록되어 있다. 권두의 첫 앞면은 권차가 다른 권4의 16장 앞면이 붙어있고 권14의 1장 앞면, 권17의 7장과 21장이 결락된 상태이다. 版心題은 ‘李相國集’이며, 권16의 8~9장에는 ‘朴分’, 권17의 3장에 ‘金下’라는 刻手名이 판심 하단에 새겨져 있다. 인쇄상태는 자획이 떨어져 나간 곳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는 하나, 마멸은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版刻된 直後에 印出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表紙는 改裝하였고 保存狀態는 양호한 편은 아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東國李相國全集』은 고려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였던 白雲居士 李奎報(1168~1241)의 文集으로 卷14~17의 4卷 1冊만이 있는 零本이다. 현재 國立中央圖書館(卷18~22, 卷31~34, 卷35~37, 卷38~41), 誠庵古書博物館(卷1~4, 卷26~29, 卷38~41), 高麗大學校圖書館(卷1~4), 故 柳鐸一 소장본 등이 傳存되고 있으므로 일괄 조사하여 지정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문헌자료

李奎報, 『(國譯)東國李相國集』 I-VII.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0.

千惠鳳, 「東國李相國全集」, 『선본해제 VII』, 국립중앙도서관, 2005.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東國李相國集」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東國李相國集 卷14~17 / 李奎報(1168~1241) 著 ; 李涵(高麗) 編 ; 李益培(高麗) 增修. -- 木版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高麗末期 推定].

4卷1冊(78張) : 四周單邊, 半郭 22.1×17.3cm, 無界, 10行18~20字 註雙行, 白口, 無魚尾 ; 22.0×16.2cm. 楮紙. 線裝(五針眼訂).

卷首題: 東國李相國全集

卷末題: 東國李相國全集

版心題: 李相國集

表紙: 改裝

刻手: 朴分(卷16第8-9張 版心下), 金下(卷17第3張 版心下)

添張: 卷4第16張(前面)

缺張: 卷14第1張前葉, 卷17第7張, 卷17第21張

內容: -卷14; 古律詩. -卷15; 古律詩. -卷16; 古律詩. -卷17; 古律詩.

狀態: 全體的으로 毀損과 磨滅이 甚하여 補修가 要求됨

□ 現狀

調査本「東國李相國集」은 高麗中期的 學者이고 文臣이며 宰相이었던 白雲居士 李奎報(1168~1241)의 詩集으로 高麗末期에 木版으로 刊行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調査本「東國李相國集」은 慶北 榮州市 順興面 裴店里 한서통나무주택 307호의 曹昌鉉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원래의 「東國李相國全集」 53권 14책 중 卷 14·15·16·17의 4卷 1冊만 殘存하는 零本으로, 그 내용은 卷14~17의 전체에 古律詩만 수록되어 있다.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22.1cm 가로 17.3cm 內外이며, 冊의 크기는 세로 22.0cm 가로 16.2cm 內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裝訂은 印面보다 더 큰 表紙를 덧대어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하였으므로 別다른 의미가 없는 듯하다.

調査本「東國李相國集」의 保存狀態는 매우 不良한 편이다. 卷14第의 第1張 前葉, 卷17의 第7張과 第21張이 결락된 상태이다. 따라서 裱貼匠을 통한 裱貼과 補修가 절실히 要求되며 專門的인 管理도 필요할 듯하다.

○ 內容 및 특징

□ 內容

「東國李相國集」의 原書名인 「東國李相國全集」은 高麗中期的 文臣이자 大學者인 李奎報(1168~1241)의 詩文集으로 일반적으로 「東國李相國集」으로 通稱되고 있다. 李奎報의 初諱는 仁低이고 字는 春卿이며, 號는 白雲居士·三酷好先生·止止軒 등으로 다양하다. 저서로 「東國李相國集」 외에도 「白雲小說」이 있었으나 현재 「白雲小說」의 原本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원래 「東國李相國集」은 全集 41卷, 後集 12卷, 合計 53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全集 41卷은 1241(고종 28)년 8월에, 後集 12卷은 동(1241)년 12월에 아들 李涵이 白雲居士의 草稿를 蒐集하고 編次하여 木版本(53卷 14冊)으로 初刊하였다. 그러나 初刊本에 誤謬와 缺落이 많아 1251(고종 38)년에 손자 李益培가 이를 改修하여 分司大藏都監에서 增補版을 刊行하였다. 원래는 卷頭에 李需가 1241(고종 38)년에 쓴 <序文>과 李涵이 整理한 <年譜>가 있고 권1에는 古賦·古律詩, 권2~18에는 古律詩, 권19에는 上樑文·口號·頌讚銘, 권20에는 韻語·語錄·傳, 권21에는 說·序, 권22에는 雜文, 권23~24에는 記, 권25에는 記·榜文·雜著, 권26~27에는 書, 권28에는 書狀·表, 권29에는 表券, 권30에는 表牋狀, 권31에는 表, 권32에는 狀, 권33에는 敎書·批答·詔書, 권34에는 敎書·應製·官誥, 권35에는 碑銘·墓誌, 권36에는 墓誌·誄書, 권37에는 哀詞·祭文, 권38에는 道場醮疏·祭文, 권39에는 佛道疏, 권40에는 釋道疏·祭祝, 권41에는 釋道疏가 수록되어 있다. 後集의 권1~10에는 古律詩, 권11에는 贊·序·記·雜議·問答, 권12에는 書·表·雜著·墓誌 등이 수록되어 있고 末尾에는 誄書 및 墓誌銘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인 白雲居士는 高麗 武臣亂의 와중에서 태어나 전국적인 民亂과 蒙古의 侵入 등 高麗의 격동기 속에 평생을 보내고 ‘高麗 李氏 宰相의 文集(『東國李相國集』)’이라는 書名에 나타나듯이 최고위 관직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런 만큼 그의 詩文集 속에는 다양한 思惟와 經驗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많은 詩篇 중에서도 특히 敘事詩 <東明王篇>은 282句에 이르는 長篇으로, 高句麗 建國의 神話를 웅장하게 서술한 작품이다. 그의 詩文集에는 詩篇뿐만 아니라 詩論도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또한 <麴先生傳>과 <淸江使者玄夫傳>은 당시 假傳體文學의 대표작으로, <麴先生傳>은 술(酒)을 擬人化하여 理想的인 人間像을 제시하고 <淸江使者玄夫傳>은 漁夫에게 사로잡힌 거북을 통하여 人間事의 興亡과 成敗를 논하였다. 『舊三國史』의 存在와 내용의 일부, 再雕大藏經 板刻의 沿革, 金屬活字 使用의 事實 등 귀중한 歷史的 史實들도 수록되어 있다.

白雲居士의 詩文은 古人을 답습하지 않고 자유분방한 氣風을 지녔다는 評價로부터 民衆의 입장에서 당시의 社會相을 眞實하게 반영하고 民族과 愛國의 精神을 뛰어나게 노래하였다는 評價에 이르기까지 매우 肯定的인 好評을 받아 왔다.

□ 特徵

調査本 『東國李相國集』은 원래의 『東國李相國集』 53권 14책 중 권14~17의 4卷 1冊만 殘存하는 零本이다. 현재 『東國李相國集』의 殘本은 國立中央圖書館(卷18~22, 卷31~34, 卷35~37, 卷38~41), 誠庵古書博物館(卷1~4, 卷26~29, 卷38~41),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卷1~4), 故 柳鐸一(1934~?) 교수 등에 의하여 傳存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翻刻된 후에 다시 補刻이 포함된 版本도 있다. 『東國李相國集』은

朝鮮時代에도 여러 차례 刊行되었으나 英祖朝에 翻刻된 版本이 完本으로 流通되어 오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러 차례 刊行된 바 있으며, 특히 民族文化推進會에 의하여 翻譯本이 出刊된 바도 있다.

調査本 「東國李相國集」의 卷首題와 卷末題는 ‘東國李相國全集’이고 版心題는 ‘李相國集’이며, 卷冊數는 卷14·15·16·17의 4卷 1冊이고 收錄된 內容은 古律詩로 構成되어 있다. 卷16 第8-9張의 版心下에는 ‘朴分’의 刻手名이 있고 卷17 第3張의 版心下에는 ‘金下’의 刻手名이 있다.

調査本 「東國李相國集」은 落帙本을 改裝하여 1冊으로 裝訂한 듯하며, 그 결과 添張과 缺張된 부분이 있다. 권14의 頭部에 권4 제16장 前葉의 <爲祿山起第>가 添張되어 있다. 반면에 卷14의 제1장에 해당하는 <春日訪山寺>의 전부와 <寓古>의 일부는 缺落되어 있고, 권17의 제7장에 해당하는 <二月苦寒>의 일부와 <江村路中>의 전부 및 <庾大諫敬玄邀飲同寮出所蓄水精杯請予賦之>의 일부는 缺落되어 있으며, 권17의 제21장에 해당하는 <漫成>의 일부와 <四月七日又吟>·<苦熱>·<苦雨>의 전부 및 <辛卯七月復京後有題>의 일부도 缺落되어 있다.

調査本 「東國李相國集」의 特記할만한 事項은 <嘲醉僧夜起嚼冰>와 <己卯四月日得桂陽守將渡祖江有作>이 調査本의 경우에는 권14의 末尾에 수록되어 있는 반면, 英祖朝에 翻刻된 流通本의 경우에는 卷15의 末尾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調査本 「東國李相國集」은 冊版의 磨滅과 縮小로 인하여 邊欄과 半郭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편이다. 邊欄은 四周單邊이며, 半郭의 크기는 세로 22.1cm 가로 17.3cm 内外이다. 界線은 없고 行字數는 10行 18~20字로 出入이 있으며, 註는 雙行이다. 版口는 白口이고 魚尾는 없으며, 紙質은 楮紙이다. 表紙는 印面보다 더 큰 表紙를 덧대어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하였으며, 冊의 크기는 22.0×16.2cm 内外이나 改裝으로 인하여 더 커졌으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듯하다.

調査本 「東國李相國全集」은 印本의 印刷狀態로 볼 때 冊版의 強度가 약해 字劃이 떨어져 나간 곳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는 하나, 冊版의 磨耗度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보아 版刻된 直後에 印出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글자의 排列이 고르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등의 活字本의 특징도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活字本의 翻刻이 아닌가 한다.

調査本 「東國李相國全集」은 收錄된 文章의 內容의 측면에서는 高麗時代 詩文學 및 漢文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며, 版本의 形態的인 측면에서는 麗末鮮初의 우리나라 木版印刷文化의 수준을 窺見할 수 있어 書誌學 및 版本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참작하건대 調査本 「東國李相國全集」은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

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調査本 「東國李相國集」은 高麗中期의 學者이고 文臣이며 宰相이었던 白雲居士 李奎報(1168~1241)의 詩集으로 高麗末期에 木版으로 刊行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調査本 「東國李相國全集」은 원래의 「東國李相國全集」 전체 53권 14책 중 卷14~17의 4卷 1冊만 殘存하는 零本으로, 현재 國立中央圖書館(卷18~22, 卷31~34, 卷35~37, 卷38~41), 誠庵古書博物館(卷1~4, 卷26~29, 卷38~41),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卷1~4), 故 柳鐸一(1934~?) 교수 등에 의하여 傳存되고 있는 「東國李相國集」의 缺帙에도 빠져있는 殘本이다. 또한 印本の 印刷狀態로 볼 때 冊版의 強度가 약해 字劃이 떨어져 나간 곳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는 하나, 冊版의 磨耗度가 거의 보이지 않는 版刻의 상태로 보아 版刻된 直後에 印出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뿐만 아니라 글자의 排列이 고르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등의 活字本의 특징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行여 活字本의 翻刻이 아닌가 한다.

調査本 「東國李相國集」은 收錄된 文章의 內容的 측면에서는 高麗時代 詩文學 및 漢文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며, 版本의 形態的인 측면에서는 麗末鮮初의 우리나라 木版印刷文化의 수준을 窺見할 수 있어 書誌學 및 版本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참작하건대 調査本 「東國李相國集」은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문헌자료

李奎報 著, 李涵 編, 李益培 增修, 「東國李相國集」. 木版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高麗末期 推定]. 曹昌鉉 所藏本.

李奎報 著, 「東國李相國集」.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93.

李奎報 著, 「東國李相國集」. 影印本. 서울, 東國文化社, 1958.

李奎報 著, 民族文化推進會 譯, 「(國譯)東國李相國集」. I-VII.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0.

李奎報 著, 「東國李相國集」. (影印 標點)韓國文集叢刊. 1-2.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2.

李奎報 著, 「東國李相國集」. (CD-ROM)東國李相國集. 서울, 누리미디어, 1999.

李奎報 著, 「東國李相國集」. 서울, 一潮閣, 2000.

金泰旭, 高麗 武人政權期 「東國李相國集」의 編纂과 刊行. 春川, 翰林大學校 아
시아文化研究所, 1986- .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千惠鳳 著, 「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1997.

○ 기 타

調査本 「東國李相國集」은 慶北 榮州市 順興面 裋店里 한서통나무주택 307호의
曹昌鉉의 所有이며, 일찍이 購入을 통하여 收藏·管理해 오고 있다고 한다. 調査本
「東國李相國集」의 保存狀態는 매우 不良한 편이라, 裱貼匠을 통한 裱貼과 補修가
절실히 요구되며 專門的인 管理도 필요할 듯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부결 - 보물로 지정가치 부족함.

11. 도은선생시문집 권3~5(陶隱先生詩文集 卷三~五)

가. 검토사항

“도은선생시문집 권3~5”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0년도에 진행된 개인소장동산문화재 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문화재 중 선정이 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11.1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도은선생시문집 권3~5 (陶隱先生詩文集 卷三~五)
- 소유자 : 조창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 수 량 : 3권 1책
- 규 격 : 세로 27.2(19.7) × 가로 15.3(12.8) 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1401~1418년(태종 연간)
- 현 상 : 四周單邊, 半郭 19.7×12.8cm, 無界, 11行19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黑·無魚尾.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부족함)

조사대상본과 동일한 판본이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보물 1465호, 계명대동산도서관, 2006.4.28 지정)되어 있다. 지정본은 5권 1책의 완본인데 비하여 조사대상본은 2권이 결락된 영본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조선초기의 문집간본은 전래되는 것이 극히 적다는 점에서 지방 유형문화재 지정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陶隱先生集』은 高麗末期의 學者이며 名臣이었던 陶隱 李崇仁(1347~1392)의 詩文集 권3~5의 零本 1책으로 朝鮮 太宗年間(1401~1418)에 刊行된 木版本이다. 권3은 詩集, 권4~5은 文集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동일본인 보물 제 1465호(계명대학교 소장, 2006.4. 지정) 5권1책(권1~5)은 권두에 권근의 奉敎序가 있고, 권1~3 '陶隱先生詩集', 권4~5 '陶隱先生文集'에 이어 권말에는 牧隱 李穡과 三峯 鄭道傳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 판본에 비해 이 책은 권3~5의 零本인데다 卷3 1~4張과 5張의 전면, 卷4의 6張, 卷5 말미의 2張이 缺落되어, 각권에 缺張이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高麗末期의 學者이며 文臣이었던 陶隱 李崇仁(1347~1392)의 詩文集으로 朝鮮時代 太宗年間(1401~1418)에 木版으로 刊行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원래의 「陶隱先生詩文集」 전체 5권 2책 중 卷3·4·5의 3卷 1冊만 殘存하는 詩文集이나, 本文의 版刻과 印刷狀態가 비교적 良好한 初刊本이다.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收錄된 詩文의 內容的 측면에서는 고려시대 漢文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며, 版本의 形態的인 측면에서는 朝鮮時代 前期의 우리나라 印刷文化의 수준을 窺見할 수 있어 書誌學 및 版本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參작하건대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 서지사항

조사대상본인 『도은선생집(陶隱先生集)』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陶隱先生詩文集 卷3-5 / 李崇仁(1347-1392) 著 ; 卞季良(1369-1430) 編. 木版本.

[太宗年間(1401-1418) 推定].

3卷1冊 : 四周單邊, 半郭 19.7×12.8cm, 無界, 11行19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黑·無魚尾 混用 ; 27.2×15.3cm. 楮紙. 線裝(五針眼訂).

卷首題: 陶隱先生詩集(卷3, 推定), 陶隱先生文集(卷4·5)

卷末題: 陶隱先生詩集(卷3), 陶隱先生文集(卷4), 陶隱先生文集(卷5, 推定)

版心題: 陶詩(卷3) 陶文(卷4·5)

表紙: 缺落

內容: -卷3, 詩. -卷4, 文(記·誌·序). -卷5, 文(雜著·表箋)

□ 상태

이 문집에는 권3의 제1-4장과 제5장의 전면(前面), 권4의 제4-8장, 그리고 권5의 하정전(賀正牋) 이하가 결락(缺落)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전후의 표지가 없는 등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하다.

□ 현상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高麗末期의 學者이며 文臣이었던 陶隱 李崇仁(1347-1392)의 詩文集으로 朝鮮時代 太宗年間(1401-1418)에 木版으로 刊行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慶北 榮州市 順興面 裋店里 한서통나무주택 307호의 曺昌鉉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원래의 「陶隱先生詩文集」 전체 5권 2책 중 卷3·4·5의 3卷 1冊만 殘存하는 木版本으로 내용은 詩文集이다.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19.7cm 가로 12.8cm 內外이며, 冊의 크기는 세로 27.2cm 가

로 15.3cm 内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는 缺落되었으나 裝訂은 五針眼訂으로 線裝하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의 保存狀態는 매우 不良한 편이다. 表紙의 缺落은 물론 卷3 第1-4張의 全葉과 第5張의 前葉, 卷4의 第4-8張 全葉, 卷5의 말미의 數張은 缺落되었으며, 또한 전체적으로도 磨滅이 심한 편이다. 따라서 裱貼匠을 통한 裱貼과 補修가 絶실히 要求되며 專門的인 管理도 필요할 듯하다.

○ 내용 및 특징

□ 내용

조사본인 『도은선생집(陶隱先生集)』은 고려말의 문신이자 학자인 도은(陶隱)이송인(李崇仁:1347-1392)의 시문집이다. 1406(태종 6)년에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추증하고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리면서 유고를 모아 간행하라는 태종의 명에 의하여 변계량(卞季良:1369-1430)이 편집하고 권근(權近:1352-1409)이 서를 써서 詩集 3권과 문집 2권 등 도합 5권 2책으로 간행하였다. 이외에도 2종의 판본이 더 있다.

□ 특징

조사본인 『도은선생집(陶隱先生集)』 조선초기 목판본으로 계선(界線)이 없고 본문의 첩차(疊字)의 경우에는 중복표시를 하고 한자(漢字)를 쓰지 않는 등의 고려말 조선초기 본의 기풍이 남아 있다. 특히 조선조에 간행된 문집으로는 최초의 문집에 해당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조사대상본과 동일한 판본이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보물 1465호, 계명대동산도서관, 2006.4.28지정)되어 있다. 지정본은 5권 1책의 완본인데 비하여 조사대상본은 2권이 결락된 영본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조선초기의 문집간본은 전래되는 것이 극히 적다는 점에서 지방 유형 문화재 지정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

○ 현 상 : 四周單邊, 半郭 19.7×12.8cm, 無界, 11行19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黑·無魚尾. 卷3의 1~4張과 5張의 전면, 卷4의 6張, 卷5의 말미 2張 등이 缺落되었다.

○ 내용 및 특징

『陶隱先生集』은 高麗末 三隱의 한사람인 陶隱 李崇仁(1347~1392)의 詩文集이다. 太宗의 命에 의해 卞季良(1369~1430)이 編次하고 權近(1352~1409)의 序와 鄭道傳(1342~1398) 跋를 실어 詩集 3권, 文集 2권 등 5권으로 1406(태종 6)년에 刊行된 목판본이다. 內容은 卷1~3은 詩. 卷4, 記·誌·序. 卷5, 雜著·表箋 이 수록되어 있다.

이 『陶隱先生集』은 전체 5권 중 卷3·4·5의 3卷 1冊만 殘存하는 零本이며, 太宗年間(1401~1418)에 간행한 목판본이다. 內容은 卷3에는 五·六·七言絶句 詩 권4의 文에는 記·誌·序 卷5의 文에는 雜著·表箋 등이 수록되어 있다. 表紙와 卷3의 卷3의 1~4張과 5張의 전면, 卷4의 6張, 卷5의 말미 2張 등이 缺落되었다. 판식은 계선이 없고 본문 의 첩자인 경우는 한자를 쓰지 않고 중복표시를 하여 여말 선초의 판본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卷3의 卷首題와 卷末題는 ‘陶隱先生詩集’이고 卷4·5의 卷首題와 卷末題는 ‘陶隱先生文集’이며, 卷3의 版心題는 ‘陶詩’이고 卷4·5의 版心題는 ‘陶文’이다. 本文의 版刻과 印刷狀態가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문학과 도학을 겸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친 문인으로서 이송인의 사상과 漢文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가 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陶隱先生集』은 高麗末期의 學者이며 名臣이었던 陶隱 李崇仁(1347~1392)의 詩文集 권3~5의 零本 1책으로 朝鮮 太宗年間(1401~1418)에 刊行된 木版本이다. 권3은 詩集, 권4~5은 文集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동일본인 보물 제1465호(계명대학교 소장, 2006.4.지정) 5권1책(권1~5)은 권두에 권근의 奉敎序가 있고, 권1~3 ‘陶隱先生詩集’, 권4~5 ‘陶隱先生文集’에 이어 권말에는 牧隱 李穡과 三峯 鄭道傳의 跋문이 수록되어 있는 판본에 비해 이 책은 권3~5의 零本인데다 卷3 1~4張과 5張의 전면, 卷4의 6張, 卷5 말미의 2張이 缺落되어, 各권에 缺張이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 하다고 판단된다.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查本 「陶隱先生詩文集」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陶隱先生詩文集 卷3~5 / 李崇仁(1347~1392) 著 ; 卞季良(1369~1430) 編.
-- 木版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太宗年間(1401~1418) 推定].
3卷1冊 : 四周單邊, 半郭 19.7×12.8cm, 無界, 11行19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

黑·無魚尾 混用 ; 27.2×15.3cm. 楮紙. 線裝(五針眼訂).

卷首題: 陶隱先生詩集(卷3, 推定), 陶隱先生文集(卷4·5)

卷末題: 陶隱先生詩集(卷3), 陶隱先生文集(卷4), 陶隱先生文集(卷5, 推定)

版心題: 陶詩(卷3) 陶文(卷4·5)

表紙: 缺落

缺張: -卷3, 第1-4張, 第5張前葉. -卷4, 第4-8張. -卷5, 卷末數張.

內容: -卷3, 詩. -卷4, 文(記·誌·序). -卷5, 文(雜著·表箋)

狀態: 全體的으로 毀損이 甚하여 補修가 要求됨

□ 現狀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高麗末期의 學者이며 文臣이었던 陶隱 李崇仁(1347~1392)의 詩文集으로 朝鮮時代 太宗年間(1401~1418)에 木版으로 刊行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慶北 榮州市 順興面 裋店里 한서통나무주택 307호의 曹昌鉉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원래의 「陶隱先生詩文集」 전체 5권 2책 중 卷3·4·5의 3卷 1冊만 殘存하는 木版本으로 內容은 詩文集이다.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19.7cm 가로 12.8cm 內外이며, 冊의 크기는 세로 27.2cm 가로 15.3cm 內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는 缺落되었으나 裝訂은 五針眼訂으로 線裝하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의 保存狀態는 매우 不良한 편이다. 表紙의 缺落은 물론 卷3 第1-4張의 全葉과 第5張의 前葉, 卷4의 第4-8張 全葉, 卷5의 말미의 數張은 缺落되었으며, 또한 전체적으로도 磨滅이 심한 편이다. 따라서 裱貼匠을 통한 裱貼과 補修가 絶실히 要求되며 專門的인 管理도 필요할 듯하다.

○ 內容 및 특징

□ 內容

「陶隱先生詩文集」은 高麗末의 文臣이자 大學者였던 陶隱 李崇仁(1347~1392)의 詩文集이다. 「陶隱先生詩文集」은 1406(태종 6)년에 陶隱에게 吏曹判書를 追贈하고 ‘文忠’이라는 諡號를 내리면서 그의 遺稿를 모아 刊行하라는 國王의 下命에 따라 卞季良(1369~1430)이 編次하고 權近(1352~1409)이 序를 지어 詩集 3권과 文集 2권 등 道합 5권 2책으로 初刊되었으나, 太宗年間(1401~1418)에 刊行된 것으로 推定될 뿐 精確한 刊行年度는 精確하지 않다.

初刊本이 간행된 후에도 刊行年度가 명확하지 않은 2종류의 版本이 더 간행되었다. 그 중 하나는 卷首에 李穡(1328~1396)·張溥(明)·高巽志(明)의 跋文과 周倬(明)·鄭道傳(1342~1398)·權近(1352~1409)의 序文이 수록되어 있는 9행 15자의 木版本(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晚松265>)이며, 다른 하나는 卷首의 跋이 卷末에 수록되어 있는 12행 22자의 木版本(국립중앙도서관 <古3648-文62-22>)이다. 이들 2가지 판본은 詩集 3권과 文集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詩集의 편차는 동일하나 文集은 일부 編次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版式에 있어서도 前者의 특징은 글자가 크며 詩를 대부분 2句 1聯씩 板刻하였다.

그 후 崔昱(1539~1612)이 晉州牧使로 재임 중 方伯의 도움을 받아 通判家에 소장된 「綱目」을 字本으로 詩集 약간 帙을 간행하였다. 이는 당시에 舊本을 求得하기 힘들고 남아 있는 版本들도 모두 小字本이었기 때문에 大字本으로 간행하였던 것이다. 이 版本은 崔昱이 애당초 약간 帙만을 印出하여 同趣者들에게만 배포하였던 연유 때문인지 현재 傳來本이 없다.

1863(고종 5)년에 후손 李俊浩과 李道復 등이 年譜와 行狀을 撰하고 諸賢의 文字를 수집하여 附錄 2권을 編次하여 原集의 뒤에 붙여 7권 3책으로 간행하였다. 이때 原集의 5권은 12행 22자 版本의 木版을 後刷하고 序와 目錄 및 附錄의 2권은 11행 20자의 木活字로 간행하여 合編하였는데,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晚D1-423A)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 1901년에 19세손 李圭衡이 여러 史書와 諸賢의 文集을 근거로 年譜를 다시 만들고 陶隱의 遺文과 諸賢唱酬敘述諸篇 및 문헌에 산견되는 陶隱의 事行을 모아 續集을 만들었다. 그리고 原集에 頭註를 달고 詩體과 文體別로 편차하여 7권 2책의 木版本으로 慶北 星州郡 修倫面 二樂亭에서 刊行하였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古3648-文62-23)에 소장되어 있다.

원래 「陶隱先生詩文集」에는 卷首에 李穡·張溥·高巽志의 跋文과 周倬·鄭道傳·權近的 序文이 수록되어 있으며, 1406(태종 6)년에 쓴 權近的 奉教序를 제외하면 모두 陶隱의 생전에 지어진 詩稿의 序文이다. 권1~3은 詩集으로서 詩體別로 編次되어 있는데, 詩題를 알 수 없는 것은 1行을 空行으로 비워 두었으며 대부분 2句를 1聯으로 하여 板刻하였다. 卷1에는 辭 1편과 五·七言古詩 30題가 수록되어 있고 卷2에는 五·七言律詩 154題가 수록되어 있으며, 卷3에는 五·六·七言絶句 153題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는 陶隱이 1383(우왕 9)년과 1388(우왕 14)년에 2차에 걸쳐 中朝에 使行하였을 지은 「奉使錄」에서 뽑은 使行詩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三峯 鄭道傳을 두고 지은 약간 首의 詩가 수록되어 있는데, 後代에 後孫에 의해 간행된 文集에서는 詩題에서 三峯이 삭제되어 있다. 卷4에는 記 7篇과 誌 1篇 및 序 12篇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霜竹軒記>와 <驪興郡神勒寺大藏閣>의

2편은 異版本에는 모두 序 뒤에 編次되어 있다. 卷5에는 傳 2篇, 題後 3篇, 議 1篇, 行狀 1篇, 讚 1篇, 字說 1篇, 表 16篇, 箋 5篇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表·箋 21篇은 대부분 中朝에 올린 事大文字로 <請承襲表>와 <請諡表> 및 <請衣冠表> 등은 문장의 내용이 誠切하다는 황제의 稱讚을 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文章이다. 그밖에 <大夫土廟祭議>와 <進重刊陳滸集說禮記箋> 등도 수록되어 있다.

□ 特徵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원래의 「陶隱先生詩文集」 5권 2책 중 권3~5의 1책으로 卷3에는 詩가 수록되어 있고 卷4~5에는 文이 수록되어 있다. 권4의 文에는 記·誌·序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5의 文에는 雜著·表箋 등이 수록되어 있다. 表紙와 卷3의 卷首의 數張 및 卷5의 卷末의 數張이 缺落되고 없어 序文과 跋文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收錄된 內容은 동일한 版本으로 보이는 他 機關 所藏의 初刊本과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卷3의 卷首題와 卷末題는 ‘陶隱先生詩集’이고 卷4·5의 卷首題와 卷末題는 ‘陶隱先生文集’이며, 卷3의 版心題는 ‘陶詩’이고 卷4·5의 版心題는 ‘陶文’이다. 調査本の 卷3에는 詩가 수록되어 있으나 第1-4張의 全葉과 第5張의 前葉이 결락되어 <正朝宮門帖子乙卯春(奉教製進)>·<別裴中郎>·<內願堂大禪師龜谷雲公蒙賜御筆普賢達磨肖像二卷龜谷覺雲四大字以詩爲賀三首>·<詠可遠宅瑞香>·<擬宮門正朝帖字>·<癸丑年立春陶齋帖字>·<櫻桃>·<題僧舍寓軒>·<絕句二十首用唐詩分字爲韻寄呈民望待制> 등의 전부와 <次人韻辛亥秋>의 末尾의 일부는 漏落되어 있으며, 그 이외의 <無題>·<寄羅李二同年>에서 <題明遠菴>·<題康子野卷> 등까지는 完全하게 收錄되어 있다. 卷4~5에는 文이 수록되어 있다. 卷4에는 <復齋記>·<霜竹軒記>·<驪興郡神勒寺大藏閣記>·<秋興亭記>·<衿州安養寺塔重新記>·<迎日縣新城記>·<星州夢松樓記> 등 記 7篇, <診脈圖誌>의 誌 1篇, <送李浩然赴合浦幕序>·<送鄭達可奉使日本詩序>·<送李侍史知南原序>·<送李慕之赴清州牧詩序>·<送尙州牧使鄭公詩序>·<贈李生序>·<送日本釋有天祐上人還國序>·<大古語錄序>·<送息菴游方序>·<賀姜代言詩序>·<贈朴生詩序>·<送雨千峯上人游方序> 등 序 12篇이 수록되어 있어야 하나, 第4-8張이 결락되어 <驪興郡神勒寺大藏閣記>와 <秋興亭記>의 일부가 漏落되어 있고 그 이외는 完全하게 수록되어 있다. 또한 卷5에는 <草屋子[李震陽]傳>·<題明極卷後>·<裴烈婦傳>·<附[題杜浩錄烈婦傳後]>·<大夫土廟祭議>·<先大夫人[李元具妻]行狀>·<鄉僧止菴寫余陋眞因作讚>·<題金可行詩稿後>·<題千峯詩稿後>·<忠原判官李君及字說> 등의 雜著와 <進重刊陳滸集說禮記箋>·<賀朝廷平定雲南發遣梁王家屬安置濟州表>·<賀登極表>·<賀冊皇太后

表>·<賀郊祀改元表>·<賀正表>·<賀正表>·<冬至表>·<八關表>·<賀節日表>·<陳情表>·<請承襲表>·<請諡表>·<請承襲表>·<謝恩表>·<謝恩表>·<請衣冠表>·<賀正箋>·<賀正箋>·<賀冬至牋>·<賀親祀大廟牋>·<請冠服表> 등의 表箋이 수록되어 있어야 하나, 卷末部分이 결락되어 <賀正箋>은 일부가 漏落되어 있고 <賀冬至牋>·<賀親祀大廟牋>·<請冠服表> 등은 전부가 漏落되어 있다. 그러나 本文의 版刻과 印刷狀態는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의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19.7cm 가로 12.8cm 內外이며, 界線은 없고 行字數는 11行 19字이며 註는 雙行이다. 版口는 白口이고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와 無魚尾가 混用되어 있다. 冊의 크기는 세로 27.2cm 가로 16.2cm 내외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는 缺落되었으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이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本文의 版刻과 印刷狀態가 비교적 良好한 편이며, 收錄된 詩文의 內容의 측면에서는 고려시대 漢文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며, 版本의 形態的인 측면에서는 朝鮮時代 前期의 우리나라 印刷文化의 수준을 窺見할 수 있어 書誌學 및 版本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參작하건대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高麗末期의 學者이며 文臣이었던 陶隱 李崇仁(1347~1392)의 詩文集으로 朝鮮時代 太宗年間(1401~1418)에 木版으로 刊行된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이다.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원래의 「陶隱先生詩文集」 전체 5권 2책 중 卷3·4·5의 3卷 1冊만 殘存하는 詩文集이나, 本文의 版刻과 印刷狀態가 비교적 良好한 初刊本이다.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收錄된 詩文의 內容의 측면에서는 고려시대 漢文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며, 版本의 形態的인 측면에서는 朝鮮時代 前期의 우리나라 印刷文化의 수준을 窺見할 수 있어 書誌學 및 版本學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情況을 參작하건대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아직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정도의 價値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地方有形文化財로 指定하여 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價値는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 문헌자료

李崇仁 著, 卞季良 編, 「陶隱先生詩文集」. 木版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太宗年間(1401~1418) 推定]. 趙昌鉉 所藏本.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千惠鳳 著, 「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1997.

○ 기 타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은 慶北 榮州市 順興面 裨店里 한서통나무주택 307호의 曺昌鉉의 所有이며, 일찍이 購入을 통하여 收藏·管理해 오고 있다고 한다. 調査本 「陶隱先生詩文集」의 保存狀態는 매우 不良한 편이다. 表紙의 缺落은 물론 卷3 第1-4張의 全葉과 第5張의 前葉, 卷4의 第4-8張 全葉, 卷5의 말미의 數張은 缺落되었으며, 또한 전체적으로도 磨滅이 심한 편이다. 따라서 裱貼匠을 통한 裱貼과 補修가 절실히 요구되며 專門的인 管理도 필요할 듯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부결 - 보물로 지정가치 부족함.

【보고사항】

안건번호 동산 2011-02-020

1. 종묘 신림·주림 및 보장·책장 보수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종묘 정전·영녕전 내 원형이 훼손된 종묘 신림·주림 및 보장·책장에 대한 보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나. 보고사유

-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조선왕실 최고의 사당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품격과 존엄성 유지를 위해, 원형이 훼손된 신림·주림 및 보장·책장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고자 함
 - ※ 신림/주림 : 정전·영녕전 각 신실 내 신주 앞/좌우 벽에 걸려있는 대나무 발
 - ※ 보장/책장 : 정전·영녕전 각 신실 내 어보/어책을 보관하는 장

다. 주요내용

- (1) 보 고 자 : 문화재청장(궁능문화재과장)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 4월~12월
 - 사업대상 : 종묘 정전·영녕전 내 신림·주림 97점 및 보장·책장 67점

구 분	수 량			상 태	비 고
	계	정 전	영녕전		
신 림	35	19	16	대올 및 선(緘)의 심한 훼손	
주 림	62	36	26		
보 장	38	22	16	현대식 페인트 칠로 원형 훼손	유물지정 (3급)
책 장	29	22	7		

※ 선(緘) : 신림·주림 가장자리를 두르는 원단

○ 추진방향

- 신림·주림

- 현 유물의 부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훼손상태가 심한 경우 신규제작

구 분	해체보수	제 작	계
신 립	28점	7점 (훼손 5, 보존처리 2)	35점
주 립	57점	5점 (훼손 3, 보존처리 2)	62점
계	85점	12점 (훼손 8, 보존처리 4)	97점

※ 현 유물 중 신림·주림 각 2점은 보존처리하여 보관하고 신규제작으로 대체

- 문헌자료 및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복원

- 보장·책장 : 현 유물의 훼손된 부분 보수

○ 주요내용

- 신림·주림 : 현 유물의 해체, 발 엮음, 선(緘) 두르기 및 부자재 달기
- 보장·책장 : 외부 페인트 제거 및 옷칠, 현대식 자물쇠 제거 및 내부 도배 등 내·외부 보수

○ 소요예산 : 총 4.8억원

- 신림·주림 해체보수 및 제작 : 2.8억원
- 보장·책장 보수 : 2억원

라.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현 유물 실태조사 및 자문회의 실시 : '11. 2. 22 / 2. 24
-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의뢰 : '11. 3월 초
- 사업 착수 : '11. 4월 말
 - ※ 사업기간 중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예정(3회)
- 사업완료 : '11. 12월 말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함.

붙임 : 사진자료 1부.

[붙임]

사 진 자 료

□ 신 령



<신령 현황>



<대울 등 훼손 현황>

□ 주 령



<주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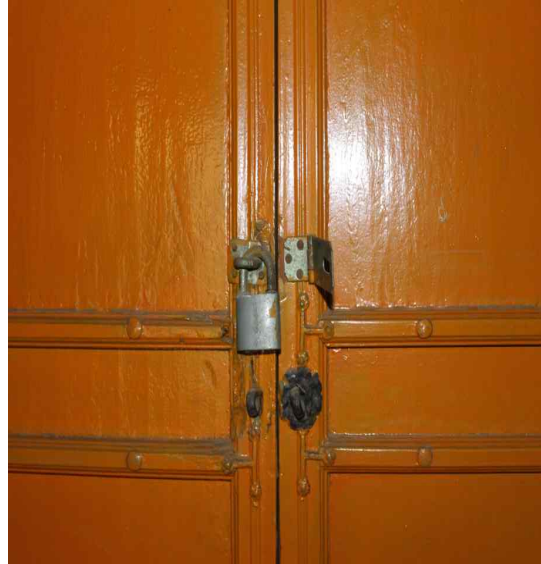


<하단부 훼손 현황>

□ 보 장



<보 장>



<현대식 자물쇠>

□ 책 장



<책 장>



<내부 훼손 현황>

2. 종묘 배향공신당 위패(독) 보수 및 시호 수정

가. 보고사항

종묘 배향공신당의 위패 중 훼손된 위패(독)를 보수하고, 오기된 시호가 있어 위패(독)을 새로 제작·수정 하고자 합니다.

나. 보고사유

- 종묘 정전에 모신 역대 왕들의 공신을 모신 배향공신당의 위패 중 훼손된 것을 보수하고, 시호가 잘못 기재된 위패가 있어 해당 문중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종묘관리소장)
- (2) 대상문화재 : 사적 제125호 종묘 내 배향공신당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 155
- (3) 신청내용 : 배향공신당 위패(독) 보수 및 시호 수정
 - 사업대상 : 종묘 배향공신당 내 8공신 위패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사업금액 : 약 4,000천원
 - 사업내용
 - 위패독(내·외곽) 신규제작 2개 / 위패독(외곽) 신규제작 2개
 - 위패 신규제작 3개 / 위패독 보수 3개
 - 시호기재 : 위패독 4개 / 위패 3개
 - 재주관(載主官, 시호 기재자) 선정
 - 사단법인 대동종약원의 추천을 받아 시행
 - ※ 종묘 배향공신당 위패(83개) 3급 유물 지정

※ 현황 및 보수(수정) 계획

○ 시호 오기 현황 및 수정계획

연번	위 패 독	위 패	배향	고 문서	수정 내용	수정 계획
1	文景公 許稠 <small>문경공 허稠</small>	左議政 文景公 許稠 <small>좌의정 문경공 허稠</small>	4대 세종	조선왕조실록	景자를 敬로 수정	위패/위패독 신규 제작
2	文僖公 申槩 <small>문희공 신개</small>	左議政 文禧公 申槩 <small>좌의정 문희공 신개</small>	4대 세종	조선왕조실록	禧자를 僖자로 수정	위패 신규제작
3	讓寧大君 梲 <small>양녕대군 계</small>	讓寧大君 剛靖公 梲 <small>양녕대군 강정공 계</small>	4대 세종	선원보	梲자를 禔로 수정	위패/위패독 신규제작

○ 위패/위패독 훼손 현황 및 보수계획

연번	위 패 명	배향	훼손 현황	보수 계획
4	宜城君 剛武公 南閔 <small>의성군 강무공 남민</small>	1대 태조	위패독 우측 뒷다리 파손	위패독 뒷다리 보수
5	漢山君 忠靖公 趙仁沃 <small>한산군 충정공 조인욱</small>	1대 태조	위패독 우측 뒷다리 파손	위패독 뒷다리 보수
6	左議政 文忠公 閔鼎重 <small>좌의정 문충공 민정중</small>	17대 효종	위패좌제 정면 상판부분 훼손	훼손부분 접착
7	左議政 文獻公 宋近洙 <small>좌의정 문헌공 송근수</small>	27대 순종	위패보다 위패독이 작아 파손	위패독 신규제작
8	叅政 孝文公 徐正淳 <small>참정 효문공 서정순</small>	27대 순종	위패보다 위패독이 작아 파손	위패독 신규제작

라. 향후추진계획

- 4월 초 : 문화재위원회 보고, 사업시행
- 4월~5월 : 채주관(載主官) 선정
- 5월 중 : 위패(독) 보수 및 제작완료
- 5월 말 : 위패 봉안제 후 공신당에 신규 위패 봉안
- 기존위패는 고궁박물관과 협의 후 이관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함.

- 붙 임 : 1. 현황사진 1부.
2. 자문의견서 1부.
3. 민원서류(하양허씨 문경공파 대종회) 1부.

현 황 사 진

1. 左議政 文景公 許稠
좌의정 문경공 허조



위패독 시호 현황(景)



위패 시호 현황(景)

2. 左議政 文禧公 申槩
좌의정 문희공 신개



위패독 시호 현황(禧)



위패 시호 현황(禧)

3. 讓寧大君 剛靖公 禔
양녕대군 강정공 제



위패독 시호 현황(禔)



위패 시호 현황(禔)

4. 宜城君 剛武公 南閔
의성군 강무공 남은



우측면



파손부위 상세

5. 漢山君 忠靖公 趙仁沃
한산군 충정공 조인욱



위패독 우측면



파손부위 상세

6. 左議政 文忠公 閔鼎重
좌의정 문충공 민정중



위패내케 전면



파손부분 상세

7. 左議政 文獻公 宋近洙
좌 의 정 문 헌 공 송 근 수



전면



하단부 상세(다리부분 노출)

8. 叅政 孝文公 徐正淳
참 정 효 문 공 서 정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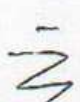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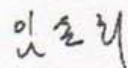

배면






우측면 현황

자 문 의 견 서

자 문 의 견 서(1)

자 문 명	공신당 위패 관련 자문회의			
일 사 / 장 소	2010. 12. 1.(수) / 종묘관리소			
자 문 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향조천공신 복원 관련 ○ 오기된 배향공신 시호수정 관련 ○ 위패독 제작 및 위패좌제 보수관련 			
자 문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향조천공신 복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의 신주가 영녕전으로 조천될 때 배향공신 위패 또한 본가 자손에게 내어주거나 대안 한 기록이 있음. 이미 출급(出給)된 위패를 재배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 본 민원 건은 문화재청 사적분과에 심의를 올려 종결지을 것. ○ 위패독 제작 및 위패좌제 보수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패가 훼손된 것은 조속히 보수 추진 하도록 함. - 순종배향공신 위패독은 위패좌제의 규격에 맞게 신규 제작을 하도록 하며, 잘 마른 소나무로 만들어 갈라짐 현상이 없도록 할 것. - 위패/위패독 보수신규제작은 동산문화재분과에 심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며, 위패의 글씨를 쓸 재주관(裁主官)도 추천받도록 할 것.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 및 영녕전의 책장과 보장은 유물이 고궁박물관에 이관된 후 비어 있어, 세계유산의 금지와 맞지 않으므로 유물의 모조품이라도 진열 하도록 할 것. 모든 실에 다 채워 놓을 수 없으면, 가장 상징성이 있는 세종실(3실) 만이라도 진열 해 놓을 것. 			
자문위원	신 승 운	윤 흥 르	임 든 희	이 가 전
				

자 문 의 견 서(2)

자 문 명	공신당 위패 관련 자문회의			
일 시 / 장 소	2010. 12. 1.(수) / 종묘관리소			
자 문 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향조원공신 복원 관련 ○ 오기된 배향공신 시호수정 관련 ○ 위패독 제작 및 위패좌제 보수관련 			
자 문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기된 배향공신 시호수정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領中樞府奉 貞烈公 崔潤德(4대 세종 공신)의 '潤(젓을 윤)'은 통전 <small>영중주부사 정렬공 의윤덕</small> 최씨 문종의 족보와 기록이 같으므로 이상없음. - 左議政 文敬公 許稠(4대 세종 공신)의 '景(별 경)'은 조선왕조실록 <small>좌의정 문경공 비조</small> 등의 기록에 의거 '敬(공경할 경)'으로 변경하여 위패/위패독을 제작하도록 함. - 左議政 文禧公 申榮(4대 세종 공신)의 '禧'는 조선왕조실록에 의거 <small>좌의정 문희공 신계</small> '禧'로 변경하여 위패를 제작하도록 함. - 議寧大君 剛靖公 綏(4대 세종공신)의 '諤'는 선원보에 의거 '禔'로 <small>의녕대군 강정공 재</small> 변경하도록 함. - 領議政 遜原府院君 忠貞公 鄭昌孫(9대 성종공신)의 '貞'은 조선왕조 <small>영의정 용원부원군 충정공 정창손</small> 실록에 의거 변경하지 않도록 함. - 完叢府院君 贈領議政 忠定公 李曙(16대 인조공신) 위패의 '정'은 <small>완봉부원군 증영의정 명정공 이서</small> '定'의 약자이므로 그대로 두어도 무관함. - 시호를 변경하는 위패/위패독은 새로 제작하도록 하고, 기존의 위패/위패독은 고궁박물관에 이관하여 보관토록 함. 			
자문위원	신 승 윤	윤 흥 료	임 든 회	이 기 전
			임 든 회	

민 원 서 류

하양허씨 문경공파 대종회

우712-904:경북경산시하양읍부호1리114. 053)851-1232

문서번호 : 2010-6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종묘공신당에 배향한 공신후손 찾기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서울 종로구 종로155번지 종묘 정전(正殿)앞 공신당 새종묘정에 배향되어 있는 경암(敬庵)의 후손으로 공신 후손들의 친목과 상호교류를 협의코자 하오며,
3. 나아가 그 후손들의 서원향사절차 및 불천위 행사, 서원 운영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본받고 잘못된 점은 시정코자 합니다.
4. 그리고 향사나 대소사에 상호 참여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하오니 별첨 공신 명단에 의거 다망 하실 것으로 사료 되오나 그 후손 대종회 주소 혹은 회장성명, 종손의 주소나 성명을 알려 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5. 경암(敬庵)의 호(號)는 실록 및 모든 문헌에 공경할 경자(敬) 인데 위패와 알래판에 빛경(景)자로 잘못 기록 되어 있었으니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6. 1.

하양허씨 문경공파 대종회 회장 이만호



수신처 : 문화재청 종묘관리 사무소 귀중

3. 조선왕실 어보 보물 지정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청 5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조선왕실 의례의 상징인 어보 및 관련 유물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조선왕실 어보는 오백년 조선왕조 왕권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함.
- 현재까지 파악된 조선왕실 어보 323과 중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316과는 어보뿐만 아니라 보록, 보통, 시가, 의향, 영자 등 모두 완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다. 지정 추진 대상문화재 현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칭 : 조선왕실 어보 및 관련 유물
- 소유자 : 국유
- 소재지 : 국립고궁박물관
- 수량 : 316건 3,372점(어보 316점, 보록 312점, 보통 312점, 자물쇠 217점, 열쇠 194점, 시가 141점, 모전·인주함 48점, 의향 8점, 보자기 900점, 영자 924점)

라. 관련 경과

- 2009년 국립고궁박물관 측, 조선왕실 어보 관련 종합조사
- 2010년 조선왕실 어보 관련 유물정보 DB 구축 완료 및 도록 발간
- 2011년 3월 31일 유형문화재과 조선왕실 어보 지정 계획 보고

- 2011년 4월 7일 조선왕실 어보 지정 관련 관계전문가 회의
 -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 참석자
 - 문화재위원 : 백영자, 윤열수, 신승운, 최응천, 이오희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관련 직원

마. 향후 계획

- 분야별 전문가 3인 이상의 지정 조사 실시(2011. 5월)
- 조선왕실 어보 지정 검토 문화재위원회 개최 및 지정 예고(2011. 6월)
- 조선왕실 어보 지정 심의 문화재위원회 개최 및 지정 고시(2011. 8월)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함.

4.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지정 수량 검토 보고

가. 검토사항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지정 수량에 대한 추진경과 및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 2011.1.21,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수량에 대해 문화재청 및 해인사 홈페이지에 각각 달리 게재하여 일반인의 혼란을 야기, 이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
 - 문화재청 홈페이지 : 81,258매(1962.12 지정 당시의 수량).
 - 해인사 홈페이지 : 81,350매(중복판 108매를 포함).
-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임.

다. 진행경과

- 2011. 2.10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에 조치계획 보고.
- 2011. 2.18,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신승운 위원, 박문열 · 서병패 전문위원)
 - 지정수량 확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불충분하고 서지학적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2011. 3.31, 해인사 대장경판 수량 등 협의(문화재청 및 해인사).
 - 문화재청 및 해인사 홈페이지에 81,258매로 수량을 일치하기로 함. 다만, 해인사 측에서는 종무회의에서 재 논의하기로 함.
 - 중복판 108매에 대한 정밀조사 후 대장경판 지정 수량 추가 여부 결정하기로 함.
- 2011.4.12,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송일기 위원, 남권희 교수, 서병패 전문위원)

- 중복판 108매에 대한 제작연대(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등)를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 수량 추가 범위를 확정.
- 중복판 108매에 대한 디지털 촬영본을 색인하여 제작시기를 비교하도록 함.

- ※ 1999~2010년 대장경DB구축 사업추진(경판 81,242판, 중복판 108판 확인)
 - 81,242판에 대한 제작연대 및 제원, 판가위치, 경명, 경판 부속물, 상태 등을 포함한 목록은 작성했으나, 일부 제작연대 확인 못함.
 - 중복판 108매에 대한 경명 등 목록 작성, 제작연대는 확인 못함.
 - 편년, 분석 등이 가능한 형태 서지학적인 정보가 누락됨.

라. 향후계획(안)

<제 1 안> : 중복판 108판에 대한 정밀조사 후 수량 추가지정 여부 확정

- 중복판 108매에 대한 제작연대(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등)별 목록작성, 이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걸쳐 문화재 수량 추가 지정 범위를 확정.

<제 2 안> : 해인사 대장경판 전체에 대한 서지학적 조사 후 지정 수량 확정

- 대장경판 81,350매의 전체에 대한 제작연대(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등) 확인 및 서지학적 조사 후 지정 수량 재검토.
- 다만, 10년 이상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등 시간적 소요가 요구됨.

마. 검토의견 : 제 1 안으로 검토

- 자문회의(2011.4.12)에서 우선 중복판 108매의 정밀조사를 통해 제작연대를 구분 작성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 수량 추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검토함.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함.